

국립국어원 2014-01-40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40-01

##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연구책임자  
이관규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14년 4월 9일 ~ 2014년 12월 20일

2014년 12월 20일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관규

공동연구원 유현경, 허재영, 신호철  
이동석, 주세형, 김수영

연구보조원 김부연, 유미향, 박보현  
이규범, 이경숙, 정지현, 김미미

보 조 원 신희성, 이지현

<주관 연구 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관규(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유현경(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재영(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신호철(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이동석(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주세형(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김수영(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연구보조원	김부연(신라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유미향(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박보현(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강사)
	이규범(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원)
	이경숙(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 과정)
	정지현(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 과정)
보조원	김미미(고려대학교 박사 수료, 한글 박물관)
	신희성(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 과정)
	이지현(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과정)

##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한글 맞춤법에 대한 영향 평가는 2005년 7월에 새로 도입된 제도인 어문 규범 영향 평가에 근거한다. 국어 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본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는 한글 맞춤법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실질적 내용을 과업으로 하였다.

- ①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실태 조사 방법론
- ②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조사
- ③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 조사
- ④ 한글 맞춤법 관리 방법 개선 여부 및 개선 방향
- ⑤ 한글 맞춤법 오타기 목록 추출
- ⑥ 북한 및 외국의 자국어 표기 규범 실태 및 특징

여섯 가지의 실질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학술 포럼을 공식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진 내부에서 수시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립국어원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과업을 진행하였다. 이제 과업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책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영향 평가 사업은 설문지 문항 작성이 아주 중요하다. 설문지 문항 구성의 기본 사항으로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척도의 대칭성을 확보하였으며, 조사 집단 간 비율 차이 검정은 z 검정(Z-test) 비율 검정 혹은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를 통해서 z 검정 통계량을 구하였다. 또한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정을 위해서는 분산 분석(ANOVA)을 사용하였으며, 이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 사후 검정(Post hoc)을 실시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인의 의식 조사 설문은 한국 갤럽에서 담당하였고 국어학자, 출판인, 언론인, 교사, 국어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의식 조사 설문은 연구팀에서 직접 맡아서 했다.

②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일반인 의식 조사는 인식도 7문항, 이해도와 수용도 23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69세 미만의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해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조항은 ‘총칙 제3항(단어 띄어쓰기 74.9%), 두음 법칙(71.2%), 총칙 제1항(원리 66.9%), ‘ㄴ’의 표기(66.4%), 합성 용언의 표기(65.6%)’ 순으로 나타났고, 수용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조항은 ‘합성 용언의 표기(69.2%), ‘ㄴ’의 표기(69.1%), 두음 법칙(69.1%), 총칙 제3항(단어 띄어쓰기 68.8%), 된소리의 표기(64.8%)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이를 실제 표기에 반영한다는 응답률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③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의식 조사는 두 차례 실시하였다. 당연히 설문 문항도 전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으로 나누어졌다. 전문가들이 볼 때 맞춤법 조항 중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두음 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 부사 파생 접미사’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설문 조사 결과와 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두음 법칙은 일반인의 의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이유는 일반인의 경우 단순히 두음에 ‘ㄹ, ㄴ’이 오지 않는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을 뿐, 두음 법칙의 여러 복잡한 법칙을 알

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게는 ‘열, 율’의 표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구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어두에 ‘ㄹ, ㄴ’이 오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맞춤법의 근본 원리를 나타내는 총칙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은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고 문제가 되는 조항은 개혁이 아니라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에서는 맞춤법 관리 방법 개선 여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고시(告示)로 되어 있는 현 맞춤법의 법적 지위가 타당하며 강제성을 띠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도, 이런 법적 지위라도 어문 정책에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홍보를 위해서는 맞춤법 관련 방송이나 캠페인을 하고 책자나 어플리케이션, 맞춤법 검사기를 보급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에서 맞춤법을 교육하고 올바른 언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⑤ 빈도가 높은 맞춤법 오타기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의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자료(2000년~2013년)와 온라인 가나다 자료를 사용하였다. 오류를 많이 보인 것은 사이시옷 표기 오류가 31.93%로, 2위를 차지한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구별(10.22%) 등 다른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띄어쓰기 오류는 따로 살펴보았는데 ‘수 관형사+단위성 의존 명사’ 오류가 26.32%, ‘체언+의존 명사’ 오류가 24.09%로 많이 나타났다. 오타기 목록에서 높은 순위에 있는 것들은 맞춤법 개정 시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⑥을 위해서 북한을 비롯하여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의 표기 규범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최근에 『조선말규범집』(2010)을 새로이 발간했는데, 형태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전에 비해 더 실용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은 비록 한자와 가나를 함께 사용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관습적인 문자 체제를 존중하여 실제 사용 양상을 더 비중 있게 본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영어권에서는 중앙집권적 표기 규범을 사용하지도 않고 표기법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하여 쉬운 언어 표기를 지향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간편하고 명료한 표기 규범을 지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맞춤법을 엄격히 준수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점차 언어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형태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언어 사용 지역이 워낙 넓은 스페인 어와 포르투갈 어는 그 필요 때문에 일정 정도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발음의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보통 사람들이 맞춤법을 어렵다고 느낀다면 개혁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방향은 언어 사용의 편의성 쪽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어:**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맞춤법 조항, 실태 조사, 일반인 의식 조사, 전문가 의식 조사, 인식도, 이해도, 수용도, 관리 방법, 개선 방향, 오타기 목록, 북한 및 외국의 맞춤법

# 차 례

<b>I. 총괄</b> .....	<b>1</b>
1. 사업명 .....	1
2. 사업 목표 .....	1
3. 사업 개요 .....	2
3.1. 사업 기간 .....	2
3.2. 총 사업비 예산 .....	2
3.3. 사업 범위 .....	2
3.4. 과업 수행자 및 담당 업무 .....	3
4. 수행 결과 및 일정 .....	4
4.1. 수행 결과물 .....	4
4.2. 추진 일정표 .....	4
4.3. 사업의 주요 일정 .....	5
<b>II.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실태 조사 방법론</b> .....	<b>7</b>
1. 일반인 설문 조사 방법 .....	7
1.1. 연구의 목적 .....	7
1.2. 용어의 개념 .....	7
1.3. 문항 구성의 기본 사항 .....	10
1.4. 일반인 설문 조사 과정 및 방법 .....	13
2. 전문가 설문 조사 방법 .....	19
2.1. 연구 목적 .....	19
2.2. 연구 방법 .....	19
2.3. 기본 가정 및 특성 .....	19
2.4. 전문가 선정 .....	20
2.5. 전문가 설문 조사 과정 및 방법(Ⅰ) .....	21
2.6. 전문가 설문 조사 과정 및 방법(Ⅱ) .....	23
3. 정리 .....	24
3.1. 요약 .....	24
3.2. 제언 .....	25

<b>III.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조사</b>	<b>26</b>
1. 조사 목적과 설계	26
1.1. 조사 목적	26
1.2. 조사 설계	26
2. 조사 결과 분석(Ⅰ): <한글 맞춤법> 자체에 대한 인식도	29
2.1. 문항별 [문1-7] 인식도 통계치	29
2.2. 응답자 특성별 인식도 분석	33
3. 조사 결과 분석(Ⅱ): 이해도 및 수용도	35
3.1. 문항별 [문8-30] 이해도 및 수용도의 통계치	36
3.2. 응답자 특성별 이해도 및 수용도 분석	64
3.3. 항목별 응답률에 따른 이해도 및 수용도 분석	67
4. 정리	75
4.1. 요약	75
4.2. 제언	76
<b>IV.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 조사</b>	<b>78</b>
1.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 조사(Ⅰ)	78
1.1. 전문가 의식 조사(Ⅰ) 개요	78
1.2. 총칙 및 한글 자모의 종류, 순서, 이름	79
1.3. 두음 법칙 및 사이시옷	82
1.4. 띄어쓰기 및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의 표기	85
1.5. 기타 의견 및 한글 맞춤법 개정	90
2.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 조사(Ⅱ)	95
2.1. 전문가 의식 조사(Ⅱ) 개요	95
2.2. 한글 자모의 이름과 수 및 받침 글자	96
2.3. 두음 법칙과 접미사 ‘-히’ 및 표기의 역사적 변천 고려	101
2.4. 사이시옷 표기	106
2.5. 띄어쓰기	110
2.6. 한글 맞춤법의 복수 표기 인정 및 표준어 규정 관련	116
2.7. 한글 맞춤법의 주체 및 폐지, 그리고 법적 지위	119

3. 정리 .....	122
3.1. 1차 전문가 설문 결과 요약 .....	122
3.2. 2차 전문가 설문 결과 요약 .....	123
3.3. 1차와 2차 전문가 의식 조사의 비교 및 제언 .....	125

## V. 한글 맞춤법 관리 방법 개선 여부 및 개선 방향 ..... 127

1. 한글 맞춤법 관리의 의의 .....	127
2. 한글 맞춤법의 관리 방법 .....	128
2.1. 1차 전문가 의식 조사 .....	128
2.2. 2차 전문가 의식 조사 .....	136
3. 정리 .....	137
3.1. 요약 .....	137
3.2. 제언 .....	138

## VI. 한글 맞춤법 오타기 목록 추출 ..... 139

1.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	139
2. 소리에 관한 것 .....	140
2.1. 된소리 관련 규정 .....	140
2.2. 구개음화 관련 규정 .....	141
2.3. 모음 관련 규정 .....	141
2.4. 두음 법칙 관련 규정 .....	142
2.5. 겹쳐 나는 소리 관련 규정 .....	144
3. 형태에 관한 것 .....	144
3.1. 어간과 어미 관련 규정 .....	146
3.2.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관련 규정 .....	148
3.3.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관련 규정 .....	149
3.4. 준말 관련 규정 .....	150
4. 띄어쓰기 .....	151

5. 그 밖의 것 .....	153
5.1. 부사 끝 음절 ‘이’와 ‘히’ 관련 규정 .....	153
5.2. 한자어의 본음과 속음 적기 .....	154
5.3. 된소리가 나는 어미와 접미사 관련 규정 .....	154
5.4. 의미 구별하여 적기 관련 규정 .....	155
6. 정리 .....	156
6.1. 요약 .....	156
6.2. 제언 .....	157
<b>VII. 북한 및 외국의 자국어 표기 규범 실태 및 특징 .....</b>	<b>159</b>
1. 조사 목적 및 대상 .....	159
2. 북한 .....	159
2.1. 북한의 어문 규범 변화 .....	159
2.2. 남북한의 맞춤법 비교 .....	160
3. 일본 .....	165
3.1. 일본의 언어 정책과 표기 변화 .....	165
3.2. 개정된 상용한자표 .....	168
4. 영국 .....	171
4.1. 영어 철자의 변화 .....	171
4.2. 영어 철자 협회의 활동 및 의의 .....	173
5. 미국 .....	176
5.1. 철자 개혁을 위한 노력 .....	176
5.2. 공공 언어 사용 법령 및 지침 .....	176
6. 호주 .....	181
6.1. 호주 영어의 변화 .....	181
6.2. 호주 영어의 표기 규범 변화 .....	182

7. 독일 .....	185
7.1. 독일의 표기 변화 .....	186
7.2. 개정된 맞춤법 .....	186
7.3. 개정 이후 남은 문제 .....	188
8. 프랑스 .....	190
8.1. 프랑스의 언어 정책과 표기 변화 .....	190
8.2. 개정된 맞춤법 .....	191
9. 스페인 .....	194
9.1. 스페인 왕립 한림원과 표기 변화 .....	194
9.2. 개정된 맞춤법 .....	195
10. 브라질 .....	197
10.1. 브라질 포르투갈 어의 변화 .....	198
10.2. 개정된 맞춤법 .....	198
11. 정리 .....	201
11.1. 요약 .....	201
11.2. 제언 .....	202
<b>VIII. 총정리: 요약과 제언 .....</b>	<b>204</b>
 참고 문헌 .....	 214

#### <부록>

1. 일반인 설문지
2. 전문가 설문지(1차)
3. 전문가 설문지(2차)

- <별책>
1. 실태 조사1: 일반인 설문 개별 조향에 대한 실태 조사 (담당: 한국 궤럽)
  2. 실태 조사2: 1차 전문가 설문 개별 조향에 대한 실태 조사 (담당: 연구팀)
  3. 실태 조사3: 2차 전문가 설문 개별 조향에 대한 실태 조사 (담당: 한국 궤럽, 연구팀)
  4. 실태 조사4: 오폭기 목록표
  5. 실태 조사5: 각국의 정서법 규정
  6. 각종 회의록: (1) 전문가 세미나1,2 (2) 자문회의 1,2 (3) 포럼  
(4) 중간 보고회 (5) 최종 보고회



# I. 총괄

## 1. 사업명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 2. 사업 목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영향 평가는 2005년 7월에 새로 도입된 제도인 어문 규범 영향 평가에 근거한다. 국어 기본법 제12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한글 맞춤법>이 국민의 국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개별 조항 또는 규범 관리 방법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분석하고, 실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며, 북한을 포함한 외국의 다양한 표기 관련 정책을 정리해야 한다. 이 같은 작업은 <한글 맞춤법> 개선안 마련의 기초 자료가 된다.

결국 본 과업의 본질적 목적은 <한글 맞춤법>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이다. 이를 위해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의 의식을 조사하고, 정연한 조사 방법론에 근거하여 개별 조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외국(북한 포함)의 자국어 표기 규범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한글 맞춤법> 규범의 관리 방법 개선 여부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을 실질적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 (1) 본질적 목적

<한글 맞춤법>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2) 실질적 목표

- ① <한글 맞춤법>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의 의식 조사
- ②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실태 조사 방법론 개발
- ③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실태 조사
- ④ <한글 맞춤법> 규정 관리 방법 개선 여부 및 개선 방향 도출
- ⑤ 외국(북한 포함)의 자국어 표기 규범 관련 정책 조사 및 연구
- ⑥ 관련 학술 발표회 개최

이처럼 과업의 목적을 본질적 목적과 실질적 목표로 이원화한 것은 본질과 실재를 구별하고 과업의 목표에 내실을 기하여 과업 수행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여섯 개로 제시된 실질적 목표는 단독으로 수행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유기적 상호 관련 속에서 본질적 목적인 ‘<한글 맞춤법>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 3. 사업 개요

#### 3.1. 사업 기간

2014년 4월 9일~2014년 12월 20일

#### 3.2. 총 사업비 예산

110,252,990원(일억 일천이십오만 이천구백구십 원)

#### 3.3. 사업 범위

연구팀은 본 사업(이하 과업)의 범위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내용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와 지역적 범위가 그것인데, 과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 과업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였다. 우선 본 과업에서 요구하는 주된 사항으로 과업의 목표와 부합하는 내용적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는 주요 사업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내용적 범위에는 <한글 맞춤법> 규정 일반에 대한 인식도·이해도·수용도 설문조사, <한글 맞춤법> 규정 개별 조항 관련 실태 조사, <한글 맞춤법> 규정 운용의 정책 효과 분석, 외국(북한 포함)의 자국어 표기 규범 관련 정책·제도·규정 실태 및 효과 조사 등이 포함된다.

과업이 시기적으로 단기간임을 주지시키는 조치로, 과업의 시작에서 완수 시점을 제한하는 시간적 범위를 규정하였다. 과업 기간은 2014년 4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9개월이 채 안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과업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된 편파적 결과물 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팀은 지역적 다양성과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일반인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업의 범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3) 과업의 범위

##### 가. 내용적 범위

- ①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실태 조사 방법론
- ②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실태 조사
- ③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 실태 조사
- ④ 한글 맞춤법 관리 방법 개선 여부 및 개선 방향

⑤ 한글 맞춤법 오표기 목록 추출

⑥ 북한 및 외국의 자국어 표기 규범 실태 및 특징

⑦ 관련 학술 발표회(포럼) 개최

나. 시간적 범위: 2014년 4월 9일~12월 20일

다. 지역적 범위: 전국 포괄(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총 6개 권역)

### 3.4. 과업 수행자 및 담당 업무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담당 업무	비고
책임 연구원	이관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과업 총괄 • 조사 방법론 개발 및 발표회 기획	
공동 연구원	6 유현경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외국 사례 정리 및 분석 •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5 허재영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 규범 관리 방법 개선 방안 도출 •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1 신호철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오표기 목록 실태 조사 및 분석 • 학술 발표회 및 세미나	
	3 이동석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전문가 의식 조사 결과 분석 •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4 주세형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 일반인 의식 조사 결과 분석 •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김수영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조사 방법론 개발 • 통계 자료 분석 내용 검토	
연구 보조원	1 김부연	신라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 오표기 목록 조사 및 분석 • 학술 발표회 및 세미나	
	6 유미향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외국 사례 정리 및 분석 •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박보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강사	• 조사 방법론 개발 •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1 이규범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원	• 오표기 목록 조사 분석 • 학술 발표회 및 세미나	
	3 이경숙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 과정	• 전문가 의식 조사 결과 분석 •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7월 15일~ 12월 20일
	4 정지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 과정	• 일반인 의식 조사 결과 분석 •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3 김미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글 박물관	박사 수료	• 선행 연구 분석 및 방법론 도출 •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4월 9일~ 7월 6일
보조원	5 신희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 과정	• 규범 관리 방법 개선 방안 도출 • 행정 업무 및 책임 연구원 업무 보조	
	2 이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과정	• 조사 방법론 개발 • 통계 자료 분석 내용 작성 및 검토	

※ ‘구분’에서 1~6은 역할에 따른 팀별 번호를 나타냄.

## 4. 수행 결과 및 일정

### 4.1. 수행 결과

이 사업의 수행 결과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최종 보고서(국문) 인쇄물 100부, CD 10부

▲ 중간 보고서 5부

### 4.2. 추진 일정표

월	주	주요 내용		담당자	비고
4월	1~2	• 발주처와 용역 계약		참여 연구원, 국립국어원	회의
	3~4	• 착수 보고회 개최 • 조사 방법론 개발		참여 연구원, 국립국어원	국어원
5월	1~2	• 예비 설문 문항 작성 • 북미권 어문 규범 정책 분석 • 규범 관리 방법 개선 방향 도출		책임, 공동, 연구 보조원, 국립국어원	회의
	3~4	• 예비 조사	일반인 50명	책임, 공동, 연구 보조원	회의
			전문가 5명		
6월	1~2	• 북한의 어문 규범 정책 분석 • 1차 자문 회의		자문 위원, 책임, 공동, 연구 보조원	고려대
	3~4	• 설문지 문항 수정·보완 1~2차 • 규범 관리 방법 개선 방향 도출		책임, 공동, 연구 보조원	회의
7월	1~2	• 설문지 문항 수정·보완 3~4차		책임, 연구 보조원	회의
	3~4	• 설문지 문항 수정·보완 5~6차 • 동아시아권 정책 분석		책임, 공동, 연구 보조원, 국립국어원	회의
8월	1~2	• 본조사: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 제1차 전문가 세미나 개최		한국갤럽	갤럽
	3~4	• 본조사: 일반인 및 전문가(1차) 대상 • 제2차 전문가 세미나 개최		한국 갤럽, 참여, 공동, 연구 보조원	연구팀

9월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조사: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li> <li>• 전문가 심층 설문 조사 정리</li> <li>• 전문가 2차 설문지 작성</li> </ul>	책임, 공동, 책임, 공동, 연구 보조원 국립국어원	회의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2차 설문지 작성</li> <li>• 유럽권 어문 규범 정책 분석</li> <li>• 규범 관리 방법 개선 방향 도출</li> </ul>	책임, 공동, 연구 보조원	회의
10월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포럼 실시</li> <li>• 규범 관리 방법 개선 방향 도출</li> </ul>	책임, 공동, 연구 보조원	고려대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2차 설문 조사</li> <li>• 중간 보고회 개최</li> <li>• 중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li> </ul>	책임, 공동, 연구 보조원	연구팀 국어원
11월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2차 설문지 분석</li> <li>• 국립국어원의 의견을 수렴</li> <li>• 해당 내용 수정 및 보완</li> </ul>	국립국어원, 책임, 공동 연구원	회의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자문 회의</li> <li>• 과제 보고 내용 수정 보완</li> </ul>	자문 위원 책임, 공동, 연구 보조원	회의
12월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보고회 개최</li> <li>• 최종 보고서 작성</li> </ul>	책임, 공동, 연구 보조원	국어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업 마무리</li> <li>• 최종 보고서 제출</li> </ul>	책임, 공동, 연구 보조원	연구팀

#### 4.3. 사업의 주요 일정

- ▲ 한글 맞춤법 규정 내용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4월 15일~5월 1일)
- ▲ 착수 보고회 (장소: 국립국어원, 4월 22일)
- ▲ 한글 맞춤법 설문 조항 및 대표 어휘 선정 (4월 22일~4월 29일)
- ▲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를 위한 북한 및 외국의 어문 규범 정책 분석 (4월 25일~11월)
- ▲ 예비 조사용 일반인 및 전문가 설문지 작성 (4월 30일~5월 28일)
- ▲ 일반인 설문 예비 조사 (담당: 한국 갤럽, 5월 30일~6월 3일)
- 전문가 설문 예비 조사 (담당: 연구팀, 5월 30일~6월 3일)
- ▲ 1차 자문회의 (장소: 고려대, 6월 12일)
- ▲ 본조사용 일반인 1차 설문지 작성 (6월 16일~7월 30일)

- ▲ 1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 (장소: 고려대, 전문가: 박덕유(인하대), 7월 18일)
- ▲ 2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장소: 고려대, 전문가: 최경봉(원광대), 7월 28일)
- ▲ 일반인 설문 본조사 실시 (담당: 한국 갤럽, 8월 1일~9월 12일)
- ▲ 전문가 1차 설문 진행 (담당: 연구팀, 8월 20일~9월 9일)
- ▲ 본조사용 전문가 2차 설문지 작성 (9월 10일~9월 24일)
- ▲ 전문가 2차 설문 진행 (담당: 연구팀, 9월 25일~10월 17일)
- ▲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포럼 개최 (장소 고려대, 토론자: 구본관(서울대), 나찬연(경성대), 임칠성(전남대), 10월 6일)
- ▲ 중간 보고회 (장소: 국립국어원, 10월 23일)
- ▲ 2차 자문회의 (장소: 고려대, 11월 20일)
- ▲ 최종 보고회 (장소: 국립국어원, 12월 11일)
-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담당: 연구팀, 12월 20일)

## II.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실태 조사 방법론

### 1. 일반인 설문 조사 방법

#### 1.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이전의 어문 규범, 문장 부호,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등에 대한 영향 평가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을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에 적절한 조사 및 통계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제까지 국어 분야의 영향 평가 및 실태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개념들이 각 보고서에서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문항을 구성할 때 기본이 되는 원칙들을 도출하고 개념화하였다. 또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예상되는 통계적 분석 부분에서는 검정의 기초와 자료 분석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 1.2. 용어의 개념

여기에서는 어문 규범들의 영향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식도(혹은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라는 용어가 기존 보고서들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본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에서는 그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살펴보고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각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기존 영향 평가 보고서의 용어 개념 검토

	연구명	조사 내용	문항 예시
인식도 (혹은 인지도)	어문 규범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현대리서치연구소, 2005)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어문 규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인지도로 파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의 각각의 세부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평상시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li> <li>-응답: 3점 척도(아주 잘 앎, 보통, 거의 모름)</li> </ul>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문장 부호 규정을 알고 있는지, 또 실제로 참고하는지 등을 조사함. 인지도를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부터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확대해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1: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이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li> <li>• 문항 예시2: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규정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li> <li>-응답: 2점 척도(안다, 모른다)</li> <li>• 문항 예시3: “문장 부호 규정을 알고 있으면, 글을 쓸 때 참고하십니까?”</li> <li>-응답: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li> </ul>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국 립 국 어 원 , 2011)	일반인 대상 설문 조사에서 표준어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를 인지도로 정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 “우리나라에 표준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li> <li>-응답: 3점 척도(잘 알고 있음, 들어봤지만 정확히 모름, 잘 모름)</li> </ul>
이해도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 개발을 위한 실태 조사 결 과 보고서(국 립 국 어 원 , 2010)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표준 발음법 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 실제 로 규범에 따른 정답을 아는 것을 이해도로 파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 한글 맞춤법 관련 문항 예시: 오늘 네가 입은 옷은 {①무니, ②무늬}가 참 독특하다.</li> <li>-두 가지 보기 중 올바른 응답을 하면 이 규정에 대해 이해를 한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li> </ul>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국 립 국 어 원 , 2012)	언어 표현들 각 항목이 표준 발음법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 는 경우 이해도가 있다고 판 단함. 실제로 규범에 따른 정 답을 아는 것을 이해도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 아래의 각 항목이 표준 발음법 에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물을 보는 '눈[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 눈[눈:]'처럼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한 다.”</li> <li>-응답: 2점 척도(그렇다, 아니다)</li> </ul>
수용도	어문 규범 영 향 평가 결과 보고서(현대리 서치연구소, 2005)	맞춤법과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향성에 대한 인식과 규범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 등을 수 용도로 파악함. ‘수용도가 높 다 혹은 낮다’라는 결론이 아 닌 그에 대한 질적인 이유를 조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 “국어 생활을 하면서, ‘네가 좋아’를 ‘니가 좋아’로, ‘나도 가고요’를 ‘나 두 가구요’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문장 부호 규 정 개정의 정 책 효과 연구 (문화체육관광 부, 2010)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수용 도는 해당 문장 부호의 사용 환경을 알고 있는지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 을 표시할 적에 온점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li> <li>-응답: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li> </ul>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국 립 국 어 원 , 2011)	응답자가 각 항목을 어느 정 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와 표준어 및 표준어 규정에 대 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를 수용도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 는 현대 서울말”을 기준으로 표준어를 정하 는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응답: 5점 척도(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타당한 편이 다, 매우 타당하다)</li> </ul>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국 립 국 어 원 , 2012)	표준 발음을 정하는 세부적인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 타당 하다고 생각하는지와 표준 발 음 및 표준 발음법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1: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 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 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를 수용도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2: “표준 발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응답: 5점 척도(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타당한 편이다, 매우 타당하다)</li> </ul>
--	--	-----------------------	---

<표 1>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인식도(혹은 인지도)’는 대부분의 영향 평가에서 일관되게 정의하였다. 선행 연구 보고서에서는 ‘인지도’를 ‘알고 있는지’ 여부 확인 차원에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인식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 ▲ ‘이해도’는 영향 평가마다 그 개념이 다르게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는 데 차이를 보였다. 이해도를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고 측정해야 할지, 아니면 이전의 몇몇 연구 보고서들에 서처럼 실제로 정답을 아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
- ▲ ‘수용도’에 대한 개념 또한 보고서마다 차이를 보였다. 수용도를 경향성에 대한 인식으로 보기도 하고, 사용 환경을 알고 있는지로 보기도 하고, 규정의 타당성 혹은 필요성으로 보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었다.

기존 연구 보고서의 개념들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서는 ‘인식도, 이해도, 수용도’를 설문문의 내용으로 정하고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지도’ 대신 ‘인식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문항들을 모두 설문문에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인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후자는 설문에 넣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2> 본 영향 평가 조사에서의 용어 개념

	조사 내용	문항 예시
인식도	한글 맞춤법 규정 자체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평소 인식 수준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생활에서 한글 맞춤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등.</li> <li>-응답: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li> </ul>
이해도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일반인들의 주관적인 이해 수준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 각 개별 조항 제시 후,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li> <li>-응답: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li> </ul>
수용도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일반인의 규정 준수 수준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예시: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li> <li>-응답: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li> </ul>

### 1.3. 문항 구성의 기본 사항

#### 1.3.1. 측정

각 구인(構因)을 정의하였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은 측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올바른 척도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척도의 구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한다.

##### 1.3.1.1. 척도의 구성

개인의 태도, 가치, 신념과 같은 추상적인 심리적 변수를 수치화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잴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사회과학에서 널리 쓰이는 척도 중 하나는 리커트 척도이다(박도순, 2004). 만약 조사하려는 개념이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면 리커트 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척도를 ‘서열 척도(Ordinal Scale)’라고 하며 응답지에 응답자가 서열을 매겨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재기 때문에 개인마다 각 응답지 간 간격을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척도끼리 수리적 연산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의 구인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문항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점수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해도’라는 구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23개의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합산한 것이 응답자의 ‘이해도 크기’로 여겨질 수 있다.

##### 1.3.1.2. 리커트 척도의 구성

리커트 척도는 대개 강한 부정부터 강한 동의까지에서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선택지는 3개, 4개, 5개, 7개 등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4점 혹은 6점 척도의 경우 중도점을 제거함으로써 중도로 응답하려는 경향을 배제할 수 있고, 5점 혹은 7점의 경우에는 연속선 상의 다양한 반응을 포함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만약 조사하려는 내용이 ‘안다, 모른다’ 혹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응답해야 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두 가지 선택지로 이루어지는 척도인 이분형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척도가 조사하려는 개념과 상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1.3.1.3. 척도의 통일 필요

동일한 하위 구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척도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자료를 수치화하여 분석할 때에도 이점이 있다. 그런데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0)에서는 인지도를 측정하는 몇 문항들은 2점 척도, 그리고 다른 문항들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한글학회, 2010)에서 만족도라는 구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척도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자료의 통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 1.3.1.4. 척도 대칭성

척도의 응답지는 긍정과 부정 응답이 대칭이 되어야 한다. 심리적 특성은 연속선 상에 있으므로 임의의 점(예를 들어, 0)을 중심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만약 응답지가 긍정 혹은 부정으로 편포(偏布)되었다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특정 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문 규범 영향 평가 보고서’(현대리서치, 2005)에는 어문 규범의 필요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앞으로 어문 규범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점 척도를 사용하려면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 1.3.2. 검정의 기초와 분석 방법

#### 1.3.2.1. 검정의 기초

연구자가 조사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모집단, 즉 우리나라 전 국민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인구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적절한 통계적 검정 방법은 표본에서 나타난 자료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고 결론을 일반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표본 수치의 비교는 조사한 표본에 대한 설명에서만 그칠 뿐이다. 예를 들어, 표본에서 얻어진 남자의 이해도 점수 평균이 3.62이고 여자의 이해도 점수 평균이 3.85라면, 실제 모집단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집단에서는 실제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을지라도, 우연, 즉 오차 때문에 표본 평균치들 간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모집단에서 점수의 차이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수치화된 자료로 통계적 분석을 할 때,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등 하위 집단별로 응답 비율을 사용하여 단순한 빈도 비교를 하였다. 예를 들어, “표준어 규범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남자가 45.6%이고 여자가 50.2%이므로 여자가 남자보다 표준어 규범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비율이 높게 나오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이 인지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이 두 집단은 표본에서뿐만 아니라 모집단에서 실제로 다른가? 통계적으로 두 집단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단순한 수치 비교로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결론은 조사한 표본 내에서만 성립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검정이 필요하다.

또한 만약 응답을 분석하고 통계적 검정을 하여 모집단에 일반화하여 결론을 내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와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도 자세히 보고해야 한다. “어문 규범의 단계적 교재 개발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국립국어원, 2010)에서는 집단별 특성을 전체 평균에 비교하였다. “이해도의 경우, 전체 평균에 비해 응답자 특성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필요성의 경우, 대학생과 공무원이 전체 평균보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어떠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어떤 유의수준에서 위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 1.3.2.2. 검정 결과 해석

통계적 검정을 한 후에는, “유의수준 5%하에서 이해도에 대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때 ‘유의수준’은 잘못 판단하여 결론을 내릴 확률을 의미한다. 통계적 검정에서 우리는 표본에 기반하여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언제나 틀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모집단에서 남녀 집단 간 이해도에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 사회과학이나 교육 분야에서는 대부분 5%로 통제한다. 즉, 95%의 확신을 가지고 통계적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statistically significant)”라는 말은 어떠한 가설이 주어진 기준(유의수준)에 따라서 검증되고, 기각되었다는 의미이다. 보통 검정의 기본적인 가정이 되는 가설은 영가설로서 “집단 간 차이가 없다” 혹은 “어떠한 효과가 없다”와 같은 명제이다. 이에 반대되는 대립가설은 “집단 간 차이가 있다” 혹은 “어떠한 효과가 있다”와 같은 명제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주장,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영가설을 기각했을 때 수용되는 가설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영가설은 “어떤 집단 간

차이가 없다”이며, 대립가설은 “어떤 집단 간 차이가 있다”가 된다. 따라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말은 정해진 유의수준하에서 영가설을 검증하여 이를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했다는 의미이다.

이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말이 실제로 ‘중요한’, ‘의미 있는’ 혹은 ‘실질적인’이라는 용어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 오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즉, 확률적으로) 평균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연구에서 실제로 중요한 차이인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표본 크기가 커진다면 표준오차가 작아짐으로써 집단 간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검정과 더불어 연구자의 이론적 해석이 필수적이다.

#### 1.3.2.3. 비율 차이 비교

집단 간 비율 차이 검정에는 ‘z 검정(Z-test)’과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이 사용된다. 카이제곱 검정은 세부적으로 동질성(Homogeneity) 연구와 독립성(Independence) 연구 등 두 가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남녀집단 간 어떤 속성이 유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동질성 검정을 한다. 이것은 두 집단의 응답 비율이 같다는 가정하에서, 조사를 통해 실제로 얻은 값과 기대된 값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이 가정이 기각된다면,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응답 비율이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응답 비율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z 검정을 사용한 비율 검정은 분석 전 예상(가설)에 따라 어떤 집단이 높거나 낮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 통계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준통계 소프트웨어 통계프로그램(이하 SPSS)에서는 z 분포를 이용한 비율 검정을 허락하지 않으며, 두 집단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에서 나온 검정 통계량에 제곱근(root)을 씌우고 비율 차이에 따른 부호를 정해 주면 z 검정 통계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z 검정 통계량에 기반해 계산한 p치(p值, p-value)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나온 p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z 검정을 세 집단 이상의 비율비교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SPSS를 사용할 수 없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손으로 직접 계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영향 평가는 사전에 존재하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 연구라기보다는 실태 조사에 가깝기 때문에, 높고 낮음을 언급하는 검정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1.3.2.4. 평균 차이 비교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보고서”(국립국어원, 2012)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에 응답한 수치를 사용하여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항목별로 단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 방언권별, 연령별 차이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평균이 4.40이라면 수용도가 높은 것이고 3.59라면 수용도가 낮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인 3점은 척도에서 중간점이지만, 이것이 수용도의 평균점은 아니다. 따라서 3점보다 높다고 해서 수용도가 높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또한 표본에 기반한 평균 수치의 단순 비교로 어떤 집단이 더 수용도가 높은지를 말할 수 없다. 이때는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한 통계적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분석 전에 고려할 점은, 알고 싶은 것이 인식도, 이해도, 수용도라는 구인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각 구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문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문항들은 합쳐져서 하나의 구인을 측정한다. ‘한글 맞춤법’의 인식도, 이해도, 수용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고 싶다면 각 구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대하여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하면 된다.

#### 1.3.2.5. 분산 분석(ANOVA)

리커트 척도를 이용해 수집한 자료의 합산 점수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 검정을 위해서는 분산 분석(ANOVA)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집단 간 차이가 집단 내 차이와 비교하여 얼마나 충분히 큰지를 판단하고, 그에 기반해서 통계적인 집단 간 평균 차이 유무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만약 집단 간 차이가 크더라도, 각 집단 내 차이 또한 충분히 크다면 두 집단이 구별되지 않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집단 간 차이가 작더라도, 각 집단 내 차이가 충분히 작다면 집단은 구별된다. 즉, 우연이나 여러 오차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큰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각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는 통계적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종속 변수, 즉 인식도, 이해도, 수용도가 연속성을 지닌 양적 변수이어야 하며, 또한 각 집단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고 각 집단 간 점수의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분산성으로, “각 집단의 모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 간 등분산성을 확인하는 통계적 방법 중 하나인 레빈 검정(Levene's test)을 사용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레빈시험의 영가설은 “집단 간 분산이 같다”이므로, 검정 결과 영가설이 기각된다면 “집단 간 분산이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즉, 레빈 검정에서는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아야 다음 단계인 분산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레빈 검정의 영가설이 기각되어 각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산 분석 대신에 웰치 f 검정(Welch F-test)와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집단 평균을 비교하여야 한다.

성별처럼 남녀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t 분포에 의한 t 검정을 실시하면 된다. 즉 ‘독립표본 t 검정(two independent samples t-test)’을 한다. 이는 두 개의 독립된 표본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t 검정 또한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하므로, 만약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웰치아스핀(Welch-Aspin) t 검정을 한다. 검정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남녀 집단 간 이해도가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위와 같은 통계적 결정은 잘못 판단할 확률 5%(유의수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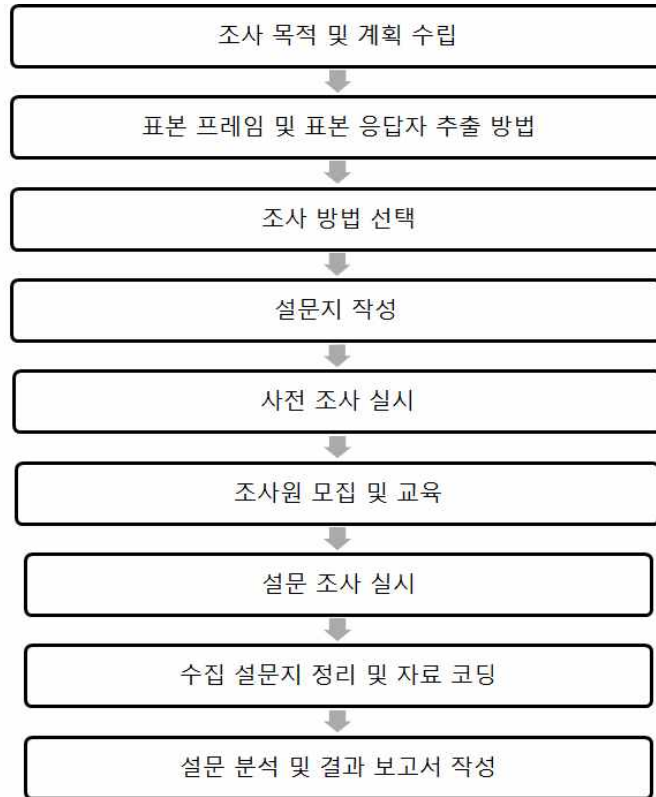
#### 1.3.2.6. 사후 분석(Post-hoc)

지역, 연령처럼 세 집단 이상을 동시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f 분포에 의한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한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다면, 사후 검정(Post-hoc)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 집단으로 분산 분석을 하였는데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다면, 이는 적어도 세 집단의 어떤 조합 중 적어도 하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떤 두 집단 간 혹은 세 집단 모두에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사후 검정이다. 사후 검정 후 결과를 보고, “학력 집단 중 대학 이상의 학력 집단과 고등학교 학력 집단의 이해도가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후 검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터키의 중요한 차이(Tukey's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HSD)) 절차는 두 집단씩 짝지은 비교만 하는 경우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전체적인 유의수준을 일정한 수준 내에서 잘 통제하면서 집단 간 통계적 차이를 잘 발견하는 사후 분석 방법이다.

### 1.4. 일반인 설문 조사 과정 및 방법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를 위한 일반인 설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림 1> 설문 조사 순서



일반인 설문은 한국 갤럽에서 맡아서 진행했다. 즉 ‘표본 프레임 및 표본 응답자 추출 방법’과 ‘사전 조사 실시’,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설문 조사 실시’, ‘수집 설문지 정리 및 자료 코딩’ 등은 한국 갤럽에서 담당하였다. 그리고 ‘설문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은 다른 장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여기서는 ‘조사 목적 및 계획 수립’, ‘조사 방법 선택’, 그리고 설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설문지 작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겠다.

#### 1.4.1. 조사 목적 및 계획 수립

##### 1.4.1.1. 조사 목적

본 설문 조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은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 ▲ 목적: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의 관련 정책, 규정 운용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규정의 형식, 운용 및 맞춤법 개별 조항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필요성: 현행 한글 맞춤법은 1980년대에 정비된 것으로 그동안의 언어 환경 변화, 국민의 의식 변화 등을 조사하여 개선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1.4.1.2. 조사 계획 수립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계획에는 설문 대상과 조사 방법 및 시기, 설문 조사 내용에 대한 것이 포함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설문 조사 대상: 한글 및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 1,000명 이상
- 설문 조사 방법: 설문지법을 사용하는 면접 조사
- 조사 시기: 2014년 5월 중순 예비 조사 실시  
2014년 8월~9월 본조사 실시
- 설문 조사 내용: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인식도·이해도·수용도

#### 1.4.2. 조사 방법 선택

설문 조사 방법에는 대개 면접 조사(일대일, 그룹), 우편 조사, 전화 조사, 컴퓨터 조사, 인터넷 조사 등이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연구 목적, 조사 내용, 조사 대상, 소요 시간 및 비용, 응답률, 응답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 면접 조사 방법을 택하였다. 면접 조사는 응답률이 높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즉각적인 설명이 가능하여 신뢰성이 높은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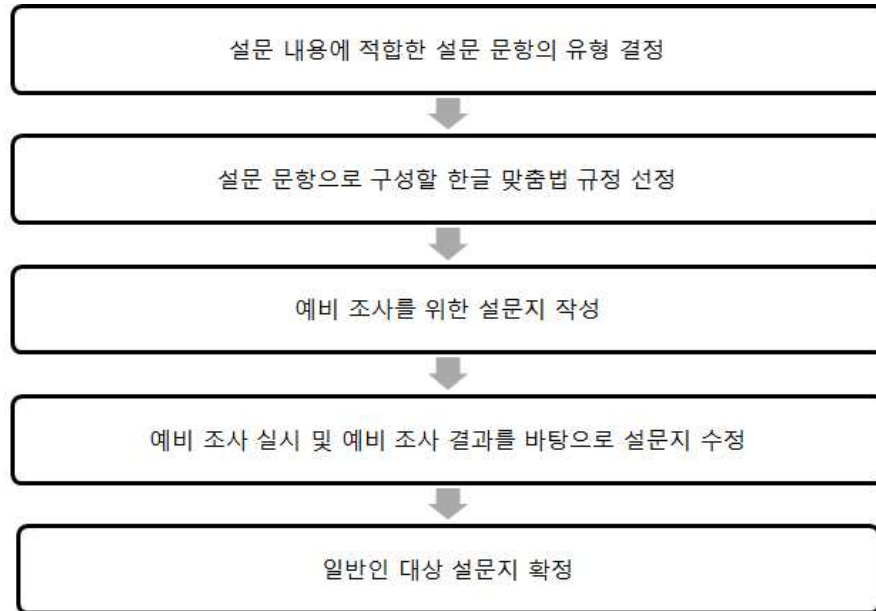
본 연구의 경우 설문 문항 수가 적지 않고, 설문 문항의 내용이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원이 추가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면접 조사 방법을 택한 것이다.

#### 1.4.3. 설문지 작성

연구 목적에 맞는 의미 있는 설문 조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설문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고 여러 차례의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쳐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를 위한 일반인 설문지 작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과정은 거쳐 이루어졌다.

<그림 2>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를 위한 일반인 설문지 작성 과정



설문 내용에 적합한 설문 유형을 결정하기까지 기존 연구를 여러 차례 검토하고 수차례의 전문가 협의를 거쳤으며 설문 문항으로 구성할 한글 맞춤법 규정 선정을 위해서 연구원들 간의 자체적인 사전 설문 결과와 오폭기 목록 작업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작한 설문지로 예비 조사를 한 후 예비 조사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최종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일반인 대상 설문지의 구성과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일반인 대상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구성		문항 번호	문항 수	비고
1	설문에 대한 소개 및 안내				
2	응답자 기초 정보			3개	거주지, 성별, 연령
3	설문 문항	가. <한글 맞춤법> 자체에 대한 인식도	문1~문7	7개	총 30문항
		나.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	문8~문30	23개	
4	자료 분류용 질문			2개	직업, 학력
5	면접 후 기록				응답자 성명 및 전화번호, 면접원 성명

<표 4> ‘한글 맞춤법’ 자체에 대한 인식도 예시 문항

문1) 우리나라에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2) 언론, 출판, 공문서 등 모든 공적인 상황에서 〈한글 맞춤법〉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3)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4)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한글을 사용하여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다.  
2. 표준어 규정을 강화한다.  
3. 국어사전을 보강하여 참고하게 한다.

<표 5>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 예시 문항

문10)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깍두기 (O) - 깍뚜기 (X), 몹시 (O) - 몹씨 (X),	법석 (O) - 법씩 (X) 썩둑 (O) - 썩둑 (X)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11)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는다.

예	무늬 (O) - 무니 (X), 희망 (O) - 히망 (X),	띄어쓰기 (O) - 띠어쓰기 (X) 하늬바람 (O) - 하니바람 (X)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이와 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일반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상세히 제시해 두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조사 항목과 자료 분류용 기준 및 조사 대상 인원을 기존의 어문 규범 영향 평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연령	직업	학력	항목	기타
외래어 표기법(국립국어원, 2010)	각 언어권(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구분 없음.	[각 언어권별] 기업, 학술, 출판 <3>	구분 없음.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표준어 규정(국립국어원, 2010)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8>	10, 20, 30, 40, 50, 60대 이상 <6>	사무직, 생산직, 자영업, 농림수산업, 주부, 학생, 무직/기타 <7>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초졸 이하 <4>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일반인 3,000명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2010)	영어로마자권(3), 비영어로마자권(4), 비로마자권(5) <3 또는 12>	20대, 30대, 40대 이상 <3>	일반인, 직무종사자, 언어전공자 및 전문가 <3>	구분 없음.	만족도, 수용도	일반인 440명
표준 발음법(국립국어원, 2012)	중부, 동남, 서남, 제주 <4>	19세 이하,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4>	농업/어업/임업,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12>	구분 없음.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일반인 505명
문장 부호(문화체육관광부, 2010)	수도권(강원 1, 충청 22, 전라 4, 경상 28, 제주 1, 무응답 8명) <1>	20, 30, 40, 50대 이상, 무응답	국어학자, 외국어학자, 인문사회과학자, 이공학자, 언론인, 출판인, 국어교육자, 문인 <8>	대학원 이상, 해당 분야 5년 이상, 문단 등단 <3>	인지도, 수용도, 만족도	일반인 500명
어문 규범 교재 개발을 위한 실태 조사(국립국어원, 2010)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5>	초3, 초5, 중2, 고2, 대2, 공무원	초3, 초5, 중2, 고2, 대2 공무원(행정직) <6>	좌동	이해도, 중요도	일반인 600명
한글 맞춤법(국립국어원, 2014)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6>	10, 20, 30, 40, 50, 60대 이상 <6>	농업/어업/임업,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12>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4>	인식도, 이해도, 수용도	전문가 53명(1차), 52명(2차) 일반인 1,025명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인 설문 대상의 수를 다수의 기존 연구보다 많은 1,025명으로 하였고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연령, 직업, 학력’ 등의 변수를 세분화하여 유의미한 응답 결과를 얻고 그에 대해 다각도로 해석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2. 전문가 설문 조사 방법

### 2.1. 연구 목적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의식 조사는 맞춤법 규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한글 맞춤법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글 맞춤법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하는 주체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므로, 이들의 의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태를 파악하려는 일반인 의식 조사의 목적과는 다르므로 전문가 의식 조사는 일반인 설문 조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는 어문 규범 영향 평가의 일환이며 어문 규범 영향 평가는 기본적으로 언어 정책을 위한 평가이므로 전문가 설문 조사 방법은 기본적으로 정책 델파이 방법을 일부 차용하였다.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들의 직관을 동원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추정하거나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수렴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델파이 방법의 한 종류인 정책 델파이 방법은 델파이 방법의 기본 논리를 이용하여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정책 결정자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안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주관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가 혹은 정책 관계자들로 하여금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정책 델파이 방법은 정책이나 의사 결정을 위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책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며 의견 개진을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델파이 방법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표 6> 전통적(일반) 델파이 방법과 정책 델파이 방법의 차이점

구분	전통적 델파이 방법	정책 델파이 방법
개념	일반 문제에 대한 예측	일반 델파이를 정책 문제에 도입한 것
대상자	일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	정책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정
익명성	철저한 격리성과 익명성 보장	선택적 익명성 보장
분석 방법	의견의 평균치(중간치) 중시	극단적이거나 대립된 견해도 존중하고 이를 유도

### 2.3. 기본 가정 및 특성

- ▲ 기본 가정: 전문가 설문 조사 방법은 ‘두 사람의 판단이 한 사람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 ▲ 기본 특성: ①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 ② 패널(응답자)의 익명성
  - ③ 통계적 집단 반응

① 절차의 반복과 피드백을 통해 응답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거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 보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첫 번째 설문은 주관적인 응답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문항으로 작성되고, 그 이후의 반복된 절차는 1차 설문의 결과를 반영하여 폐쇄형으로 작성된다.

② 델파이 절차에서 응답(토론) 참여자는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면 대 면 협의에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 의견 조율 시에는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그대로 따르려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심리적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익명성 때문에 무책임한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서면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③ 델파이 조사의 목적이 전문가 의견의 합의를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면, 확률을 사용하는 베이시안(Bayesian) 통계 방법의 적용 가능성이 제안되기도 한다.<sup>1)</sup> 이는 델파이 예측의 타당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은 현황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합의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에 대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즉,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은 델파이 조사 방식을 절충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 2.4. 전문가 선정

소수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집단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를 선정할 것이냐가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전문가를 선택하는 데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필요로 하는 전문성의 범주를 결정하고, 각 범주 내에서 최고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전문가의 업적에 대한 평가 혹은 동료 집단의 판단을 통해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전문가 순으로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델파이 기법의 일반적인 전문가 선정 기준을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기본적으로 맞춤형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델파이 기법을 늘 염두에 두었다.

- ① 전문가들은 응답을 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적 지식을 적어도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 ②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지리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어야 한다.
- ③ 전문가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전문가들은 조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전문가들은 델파이 과정에 소요되는 수일간의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선정된 전문가 설문 대상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7> 전문가 설문 대상자의 구성

국어학자	언론인	출판인	교사	국어정책 전문가	총인원
10명	11명	11명	10명	11명	53명

1) 베이시안 통계 방법(Bayesian statistics): 베이스(T. Bayes)가 주창한 통계적 방법으로서 표집에서 얻은 정보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주관적 의견 또는 신념과 같은 정보도 포함시키는 추리통계의 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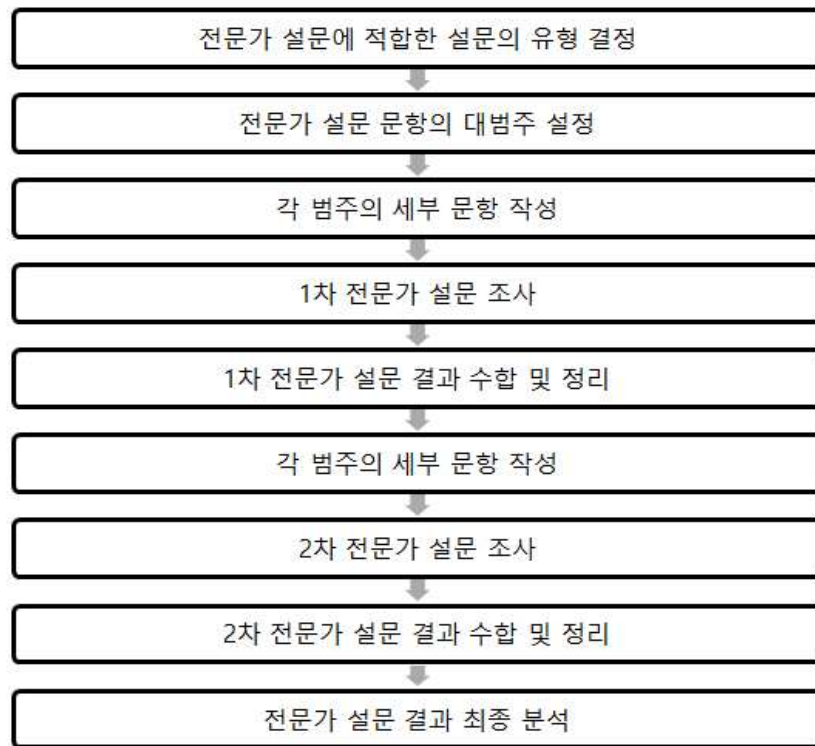
## 2.5. 전문가 설문 조사 과정 및 방법(I)

전문가 설문은 5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1차와 2차 모두 이메일을 이용하여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 대상자가 전문가인 만큼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설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 1차 조사 기간: 2014년 8월 20일~9월 9일
- 2차 조사 기간: 2014년 10월 1일~10월 13일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지 작성 및 설문 조사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3> 전문가 설문지 작성 및 설문 조사 과정



전문가 설문은 일반인 설문과 설문 대상자의 성격 및 설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설문의 유형을 일반인 설문과 같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정책 델파이 기법에 따라 설문의 유형을 전문가의 구체적인 생각과 의견을 묻는 주관식 형태로 하되, 전부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성의한 응답과 응답자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객관식 문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설문의 유형을 결정하였다.

전문가 설문 문항의 대범주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한글 맞춤법의 내용, 한글 맞춤법 개정의 필요성,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한글 맞춤법의 홍보 및 교육, 기타’의 다섯 범주로 확정된 후 이에 따라 각 범주의 세부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위의 대범주 중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한글 맞춤법의 내용’과 ‘한글 맞춤법 개정의 필요성’이다. ‘한글 맞춤법 내용’ 범주의 설문 문항은 크게 일곱 영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구체적인 영역 내용과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8> 1차 전문가 설문지에서 ‘한글 맞춤법 내용’ 범주의 설문 문항 영역

문항 번호	해당 한글 맞춤법 조항	영역
1-1, 1-2	제1항~제3항	총칙
2-1, 2-2	제4항	한글 자모의 종류, 순서, 이름
3-1, 3-2	제10항~제12항	두음 법칙
4-1, 4-2	제30항	사이시옷
5-1, 5-2	제41항~제50항	띄어쓰기
6-1, 6-2	제51항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의 표기
7	없음	기타 의견

<표 9> 1차 전문가 설문지에서 ‘한글 맞춤법 내용’ 범주의 설문 문항 예시

1-1. 한글 맞춤법 제4항은 한글 자모의 종류와 순서, 이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한글 맞춤법 제4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경우 그 내용을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맞춤법 개정의 필요성’ 범주의 설문 문항은 한글 맞춤법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 7번 문항까지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 개정의 필요성, 개정의 이유, 개정의 정도, 개정의 수준 및 범위, 개정의 절차 및 방식, 개정의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얻기 위해 53명의 전문가 가운데 법률 전문가 3인을 포함시켰다.

## 2.6. 전문가 설문 조사 과정 및 방법(Ⅱ)

1차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그 답변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에 구체성 확보를 위해서 2차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이 회의를 하고 국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20개 객관식 문항을 내용상 크게 여섯 범주로 나누어서 전문가 설문지를 도출하였다.

<표 10> 2차 전문가 설문지의 설문 문항 영역

문항 번호	해당 한글 맞춤법 조항	영역
1~3번	제4항	한글 자모의 이름과 수 및 받침 글자
4~6번, 15번	제10항, 제25항, 제26항, 제29항	두음 법칙과 접미사 ‘-히’ 및 표기의 역사적 변천 고려
7~9번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10~14번	제42항~제43항, 제47항~제48항, 제50항	띄어쓰기
16~17번	없음	맞춤법의 복수 인정 및 표준어 규정
18~20번	없음	맞춤법의 주제 및 폐지, 그리고 법적 지위

<표 10>에 제시된 대로 1~15번 문항은 맞춤법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16~20번 문항은 맞춤법 규정 전반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문항 내용들은 모두 1차 전문가 설문 답변에서 추출한 것이다. 1차 설문 참여자 53명의 전문가들이 주관식으로 답변한 것들 가운데 논란이 많은 것들을 추려서 20문항을 작성하였다.

<표 11> 2차 전문가 설문지의 설문 문항 예시

### 9.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없애자는 주장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횃수(回數)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개수(改修), 초점(焦點), 내과(內科)’ 등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처럼 위의 여섯 개 한자어도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완전히 객관식으로 작성된 문항들은 그 통계 결과로 인해서 전문가 집단의 개별 항목에 대한 의식 수준 혹은 정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내용과 관련된 문항들의 결과를 통해서 일반인의 의식과 대조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구체적인 2차 설문 문항의 예는 <표 11>에 나타나 있다.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목소리로 나오는 주장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통계 수치로 전문가 의식이 드러나게 된다.

### 3. 정리

#### 3.1. 요약

-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구안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한국 갤럽이 조사하였고, 전문가 대상으로는 연구팀이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조사하였다.
- 일반인을 위한 설문 조사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어문 규범 영향 평가에서 사용되었던 조사 및 통계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일반인의 인식도, 이해도, 수용도를 설문 내용의 구인으로 정하고 각각의 개념을 정하였다. 인식도는 일반인이 평소에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도는 일반인이 주관적으로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수용도는 일반인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맞춤법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각각 그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설문지 문항 구성의 기본 사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척도의 대칭성을 확보하였으며, 조사 집단 간 비율 차이 검정은  $z$  검정 비율 검정 혹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서  $z$  검정 통계량을 구하였다. 또한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정을 위해서는 분산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이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 구체적인 일반인 설문지에는 ‘설문에 대한 소개 및 안내 - 응답자 기초 정보 - 설문 문항 30개 - 자료 분류용 질문 - 면접 후 기록’ 내용이 들어갔다. 설문 문항으로는 인식도를 묻는 것이 7개, 이해도와 수용도를 묻는 것이 23개 배당되었다. 물론 이런 30개 문항이 설정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연구진의 정책 델파이 기법을 통한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예비 설문 문항 작성 후에 한국 갤럽을 통해서 5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전국을 6개 지역으로 하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6개 연령 영역을 설정하였다. 직업별로도 크게 6개 군을 설정하였고, 학력도 4개 군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일반인 설문 조사 방법은 일대일 면접 조사였으며, 전국적으로 1,025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갤럽이 대행하여 실시하였다.
- 한글 맞춤법에 대한 전문가 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은 기본적으로 정책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기 전에 연구팀 자체의 수차례에 걸친 델파이 기법으로 설문 문항을 대범주로 하여 만들었고, 그 이후로 이 안을 가지고 국어학자 10명, 언론인 11명, 출판인 11명, 국어 교사 10명, 국어정책 전문가 11명 도합 53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하였다. 한글 맞춤법 규정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1차로 전자 우편을 통해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2차로 구체적인 맞춤법 조항의 논점에 대한 의식을 객관식으로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파악하였다.
- 1차 전문가 설문지에서는 한글 맞춤법 내용 범주를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전체로는 13문항을 질문하

였다. ‘총칙 - 한글 자모의 종류, 순서, 이름 - 두음 법칙 - 사이시옷 - 띄어쓰기 -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의 표기 - 기타 의견’으로 나누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이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였다. 결국 객관식 6문항과 주관식 7문항이 주어진 셈이다.

- 대법주 차원의 1차 설문지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2차 설문지에는 구체적인 한글 맞춤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객관식으로 적도록 하였다. 1차의 53명 가운데 52명이 2차 설문에 응하였다. 전체 20개 객관식 문항을 ‘한글 자모의 이름과 수 및 받침 글자 - 두음 법칙과 접미사 ‘-이, -히’ 및 표기의 역사적 변천 고려 - 사이시옷 표기 - 띄어쓰기 - 맞춤법의 복수 인정 및 표준어 규정 - 맞춤법의 주체 및 폐지, 법적 지위’의 여섯 개 항목으로 내용상 나누어서 질의를 하였다.
- 이와 같은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법적 지위와 교육 및 홍보 방안까지도 도출하도록 하였다.

### 3.2. 제언

- 2005년부터 있었던 어문 규범 관련 내용의 영향 평가 사업은 여러 집단 및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대학이나 학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기도 하였고, 민간의 한글 운동 단체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하였고, 연구 단체와 리서치 전문 기관이 협업을 이루어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영향 평가를 하는 방법과 내용이 상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영향 평가의 결과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어문 규범의 체계적 관리와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향 평가의 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통일된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그 통계의 전문성과 권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영향 평가 조사 방법론 면에서는 일반인 수준의 통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 전문가 수준의 통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어문 규범 영향 평가가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하느냐와 관련한 문제라고 본다. 통계학 전문가들이 볼 것이면 후자의 방법을 취해야 하고, 비록 통계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문 규범의 일반 영향 상황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전자의 방법이 유용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일반적이면서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일 텐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 Ⅲ.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조사

#### 1. 조사 목적과 설계

##### 1.1. 조사 목적

국립국어원 어문정책 연구 사업의 하나인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과업은 우리 국민의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인식과 개별 조항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를 파악하여, 한글 맞춤법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등 관련 정책 및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1.2. 조사 설계

###### 1.2.1. 표본 설계

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전국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표 본 크 기	1,025명
표 본 추 출	권역별/성별/연령대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 표본 설계의 준거 기준은 ‘2014년 7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외국인 제외)’ 활용
조 사 방 법	면접 조사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표 본 오 차	95% 신뢰 수준에서 $\pm 3.1\%p$ (포인트)
조 사 일 시	2014년 8월 7일(목)~9월 1일(월)
조 사 기 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1.2.2. 조사 내용

- 조사 내용은 다음의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한글 맞춤법> 자체에 대한 인식도
  - ②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이해도
  - ③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수용도
- 인구특성 문항은 ‘거주지/성별/연령/직업/학력’으로 구성하였고 설문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과 학력은 인식도, 이해도, 수용도 관련 문항 이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맨 뒤에 위치시켰다.
- <한글 맞춤법>은 제1장 총칙(3개 항), 제2장 자모(1개 항), 소리에 관한 것(9개 항), 형태에 관한 것(27개 항), 띄어쓰기(10개 항), 그 밖의 것(7개 항)의 총 6장 5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② 이해도, ③ 수용도 설문 문항으로 선정된 조항은 23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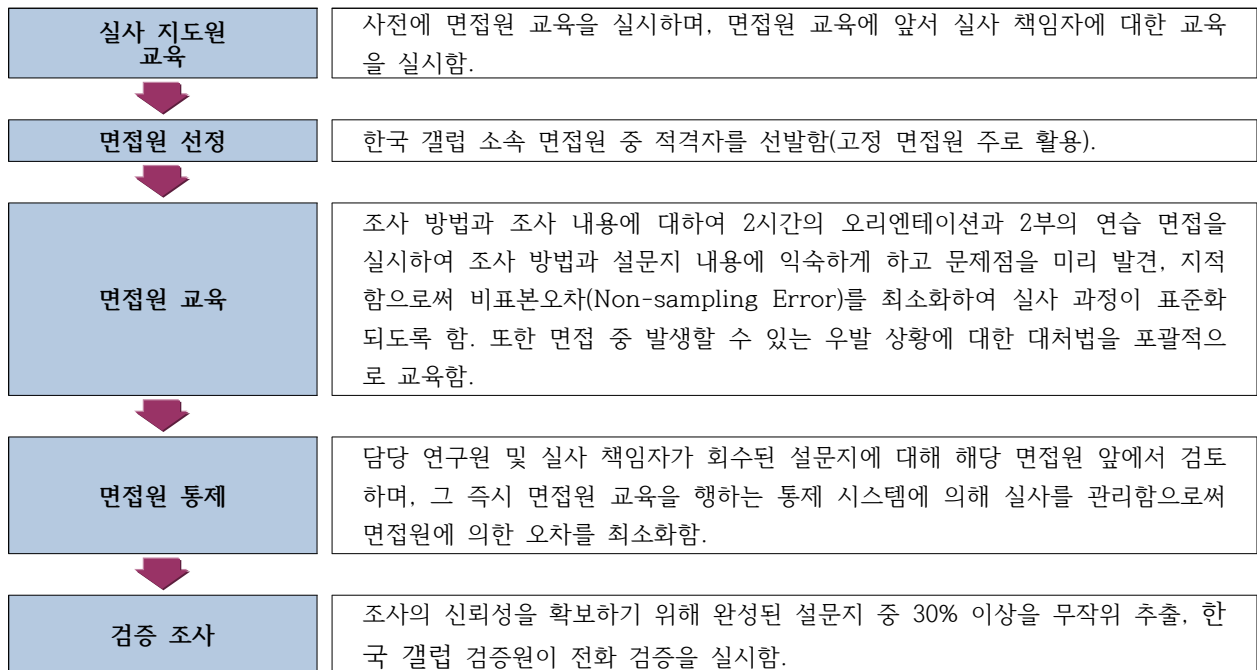
1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	제1항[문8], 제2항[문9]	2문항
2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항-2-다만[문10], 제9항[문11], 제11항[문12], 제11항-붙임1-다만[문13]	4문항
3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5항-붙임1-(1)[문14], 제15항-붙임2[문15], 제19항-[붙임][문16], 제23항[문17], 제29항[문18], 제30항-2-(1)[문19], 제30항-3[문20], 제35항-붙임2[문21], 제39항[문22], 제40항-붙임2[문23]	10문항
4	제5장 띄어쓰기	제42항[문24], 제43항[문25], 제47항-다만[문26], 제48항[문27], 제50항[문28]	5문항
5	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문29], 제53항[문30]	2문항

### 1.2.3. 조사 진행 과정

#### ▲ 실사 설계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접근 방법	선정된 조사 지점에 전문 면접원을 투입하여 사전에 지정된 표본 할당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면접 조사 실시

#### ▲ 실사 과정



### 1.2.4.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하였다.



### 1.2.5. 응답자 특성

- 인구 특성 문항은 '거주지/성별/연령/직업/학력'으로 구성하였고 설문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과 학력은 인식도, 이해도, 수용도 관련 문항 이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맨 뒤에 두었다.
- 거주지는 설문지에서는 SQ1) 문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세종/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16개 선택지로 질문하였고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할 때에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의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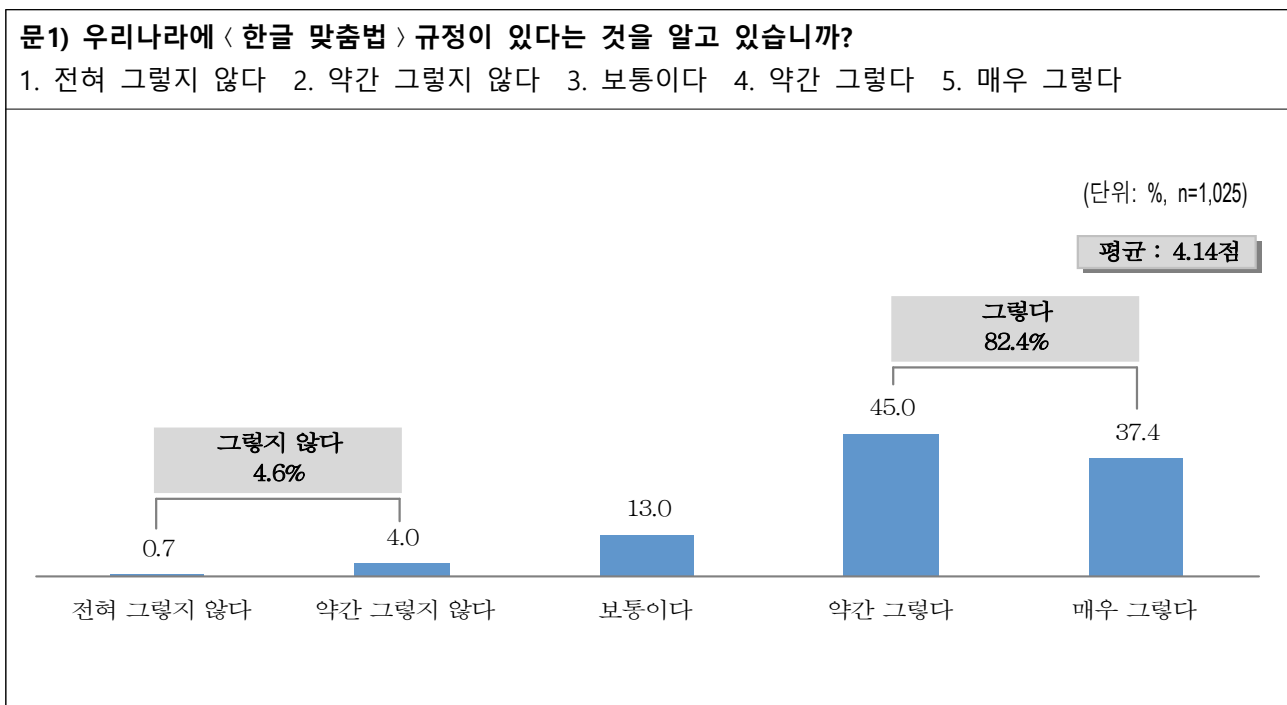
- 성별은 설문지에서 SQ2) 문항 ‘남성, 여성’의 2개 선택지로 질문하였고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할 때 역시 ‘남성, 여성’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연령은 설문지에서 SQ3) 문항 ‘만 18세 이하, 만 19~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세 이상’의 6개 선택지로 질문하였고 이를 분석할 때는 동일하게 6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지만 ‘만 18세 이하’에 응답한 대상이 모두 만 13~18세였고 ‘만 60세 이상’에 응답한 대상이 모두 만 60~69세였기 때문에 해당 집단의 명칭을 각각 ‘만 13~18세’, ‘만 60~69세’로 변경하였다.
- 직업은 설문지에서 DQ1) 문항 ‘농업/어업/임업, 자영업, 판매직·서비스직, 일반작업직, 사무직·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의 12개 선택지로 질문하였고 이를 분석할 때는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주부, 학생, 농림어업/기타’의 6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학력은 설문지에서 DQ2) 문항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재학/졸업, 고등학교 재학/졸업, 대학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의 5개 선택지로 질문하였고 이를 분석할 때는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1.2.1. 표본 설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전체 1,025명의 조사 대상은 권역별/성별/연령대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 추출하였고 표본 설계의 준거 기준은 ‘2014년 7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외국인 제외)’를 활용하였다.

응답자 특성		사례 수(명)	%
전 체		(1,025)	100.0
지역별	수 도 권	(515)	50.2
	강 원 권	(30)	2.9
	충 청 권	(103)	10.0
	경 상 권	(263)	25.7
	전 라 권	(104)	10.1
	제 주 권	(10)	1.0
성별	남 성	(522)	50.9
	여 성	(503)	49.1
연령별	만 13~18세	(98)	9.6
	만 19~29세	(184)	18.0
	만 30~39세	(198)	19.3
	만 40~49세	(222)	21.7
	만 50~59세	(205)	20.0
	만 60~69세	(118)	11.5
직업별	자 영 업	(173)	16.9
	블루칼라	(191)	18.7
	화이트칼라	(269)	26.3
	주 부	(193)	18.8
	학 생	(167)	16.3
	농림어업/기타	(31)	3.0
학력별	중졸 이하	(117)	11.4
	고졸	(469)	45.7
	대재 이상	(440)	42.9

## 2. 조사 결과 분석(Ⅰ): <한글 맞춤법> 자체에 대한 인식도

- ‘<한글 맞춤법> 자체에 대한 인식도’ 범주는 <한글 맞춤법> 규정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문항1), 규정의 효력에 대한 인식도(문항2),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문항3)를 측정하는 문항과 규정에 대한 준수 태도(문항5), 규정에 대한 교육 여부(문항6), 교육받은 기관의 유형(문항7-1), 교육의 필요성(문항7-2)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체 방안에 대하여 묻는 문항(문항4)도 포함시켰다.
- 2.1.에서 각 문항에 대한 통계치를 먼저 제시하고 2.2.에서 응답자 특성별(성별, 연령, 직업, 학력) 인식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 2.1. 문항별 인식도 통계치에서 응답자 특성 집단별 차이가 나는 경우 그 결과 또한 함께 제시하였다.

### 2.1. 문항별 [문1-7] 인식도 통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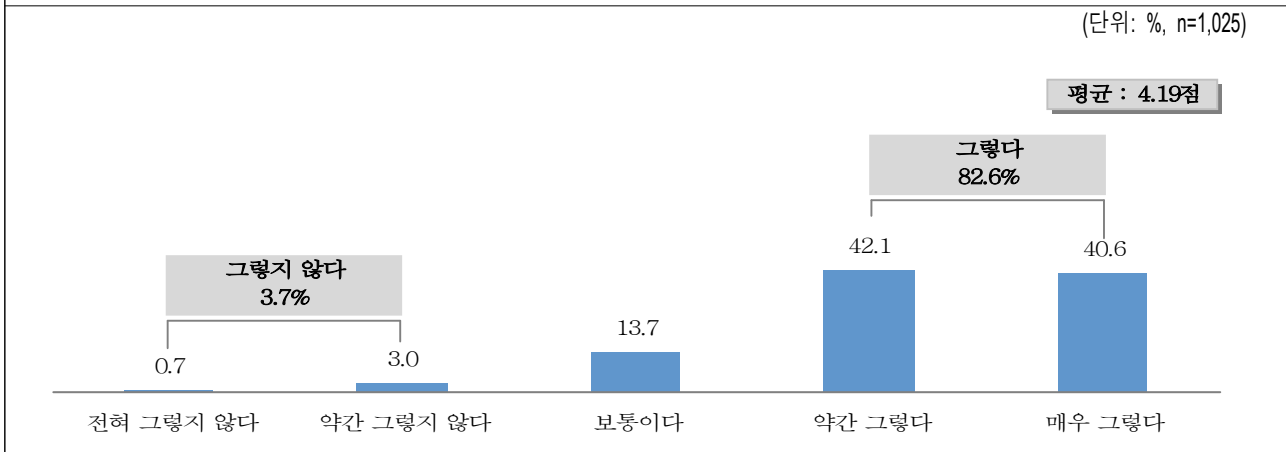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규정 자체에 대한 인식도는 ‘그렇다’는 응답(82.4%)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4.6%)보다 77.8%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12.7%)에서 20대(2.2%), 40대(2.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sup>1)</sup>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13.5%)에서 대졸 이상(2.6%), 고졸(4.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 이 조사에서 10대는 13~18세를, 20대는 19~29세를 가리킴. 이하 같음.

문2) 언론, 출판, 공문서 등 모든 공적인 상황에서 <한글 맞춤법>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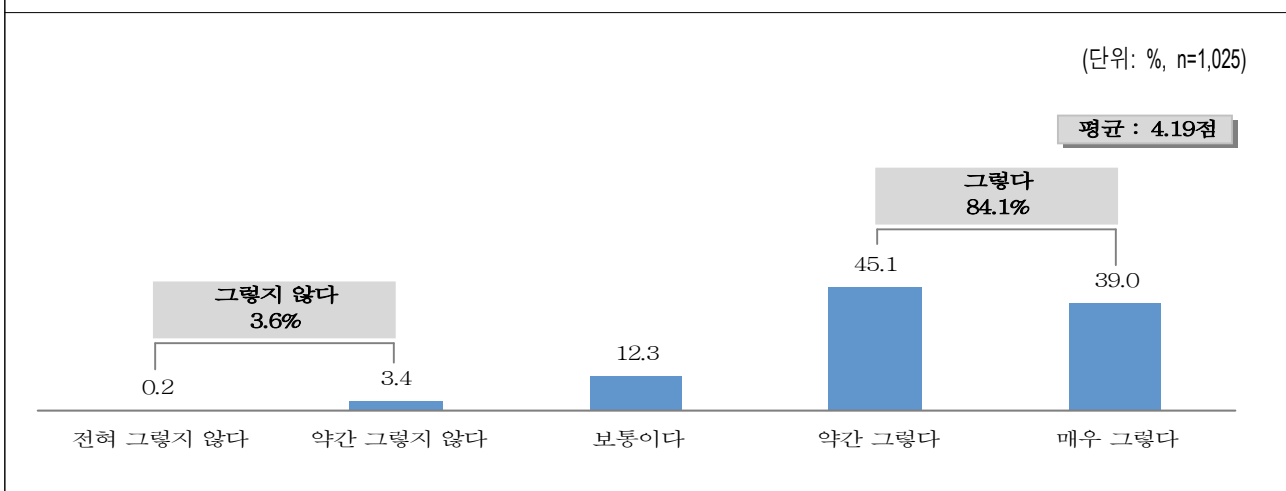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한글 맞춤법> 기준 표기에 대한 인식도는 '그렇다'는 응답(82.6%)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3.7%)보다 78.9%p 높게 나타남. 응답자의 상당수가 공적 상황에서 한글 맞춤법 기준 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10.9%)에서 10대(2.0%), 20대(2.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87.4%)에서 주부(69.0%), 자영업(83.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87.3%)에서 중졸 이하(75.6%), 고졸(8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3)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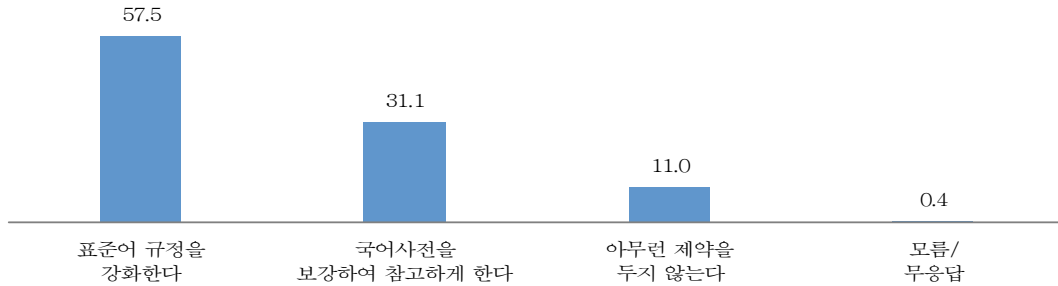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렇다'는 응답(84.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3.6%)보다 80.5%p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응답률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대(89.0%)에서 10대(79.0%), 60대(83.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4) < 한글 맞춤법 > 이 필요하지 않다면, 한글을 사용하여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다. 2. 표준어 규정을 강화한다. 3. 국어사전을 보강하여 참고하게 한다.

(단위: %, n=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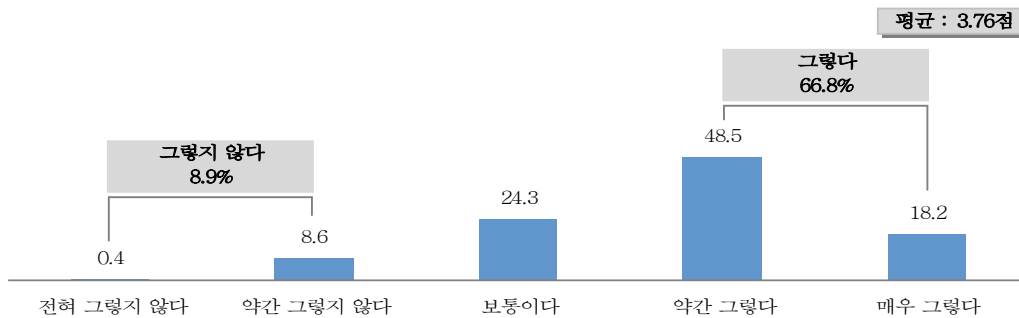


-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표준어 규정을 강화’하여 글을 써야 한다는 응답(57.5%)이 ‘국어사전을 보강하여 참고하게 한다’(31.1%),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다’(11.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국어사전을 보강하여 참고하게 한다’에 대한 직업별로 응답한 비율이 학생(39.3%, 표준어 47.8%<sup>2)</sup>)에서, 자영업(26.5%, 표준어 62.0%), 블루칼라(28.8%, 표준어 59.5%), 화이트칼라(30.5%, 표준어 59.85), 주부(30.0%, 표준어 58.0%), 농림어업/기타(38.7%, 표준어 5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5) 언어생활에서 < 한글 맞춤법 > 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단위: %, n=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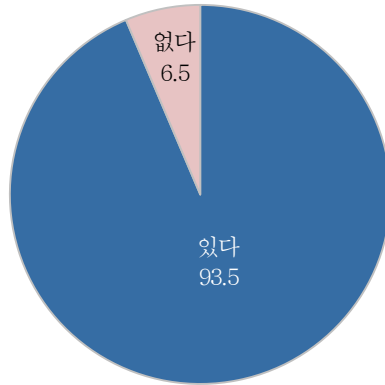
- 실제 언어생활에서 <한글 맞춤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지(수용 정도)에 대한 인식도는 ‘그렇다’는 응답(66.8%)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8.9%)보다 57.9%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라권(72.6%)에서 수도권(63.8%), 경상권(67.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대(75.4%)에서 60대(55.8%), 10대(59.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13.5%)에서 화이트칼라(6.3%), 농림어업/기타(7.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15.4%)에서 고졸(9.2%), 대재 이상(7.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71.7%)에서 중졸 이하(53.4%), 고졸(6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표준어 규정을 강화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냄. 이하 같음.

**문6) <한글 맞춤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7-1로)      2. 없다 (7-2로)

(단위: %, n=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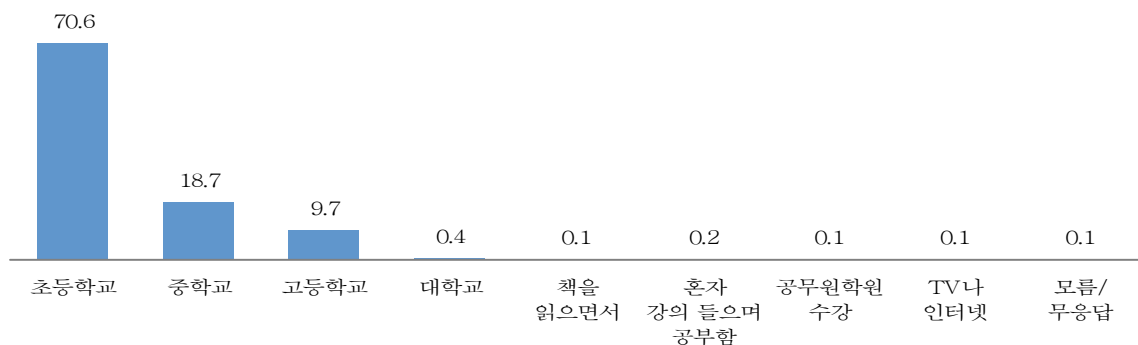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교육 경험에 대한 인식도는 ‘있다’는 응답(93.5%)이 ‘없다’는 응답(6.5%)보다 87%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충청권(100%)에서 수도권(91.7%), 경상권(95.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17.4%)에서 10대(2.0%), 30대(3.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11.1%)에서 대재 이상(4.9%), 고졸(7.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7-1) <한글 맞춤법>을 배운 적이 있다면, 어디서 주로 배우셨습니까? (1군데만 응답)**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5. 문화센터 6. 기타(적을 것 : \_\_\_\_\_)

(단위: %, n=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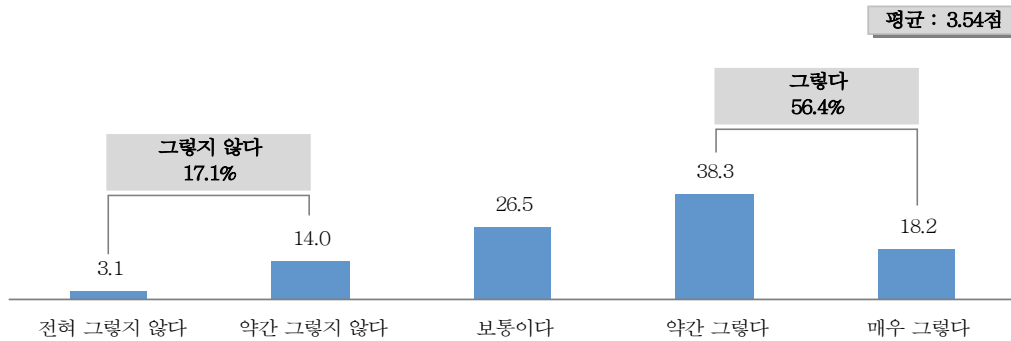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교육 경험자(958명)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받은 장소에 대한 인식도는 ‘초등학교’라는 응답(70.6%)이 ‘중학교’(18.7%), ‘고등학교’(9.7%)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초등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80.1%)에서 대재 이상(68.9%), 고졸(7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7-2) 〈한글 맞춤법〉을 배운 적이 없다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단위: %, n=67)



- <한글 맞춤법> 교육 비경험자(67명)를 대상으로 한 <한글 맞춤법> 교육 희망 여부에 대한 인식도는 ‘그렇다’는 응답(56.4%)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7.1%)보다 39.3%p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23.8%)에서 여성(1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5.6%)에서 10대(0%), 40대(5.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2. 응답자 특성별 인식도 분석

문항 1, 2, 3, 5를 동시에 고려하여 네 문항의 평균값으로 비교하였다. 모든 검정은 유의수준 5%하에서 실시되었다.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해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세 집단 이상을 분석한 경우에는 사후 분석(Tukey's method 사용)을 진행하였다<sup>3)</sup>. 응답자 특성 중 ‘지역’ 특성은 강원권 30명, 제주권 10명이 한 집단으로 분석하기에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고 다른 집단과의 사례 수 차이가 크기에 응답자 특성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1) 성별

성 별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남 성	523	3.71	.52
여 성	502	3.68	.59

남자의 평균은 3.71(.52)이고 여자의 평균은 3.68(.59)이다. 남녀 집단이 등분산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웰치아스핀(Welch-Aspin)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p>.05$ 로 유의수준 5%하에서 남녀 간 한글 맞춤법 인식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연령별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만 13~18세	96	3.69	.55
만 19~29세	181	3.76	.55
만 30~39세	193	3.71	.51
만 40~49세	225	3.72	.56
만 50~59세	206	3.70	.52
만 60~69세	124	3.51	.64
총 합	1025	3.70	.55

연령별 여섯 집단이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  $F(5, 1019)=3.520$ ,  $p=.004$ 로, 유의수준 5%하에서 연령 집단 간 한글 맞춤법 인식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집단의 조합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터키(Tukey) HSD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60대와 20대( $p=.001$ ), 60대와 30대( $p=.011$ ), 60대와 40대( $p=.009$ ), 60대와 50대( $p=.029$ )의 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은 60대(3.51), 20대(3.76), 30대(3.72), 40대(3.72), 50대(3.70)이었다.

### 3) 직업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자 영 업	171	3.69	.52
블루칼라	192	3.66	.49
화이트칼라	267	3.76	.56
주 부	190	3.53	.65
학 생	164	3.79	.52
총합	984	3.69	.56

무직/기타 집단(41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직업별로 다섯 집단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월치(Welch) F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F(5,293)=4.476$ ,  $p<.001$ 로,  $p$  값이 .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하에서 직업 집단 간에 한글 맞춤법 인식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터키(Tukey) HSD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화이트칼라 집단과 주부 집단( $p<.001$ ), 주부 집단과 학생 집단( $p<.001$ )에서 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화이트칼라 집단의 평균은 3.76이고 주부 집단의 평균은 3.53이며 학생 집단의 평균은 3.79이었다.

### 4) 학력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중졸 이하	122	3.49	.60
고졸	468	3.64	.54
대재 이상	435	3.81	.54
총합	1025	3.69	.55

학력별 세 집단이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  $F(2,1022)=20.462$ ,  $p<0.001$ 로,  $p$ -value가 .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하에서 학력 집단 간 한글 맞춤법 인식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집단의 조합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터키(Tukey) HSD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집단( $p=.020$ ), 고졸 집단과 대재 이상 집단( $p<.001$ ), 중졸 이하 집단과 대재 이상 집단( $p<.001$ )이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졸 이하 집단의 평균은 3.49, 고졸 집단의 평균은 3.64, 대재 이상 집단의 평균은 3.81이었다.

3) 통계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II장의 1.3.2. 참고.

### 3. 조사 결과 분석(Ⅱ): 이해도 및 수용도

-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는 설문지 한 문항 안에서 동일 조항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개별 문항은 한글 맞춤법의 조항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오표기와 정표기의 예를 제시한 후 해당 조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수용 정도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오표기와 정표기의 예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오표기 빈도가 높은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 개별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이해도 설문(①)을 구성하였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였다. 이해도 조사 결과를 통하여 일반인이 해당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실제 언어생활에서 개별 조항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수용도 설문(②)을 구성하였고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였다. 수용도 조사 결과를 통하여 일반인이 해당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생활에서 표기하고 있는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한글 맞춤법>은 제1장 총칙(3개 항), 제2장 자모(1개 항), 소리에 관한 것(9개 항), 형태에 관한 것(27개 항), 띄어쓰기(10개 항), 그 밖의 것(7개 항)의 총 6장 5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이해도와 수용도 설문 문항으로 선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	제1항[문8], 제2항[문9]	2문항
2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항-2-다만[문10], 제9항[문11], 제11항[문12], 제11항-붙임1-다만[문13]	4문항
3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5항-붙임1-(1)[문14], 제15항-붙임2[문15], 제19항-[붙임][문16], 제23항[문17], 제29항[문18], 제30항-2-(1)[문19], 제30항-3[문20], 제35항-붙임2[문21], 제39항[문22], 제40항-붙임2[문23]	10 문항
4	제5장 띄어쓰기	제42항[문24], 제43항[문25], 제47항-다만[문26], 제48항[문27], 제50항[문28]	5문항
5	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문29], 제53항[문30]	2문항

- 3.1.에서 각 문항에 대한 통계치를 먼저 제시하고 3.2.에서 응답자 특성별(성별, 연령, 직업, 학력) 이해도 및 수용도에 대한 분석을 기술하였다.
- 설문지가 한 문항에서 동일 조항에 대하여 이해도와 수용도를 묻는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3.1.에서 또한 한 문항에 대하여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 문항별 응답자 특성 분석 결과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래프 아래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였다. 문항별로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성별의 경우 문항 15의 이해도 조사 결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8번 문항의 분석에서 응답자 특성별 응답률 표를 함께 보여주어 각 문항별 응답자 특성 차이에 대한 기술의 예를 보였다. 9~30번 문항의 기술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하였고 각 문항의 응답자 특성별 응답률 표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5번, 21번, 29번, 30번 문항에 대해서는 지역별 평균 비교 그래프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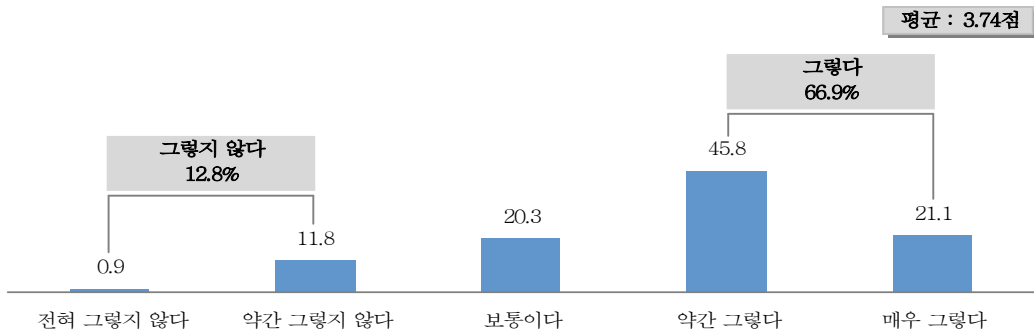
### 3.1. 문항별 [문8-30] 이해도 및 수용도의 통계치

#### 3.1.1.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

문8)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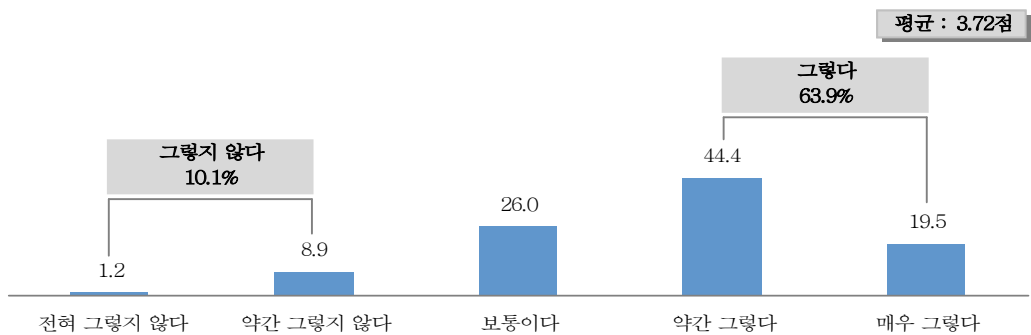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66.9%)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2.8%)보다 54.1%p 높게 나타남.
- 다음 쪽의 [표 8-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1.9%)에서 10대(11.6%), 20대(12.2%), 30대(10.8%), 40대(11.6%), 50대(1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대(72.5%)와 30대(72.9%)에서 20대(68.4%), 40대(64.5%), 50대(67.1%), 60대(5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sup>4)</sup>
- [표 8-1]과 같은 응답자 특성별 응답률 표는 문항 9~30번에 대해서도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 ② 수용도



-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63.9%)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0.1%)보다 53.8%p 높게 나타남.
- 다음 쪽의 [표 8-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이하(16.7%)에서 대재 이상(8.1%), 고졸(10.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8-2]와 같은 응답자 특성별 응답률 표는 문항 9~30번에 대해서도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여기에서의 [표 8-1], [표 8-2]는 부록에 나타나 있는 표시이다.

【 표 8-1 】 이해도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보기항목						계	평균 (점)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약간 그렇지 않다 ②	①+②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④+⑤ 그렇다
지역별	전체	(1,025)	0.9	11.8	12.8	20.3	45.8	21.1	66.9	100.0	3.74
	수도권	(515)	1.0	10.4	11.4	20.0	49.4	19.2	68.6	100.0	3.75
	강원권	(30)	0.0	6.7	6.7	20.0	45.0	28.3	73.3	100.0	3.95
	충청권	(103)	0.0	14.0	14.0	24.5	44.1	17.3	61.4	100.0	3.65
	경전권	(263)	1.0	14.6	15.7	20.3	40.8	23.2	64.1	100.0	3.71
	상라권	(104)	0.6	11.5	12.1	16.3	44.6	26.9	71.5	100.0	3.86
성별	체주권	(10)	10.0	10.0	20.0	40.0	20.0	20.0	40.0	100.0	3.30
	남성	(522)	0.7	11.2	12.0	21.3	44.5	22.2	66.8	100.0	3.76
연령별	여성	(503)	1.1	12.5	13.6	19.4	47.0	20.0	67.0	100.0	3.72
	만 13~18세	(98)	0.0	11.6	11.6	15.9	51.1	21.4	72.5	100.0	3.82
	만 19~29세	(184)	2.3	9.9	12.2	19.4	44.9	23.6	68.4	100.0	3.78
	만 30~39세	(198)	0.5	10.2	10.8	16.3	44.3	28.6	72.9	100.0	3.90
	만 40~49세	(222)	0.3	11.3	11.6	23.9	43.6	20.9	64.5	100.0	3.74
	만 50~59세	(205)	1.0	10.8	11.8	21.0	48.0	19.1	67.1	100.0	3.73
직업별	만 60~69세	(118)	1.4	20.6	21.9	24.4	45.4	8.3	53.7	100.0	3.39
	자유업	(173)	0.6	13.2	13.8	23.8	49.2	13.2	62.4	100.0	3.61
	블루칼라	(191)	0.5	11.8	12.4	16.0	48.3	23.2	71.6	100.0	3.82
	화이트칼라	(269)	0.8	12.3	13.1	21.2	39.6	26.1	65.7	100.0	3.78
	주부	(193)	1.9	12.1	14.0	21.2	47.4	17.4	64.8	100.0	3.66
	학생	(167)	0.0	11.6	11.6	18.5	46.4	23.4	69.9	100.0	3.82
학력별	농림어업/기타	(31)	5.5	0.0	5.5	24.0	50.8	19.7	70.5	100.0	3.79
	중졸 이하	(117)	1.4	21.9	23.3	19.3	40.5	16.9	57.4	100.0	3.50
	고졸	(469)	0.8	9.0	9.8	21.0	53.6	15.6	69.2	100.0	3.74
	대재 이상	(440)	0.9	12.2	13.1	19.9	38.8	28.1	66.9	100.0	3.81

※ 음영 처리한 셀은 해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임.

【 표 8-2 】 수용도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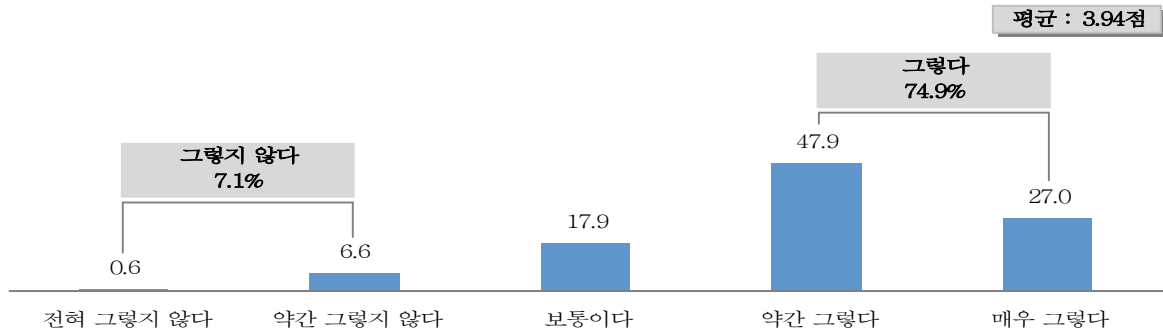
구 분			보기항목							계	평균 (점)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①+②	보통이다			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약간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⑤	그렇다			
전 체 (1,025)			1.2	8.9	10.1	26.0	44.4	19.5	63.9	100.0	3.72
지역별	수 도 권 (515)	1.0	6.2	7.2	27.4	46.3	19.1	65.3	100.0	3.76	
	강 원 권 (30)	5.0	3.3	8.3	23.3	41.7	26.7	68.3	100.0	3.82	
	충 청 권 (103)	1.0	11.3	12.2	24.9	43.6	19.2	62.8	100.0	3.69	
	경 상 권 (263)	1.5	12.4	13.9	25.4	43.8	16.9	60.7	100.0	3.62	
	전 라 권 (104)	0.6	11.5	12.1	21.7	41.8	24.4	66.2	100.0	3.78	
	체 주 권 (10)	0.0	20.0	20.0	30.0	10.0	40.0	50.0	100.0	3.70	
성별	남 성 (522)	0.9	8.9	9.8	25.3	46.6	18.3	64.9	100.0	3.73	
	여 성 (503)	1.5	8.9	10.5	26.7	42.1	20.7	62.8	100.0	3.72	
연령별	만 13~18세 (98)	0.0	9.2	9.2	26.1	42.1	22.6	64.7	100.0	3.78	
	만 19~29세 (184)	2.2	8.3	10.5	21.6	44.7	23.2	67.9	100.0	3.78	
	만 30~39세 (198)	1.8	6.5	8.3	28.4	42.2	21.0	63.3	100.0	3.74	
	만 40~49세 (222)	0.5	7.7	8.2	27.0	43.8	21.1	64.9	100.0	3.77	
	만 50~59세 (205)	0.5	8.7	9.2	24.7	48.7	17.3	66.0	100.0	3.74	
	만 60~69세 (118)	2.2	16.1	18.3	29.1	43.2	9.3	52.5	100.0	3.41	
직업별	자 영 업 (173)	0.6	10.6	11.2	28.2	47.2	13.3	60.6	100.0	3.62	
	블루칼라 (191)	0.0	9.0	9.0	27.0	44.6	19.4	64.0	100.0	3.74	
	화이트칼라 (269)	1.7	7.3	9.0	24.2	44.3	22.5	66.8	100.0	3.79	
	주 부 (193)	1.9	10.3	12.2	30.1	41.3	16.4	57.7	100.0	3.60	
	학 생 (167)	1.2	8.5	9.7	23.2	43.6	23.6	67.1	100.0	3.80	
	농림어업/기타 (31)	3.4	7.0	10.4	12.4	52.5	24.7	77.3	100.0	3.88	
학력별	중졸 이하 (117)	2.2	14.5	16.7	30.3	38.5	14.5	53.0	100.0	3.49	
	고졸 (469)	0.5	9.8	10.4	25.8	48.6	15.3	63.9	100.0	3.68	
	대재 이상 (440)	1.6	6.5	8.1	25.1	41.5	25.3	66.8	100.0	3.82	

※ 음영 처리한 셀은 해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임.

문9)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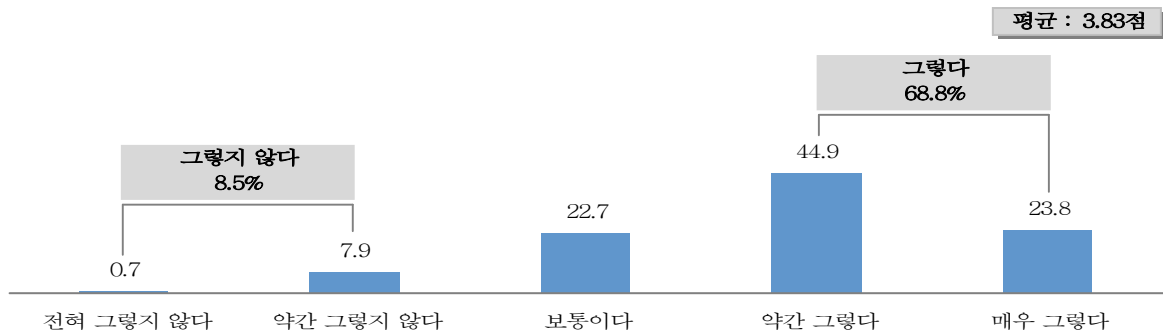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74.9%)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7.1%)보다 67.8%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17.7%)에서 40대(4.9%), 20대(5.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② 수용도



-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68.8%)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8.5%)보다 60.3%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2.6%)에서 40대(5.0%), 10대(5.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블루칼라(12.2%)에서 화이트칼라(5.1%), 학생(6.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화이트칼라(75.7%)에서 주부(63.7%), 자영업(64.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0.2%)에서 대재 이상(6.7%), 고졸(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75.3%)에서 중졸 이하(48.2%), 고졸(67.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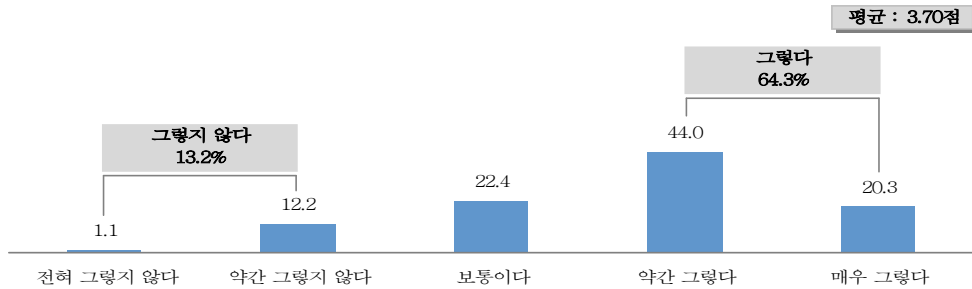
### 3.1.2. [제3장 소리에 관한 것](10~13)

문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제5항 다만)

예 각두기 (O) - 각뚜기 (X), 법석 (O) - 법씩 (X)  
몹시 (O) - 몹씨 (X), 싹둑 (O) - 싹뚝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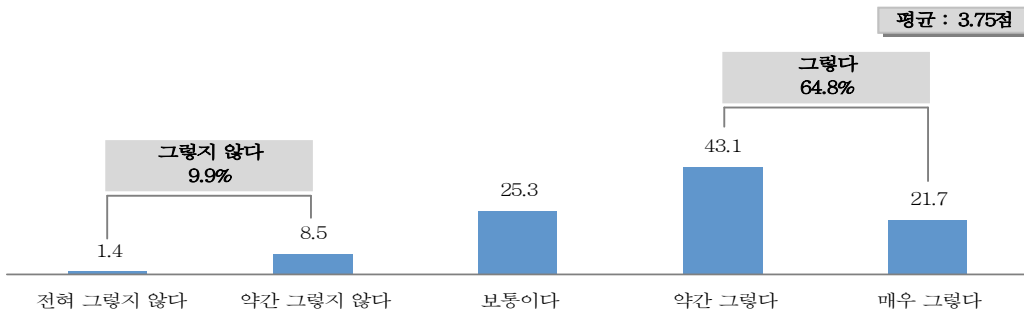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5항 다만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64.3%)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3.2%)보다 51.1%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16.3%)에서 충청권(8.1%), 전라권(10.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라권(77.1%)에서 수도권(62.2%), 경상권(6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3.6%)에서 30대(8.6%), 10대(10.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대(74.4%)에서 60대(51.5%), 40대·50대(6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주부(17.1%)에서 블루칼라(10.4%), 농림어업/기타(11.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72.8%)에서 주부(54.2%), 자영업(58.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4.7%)에서 대재 이상(11.3%), 고졸(1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68.8%)에서 중졸 이하(56.6%), 고졸(6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 <한글 맞춤법> 제5항 다만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64.8%)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9.9%)보다 54.9%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17.1%)에서 10대(5.3%), 50대(7.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대(72.7%)에서 60대(44.7%), 50대(63.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71.8%)에서 주부(54.4%), 자영업(58.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18.7%)에서 고졸(8.1%), 대재 이상(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72.2%)에서 중졸 이하(47.6%), 고졸(6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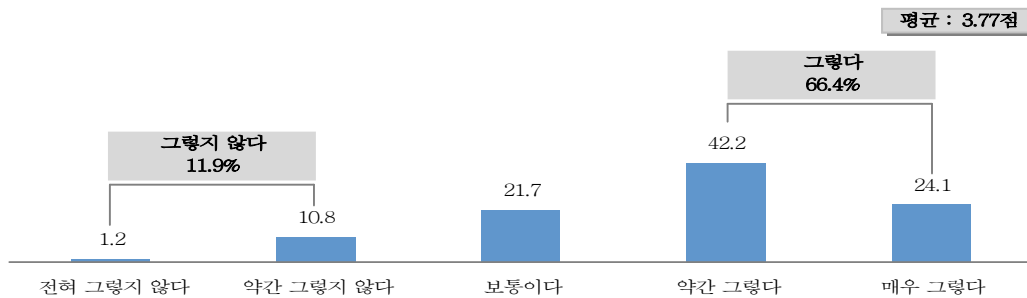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는다.

(제9항)

예 무늬 (O) - 무니 (X),      피어쓰기 (O) - 피어쓰기 (X)  
희망 (O) - 히망 (X),      하늬바람 (O) - 하니바람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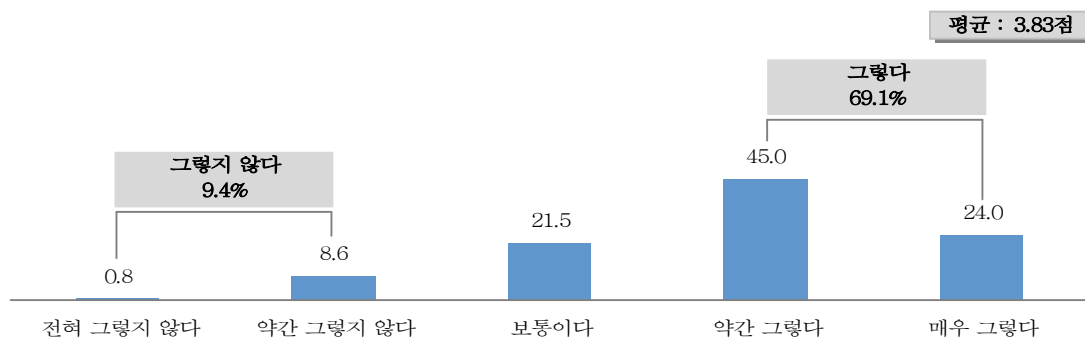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9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66.4%)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1.9%)보다 54.5%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라권(83.5%)에서 수도권(60.8%), 경상권(66.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대(73.3%)에서 60대(49.1%), 10대(65.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주부(19.2%)에서 농림어업/기타(5.5%), 학생(7.9%)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72.2%)에서 주부(54.3%), 화이트칼라(67.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73.6%)에서 중졸 이하(54.6%), 고졸(6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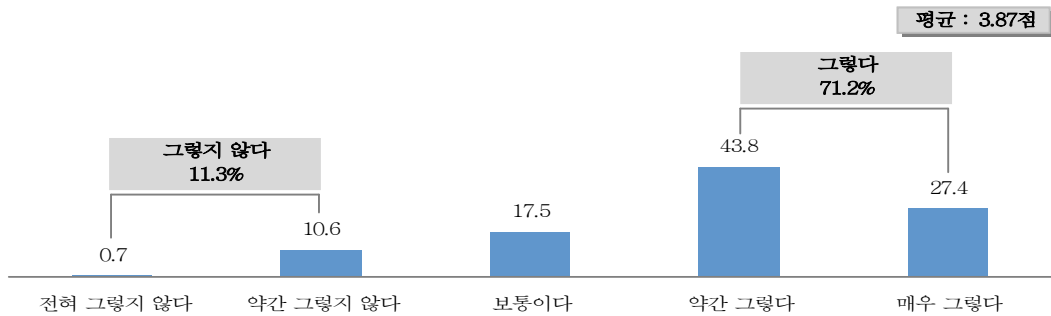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제9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69.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9.4%)보다 59.7%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19.2%)에서 전라권(4.0%), 충청권(6.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라권(83.5%)에서 경상권(62.7%), 수도권(67.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3.2%)에서 10대(5.1%), 20대(7.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77.2%)에서 60대(50.4%), 50대(68.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주부(15.5%)에서 학생(4.8%), 농림어업/기타(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74.8%)에서 주부(60.4%), 자영업(6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0.7%)에서 대재 이상(7.0%), 고졸(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77.3%)에서 중졸 이하(51.5%), 고졸(6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 12)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제11항)

예	양심(良心) (O) - 량심 (X), 용궁(龍宮) (O) - 룡궁 (X),	역사(歷史) (O) - 력사 (X), 유행(流行) (O) - 류행 (X),	예의(禮儀) (O) - 례의 (X), 이발(理髮) (O) - 리발 (X)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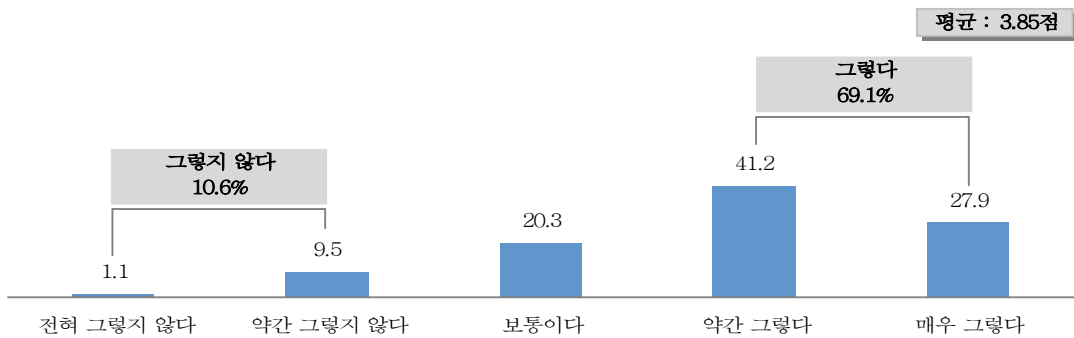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71.2%)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1.3%)보다 59.9%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충청권(17.3%)에서 전라권(5.0%), 수도권(11.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라권(83.8%)에서 수도권(66.8%), 충청권(72.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5.1%)에서 30대(6.7%), 20대(7.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4.2%)에서 고졸(10.8%), 대재 이상(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78.7%)에서 중졸 이하(59.1%), 고졸(67.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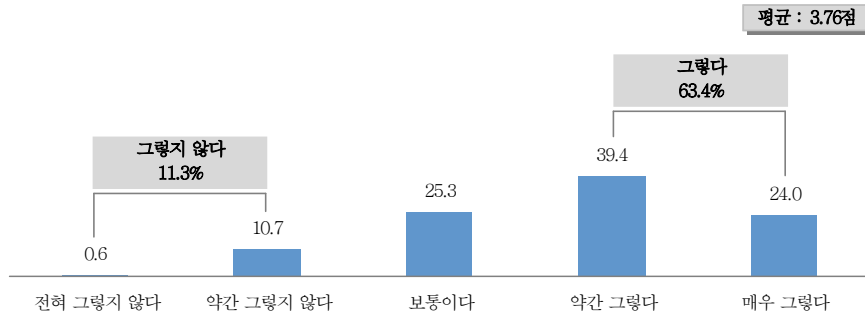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69.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0.6%)에 비해 58.5%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16.2%)에서 전라권(4.0%), 충청권(8.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1.4%)에서 20대(7.8%), 50대(8.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대(75.9%)에서 60대(55.3%), 50대(67.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76.7%)에서 주부(61.8%), 자영업(66.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19.8%)에서 대재 이상(7.9%), 고졸(1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76.0%)에서 중졸 이하(58.2%), 고졸(6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 13)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울’로 적는다.** (제11항 붙임 1 다만)

예 실패울 (O) - 실패룰 (X), 선열 (O) - 선룰 (X)  
백분울 (O) - 백분룰 (X), 전울 (O) - 전룰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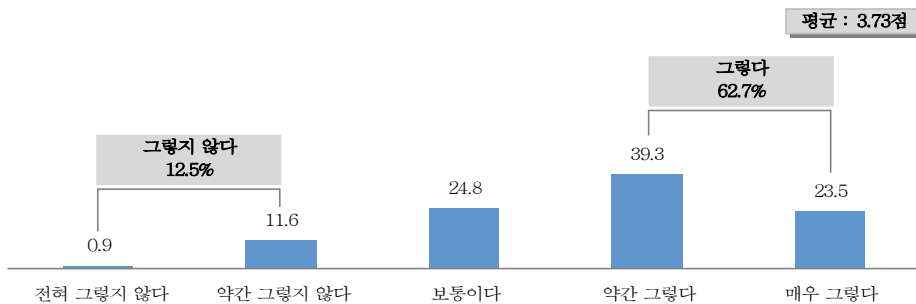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1-다만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63.4%)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1.3%)보다 52.1%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라권(74.8%)에서 수도권(58.1%), 충청권(64.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0대(21.3%)에서 20대(8.3%), 30대(8.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74.0%)에서 60대(46.3%), 50대(61.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주부(16.7%)에서 학생(6.8%), 자영업(9.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74.7%)에서 주부(54.3%), 자영업(56.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19.1%)에서 대재 이상(8.2%), 고졸(1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70.5%)에서 중졸 이하(51.7%), 고졸(5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1-다만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62.7%)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2.5%)보다는 응답이 50.2%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16.4%)에서 충청권(7.9%), 전라권(10.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5.7%)에서 20대(6.6%), 50대(10.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71.7%)에서 60대(44.0%), 50대(55.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76.0%)에서 자영업(53.6%), 주부(54.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2.2%)에서 대재 이상(8.2%), 고졸(1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72.5%)에서 중졸 이하(47.9%), 고졸(5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1.3. [제4장 형태에 관한 것](1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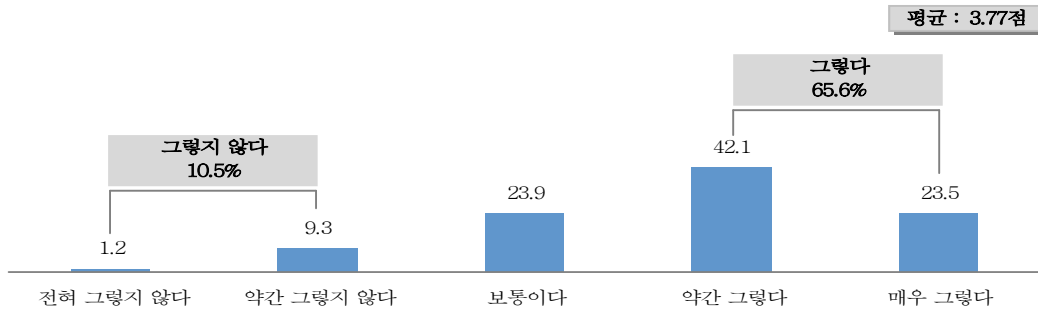
문  
14)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15항 붙임 1 (2))

예 들어가다 (O) - 드러가다 (X), 떨어지다 (O) - 떠러지다 (X), 흠어지다 (O) - 흐터지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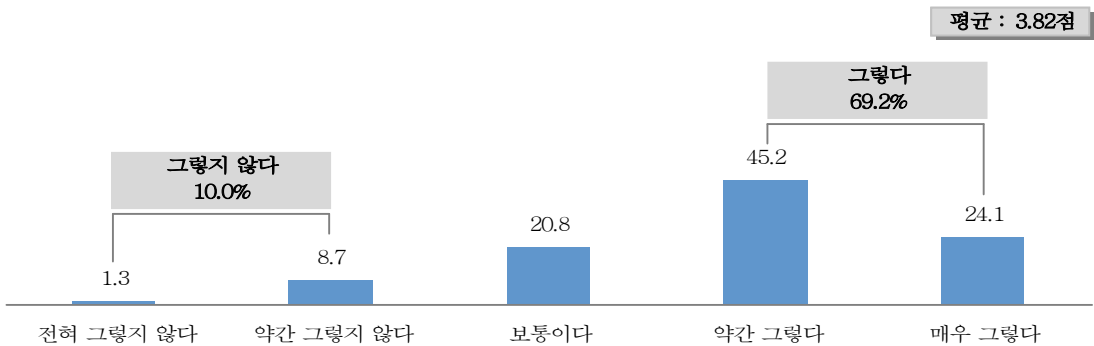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1 (2)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65.6%)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0.5%)보다 55.1%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18.5%)에서 40대(5.9%), 30대(7.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72.8%)에서 주부(56.7%), 블루칼라(62.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71.5%)에서 고졸(60.4%), 중졸 이하(6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② 수용도



-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1 (2)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69.2%) ‘그렇지 않다’는 응답(10.0%)에 비해 59.2%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18.9%)에서 10대(5.1%), 40대(7.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15.7%)에서 학생(6.0%), 농림어업/기타(7.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81.0%)에서 주부(60.4%), 자영업(62.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14.5%)에서 대재 이상(6.9%), 고졸(1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76.7%)에서 중졸(60.6%), 고졸(6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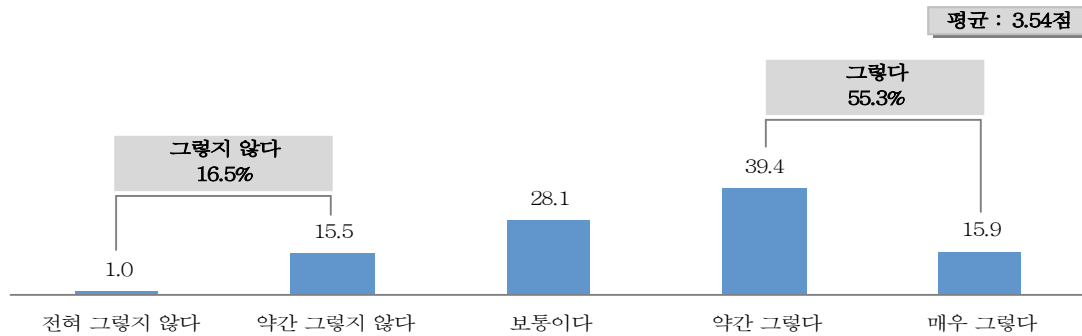
문  
15)

종결형에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제15항 붙임 2)

예 이것은 책이오. (O) . 이것은 책이요. (X),  
이리로 오시오. (O) . 이리로 오시요.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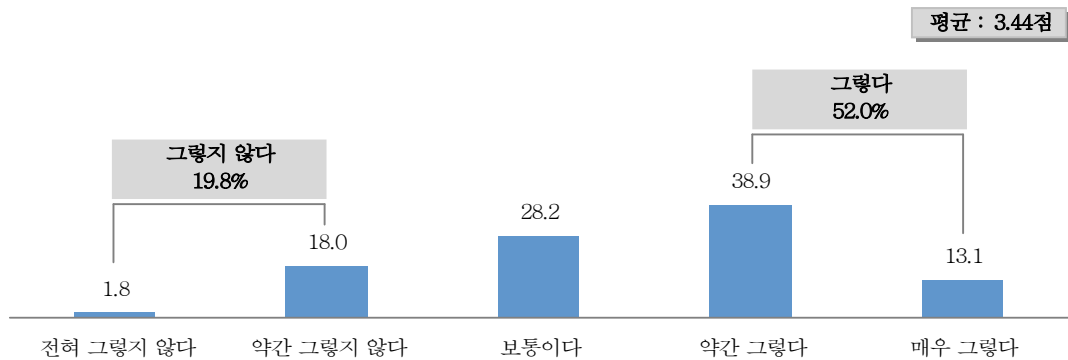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2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55.3%)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6.5%)보다 38.8%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라권(67.4%)에서 수도권(51.1%), 충청권(55.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59.25)에서 여성(5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6.6%)에서 20대(9.9%), 30대(13.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6.4%)에서 대재 이상(10.2%), 고졸(2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62.9%)에서 고졸(49.4%), 중졸 이하(5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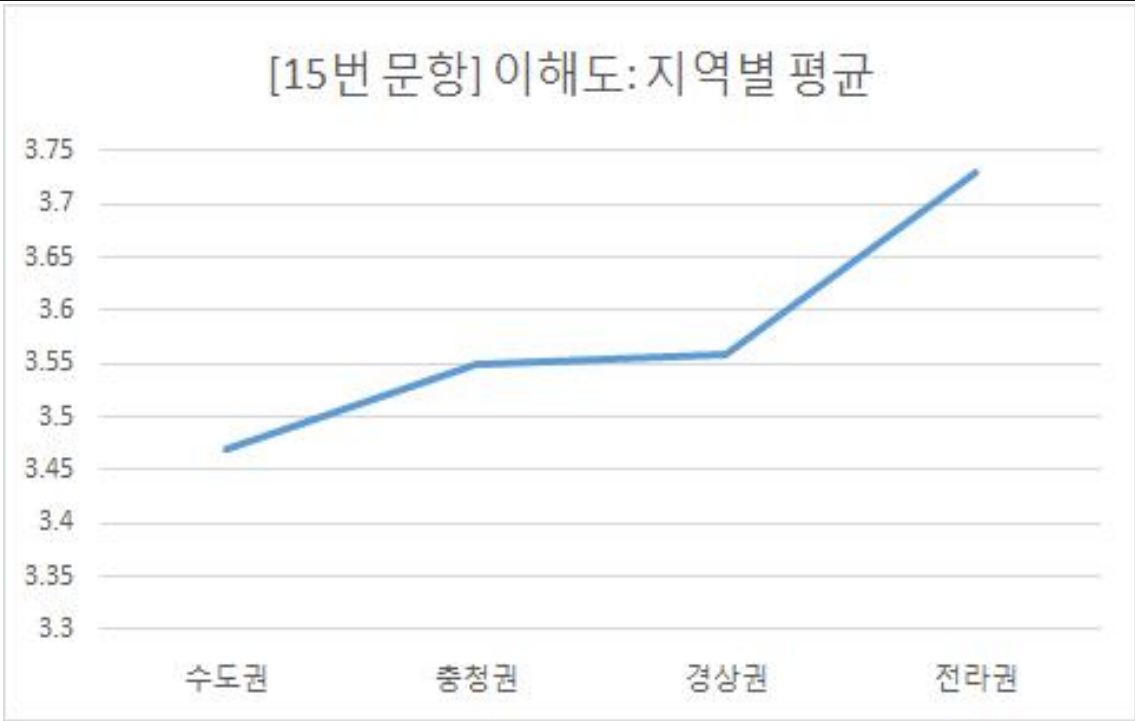
#### ②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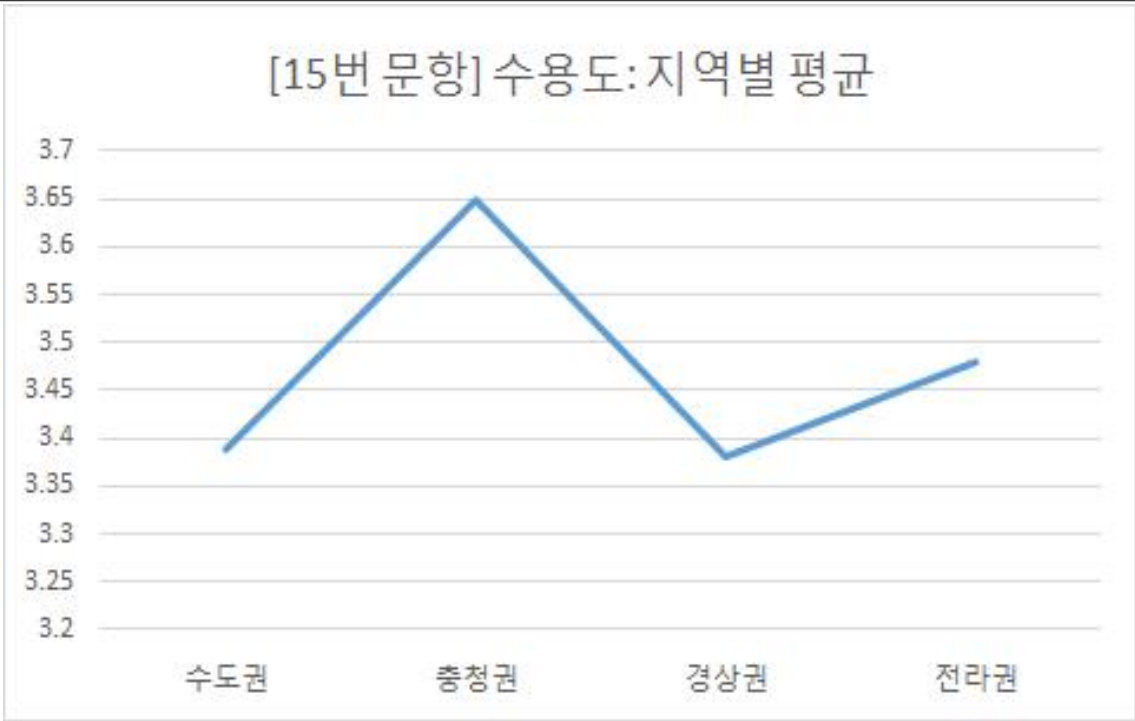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2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52.0%)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9.8%)보다 32.2%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충청권(57.2%)에서 경상권(50.3%), 수도권(50.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5.6%)에서 30대(15.4%), 10대(15.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7.6%)에서 농림어업/기타(12.9%), 화이트칼라(13.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7.9%)에서 대재 이상(13.8%), 고졸(2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62.8%)에서 고졸(43.7%), 중졸 이하(4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제15항 붙임 2)

예 이것은 책이오. (O)    - 이것은 책이요. (X),  
이리로 오시오. (O)    - 이리로 오시요. (X)



○ 지역별 평균은 전라권(3.73)에서 수도권(3.47), 충청권(3.55), 경상권(3.5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 평균은 충청권(3.65)에서 수도권(3.39), 경상권(3.38), 전라권(3.4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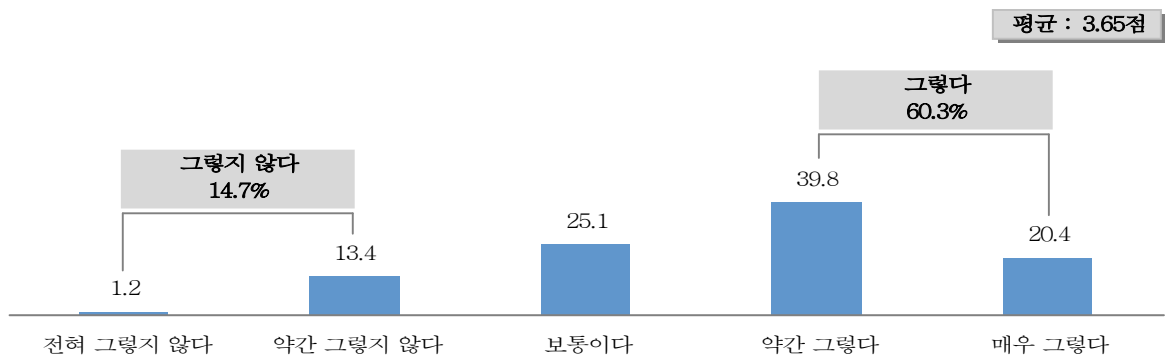
문  
16)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19항 1)

예 귀머거리 (O) - 귀먹어리 (X), 마개 (O) - 막에 (X), 주검 (O) - 죽엄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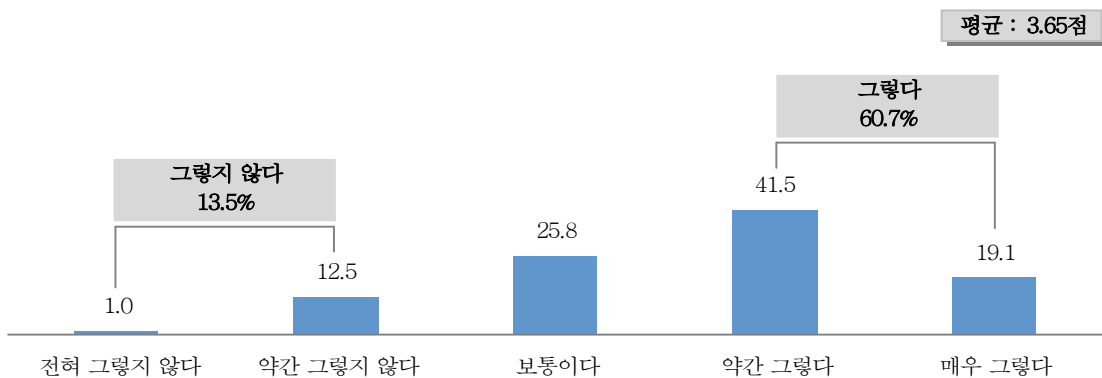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19항 1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60.3%)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4.7%)보다 45.6%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3.2%)에서 10대(10.6%), 20대(11.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0.3%)에서 농림어업/기타(5.5%), 학생(9.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0.4%)에서 대재 이상(11.1%), 고졸(1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66.1%)에서 중졸 이하(50.6%), 고졸(57.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 <한글 맞춤법> 제19항 1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60.7%)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6.5%)보다 44.2%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19.8%)에서 전라권(6.9%), 충청권(7.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라권(71.6%)에서 경상권(56.6%), 수도권(58.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7.5%)에서 40대(9.7%), 30대(10.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5.1%)에서 대재 이상(8.6%), 고졸(1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69.9%)에서 중졸 이하(45.9%), 고졸(5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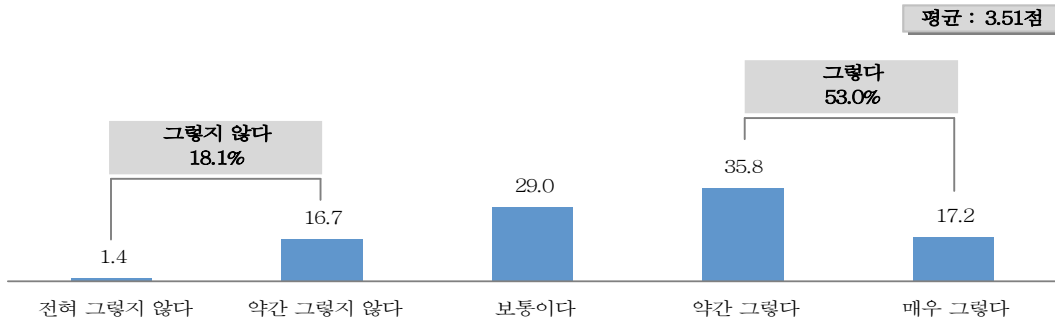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3항)

예	배불뚝이 (O) - 배불뚝기 (X), 빼죽이 (O) - 빼죽기 (X),	오펙이 (O) - 오펙기 (X) 홀쭉이 (O) - 홀쭉기 (X)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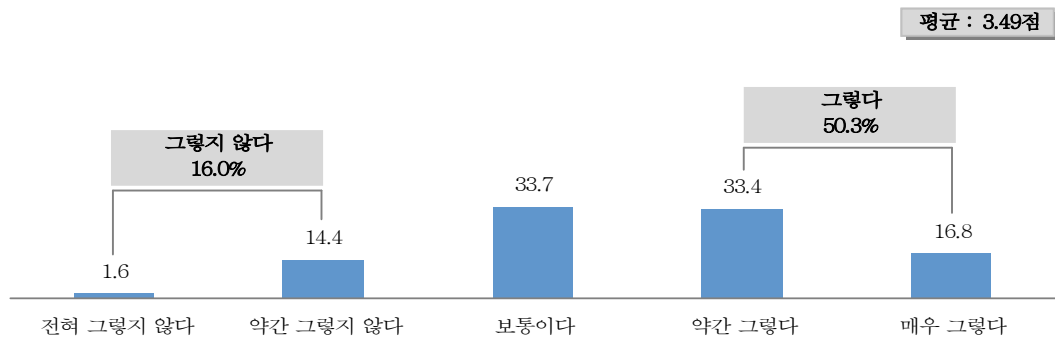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23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53.0%)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8.1%)보다 34.9%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2.7%)에서 10대(13.0%), 20대(14.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주부(22.9%)에서 농림어업/기타(9.8%), 학생(12.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64.9%)에서 자영업(40.2%), 주부(46.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3.6%)에서 대재 이상(15%), 고졸(1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58.1%)에서 고졸(49.0%), 중졸 이하(4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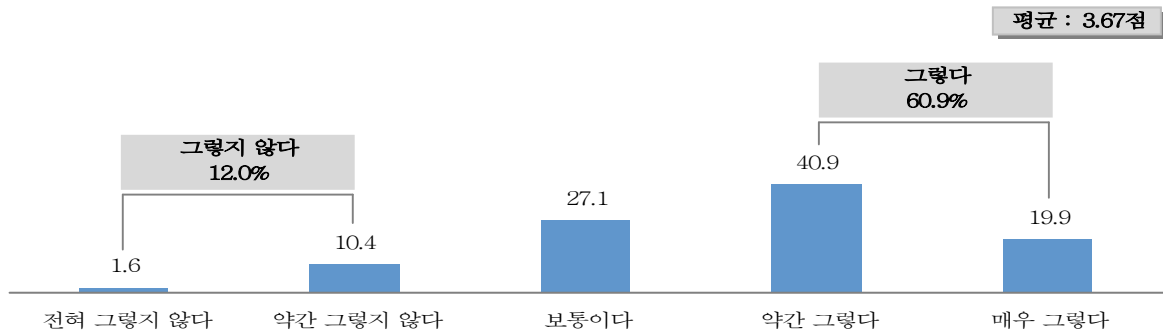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제23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50.3%)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6.0%)보다 34.3%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23.0%)에서 충청권(6.3%), 수도권(15.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충청권(67.3%)에서 경상권(45.6%), 수도권(46.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1.4%)에서 10대(9.4%), 40대(12.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1.4%)에서 학생(8.6%), 농림어업/기타(10.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1.4%)에서 대재 이상(11.8%), 고졸(18.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59.0%)에서 중졸 이하(43.0%), 고졸(43.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 18)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제29항)

예 이틀날 (O) - 이틀날 (X), 순가락 (O) - 술가락 (X), 선달 (O) - 설달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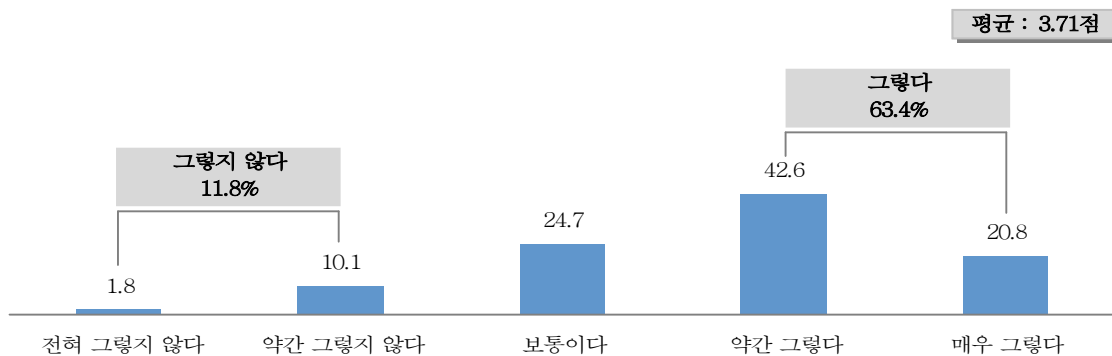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29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60.9%)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2.0%)보다 48.9%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6.0%)에서 10대(6.3%), 20대(9.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65.2%)에서 60대(47.1%), 10대(58.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17.4%)에서 농림어업/기타(3.4%), 학생(4.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68.2%)에서 중졸 이하(53.3%), 고졸(5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 <한글 맞춤법> 제29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63.4%)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1.8%)보다 51.6%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16.5%)에서 충청권(9.3%), 전라권(9.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0.3%)에서 10대(7.1%), 20대(7.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70.1%)에서 60대(47.7%), 30대(59.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18.4%)에서 학생(5.4%), 화이트칼라(7.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70.0%)에서 자영업(58.6%), 블루칼라(59.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18.7%)에서 대재 이상(6.3%), 고졸(1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71.0%)에서 고졸(57.9%), 중졸 이하(57.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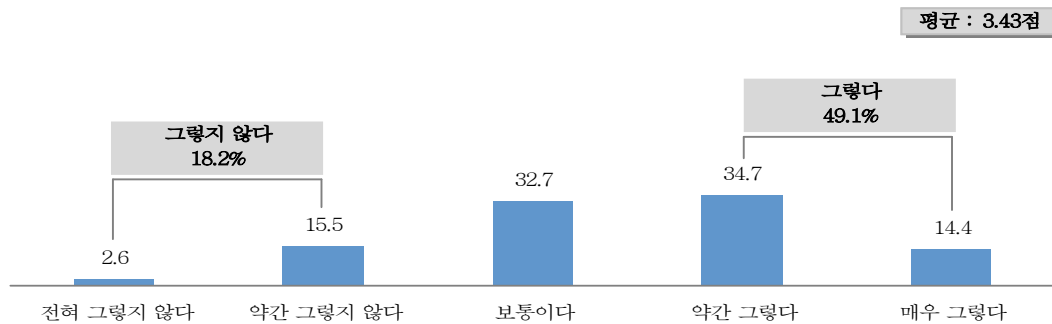
문  
19)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제30항 2 (1))

예	머릿방 (O) - 머리방 (X), 꽃병 (O) - 코병 (X),	전셋집 (O) - 전세집 (X) 등하굣길 (O) - 등하교길 (X)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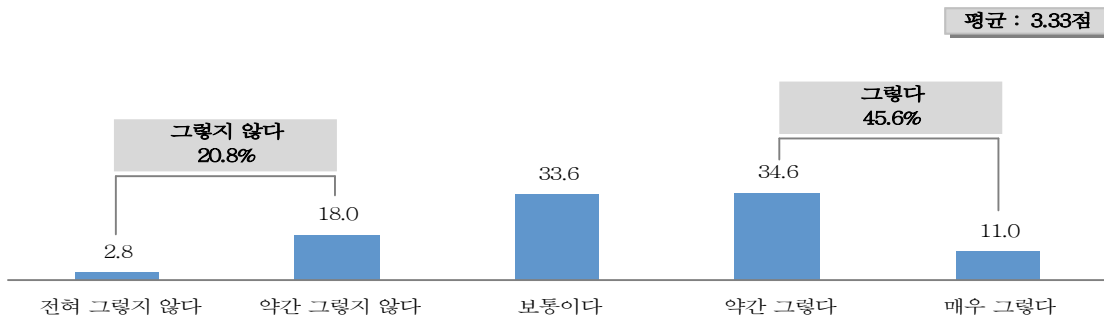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30항 2 (1)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49.1%)이 ‘그렇지 않다’(18.2%)는 응답보다 30.9%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8.9%)에서 20대(12.7%), 30대(13.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6.6%)에서 농림어업/기타(13.6%), 학생(14.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6.6%)에서 대재 이상(13.9%), 고졸(2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55.7%)에서 중졸 이하(35.6%), 고졸(4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 <한글 맞춤법> 제30항 2 (1)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45.6%)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0.8%)보다 24.8%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25.9%)에서 수도권(16.6%), 충청권(21.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충청권(52.3%)에서 경상권(43.0%), 전라권(43.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6.3%)에서 10대(9.4%), 30대(15.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9.7%)에서 학생(11.5%), 화이트칼라(16.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58.3%)에서 주부(35.1%), 자영업(39.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8.1%)에서 대재 이상(14.8%), 고졸(2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53.7%)에서 중졸 이하(37.6%), 고졸(4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  
20)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즉 '갯수(個數)', '촛점(焦點)'은 틀린 표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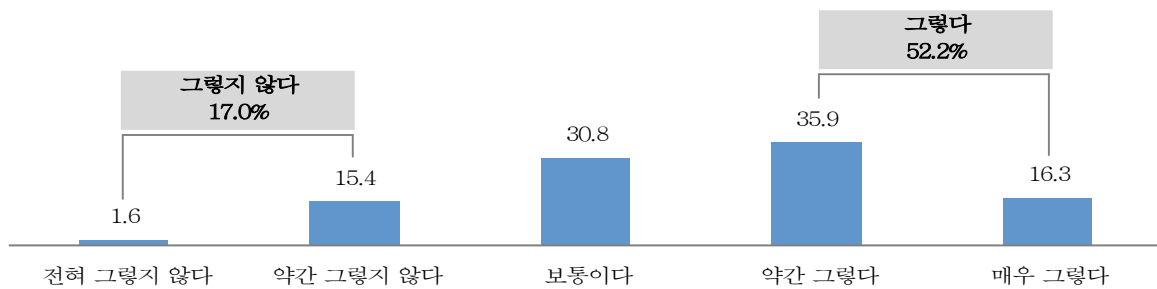
(제30항 3)

예	곳간(庫間) (O) - 고간 (X), 차간(車間) (O) - 차간 (X),	셋방(貰房) (O) - 세방 (X), 뒷간(退間) (O) - 퇴간 (X),	숫자(數字) (O) - 수자 (X), 횃수(回數) (O) - 회수 (X)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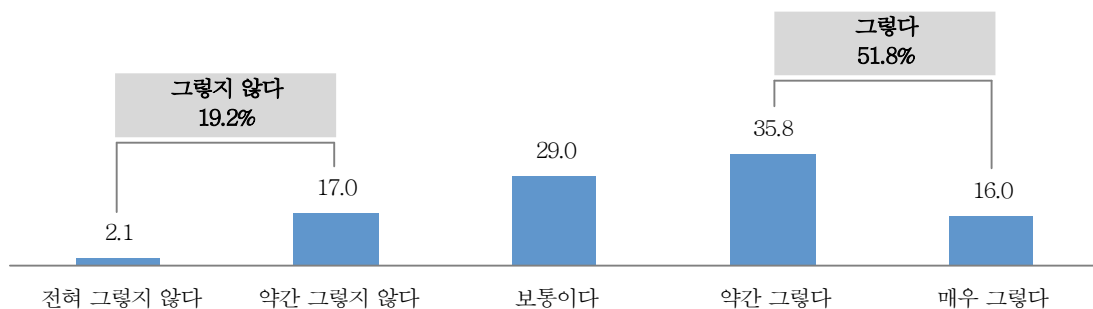
평균 : 3.50점



- <한글 맞춤법> 제30항 3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52.2%)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7.0%)보다 35.2%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2.6%)에서 30대(13.5%), 20대, 40대(14.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56.7%)에서 60대(44.7%), 10대(49.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2.8%)에서 학생(12.7%), 농림어업/기타(14.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 응답률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6.4%)에서 대재 이상(14.3%), 고졸(17.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평균 : 3.47점



- <한글 맞춤법> 제30항 3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51.8%)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9.2%)보다 32.6%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0.2%)에서 10대(13.3%), 30대(17.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대(56.9%)에서 60대(42.0%), 50대(48.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5.9%)에서 대재 이상(13.9%), 고졸(2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57.1%)에서 중졸 이하(43.5%), 고졸(4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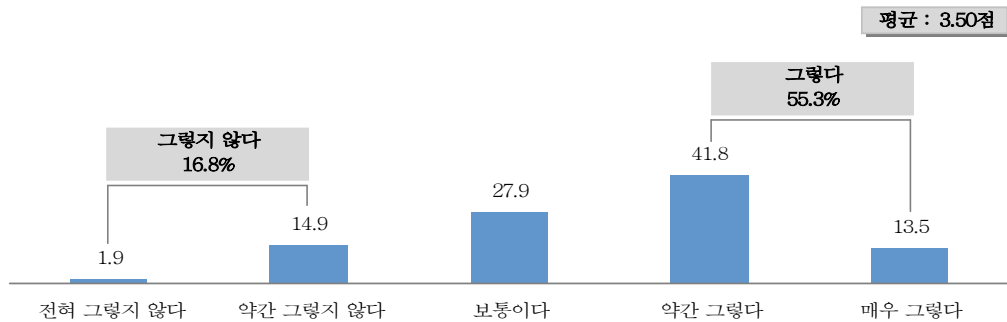
21)

‘니’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냈’으로 될 적에 준 대로 적는다. (제35항 붙임 2)

예 되어 (O) - 돼 (O) - 되 (X), 되었다 (O) - 됐다 (O) - 뵈다 (X)  
뵈어 (O) - 뵘 (O) - 뵈 (X), 뵈었다 (O) - 뵘다 (O) - 뵈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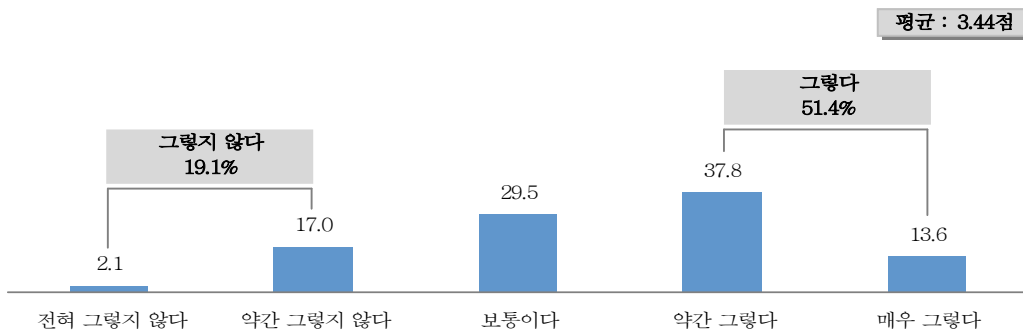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55.3%)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6.8%)보다 38.5%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5.4%)에서 20대(10.5%), 30대(10.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대(66.8%)에서 60대(44.7%), 50대(50.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7.7%)에서 대재 이상(12.0%), 고졸(18.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51.4%)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9.1%)보다 32.3%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26.5%)에서 충청권(12.2%), 수도권(16.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2.8%)에서 30대(15.6%), 20대(16.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61.8%)에서 60대(38.2%), 50대(46.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4.5%)에서 농림어업/기타(13.6%), 학생(15.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59.3%)에서 자영업(43.0%), 주부(43.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 응답률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5.4%)에서 대재 이상(13.4%), 고졸(22.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59.7%)에서 중졸 이하(36.9%), 고졸(4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되’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냈’으로 될 적에 준 대로 적는다.

(제35항 붙임 2)

예

되어 (O) - 돼 (O) - 되 (X),  
 봐어 (O) - 배 (O) - 뵈 (X),

되었다 (O) - 뵈다 (O) - 뵈다 (X)  
 뵈었다 (O) - 뵈다 (O) - 뵈다 (X)

[21번문항] 이해도: 지역별 평균



○ 지역별 평균은 수도권(3.42), 충청권(3.6), 경상권(3.5), 전라권(3.65)이 서로 유사함.

[21번 문항] 수용도: 지역별 평균



○ 지역별 평균은 충청권(3.63)과 전라권(3.6)에서 수도권(3.43)과 경상권(3.2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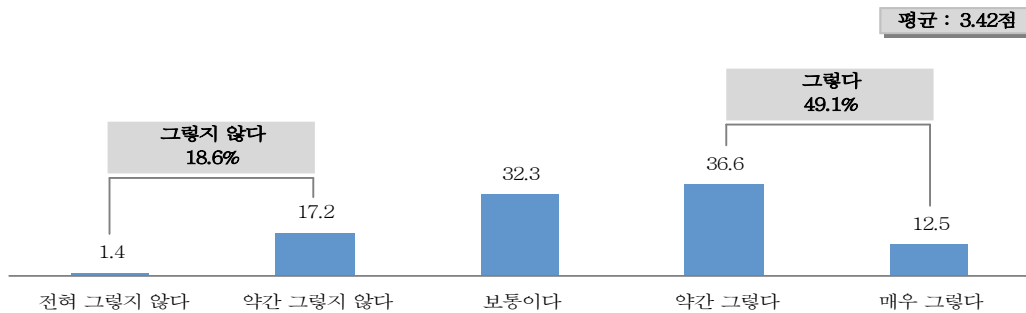
문  
22)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9항)

예	그렇지 않은 (O) - 그렇잖은 (O) - 그렇찮은 (X) 만만하지 않다 (O) - 만만찮다 (O) - 만만잖다 (X)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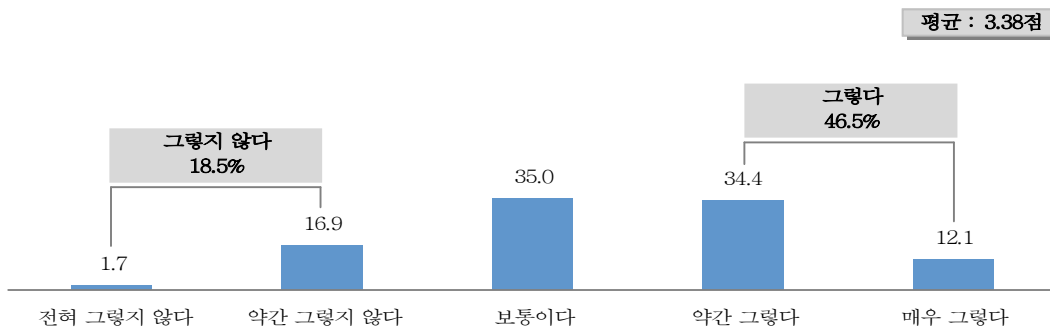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39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49.1%)이 ‘그렇지 않다’(18.6%)보다 30.5%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3.0%)에서 20대(9.9%), 30대(16.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56.9%)에서 60대(32.2%), 10대(47.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8.5%)에서 대재 이상(14.1%), 고졸(20.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53.4%)에서 중졸 이하(40.2%), 고졸(47.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 <한글 맞춤법> 제39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46.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8.5%)보다 28.0%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24.2%)에서 충청권(12.8%), 전라권(14.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충청권(61.2%)에서 경상권(42.8%), 수도권(43.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4.3%)에서 10대(11.4%), 20대(13.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58.0%)에서 60대(33.8%), 30대(44.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6.3%)에서 학생(13.4%), 화이트칼라(13.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52.3%)에서 자영업(41.4%), 주부(43.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상(28.6%)에서 대재 이상(15.7%), 고졸(18.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52.2%)에서 중졸 이하(32.7%), 고졸(4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40항 붙임 2)

23)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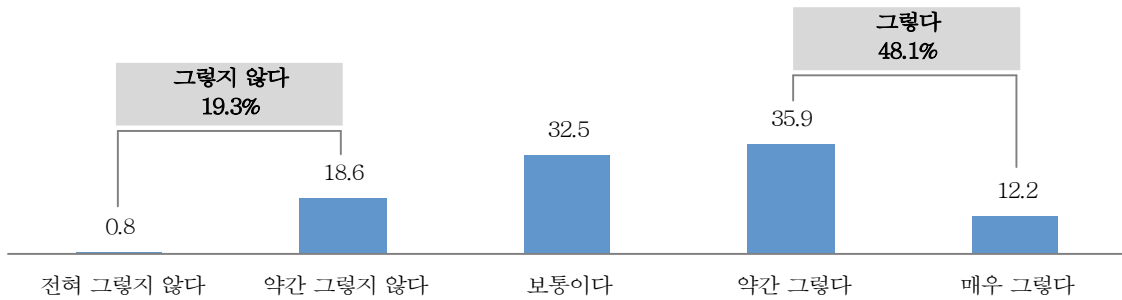
생각하전대 (O) - 생각전대 (O) - 생각컨대 (X)

넉넉하지 않다 (O) - 넉넉지 않다 (O) - 넉넉치 않다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①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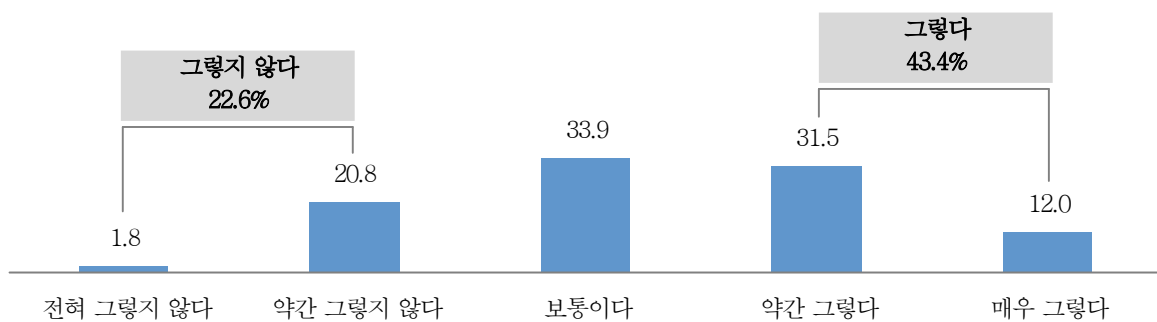
평균 : 3.40점



- <한글 맞춤법> 제40항 붙임 2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48.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9.3%)보다 28.8%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9.6%)에서 10대(11.2%), 20대(15.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8.0%)에서 학생(12.7%), 농림어업/기타(17.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57.7%)이 자영업(38.4%), 주부(44.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② 수용도

평균 : 3.31점



- <한글 맞춤법> 제40항 붙임 2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43.4%)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2.6%)보다 20.8%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7.3%)에서 10대(11.2%), 20대(17.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49.8%)에서 60대(34.0%), 40대(41.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35.2%)에서 농림어업/기타(13.4%), 학생(14.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1.4. [제5장 띄어쓰기](24~28)

문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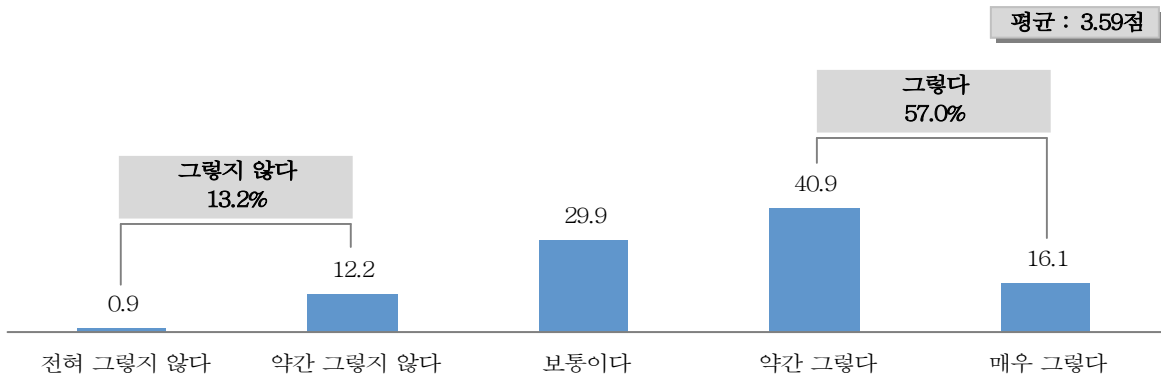
(제42항)

24)

예 아는 것이 쉽다. (O) - 아는것이 쉽다. (X)  
나도 할 수 있다. (O) - 나도 할수 있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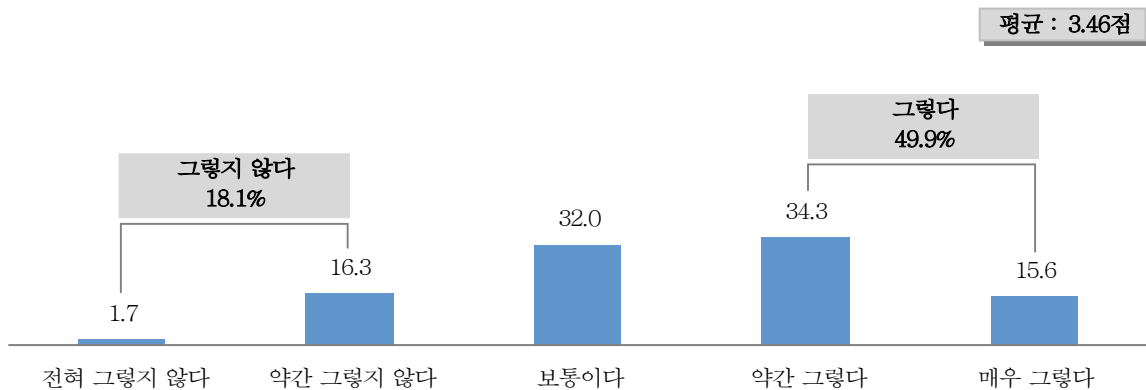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57.0%)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3.2%)보다 43.8%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5.3%)에서 30대(8.7%), 40대(10.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18.5%)에서 농림어업/기타(8.5%), 화이트칼라(9.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2.5%)에서 대재 이상(9.4%), 고졸(1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64.6%)에서 중졸 이하(44.5%), 고졸(5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② 수용도



-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49.9%)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8.1%)보다 31.8%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5.6%)에서 20대.30대(14.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주부(26.1%)에서 화이트칼라(9.4%), 학생(14.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32.2%)에서 대재 이상(11.0%), 고졸(2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62.6%)에서 중졸 이하(35.6%), 고졸(4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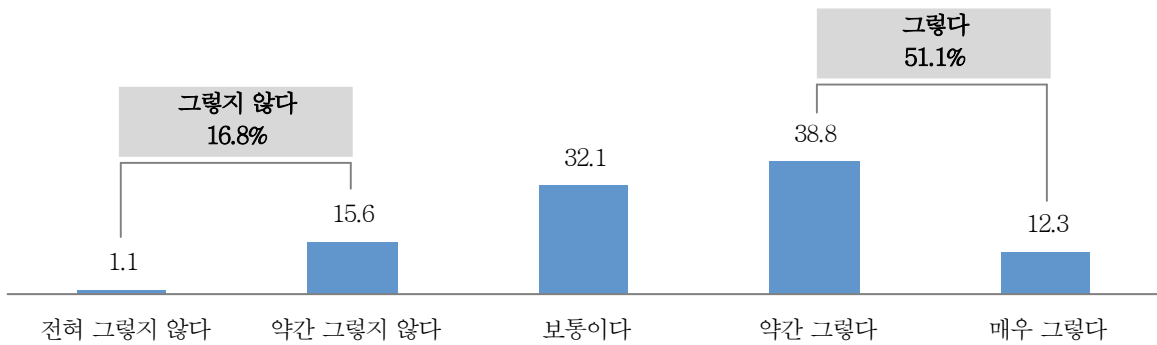
예

신 두 결레 (O) - 신 두결레 (X),      소 한 마리 (O) - 소 한마리 (X)  
 옷 한 벌 (O) - 옷 한벌 (X),      집 한 채 (O) - 집 한채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①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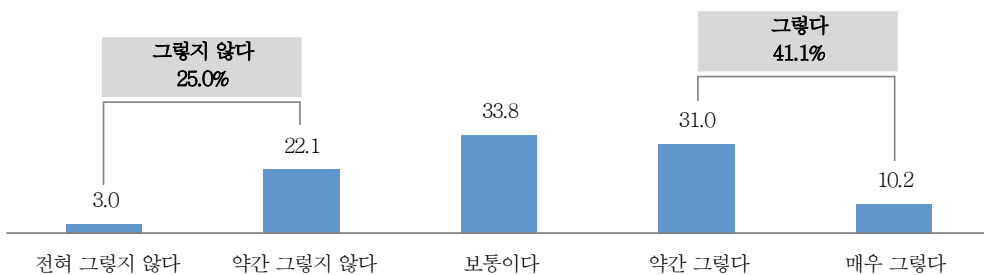
평균 : 3.46점



-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51.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6.8%)보다 34.3%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2.8%)에서 20대(8.8%), 10대(11.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7.5%)에서 학생(9.1%), 농림어업/기타(12.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8.2%)에서 대재 이상(11.0%), 고졸(19.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61.7%)에서 중졸 이하(32.4%), 고졸(4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② 수용도

평균 : 3.23점



-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41.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5.0%)보다 16.1%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28.8%)에서 전라권(20.1%), 충청권(23.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43.5%)에서 40대(18.8%), 30대(19.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40.1%)에서 화이트칼라(15.8%), 학생(21.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54.9%)에서 중졸 이하(24.1%), 고졸(3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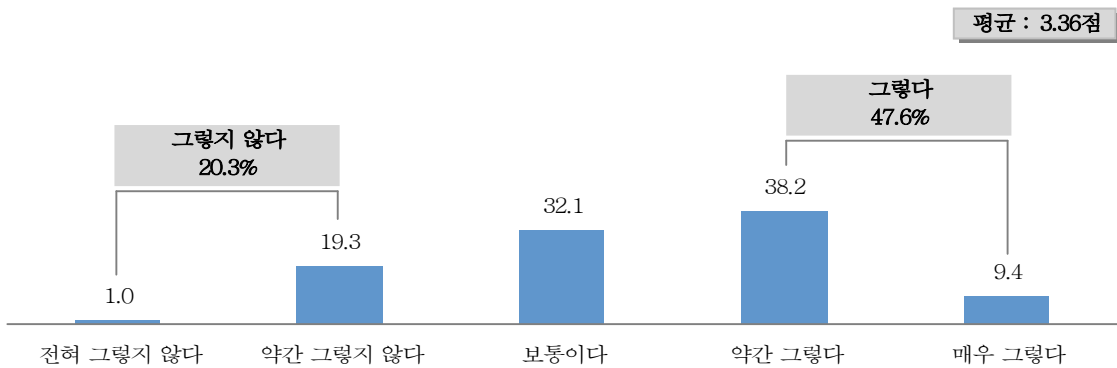
문  
26)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단,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는 띄어 쓴다. (제47항)

예    네가 덤벼 보아라. (O) - 네가 덤벼보아라. (O), 이 책은 읽을 만하다. (O) - 이 책은 읽을만하다. (O)  
      덤벼들어 보아라. (O) - 덤벼들어보아라. (X), 이 책은 읽어볼 만하다. (O) - 이 책은 읽어볼만하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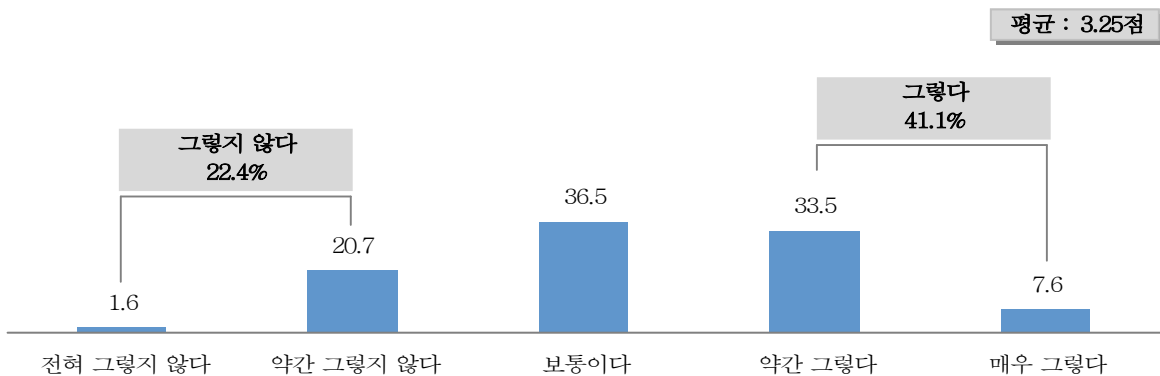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47.6%)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0.3%)보다 27.3%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2.2%)에서 10대(15.7%), 30대(17.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7.6%)에서 화이트칼라(16.3%), 학생(17.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블루칼라(53.7%)에서 자영업(37.7%), 주부(43.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9.3%)에서 대재 이상(16.7%), 고졸(2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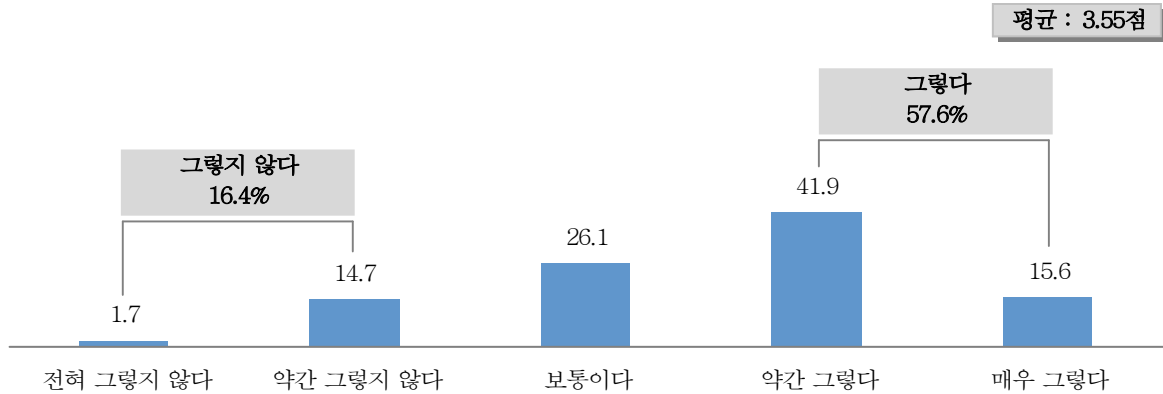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41.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2.4%)보다 18.7%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충청권(53.3%)에서 경상권(35.7%), 수도권(40.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6.9%)에서 10대(18.1%), 30대(18.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46.3%)에서 자영업(32.9%), 주부(38.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9.9%)에서 대재 이상(17.0%), 고졸(2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47.1%)에서 중졸 이하(29.8%), 고졸(3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 27)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제48항)

예 김양수 (O) - 김 양수 (X), 채영신 씨 (O) - 채영신씨 (X),  
최치원 선생 (O) - 최치원선생 (X), 충무공 이순신 장군 (O) - 충무공 이순신장군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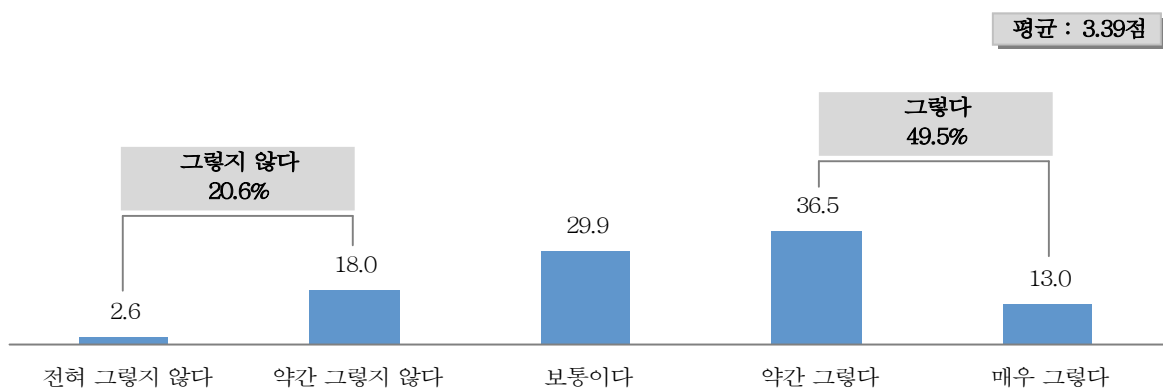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48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 응답(57.6%)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6.4%)보다 41.2%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9.0%)에서 20대(10.0%), 30대(12.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6.3%)에서 화이트칼라(10.7%), □루칼라(14.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4.9%)에서 대재 이상(10.6%), 고졸(1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67.0%)에서 중졸 이하(47.1%), 고졸(5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 <한글 맞춤법> 제48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49.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0.6%)보다 28.9%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2.0%)에서 20대(14.9%), 10대·30대(19.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7.7%)에서 대재 이상(15.4%), 고졸(2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60.0%)에서 중졸 이하(37.9%), 고졸(4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제50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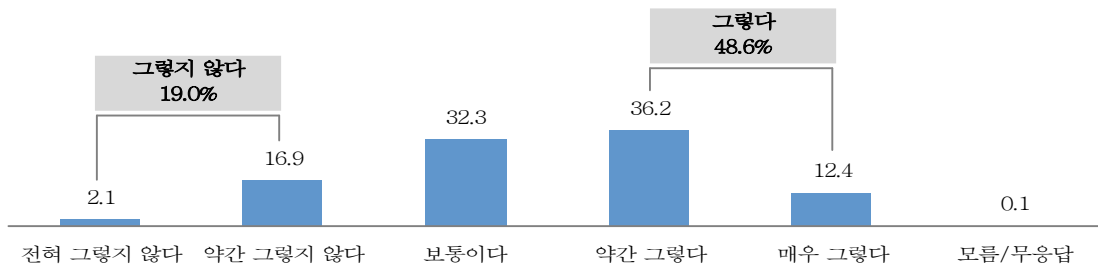
28)

예 [전문 용어] 경제 동맹 (O) - 경제동맹 (O), 유행성 감기 (O) - 유행성감기 (O)  
[일반어] 경제 단체 (O) - 경제단체 (X), 몸살감기 (O) - 몸살 감기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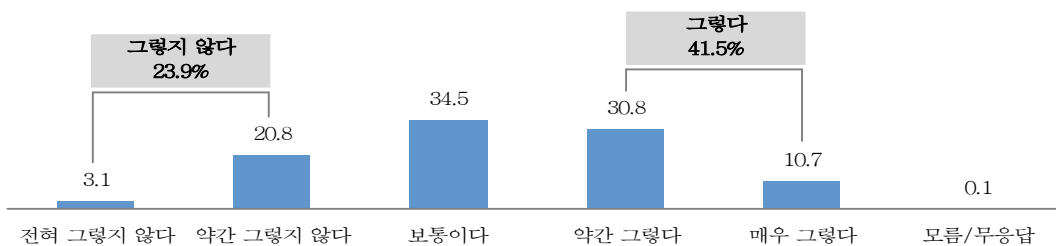
평균 : 3.40점



- <한글 맞춤법> 제50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48.6%)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9.0%)보다 29.6%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라권(53.1%)에서 수도권(46.7%), 경상권(49.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9.3%)에서 20대(11.5%), 30대(14.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7.9%)에서 화이트칼라(13.8%), 학생(16.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36.7%)에서 대재 이상(11.9%), 고졸(2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58.3%)에서 중졸 이하(35.8%), 고졸(4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평균 : 3.25점



- <한글 맞춤법> 제50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41.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3.9%)보다 17.6%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27.2%)에서 충청권(19.6%), 수도권(22.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38.8%)에서 30대(17.9%), 20대(19.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대(48.0%)에서 60대(23.4%), 50대(40.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35.3%)에서 화이트칼라(15.3%), 학생(22.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48.1%)에서 주부(31.5%), 자영업(37.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39.9%)에서 대재 이상(15.7%), 고졸(27.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49.9%)에서 중졸 이하(30.6%), 고졸(36.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1.5. [제6장 그 밖의 것](29~30)

문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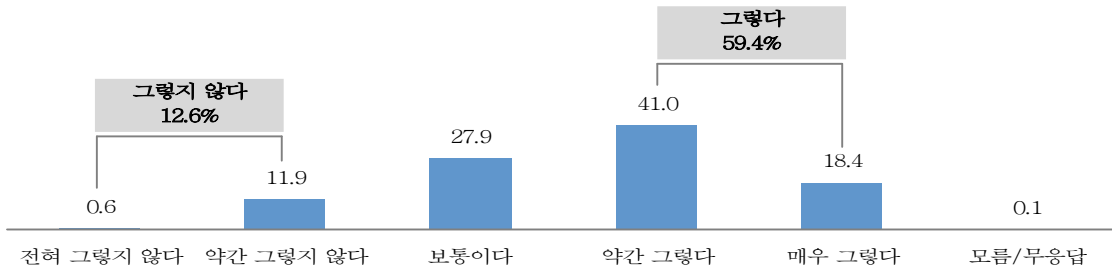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제51항 1)

예 깨끗이 (O) - 깨끗히 (X), 급히 (O) - 급이 (X), 쓸쓸히 (O) - 쓸쓸이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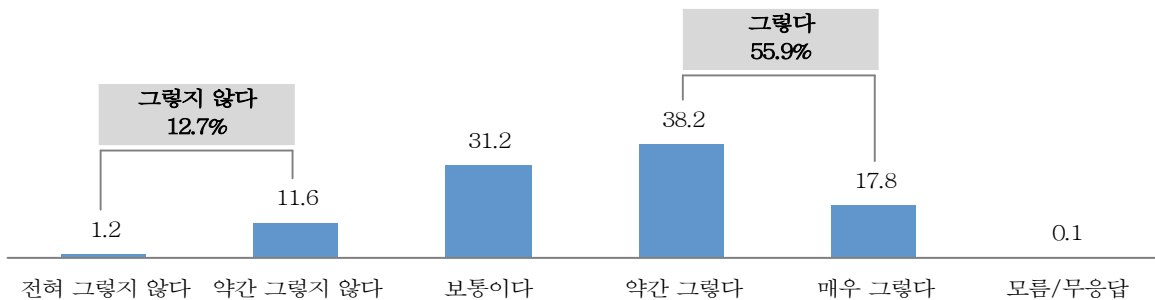
평균 : 3.65점



- <한글 맞춤법> 제51항 1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59.4%)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2.6%)보다 46.8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라권(68.2%)에서 수도권(57.0%), 충청권(59.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6.5%)에서 20대(5.5%), 10대(6.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19.4%)에서 대재 이상(7.8%), 고졸(1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69.3%)에서 중졸 이하(48.8%), 고졸(5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평균 : 3.60점



- <한글 맞춤법> 제51항 1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55.9%)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2.7%)보다 43.2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18.4%)에서 충청권(6.9%), 수도권(11.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5.3%)에서 30대(7.8%), 10대(8.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18.5%)에서 대재 이상(7.6%), 고졸(1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65.4%)에서 중졸 이하(47.6%), 고졸(49.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제51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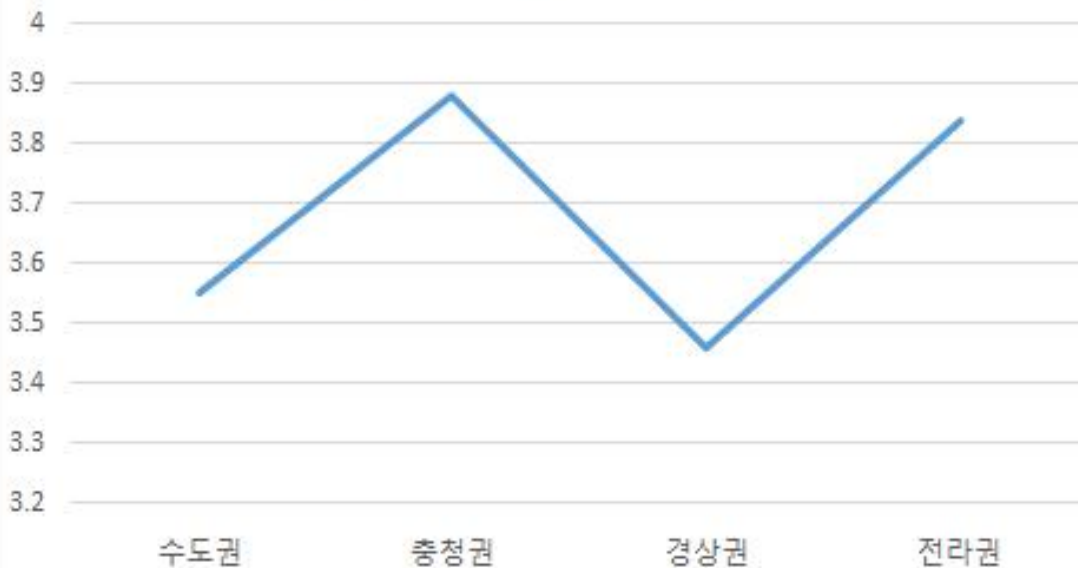
예 깨끗이 (O) - 깨끗히 (X), 급히 (O) - 급이 (X), 쓸쓸히 (O) - 쓸쓸이 (X)

[29번 문항] 이해도: 지역별 평균



○ 지역별 평균은 전라권(3.89)이 수도권(3.55), 충청권(3.75), 경상권(3.6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9번 문항] 수용도: 지역별 평균



○ 지역별 평균은 충청권(3.88)과 전라권(3.84)이 수도권(3.55)과 경상권(3.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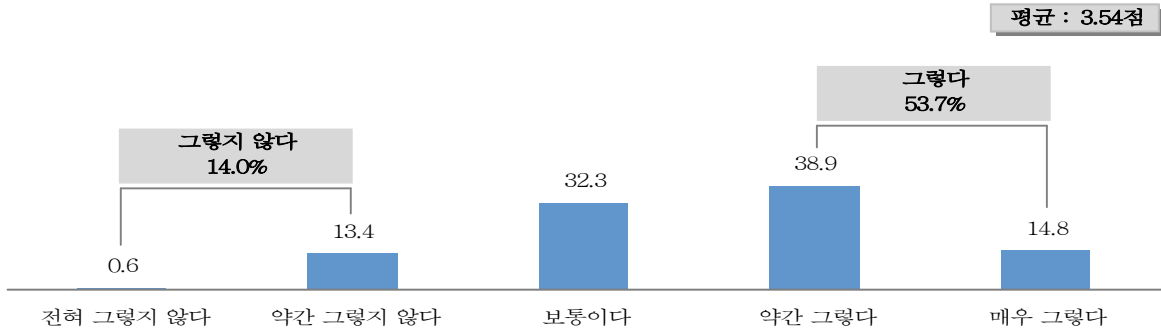
어미 ‘-(으)ㄹ걸’과 ‘-(으)ㄹ게’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제53항)

예 먼저 연락할걸. (O) - 먼저 연락할걸. (X), 나 먼저 갈게. (O) - 나 먼저 갈게.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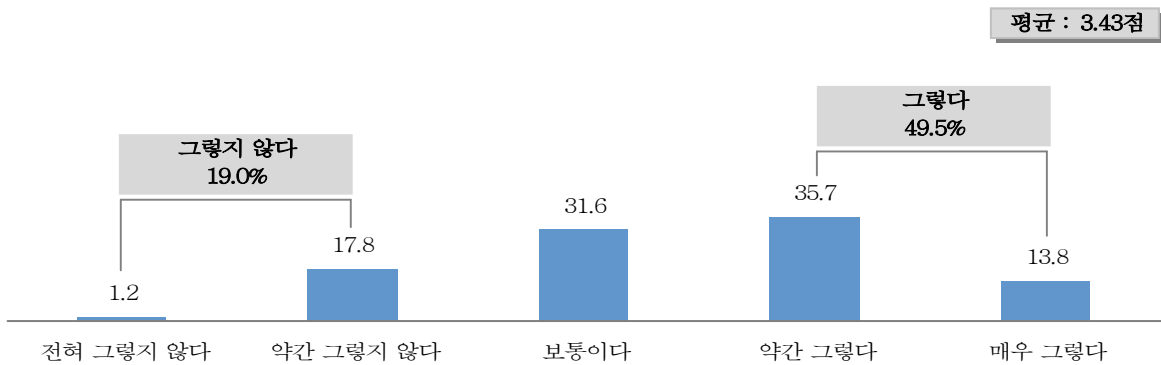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① 이해도



-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는 응답(53.7%)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4.0%)보다 39.7%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19.1%)에서 전라권(10.4%), 수도권(12.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27.9%)에서 20대(4.9%), 10대(9.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26.3%)에서 학생(7.4%), 화이트칼라(9.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68.7%)에서 주부(41.4%), 자영업(44.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2.2%)에서 대재 이상(10.0%), 고졸(1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재 이상(62.4%)에서 중졸 이하(45.5%), 고졸(4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②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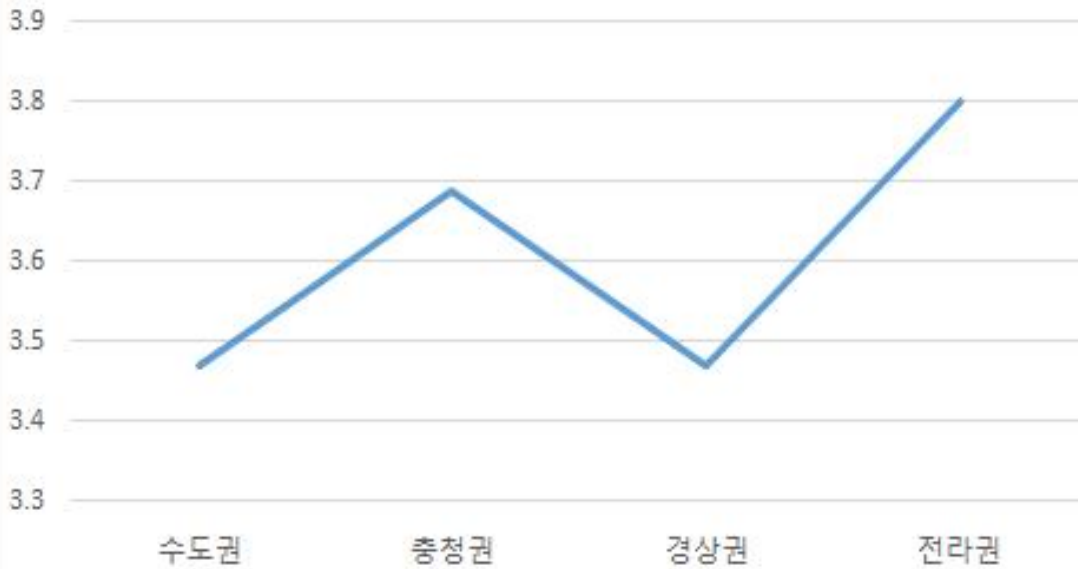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대한 수용도는 ‘그렇다’는 응답(49.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9.0%)보다 30.5%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권(28.1%)에서 충청권(10.3%), 전라권(15.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충청권(65.9%)에서 경상권(40.5%), 수도권(48.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67.7%)에서 주부(36.2%), 자영업(41.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26.5%)에서 대재 이상(13.9%), 고졸(2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재 이상(58.8%)에서 고졸(42.3%), 중졸 이하(4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어미 ‘-(으)ㄴ걸’과 ‘-(으)ㄴ게’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제53항)

**예** 먼저 연락할걸. (O) - 먼저 연락할걸. (X), 나 먼저 갈게. (O) - 나 먼저 갈께. (X)

[문항30] 이해도:지역별 평균



○ 지역별 평균은 충청권(3.69)과 전라권(3.80)이 수도권(3.47)과 경상권(3.4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0번 문항] 수용도:지역별 특성



○ 지역별 평균은 충청권(3.81)이 수도권(3.4), 경상권(3.21), 전라권(3.6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2. 응답자 특성별 이해도 및 수용도 분석

### 3.2.1. 응답자 특성별 이해도 분석

문항 8번에서 30번까지가 모두 이해도라는 구인을 측정한다고 정의하고, 총점수의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5%하에서 실시되었다.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해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세 집단 이상을 분석한 경우에는 사후 분석(Tukey's method 사용)을 진행하였다. 응답자 특성 중 '지역' 특성은 앞선 인식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응답자 특성별 이해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1) 성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남 성	523	3.62	.65
여 성	502	3.57	.71
총합	1025	3.60	.68

남자의 평균은 3.62(.65)이고 여자의 평균은 3.57(.71)이다. 남녀 집단이 등분산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웰치아스핀(Welch-Aspin)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남녀 집단 간 한글 맞춤법 이해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연령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만 13~18세	96	3.72	.67
만 19~29세	181	3.78	.63
만 30~39세	193	3.66	.66
만 40~49세	225	3.61	.68
만 50~59세	206	3.53	.63
만 60~69세	124	3.23	.75
총합	1025	3.60	.68

연령별 여섯 집단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  $F(5,1019)=11.754$ ,  $p(<.001)$ 로,  $p$  값이 .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하에서 연령 집단 간 한글 맞춤법 이해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집단의 조합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만 60~69세 집단은 한글 맞춤법 이해도에서 만 13~18세 집단과( $p<.001$ ), 만 19~29세 집단과( $p<.001$ ), 만 30~39세 집단과( $p<.001$ ), 만 40~49세 집단과( $p<.001$ ), 만 50~59세 집단과( $p=.001$ )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만 19~29세 집단과 만 50~59세 집단( $p=.003$ )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 13~18세 집단의 평균은 3.72, 만 19~29세 집단의 평균은 3.78, 만 30~39세 집단의 평균은 3.66, 만 40~49세 집단의 평균은 3.61, 만 50~59세 집단의 평균은 3.53, 만 60~69세 집단의 평균은 3.23이었다.

#### 3) 직업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자 영 업	171	3.42	.70
블루칼라	192	3.59	.65
화이트칼라	267	3.69	.69
주 부	190	3.43	.68
학 생	164	3.78	.64
총합	984	3.59	.69

무직/기타 집단(41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직업별 다섯 집단이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  $F(5,1019)=8.83/p(<.001)$ 로  $p$  값이 .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하에서 연령 집단 간 한글 맞춤법 이해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집단의 조합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자영업 집단과 화이트칼라 집단( $p=.001$ ), 자영업 집단과 학생 집단( $p<.001$ ), 화이트칼라 집단과 주부 집단( $p=.001$ ), 주부 집단과 학생 집단( $p<.001$ )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영업 집단의 평균은 3.42, 블루칼라 집단의 평균은 3.59, 화이트칼라 집단의 평균은 3.69, 주부 집단의 평균은 3.43, 학생 집단의 평균은 3.78이었다.

#### 4) 학력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중졸 이하	122	3.36	.74
고졸	468	3.51	.65
대재 이상	435	3.75	.67
총합	1025	3.60	.68

학력별 세 집단이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  $F(2,1011)=23.197$ ,  $p<.001$ 로  $p$  값이 .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하에서 연령 집단 간 한글 맞춤법 이해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집단의 조합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중졸 이하 집단과 대재 이상 집단 간( $p<.001$ ), 고졸 집단과 대재 이상 집단 간(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졸 이하 집단의 평균은 3.36, 고졸 집단의 평균은 3.51, 대재 이상 집단의 평균은 3.75였다.

#### 3.2.2. 응답자 특성별 수용도 분석

문항 8번에서 30번까지가 모두 수용도라는 구인을 측정한다고 정의하고, 총점수의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5%하에서 실시되었다.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해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세 집단 이상을 분석한 경우에는 사후 분석(Tukey's method 사용)을 진행하였다. 응답자 특성 중 '지역' 특성은 앞선 인식도, 이해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응답자 특성별 수용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1) 성별

성 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남 성	523	3.54	.64
여 성	502	3.56	.70

남자의 평균은 3.54(.64)이고 여자의 평균은 3.56(.70)이다. 성별 집단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했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남녀 집단은 한글 맞춤법 수용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연령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만 13~18세	96	3.70	.66
만 19~29세	181	3.71	.65
만 30~39세	193	3.61	.65
만 40~49세	225	3.58	.62
만 50~59세	206	3.48	.62
만 60~69세	124	3.16	.76
총합	1025	3.55	.67

연령별 여섯 집단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  $F(5,1019)=12.912$ ,  $p<.001$ 로  $p$  값이 .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하에서 연령 집단 간 한글 맞춤법 수용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집단의 조합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만 60~69세 집단은 한글 맞춤법 수용도에서 만 13~18세 집단과 ( $p<.001$ ), 만 19~29세 집단과( $p<.001$ ), 만 30~39세 집단과( $p<.001$ ), 만 40~49세 집단과( $p<.001$ ), 만 50~59세 집단과( $p<.001$ )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만 19~29세 집단과 만50~59세 집단( $p=.006$ )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 13~18세 집단의 평균은 3.70, 만 19~29세 집단의 평균은 3.71, 만 30~39세 집단의 평균은 3.61, 만 40~49세 집단의 평균은 3.58, 만 50~59세 집단의 평균은 3.48, 만 60~69세 집단의 평균은 3.16이었다.

### 3) 직업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자영업	171	3.38	.67
블루칼라	192	3.50	.61
화이트칼라	267	3.67	.67
주부	190	3.38	.66
학생	164	3.76	.63
총합	984	3.54	.67

무직/기타 집단(41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직업별 다섯 집단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  $F(4,979)=13.184$ ,  $p<.001$ 로  $p$  값이 .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하에서 연령 집단 간 한글 맞춤법 수용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집단의 조합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자영업 집단과 화이트칼라 집단( $p<.001$ ), 자영업 집단과 학생 집단( $p<.001$ ), 블루칼라 집단과 학생 집단( $p=.002$ ), 화이트칼라 집단과 주부 집단( $p<.001$ ), 주부 집단과 학생 집단( $p<.001$ )이 수용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영업 집단의 평균은 3.38, 블루칼라 집단의 평균은 3.50, 화이트칼라 집단의 평균은 3.67, 주부 집단의 평균은 3.38, 학생 집단의 평균은 3.76이었다.

### 4) 학력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중졸 이하	122	3.27	.78
고졸	468	3.44	.62
대재 이상	435	3.74	.64
총합	1025	3.55	.67

학력별 세 집단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웰치(Welch)  $f$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F(2,321)=35.611$ ,  $p<.001$ 로 유의수준 5%하에서 세 집단 간에 한글 맞춤법 수용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집단의 조합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집단( $p=.027$ ), 중졸 이하 집단과 대재 이상 집단( $p<.001$ ), 고졸 집단과 대재 이상 집단( $p<.001$ )에서 각각 수용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졸 이하 집단의 평균은 3.27, 고졸 집단의 평균은 3.44, 대재 이상 집단의 평균은 3.74였다.

### 3.3. 항목별 응답률에 따른 이해도 및 수용도 분석

- 3.3.1.에서는 [문항 8]부터 [문항 30]까지의 이해도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5문항, 낮은 응답률을 보인 5문항과 ‘그렇지 않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5문항, 낮은 응답률을 보인 5문항을 응답률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 3.3.2.에서는 [문항 8]부터 [문항 30]까지의 수용도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5문항, 낮은 응답률을 보인 5문항과 ‘그렇지 않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5문항, 낮은 응답률을 보인 5문항을 응답률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 ‘그렇지 않다’ 응답률은 5점 척도 중 1과 2에 해당하는 ‘매우 그렇지 않다’와 ‘조금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을 합산한 것이고 ‘그렇다’ 응답률은 5점 척도 중 4와 5에 해당하는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을 합산한 것이다.<sup>5)</sup>

#### 3.3.1. 이해도

##### 3.3.1.1. ‘그렇다’의 응답률 분석[이해도]

순위	문항 번호	조항 내용	보기항목							모름 /무응답	평균 (점)
			①+②			보통이다 ③			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약간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다		
1	문9	2항[충치-띄어쓰기]	0.6	6.6	7.1	17.9	47.9	27	74.9	-	3.94
2	문12	11항[두음 법칙(랴-아)]	0.7	10.6	11.3	17.5	43.8	27.4	71.2	-	3.87
3	문8	1항[충치-원리]	0.9	11.8	12.8	20.3	45.8	21.1	66.9	-	3.74
4	문11	9항[‘-’ 표기(희망)]	1.2	10.8	11.9	21.7	42.2	24.1	66.4	-	3.77
5	문14	15항 불임1(2) [합성용언(홀어지다)]	1.2	9.3	10.5	23.9	42.1	23.5	65.6	-	3.77
6	문10	5항 다만[된소리(몸시)]	1.1	12.2	13.2	22.4	44	20.3	64.3	-	3.7
7	문13	11항 불임1 다만 [두음 법칙(렬,룰-열,율)]	0.6	10.7	11.3	25.3	39.4	24	63.4	-	3.76
8	문18	29항[‘ㄷ’표기(술가락)]	1.6	10.4	12	27.1	40.9	19.9	60.9	-	3.67
9	문16	19항1[‘마개, 주검’ 등의 표기]	1.2	13.4	14.7	25.1	39.8	20.4	60.3	-	3.65
10	문29	51항1[‘부사-이’“-히’ 표기]	0.6	11.9	12.6	27.9	41	18.4	59.4	0.1	3.65
11	문27	48항[이름 띄어쓰기]	1.7	14.7	16.4	26.1	41.9	15.6	57.6	-	3.55
12	문24	42항[의존 명사 띄어쓰기]	0.9	12.2	13.2	29.9	40.9	16.1	57	-	3.59
13	문15	15항 불임2[‘-오’ 표기]	1	15.5	16.5	28.1	39.4	15.9	55.3	-	3.54
14	문21	35항불임2[‘내’ 표기(돼)]	1.9	14.9	16.8	27.9	41.8	13.5	55.3	-	3.5
15	문30	53항[‘-ㄹ걸, -ㄹ게’ 표기]	0.6	13.4	14	32.3	38.9	14.8	53.7	-	3.54
16	문17	23항[‘오독이, 삐죽이’의 표기]	1.4	16.7	18.1	29	35.8	17.2	53	-	3.51
17	문20	30항3[사이시옷(숫자)]	1.6	15.4	17	30.8	35.9	16.3	52.2	-	3.5
18	문25	43항[단위 명사 띄어쓰기]	1.1	15.6	16.8	32.1	38.8	12.3	51.1	-	3.46
19	문19	30항2(1)[사이시옷(전셋집)]	2.6	15.5	18.2	32.7	34.7	14.4	49.1	-	3.43
20	문22	39항[‘잡’, ‘찰’ 표기]	1.4	17.2	18.6	32.3	36.6	12.5	49.1	-	3.42
21	문28	50항[전문 용어 띄어쓰기]	2.1	16.9	19	32.3	36.2	12.4	48.6	0.1	3.4
22	문23	40항 불임2[‘하’탈락 (생각건대)]	0.8	18.6	19.3	32.5	35.9	12.2	48.1	-	3.4
23	문26	47항[보조 용언 띄어쓰기]	1	19.3	20.3	32.1	38.2	9.4	47.6	-	3.36

5) 합산할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의 값도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므로 표에 제시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값으로 1과 2, 4와 5를 더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 ‘그렇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해도 조사 상위 5문항

순서	문항	응답률	<한글 맞춤법> 해당 조항 내용(설문지 제시본)
1	[문9]	74.9%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2	[문12]	71.2%	양심(良心) (O) - 량심 (X),      역사(歷史) (O) - 력사 (X),      예의(禮儀) (O) - 레의 (X) 용궁(龍宮) (O) - 룡궁 (X),      유행(流行) (O) - 류행 (X),      이발(理髮) (O) - 리발 (X)
3	[문8]	66.9%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4	[문11]	66.4%	무너 (O) - 무니 (X),      띄어쓰기 (O) - 띄어쓰기 (X) 희망 (O) - 히망 (X),      하늬바람 (O) - 하늬바람 (X)
5	[문14]	65.6%	제15항-붙임1-(2)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들어가다 (O) - 드려가다 (X),      떨어지다 (O) - 떠러지다 (X),      흠어지다 (O) - 흐터지다 (X)

○ ‘그렇다’에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이해도 조사 하위 5문항

순서	문항	응답률	<한글 맞춤법> 해당 조항 내용(설문지 제시본)
1	[문26]	47.6%	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단,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는 띄어 쓴다. 네가 덤벼 보아라.(O) - 네가 덤벼보아라.(O), 이 책은 읽을 만하다.(O) - 이 책은 읽을만하다.(O) 덤벼들어 보아라.(O) - 덤벼들어보아라.(X), 이 책은 읽어볼 만하다.(O) - 이 책은 읽어볼만하다.(X)
2	[문23]	48.1%	40항-붙임2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생각하건대 (O) - 생각건대 (O) - 생각컨대 (X) 넉넉하지 않다 (O) - 넉넉지 않다 (O) - 넉넉치 않다 (X)
3	[문28]	48.6%	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전문 용어] 경제 동맹 (O) - 경제동맹 (O),      유행성 감기 (O) - 유행성감기 (O) [일반어] 경제 단체 (O) - 경제단체 (X),      몸살감기 (O) - 몸살 감기 (X)
4	[문19]	49.1%	30항-2-(1)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머릿방 (O) - 머리방 (X),      전셋집 (O) - 전세집 (X) 콧병 (O) - 코병 (X),      등하굣길 (O) - 등학교길 (X)
5	[문22]	49.1%	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렇지 않은 (O) - 그렇잖은 (O) - 그렇찮은 (X) 만만하지 않다 (O) - 만만찮다 (O) - 만만잖다 (X)

### 3.3.1.2.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 분석[이해도]

			보기항목								
순위	문항 번호	조항 내용			①+②		④+⑤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문26	47항[보조 용언 띄어쓰기]	1	19.3	20.3	32.1	38.2	9.4	47.6	-	3.36
2	문23	40항 불임2[‘하’ 탈락(생각건대)]	0.8	18.6	19.3	32.5	35.9	12.2	48.1	-	3.4
3	문28	50항[전문 용어 띄어쓰기]	2.1	16.9	19	32.3	36.2	12.4	48.6	0.1	3.4
4	문22	39항[‘잖’, ‘잖’ 표기]	1.4	17.2	18.6	32.3	36.6	12.5	49.1	-	3.42
5	문19	30항2(1)[사이시옷(전셋집)]	2.6	15.5	18.2	32.7	34.7	14.4	49.1	-	3.43
6	문17	23항[‘오뎅이,뽕죽이’의 표기]	1.4	16.7	18.1	29	35.8	17.2	53	-	3.51
7	문20	30항3[사이시옷(숫자)]	1.6	15.4	17	30.8	35.9	16.3	52.2	-	3.5
8	문21	35항 불임2[‘내’ 표기(돼)]	1.9	14.9	16.8	27.9	41.8	13.5	55.3	-	3.5
9	문25	43항[단위 명사 띄어쓰기]	1.1	15.6	16.8	32.1	38.8	12.3	51.1	-	3.46
10	문15	15항 불임2[‘-오’ 표기]	1	15.5	16.5	28.1	39.4	15.9	55.3	-	3.54
11	문27	48항[이름 띄어쓰기]	1.7	14.7	16.4	26.1	41.9	15.6	57.6	-	3.55
12	문16	19항1[‘마개, 주검’ 등의 표기]	1.2	13.4	14.7	25.1	39.8	20.4	60.3	-	3.65
13	문30	53항[‘-ㄹ걸, -ㄹ게’ 표기]	0.6	13.4	14	32.3	38.9	14.8	53.7	-	3.54
14	문10	5항 다만[된소리(몸시)]	1.1	12.2	13.2	22.4	44	20.3	64.3	-	3.7
15	문24	42항[의존 명사 띄어쓰기]	0.9	12.2	13.2	29.9	40.9	16.1	57	-	3.59
16	문8	1항[총칙-원리]	0.9	11.8	12.8	20.3	45.8	21.1	66.9	-	3.74
17	문29	51항1[부사 ‘-이’ ‘-히’ 표기]	0.6	11.9	12.6	27.9	41	18.4	59.4	0.1	3.65
18	문18	29항[‘ㄷ’ 표기(순가락)]	1.6	10.4	12	27.1	40.9	19.9	60.9	-	3.67
19	문11	9항[‘-니’ 표기(희망)]	1.2	10.8	11.9	21.7	42.2	24.1	66.4	-	3.77
20	문12	11항[두음 법칙(랴-야)]	0.7	10.6	11.3	17.5	43.8	27.4	71.2	-	3.87
21	문13	11항 불임1 다만 [두음 법칙(렬,률-열,율)]	0.6	10.7	11.3	25.3	39.4	24	63.4	-	3.76
22	문14	15항 불임1(2) [합성 용언(흘어지다)]	1.2	9.3	10.5	23.9	42.1	23.5	65.6	-	3.77
23	문9	2항[총칙-띄어쓰기]	0.6	6.6	7.1	17.9	47.9	27	74.9	-	3.94

○ ‘그렇지 않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해도 조사 상위 5문항

순서	문항	응답률	<한글 맞춤법> 해당 조항 내용(설문지 제시본)
1	[문26]	20.3%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단, 앞 말이 합성동사인 경우는 띄어 쓴다. 내가 덤벼 보아라.(O) - 내가 덤벼보아라.(O), 이 책은 읽을 만하다.(O) - 이 책은 읽을만하다.(O) 덤벼들어 보아라.(O) - 덤벼들어보아라.(X), 이 책은 읽어볼 만하다.(O) - 이 책은 읽어볼만하다.(X)
2	[문23]	19.3%	제40항-붙임2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생각하건대 (O) - 생각건대 (O) - 생각컨대 (X) 넉넉하지 않다 (O) - 넉넉지 않다 (O) - 넉넉치 않다 (X)
3	[문28]	19%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전문 용어] 경제 동맹 (O) - 경제동맹 (O), 유행성 감기 (O) - 유행성감기 (O) [일반어] 경제 단체 (O) - 경제단체 (X), 몸살감기 (O) - 몸살 감기 (X)
4	[문22]	18.6%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렇지 않은 (O) - 그렇잖은 (O) - 그렇찮은 (X) 만만하지 않다 (O) - 만만찮다 (O) - 만만잡다 (X)
5	[문19]	18.25	제30항-2-(1)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머릿방 (O) - 머리방 (X), 전셋집 (O) - 전세집 (X) 콧병 (O) - 코병 (X), 등하곶길 (O) - 등하교길 (X)

○ ‘그렇지 않다’에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이해도 조사 하위 5문항

순서	문항	응답률	<한글 맞춤법> 해당 조항 내용(설문지 제시본)
1	[문9]	7.1%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2	[문14]	10.5%	제15항-붙임1-(2)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들어가다 (O) - 드러가다 (X), 떨어지다 (O) - 떠러지다 (X), 흠어지다 (O) - 흐터지다 (X)
3	[문12]	11.3%	제11항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양심(良心) (O) - 량심 (X), 역사(歷史) (O) - 력사 (X), 예의(禮儀) (O) - 레의 (X) 용궁(龍宮) (O) - 룡궁 (X), 유행(流行) (O) - 류행 (X), 이발(理髮) (O) - 리발 (X)
3	[문13]	11.3%	제11항-붙임1-다만 모음이거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실패울 (O) - 실패룰 (X), 선열 (O) - 선렬 (X) 백분울 (O) - 백분룰 (X), 전울 (O) - 전룰 (X)
5	[문11]	11.9%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무늬 (O) - 무니 (X), 띄어쓰기 (O) - 띠어쓰기 (X) 희망 (O) - 히망 (X), 하늬바람 (O) - 하니바람 (X)

### 3.3.2. 수용도

#### 3.3.2.1. ‘그렇다’의 응답률 분석[수용도]

순위	문항 번호	조항 내용	보기항목							모름 /무응답	평균 (점)
			①+②		보통이다			④+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약간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⑤		
1	문14	15항 불임1(2) [합성 용언(들어지다)]	1.3	8.7	10	20.8	45.2	24.1	69.2	-	3.82
2	문11	9항[‘-’ 표기(희망)]	0.8	8.6	9.4	21.5	45	24	69.1	-	3.83
3	문12	11항[두음 법칙(랴-야)]	1.1	9.5	10.6	20.3	41.2	27.9	69.1	-	3.85
4	문9	2항[충척-띄어쓰기]	0.7	7.9	8.5	22.7	44.9	23.8	68.8	-	3.83
5	문10	5항 다만[된소리(몸시)]	1.4	8.5	9.9	25.3	43.1	21.7	64.8	-	3.75
6	문8	1항[충척-원리]	1.2	8.9	10.1	26	44.4	19.5	63.9	-	3.72
7	문18	29항[‘ㄷ’ 표기(손가락)]	1.8	10.1	11.8	24.7	42.6	20.8	63.4	-	3.71
8	문13	11항 불임1 다만 [두음 법칙(렬,룰-열,울)]	0.9	11.6	12.5	24.8	39.3	23.5	62.7	-	3.73
9	문16	19항1[‘마개, 주검’ 등의 표기]	1	12.5	13.5	25.8	41.5	19.1	60.7	-	3.65
10	문29	51항1[부사 ‘-이’ ‘-히’ 표기]	1.2	11.6	12.7	31.2	38.2	17.8	55.9	0.1	3.6
11	문15	15항 불임2[‘-오’ 표기]	1.8	18	19.8	28.2	38.9	13.1	52	-	3.44
12	문20	30항3[사이시옷(숫자)]	2.1	17	19.2	29	35.8	16	51.8	-	3.47
13	문21	35항 불임2[‘내’ 표기(돼)]	2.1	17	19.1	29.5	37.8	13.6	51.4	-	3.44
14	문17	23항[‘오뎅이, 뼈죽이’의 표기]	1.6	14.4	16	33.7	33.4	16.8	50.3	-	3.49
15	문24	42항[의존 명사 띄어쓰기]	1.7	16.3	18.1	32	34.3	15.6	49.9	-	3.46
16	문27	48항[이름 띄어쓰기]	2.6	18	20.6	29.9	36.5	13	49.5	-	3.39
17	문30	53항[‘-르겔, -르게’ 표기]	1.2	17.8	19	31.6	35.7	13.8	49.5	-	3.43
18	문22	39항[‘잖’, ‘잖’ 표기]	1.7	16.9	18.5	35	34.4	12.1	46.5	-	3.38
19	문19	30항2(1)[사이시옷(전셋집)]	2.8	18	20.8	33.6	34.6	11	45.6	-	3.33
20	문23	40항 불임2[‘하’ 탈락(생각건대)]	1.8	20.8	22.6	33.9	31.5	12	43.4	-	3.31
21	문28	50항[전문 용어 띄어쓰기]	3.1	20.8	23.9	34.5	30.8	10.7	41.5	0.1	3.25
22	문25	43항[단위 명사 띄어쓰기]	3	22.1	25	33.8	31	10.2	41.1	-	3.23
23	문26	47항[보조 용언 띄어쓰기]	1.6	20.7	22.4	36.5	33.5	7.6	41.1	-	3.25

○ ‘그렇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수용도 조사 상위 5문항

순서	문항	응답률	<한글 맞춤법> 해당 조항 내용(설문지 제시본)
1	[문14]	69.2%	제15항-붙임1-(2)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들어가다 (O) - 드러가다 (X), 떨어지다 (O) - 떠러지다 (X), 흠어지다 (O) - 흐터지다 (X)
2	[문11]	69.1%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무늬 (O) - 무니 (X), 띄어쓰기 (O) - 띠어쓰기 (X) 희망 (O) - 히망 (X), 하니바람 (O) - 하니바람 (X)
3	[문12]	69.1%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양심(良心) (O) - 량심 (X), 역사(歷史) (O) - 력사 (X), 예의(禮儀) (O) - 례의 (X) 용궁(龍宮) (O) - 룡궁 (X), 유행(流行) (O) - 류행 (X), 이발(理髮) (O) - 리발 (X)
4	[문9]	68.8%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5	[문10]	64.8%	제5항-다만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깍두기 (O) - 깍뚜기 (X), 법석 (O) - 법씩 (X) 몹시 (O) - 몹씨 (X), 짹둑 (O) - 짹둑 (X)

○ ‘그렇다’에 낮은 응답률을 보인 수용도 조사 하위 5문항

순서	문항	응답률	<한글 맞춤법> 해당 조항 내용(설문지 제시본)
1	[문25]	41.1%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신 두 컬레 (O) - 신 두컬레 (X), 소 한 마리 (O) - 소 한마리 (X) 옷 한 벌 (O) - 옷 한벌 (X), 집 한 채 (O) - 집 한채 (X)
2	[문26]	41.1%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단,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는 띄어 쓴다. 네가 덤벼 보아라.(O) - 네가 덤벼보아라.(O), 이 책은 읽을 만하다.(O) - 이 책은 읽을만하다.(O) 덤벼들어 보아라.(O) - 덤벼들어보아라.(X), 이 책은 읽어볼 만하다.(O) - 이 책은 읽어볼만하다.(X)
3	[문28]	41.5%	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전문 용어] 경제 동맹 (O) - 경제동맹 (O), 유행성 감기 (O) - 유행성감기 (O) [일반어] 경제 단체 (O) - 경제단체 (X), 몸살감기 (O) - 몸살 감기 (X)
4	[문23]	43.4%	제40항-붙임2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생각하건대 (O) - 생각건대 (O) - 생각컨대 (X) 넉넉하지 않다 (O) - 넉넉지 않다 (O) - 넉넉치 않다 (X)
5	[문19]	45.6%	제30항-2-(1)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머릿방 (O) - 머리방 (X), 전셋집 (O) - 전세집 (X) 콧병 (O) - 코병 (X), 등하곶길 (O) - 등하교길 (X)

### 3.3.2.2.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 분석[수용도]

순위	문항 번호	조항내용	보기항목							모름 /무응답	평균 (점)
					①+②	보통이다	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문25	43항[단위 명사 띄어쓰기]	3	22.1	25	33.8	31	10.2	41.1	-	3.23
2	문28	50항[전문 용어 띄어쓰기]	3.1	20.8	23.9	34.5	30.8	10.7	41.5	0.1	3.25
3	문23	40항 불임2[‘하’ 탈락(생각건대)]	1.8	20.8	22.6	33.9	31.5	12	43.4	-	3.31
4	문26	47항[보조 용언 띄어쓰기]	1.6	20.7	22.4	36.5	33.5	7.6	41.1	-	3.25
5	문19	30항2(1)[사이시옷(전셋집)]	2.8	18	20.8	33.6	34.6	11	45.6	-	3.33
6	문27	48항[이름 띄어쓰기]	2.6	18	20.6	29.9	36.5	13	49.5	-	3.39
7	문15	15항 불임2[‘-오’표기]	1.8	18	19.8	28.2	38.9	13.1	52	-	3.44
8	문20	30항3[사이시옷(숫자)]	2.1	17	19.2	29	35.8	16	51.8	-	3.47
9	문21	35항 불임2[‘내’ 표기(돼)]	2.1	17	19.1	29.5	37.8	13.6	51.4	-	3.44
10	문30	53항[‘-르걸, -르게’ 표기]	1.2	17.8	19	31.6	35.7	13.8	49.5	-	3.43
11	문22	39항[‘잖’, ‘잖’ 표기]	1.7	16.9	18.5	35	34.4	12.1	46.5	-	3.38
12	문24	42항[의존 명사 띄어쓰기]	1.7	16.3	18.1	32	34.3	15.6	49.9	-	3.46
13	문17	23항[‘오뎅이, 뽕죽이’의 표기]	1.6	14.4	16	33.7	33.4	16.8	50.3	-	3.49
14	문16	19항1[‘마개, 주검’ 등의 표기]	1	12.5	13.5	25.8	41.5	19.1	60.7	-	3.65
15	문29	51항1[부사 ‘-이’ ‘-히’ 표기]	1.2	11.6	12.7	31.2	38.2	17.8	55.9	0.1	3.6
16	문13	11항 불임1 다만 [두음 법칙(렐,룰-열,율)]	0.9	11.6	12.5	24.8	39.3	23.5	62.7	-	3.73
17	문18	29항[‘ㄷ’ 표기(손가락)]	1.8	10.1	11.8	24.7	42.6	20.8	63.4	-	3.71
18	문12	11항[두음 법칙(랴-야)]	1.1	9.5	10.6	20.3	41.2	27.9	69.1	-	3.85
19	문8	1항[총칙-원리]	1.2	8.9	10.1	26	44.4	19.5	63.9	-	3.72
20	문14	15항 불임1(2) [합성 용언(흘어지다)]	1.3	8.7	10	20.8	45.2	24.1	69.2	-	3.82
21	문10	5항 다만[된소리(몸시)]	1.4	8.5	9.9	25.3	43.1	21.7	64.8	-	3.75
22	문11	9항[‘-’ 표기(희망)]	0.8	8.6	9.4	21.5	45	24	69.1	-	3.83
23	문9	2항[총칙-띄어쓰기]	0.7	7.9	8.5	22.7	44.9	23.8	68.8	-	3.83

○ ‘그렇지 않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수용도 조사 상위 5문항

순서	문항	응답률	<한글 맞춤법> 해당 조항 내용(설문지 제시본)
1	[문25]	25%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신 두 켄레 (O) - 신 두켄레 (X),                      소 한 마리 (O) - 소 한마리 (X) 옷 한 벌 (O) - 옷 한벌 (X),                      집 한 채 (O) - 집 한채 (X)
2	[문28]	23.9%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전문 용어] 경제 동맹 (O) - 경제동맹 (O),                      유행성 감기 (O) - 유행성감기 (O) [일반어] 경제 단체 (O) - 경제단체 (X),                      몸살감기 (O) - 몸살 감기 (X)
3	[문23]	22.6%	제40항-붙임2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생각하건대 (O) - 생각건대 (O) - 생각컨대 (X) 넉넉하지 않다 (O) - 넉넉지 않다 (O) - 넉넉치 않다 (X)
4	[문26]	22.4%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단,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는 띄어 쓴다. 네가 덤벼 보아라.(O) - 네가 덤벼보아라.(O), 이 책은 읽을 만하다.(O) - 이 책은 읽을만하다.(O) 덤벼들어 보아라.(O) - 덤벼들어보아라.(X), 이 책은 읽어볼 만하다.(O) - 이 책은 읽어볼만하다.(X)
5	[문19]	20.8%	제30항-2-(1)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머릿방 (O) - 머리방 (X),                      전셋집 (O) - 전세집 (X) 롯데 (O) - 코병 (X),                      등하교길 (O) - 등하교길 (X)

○ ‘그렇지 않다’에 낮은 응답률을 보인 수용도 조사 하위 5문항

순서	문항	응답률	<한글 맞춤법> 해당 조항 내용(설문지 제시본)
1	[문9]	8.5%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2	[문11]	9.4%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무늬 (O) - 무니 (X),                      띄어쓰기 (O) - 띄어쓰기 (X) 희망 (O) - 히망 (X),                      하늬바람 (O) - 하니바람 (X)
3	[문10]	9.9%	제5항-다만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깍두기 (O) - 깍뚜기 (X),                      법석 (O) - 법씩 (X) 몹시 (O) - 몹씨 (X),                      짹둑 (O) - 짹뚱 (X)
4	[문14]	10%	제15항-붙임1-(2)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들어가다 (O) - 드러가다 (X),                      떨어지다 (O) - 떠러지다 (X),                      흠어지다 (O) - 흐터지다 (X)
5	[문8]	10.1%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정리

### 4.1. 요약

-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이해도, 수용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총 30문항 중 1번부터 7번 문항이 인식도 조사 문항이었다. 인식도 조사에서는 <한글 맞춤법> 규정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1에서 ‘그렇다’ 82.4%, 규정의 공적 효력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2에서 ‘그렇다’ 82.6%,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3에서 ‘그렇다’ 84.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글 맞춤법>의 교육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 6에서는 ‘있다’가 93.5%로 ‘없다’ 6.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규정 준수 노력에 대해 묻는 문항 5에서는 ‘그렇다’ 66.8%,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 7-2에서는 ‘그렇다’가 56.4%로 문항 1~3에 비하여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았다. 또한 문항 1, 2, 3, 5를 묶어 ‘인식도’ 범주로 보고 인식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통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에서 모두 인식도에서 차이가 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이해도와 수용도의 경우는 8번부터 30번까지의 동일한 문항과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이 조항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이해도 조사를,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수용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해도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단어의 띄어쓰기, 두음 법칙, 맞춤법 원리, ‘ㄴ’의 표기, 합성 용언의 표기 맞춤법 조항은 이해가 잘되지만,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어간 ‘하’의 준말 표기,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잡’과 ‘참’의 준말 표기, 사이시옷 표기의 맞춤법 조항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 ▲ 이해도 조사 중 ‘그렇다’의 응답률 상위 5문항에 해당하는 조항

1. 제2항(총칙-단어 띄어쓰기) - 74.9%
2. 제11항(두음 법칙) - 71.2%
3. 제1항(총칙-원리) - 66.9%
4. 제9항(‘ㄴ’의 표기) - 66.4%
5. 제15항-붙임1-(2)(합성 용언의 표기) - 65.6%

#### ▲ 이해도 조사 중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 상위 5문항에 해당하는 조항

1. 제47항(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 20.3%
2. 제40항-붙임 2(어간 ‘하’의 탈락 표기(생각건대)) - 19.3%
3. 제50항(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 19.0%
4. 제39항(‘잡’과 ‘참’의 준말 표기) - 18.6%
5. 제30항-2-(1)(사이시옷) - 18.2%

- 한글 맞춤법 조항대로 한글 표기 생활을 하는지를 묻는 수용도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글 표기 생활에서 잘 지키고 있는 맞춤법 조항으로는 합성 용언의 표기, ‘ㄴ’의 표기, 두음 법칙, 단어 띄어쓰기, 된소리 표기 등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그에 비해서 단위 명사 띄어쓰기, 어간 ‘하’의 탈락 표기,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사이시옷 표기 등은 제대로 한글 표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 수용도 조사 중 ‘그렇다’의 응답률 상위 5문항에 해당하는 조항

1. 제15항-붙임1-(2)(합성 용언의 표기) - 69.2%
2. 제9항(‘ㄴ’의 표기) - 69.1%
2. 제11항(두음 법칙) - 69.1%
4. 제2항(총칙 -단어 띄어쓰기) - 68.8%
5. 제5항(된소리의 표기) - 64.8%

▲ 수용도 조사 중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 상위 5문항에 해당하는 조항

1. 제43항(단위 명사의 띄어쓰기) - 25.0%
2. 제50항(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 23.9%
3. 제40항-붙임2(어간 ‘하’의 탈락 표기(생각건대)) - 22.6%
4. 제47항(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 22.4%
5. 제30항-2-(1)(사이시옷) - 20.8%

맞춤법 조항도 이해가 잘되고 실제 한글 표기 생활도 그렇게 하는, 즉 이해도와 수용도가 모두 높은 조항은 ‘단어 띄어쓰기, 두음 법칙, ‘ㄴ’의 표기, 합성 용언의 표기’ 항목이다. 반대로 이해도와 수용도가 공통적으로 모두 낮은 맞춤법 조항은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어간 ‘하’의 탈락 표기(생각건대),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사이시옷 표기’ 항목이다.

## 4.2. 제언

일반인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하여 <한글 맞춤법> 규정의 수정 보완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 결과 가장 보완이 시급한 것은 띄어쓰기 관련 조항이었다. 조사에 포함된 띄어쓰기 관련 조항은 의존 명사 띄어쓰기, 단위 명사 띄어쓰기, 보조 용언 띄어쓰기, 성과 이름 띄어쓰기, 전문 용어 띄어쓰기 관련 조항으로 총 다섯 문항이었는데, 이 중 보조 용언 띄어쓰기와 전문 용어 띄어쓰기는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에서 모두 ‘그렇지 않다’ 상위 5문항에 포함되었다. 이 두 조항에 대해서는 ‘보조 용언’과 ‘전문 용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이해하기 쉽게 본문에 설명하고 예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고, 원칙과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여 일반인들이 수용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위 명사 띄어쓰기 관련 문항은 이해도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16.8%로 9위였는데 수용도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25%로 1위였다. 이는 일반인들의 경우 이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보다 이 조항의 내용대로 표기를 하는 정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다. 먼저 전문가 집단 내에서 단위 명사 띄어쓰기에 대하여 원칙과 허용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한 후 가능하다면 원칙과 허용 규정을 두고, 단위 명사를 붙여 쓸 근거가 전혀 없어 허용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결론이 난다면 이 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총칙에 해당하는 제1항(형태주위와 음소주위)과 제2항(단어 띄어쓰기)의 경우 이해도에서는 ‘그렇다’ 응답률이 각각 3위와 1위, 수용도에서는 ‘그렇다’ 응답률이 각각 6위와 4위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총칙의 기술과 규정 내용에 대하여 견해가 분분하여 한글 맞춤법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 되었던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일반인들이 총칙에 대하여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총칙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보다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추후 개정 작업에서 현재의 총칙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 조사를 하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해도 및 선호도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 총칙의 수정 및 보완에 도움을 주는 작업이겠다.

셋째, 두음 법칙에 대한 조항인 11항은 문항 12에서 조사되었는데 이해도와 수용도의 ‘그렇다’ 응답률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는 11항이 두음 법칙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문항이기 때문일 것이다. 11항 ‘붙임 1 다만’에 해당하는 ‘렬, 룰 - 열, 율’에 대한 설문인 문항 13은 이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이며 이해도와 수용도에서 ‘그렇다’ 응답률이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것보다 일반인들은 두음 법칙 표기에 대해서 비교적 수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추후에는 ‘선동렬-선동열’과 같은 이름에 대한 표기, ‘쌍용 그룹’과 같은 고유 명사 표기, ‘사육신-\*사륙신’과 같은 특정 어휘에 대한 표기, ‘구름양, \*알콜양’ 등과 같은 고유어+한자어 또는 외래어+한자어 구성에서의 ‘量, 欄’에 대한 표기 등과 같이 기존에 두음 법칙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었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조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이시옷 표기는 ‘전셋집’과 같이 한자어+고유어의 합성어 구성에 대한 조사 설문인 문항 19가, ‘숫자’와 같은 두 음절 한자어에 대한 조사 설문인 문항 20보다 이해도와 수용도의 ‘그렇지 않다’에서 모두 약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물론 두 조항 모두 이해도의 ‘그렇지 않다’에서는 각각 5위(18.2%), 7위(17.0%)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이시옷 규정 전반에 대하여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전문가 집단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나 그간 대규모 일반인 조사를 통한 양적 근거 자료가 부재해 있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가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추후에는 사이시옷 규정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문항으로 이해도 및 수용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전문가 집단에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한 이해도 및 선호도 조사가 후속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민의를 한글 맞춤법 수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섯째, 각 문항 당 지역별 집단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렇다’의 경우에는 이해도에서 전라권이, 수용도에서 충청권이 응답률이 높은 문항이 다소 있었다. 문항 10, 11, 15, 19, 29, 30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의 경우 이해도와 수용도 모두에서 경상권의 응답률이 높은 문항이 다수 있었다. 문항 11, 12, 13, 16, 17, 18, 21, 29, 30 등에서 경상권의 ‘그렇지 않다’ 응답률이 타 지역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한 <2013년 국민의 언어 능력 평가> 조사에서 16개 시도별 변인에 따른 조사 결과 충북, 대전, 충남의 충청권이 각각 1위, 2위, 4위를 전남 전북 광주가 5위, 7위, 13위를, 대구, 경남, 부산, 경북, 울산의 경상권이 10위, 11위, 12위, 14위, 15위를 차지하였다. 우리의 조사와 <2013년 국민의 언어 능력 평가> 조사 모두에서 경상권이 ‘그렇지 않다’ 응답률이 높거나 국어 능력 결과가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서 지역을 변인으로 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IV.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 조사

### 1.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 조사(I)

#### 1.1. 전문가 의식 조사(I) 개요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의 일환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 대상자가 전문가인 만큼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설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53인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세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인원을 10명 이상씩으로 하였다.

##### (1) 전문가 설문 대상자 구성

국어학자	언론인	출판인	교사	국어정책 전문가	총인원
10명	11명	11명	10명	11명	53명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한글 맞춤법의 내용 중 크게 일곱 가지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물은 후 이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한글 맞춤법의 영향력 및 법적 지위의 적절성과 한글 맞춤법의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 마지막으로 '기타'에서 한글 맞춤법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 (2) 설문 문항 구성

- ㄱ. 한글 맞춤법의 내용
- ㄴ. 한글 맞춤법 개정의 필요성
- ㄷ.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 ㄹ. 한글 맞춤법의 홍보 및 교육
- ㅁ. 기타

이 중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2ㄱ)과 (2ㄴ)이다. (2ㄱ)의 설문 문항은 크게 일곱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한글 맞춤법의 내용에 대한 설문 문항

문항 번호	해당 한글 맞춤법 조항	영역
1-1, 1-2	제1항~제3항	총칙
2-1, 2-2	제4항	한글 자모의 종류, 순서, 이름

3-1, 3-2	제10항~제12항	두음 법칙
4-1, 4-2	제30항	사이시옷
5-1, 5-2	제41항~제50항	띄어쓰기
6-1, 6-2	제51항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의 표기
7	없음	기타 의견

한글 맞춤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1번부터 6번까지의 문항은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각 두 쌍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첫 번째는 선택형으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이 경우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점들을 참고 사항으로 제시하여 피설문자들이 해당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본 설문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보 제공이 오히려 피설문자들의 생각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설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 내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서술형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피설문자의 경우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7번 문항은 하나의 질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1번부터 6번 문항까지의 내용 이외에 새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한글 맞춤법 조항의 내용뿐만 아니라 용어, 문장, 표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피설문자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ㄴ)의 설문 문항은 한글 맞춤법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7번 문항까지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 개정의 필요성, 개정의 이유, 개정의 정도, 개정의 수준 및 범위, 개정의 절차 및 방식, 개정의 시기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1.2. 총칙 및 한글 자모의 종류, 순서, 이름

### 1.2.1. 총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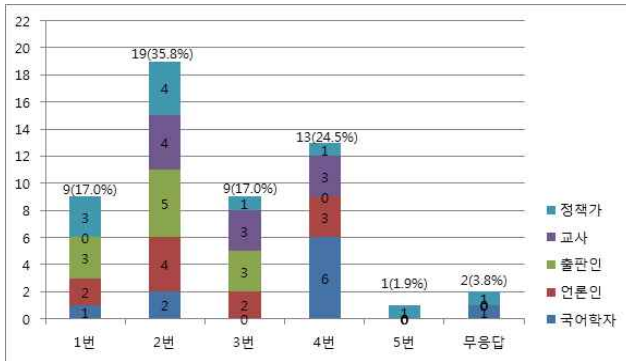
문항 1은 한글 맞춤법 총칙에 해당하는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문이다.

1-1. 한글 맞춤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총칙으로서 한글 맞춤법의 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한글 맞춤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경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총칙에 대한 수정 의견>

구분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국어학자	1	2	0	6	0	1
언론인	2	4	2	3	0	0
출판인	3	5	3	0	0	0
교사	0	4	3	3	0	0
정책가	3	4	1	1	1	1
총계	9	19	9	13	1	2
비율(%)	17.0	35.8	17.0	24.5	1.9	3.8

<표 1 총칙에 대한 수정 의견>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2.8%(28명)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26.4%(14명)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17%(9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총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국어학자의 경우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출판인 중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없으며, 언론인과 국어정책 전문가의 경우에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사의 경우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보통이라는 의견이 거의 대등하게 나타났다.

이 총칙의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서술형 문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ㄱ. 제1항 관련

- ① 표준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낱말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
- ②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이 상충하며,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거나 잘못되어 있다.
- ③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표현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

#### ㄴ. 제2항 관련

띄어쓰기 규정을 맞춤법 규정과 분리해야 한다.

#### ㄷ. 제3항 관련

외래어 표기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총칙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제1항과 관련해서는 ‘어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어법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데다가 소리대로 적는 것도 일종의 어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다’는 내용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표현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띄어쓰기 규정을 맞춤법 규정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제3항과 관련해서는 외래어 표기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총칙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총칙 전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글 맞춤법의 총칙에 이 법의 목적과 취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주로 국어정책 전문가들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에 기술한 서술형 의견 외에 기타로 제시된, 한글 맞춤법을 표준어만을 적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표준어로 인정되기 전의) 방언이나 신어(新語)를 표기하기 위해 ‘표준어 규정’과는 별개로 ‘한글 맞춤법’의 출발점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한글 맞춤법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그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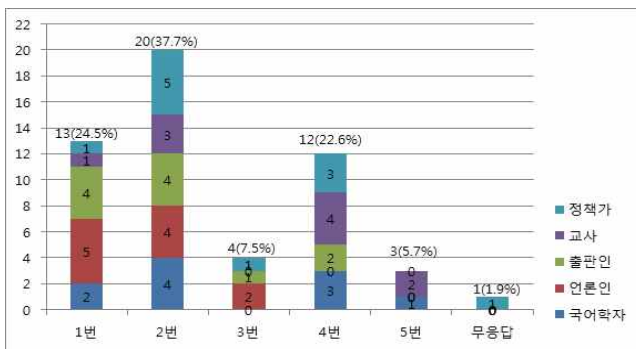
### 1.2.2. 한글 자모의 종류, 순서, 이름

문항 2는 한글 자모의 종류와 순서, 이름을 규정한 제4항에 대한 질문이다.

2-1. 한글 맞춤법 제4항은 한글 자모의 종류와 순서, 이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한글 자모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

구분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국어학자	2	4	0	3	1	0
언론인	5	5	2	0	0	0
출판인	4	4	1	2	0	0
교사	1	3	0	4	2	0
정책가	1	4	1	3	0	1
총계	13	20	4	12	3	1
비율(%)	24.5	37.7	7.5	22.6	5.7	1.9

<표 2 한글 자모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2%(33명)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28.3%(15명)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7.5%(4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한글 맞춤법 제4항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국어학자와 국어정책 전문가의 경우에는 한글 자모의 종류, 순서, 이름 등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언론인의 경우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전혀 없었으며, 출판인의 경우에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제4항에 대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을 보면 개정에 대한 요구가 다음과 같이 크게 셋으로 압축된다.

(5) 제4항과 관련한 서술형 답변

- ㄱ. 자음의 명칭을 일관성 있게 통일해야 한다.
- ㄴ. 자모의 수를 40개로 해야 한다.
- ㄷ. 받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서술형 문항의 답변에서 가장 많은 의견은 자음의 명칭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자는 것이다. ‘기옥, 니은, 디은’과 같이 규칙적으로 이름을 붙이자는 의견이 많았고 ‘기, 니, 디’와 같이 이름을 붙이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의 이름은 『훈몽자회』에서 자음의 출현 환경을 초성과 종성으로 나누어 한자로 표기하면서 부득이하게 예외가 발생하여 굳어져 내려온 것인데,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금은 굳이 과거의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남북통일 이후의 어문 규범 통일을 위해서라도 ‘기역, 디귿, 시옷’을 ‘기옥, 디은, 시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를 스물넉 자로 규정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겹자음 ‘ㄱㄱ, ㄴㄴ’ 등과 모음 ‘ㅐ, ㅑ, ㅕ, ㅖ’ 등은 [붙임 1]을 통해 별도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글꼴의 원리 면에서는 조합된 글자임이 분명하나 음운 체계 면에서는 ‘ㄱ, ㄴ, ㄷ’, ‘ㅏ, ㅑ’ 등과 대등한 음소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붙임 1]에 속한 자모 하나하나가 각각 별개의 말소리에 대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까지 포함하여 한글 자모의 수를 40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조항 때문에 우리말 자음과 모음의 수가 24개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ㅐ, ㅑ’ 등의 이름을 ‘애, 애’가 아닌 ‘아이, 야이’ 등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는 실생활에서 ‘ㅐ’와 ‘ㅑ’, ‘ㅐ’와 ‘ㅑ’의 발음이 잘 구별되지 않을 때 이를 ‘아이, 어이, 야이, 여이’처럼 구별하여 부르는 관례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 외에 스마트 폰의 활용이 대중화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음자의 순서를 ‘ㄱ ㄴ ㄷ……’순으로 배열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모음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전처럼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다른 모음을 확장해 가는 방식으로 배열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1.3. 두음 법칙 및 사이시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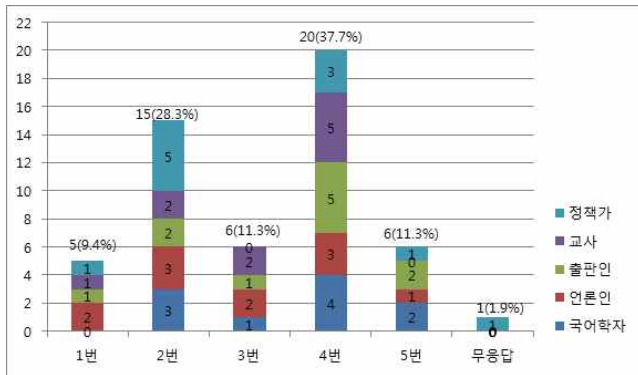
#### 1.3.1. 두음 법칙

문항 3은 두음 법칙과 관련된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질문이다.

3-1. 한글 맞춤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두음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두음 법칙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

구분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국어학자	0	3	1	4	2	0
언론인	2	3	2	3	1	0
출판인	1	2	1	5	2	0
교사	1	2	2	5	0	0
정책가	1	5	0	3	1	1
총계	5	15	6	20	6	1
비율(%)	9.4	28.3	11.3	37.7	11.3	1.9

<표 3 두음 법칙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7.7%(20명)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49%(26명)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여 수정 의견이 조금 높았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1.3%(6명)이다. 집단별로 보면, 두음 법칙의 수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어학자, 교사, 출판인의 경우에는 수정 의견이 높았으나, 언론인의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거의 대등했으며, 국어정책 전문가의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간 높았다.

두음 법칙과 관련한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두음 법칙 관련 조항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중 비중이 높은 것들만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 두음 법칙과 관련한 서술형 답변

- ㄱ. 규정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 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을 ‘열, 율’로 적는다는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 ㄷ.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ㄹ. 본말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된 표기를 준말에서도 인정해야 한다.
- ㅁ. ‘-난’과 ‘-란’의 표기를 통일해야 한다.

두음 법칙 규정을 없애자는 주장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어두에서도 원래의 한자음을 그대로 적도록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굳이 지금처럼 복잡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자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영어와의 형평성이 언급되었다. 한자어 ‘老人’은 ‘노인’으로 적으면서 영어의 ‘radio’는 ‘나디오’로 적지 않고 왜 ‘라디오’로 적느냐는 것이다. 후자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두음 법칙 자체가 공식적 음운 현상이 아니고 형태 그 자체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음 법칙 조항이 워낙 복잡하고 예외에 대한 설명이 많아 간략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묶거나 예외를 단순화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두음 법칙은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발음의 문제라는 점, 조항에 두음이 아닌 비어두음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며,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두음 법칙’이라는 명칭을 “‘ㄴ, ㄹ’이 초성인 한자음의 표기”로 바꾸자는 지적도 있었다.

두음 법칙의 세부적인 조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을 ‘열, 율’로 적는다는 제11항의 [붙임 1]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모든 환경에서 ‘열, 율’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고 규정한 제10항 [붙임 2]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소리 나는 대로 ‘신녀성’, ‘공념불’과 같이 적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11항의 [붙임 3]에서는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제연합’을 ‘국련’이 아닌 ‘국연’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12항 [붙임 1]에서는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내용과 함께 ‘가정란(家庭欄)’을 예로 들었는데, 이에 대한 해설에서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과 같은 한자어와는 달리 ‘어린이-난, 어머니-난, 고십(gossip)-난’과 같이 ‘란’이 고유어나 (구미)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비록 해설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란’과 ‘난’을 ‘란’을 통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외에 ‘이토(泥土)’와 같이 잘 사용하지 않는 예시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꾸고 제10항에 대한 해설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로 든 고유어 ‘녀석(고양 녀석), 년(괘씸한 년), 님(바느질 실 한 님), 뉘(옆전 한 뉘)’ 외에 사람을 가리키는 ‘님’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파생어, 합성어, 한자어, 고유어와 같은 문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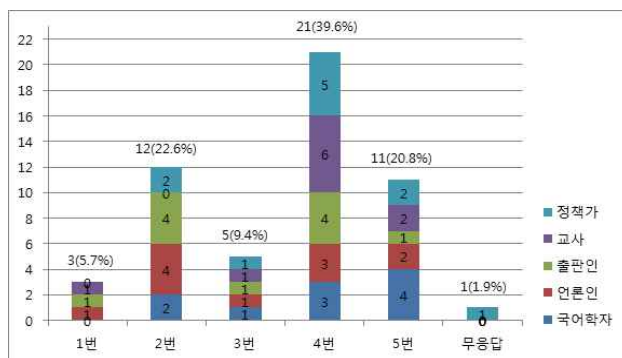
### 1.3.2. 사이시옷

문항 4는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된 제30항에 대한 질문이다.

4-1. 한글 맞춤법 제30항은 사이시옷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사이시옷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

구분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국어학자	0	2	1	3	4	0
언론인	1	4	1	3	2	0
출판인	1	4	1	4	1	0
교사	1	0	1	6	2	0
정책가	0	1	1	5	2	1
총계	3	11	5	21	11	1
비율(%)	5.7	22.6	9.4	39.6	20.8	1.9

<표 4 사이시옷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8.3%(14명)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60.4%(32명)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9.4%인 5명이다. 집단별로 보면, 국어학자와 교사, 국어정책 전문가의 경우에는 사이시옷 규

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언론인과 출판인의 경우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사이시옷과 관련한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사이시옷 규정과 언중들의 표기 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이시옷 규정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사이시옷과 관련한 서술형 답변

- ㄱ. 사이시옷 표기를 없애거나 최대한 간략화해야 한다.
- ㄴ. 띄어쓰기처럼 이중 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ㄷ. 합성어에서 고유어가 선행 요소일 때만 사이시옷을 적도록 해야 한다.
- ㄹ. 의미 변별 효과가 있을 때만 사이시옷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 고깃배-고기배, 나뭇집-나무집
- ㅁ. 한자어의 예외 규정을 없애거나 예를 더 추가해야 한다.
- ㅂ. 파생어의 사이시옷 표기도 논의해야 한다.
- ㅅ. 외래어와 순우리말이 결합한 합성어에도 사이시옷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고 이를 따를 때 ‘등곶길, 만뫼국, 채솟값’과 같이 어색한 표기가 도출되므로 아예 사이시옷 자체를 적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의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적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러한 어색한 표기를 피하기 위해 일부 띄어쓰기 규정에서처럼 사이시옷을 적은 표기와 적지 않은 표기를 모두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사이시옷 표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합성어에서 선행 요소가 고유어일 때만 사이시옷을 적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하면 전통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어 표기했던 ‘나뭇잎, 냇가, 낱병’ 등의 표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어색하게 느껴지던 ‘전셋집, 등곶길, 만뫼국’ 등은 ‘전세집, 등교길, 만두국’이 되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깃배-고기배, 나뭇집-나무집’처럼 사이시옷을 통해 의미를 변별해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표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자어 중 ‘곶간, 셋방, 솟자, 찻간, 텃간, 횃수’만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비판 의견이 많았다. 일부 응답자들은 아예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응답자들은 반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의 목록을 더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 다양한 환경에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합성어뿐만 아니라 파생어에서도 사이시옷을 적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래어와 순우리말이 결합한 합성어에도 사이시옷을 적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대로라면 ‘햇님, 핑크빛’과 같은 표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 1.4. 띄어쓰기 및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의 표기

#### 1.4.1. 띄어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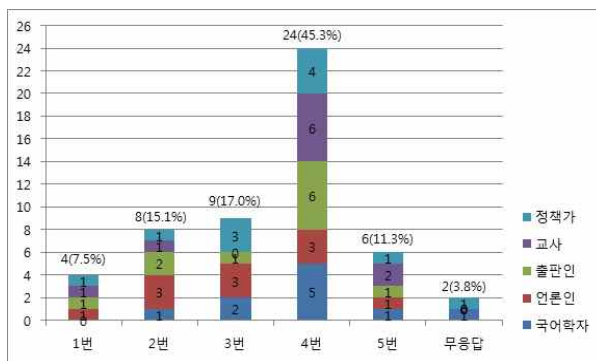
문항 5는 띄어쓰기와 관련된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에 대한 질문이다.

5-1. 한글 맞춤법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는 띄어쓰기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41항

은 조사, 제42항부터 제46항까지는 의존 명사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제47항은 보조 용언, 제48항부터 50항까지는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에 대한 띄어쓰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띄어쓰기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

구분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국어학자	0	1	2	5	1	1
언론인	1	3	3	3	1	0
출판인	1	2	1	6	1	0
교사	1	1	0	6	2	0
정책가	1	1	3	4	1	1
총계	4	8	9	24	6	2
비율(%)	7.5	15.1	17.0	45.3	11.3	3.8

<표 5 띄어쓰기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2.6%(12명)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56.6%(30명)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여 수정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7%(9명)이다.

문항 5에 대한 응답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집단별로 보면, 국어학자, 출판인, 교사의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언론인의 경우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보통이라는 의견,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어정책 전문가의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보통이라는 신중론이 그 뒤를 따랐다.

띄어쓰기와 관련한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는 띄어쓰기의 각 조항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각 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띄어쓰기 조항 전반에 해당하는 의견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8) 띄어쓰기 전반에 대한 서술형 답변

- ㄱ. 띄어쓰기 규정을 맞춤법 규정과 분리해야 한다.
- ㄴ. 띄어쓰기 규정에 많은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 ㄷ. 제2장의 내용과 띄어쓰기 세부 규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 ㄹ. 원칙과 허용이 뒤섞여 있어 혼란스럽다.

띄어쓰기 규정을 맞춤법 규정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총론에 대한 서술형 답변을 통해 검토한 내용이다. 띄어쓰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적으니 맞춤법 규정에 없는 내용들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주장대로 띄어쓰기 규정에 많은 내용을 추가하게 된다면 다른 맞춤법 규정과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2장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언과 조사를 붙여 쓰고

수를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 쓰고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등 세부적인 규정에서 총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원칙과 허용이 뒤섞여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세부 규정에서 허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원칙과 허용이 모두 있는 경우 둘 다 허용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9) 띄어쓰기 세부 조항에 대한 서술형 답변

ㄱ. 제42항(의존 명사)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의존 명사는 붙여 쓰도록 해야 한다.

ㄴ. 제43항(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 항상 붙여 쓰도록 해야 한다.

ㄷ. 제44항(수를 적을 때)

숫자 표기와 한글 표기를 한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ㄹ. 제46항(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

혼란스러우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고 항상 띄어 쓰도록 해야 한다.

항상 붙여 쓰도록 해야 한다.

ㅁ. 제47항(보조 용언)

보조 용언을 붙여 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ㅂ. 제48항(성과 이름)

성과 이름은 다른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폐지해야 한다.

ㅅ. 제49항(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합성어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붙여 쓰거나 띄어 쓰도록 해야 한다.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ㅇ. 제50항(전문 용어)

합성어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붙여 쓰거나 띄어 쓰도록 해야 한다.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를 규정한 제42항과 관련해서는 의존 명사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의존 명사를 아예 붙여 쓰도록 하자는 주장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자는 주장 등이 나왔다.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에서 일반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의존 명사 자체가 선행어에 종속적이라는 점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띄어쓰기를 규정한 제43항과 관련해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행 규정은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붙여 쓰는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붙여 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순서를 나타내는지 수량을 나타내는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경우를 굳이 나누지 말고 일관성 있게 표기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 규정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 붙여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사실상 띄어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가 아니라 ‘붙여 써야 한다’로 규정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44항은 수를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숫자로 적을 때는 서양식으로 천 단위마다 쉼표를 사용하여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이 두 경우를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제46항과 관련해서는 항상 붙여 쓰도록 하자는 의견과 혼란스러우니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았다.

제47항과 관련해서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실적으로 ‘먹어 보다’는 ‘먹어보다’로 쓸 수 있지만, ‘먹고 보다’는 ‘먹고보다’로 쓰지 않고 ‘-어하다’나 ‘-어지다’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접사처럼 굳어져 사용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붙여쓰기를 허용하는 것이 더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제48항과 관련해서는 성과 이름을 띄어 쓸 수도 있도록 허용한 내용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성과 이름은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후자가 많았다.

제49항 및 제50항과 관련해서는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를 붙여 쓰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하거나 자유롭게 붙여쓰기와 띄어쓰기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전문 용어와 관련해서는 명사구와 합성 명사를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10음절 이하의 붙여 쓰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의미 단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띄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는 언론인과 출판인의 응답이 소극적이었으나, 띄어쓰기와 관련해서는 언론인과 출판인의 경우에도 다른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국어학자와 교사 및 국어정책 전문가들은 띄어쓰기의 세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한 반면, 언론인과 출판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띄어쓰기의 원칙과 허용 및 예외 규정을 구분해서 쓰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보여 구체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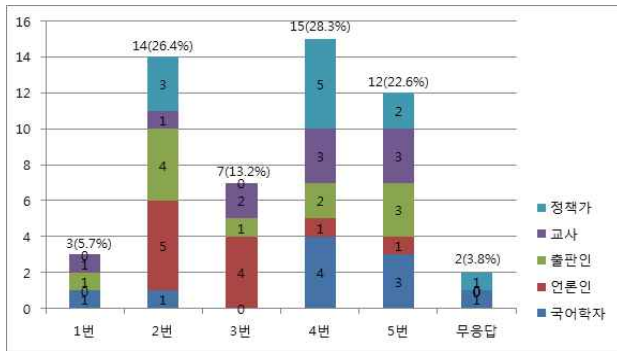
#### 1.4.2.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의 표기

문항 6은 부사 파생 접미사의 표기와 관련된 제51항에 대한 질문이다.

6-1. 한글 맞춤법 제51항은 ‘깨끗이, 열심히’와 같이 부사의 마지막 음절을 ‘이’로 표기할 것인지 ‘히’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이, 히’ 표기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

구분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국어학자	1	1	0	4	3	1
언론인	0	5	4	1	1	0
출판인	1	4	1	2	3	0
교사	1	1	2	3	3	0
정책가	0	3	0	5	2	1
총계	3	14	7	15	12	2
비율(%)	5.7	26.4	13.2	28.3	22.6	3.8

<표 6 ‘이, 히’ 표기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2.1%(17명)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50.9%(27명)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여 수정 의견이 높은 편이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3.2%인 7명이다. 집단별로 보면, 국어학자와 교사, 국어정책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 -히’의 표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지만, 언론인의 경우에는 수정 의견이 높지 않았으며, 출판인의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거의 대등하게 나타났다.

부사 파생 접미사의 표기와 관련한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부사 파생 접미사의 표기에 대한 서술형 답변

- ㄱ. 개별적인 단어의 형태 표기에 해당하므로 삭제해야 한다.
- ㄴ. ‘-이’와 ‘-히’를 둘 다 인정해야 한다.
- ㄷ. 해설의 내용을 규정으로 삼아야 한다.
- ㄹ. 제25항과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

부사 파생 접미사 표기와 관련하여 현행 맞춤법 규정은 발음에 따라 표기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지역에 따라 발음이 다를 수 있고 ‘깊숙이’를 [깁쑤키]로 발음하거나 ‘틈틈이’를 [틈트미]나 [틈틈히]로 모두 발음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음에 따라 접미사를 달리 적도록 한 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반응이 공통적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사 파생 접미사를 적는 문제는 개별 단어의 형태 표기에 해당하므로 굳이 맞춤법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이’와 ‘히’를 자유롭게 선택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는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ㅅ’ 받침 뒤,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부사 뒤에서는 ‘이’로 적고 ‘-하다’가 붙는 어근 뒤(단, ‘ㅅ’ 받침 제외),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가 줄어진 형태, 어원적으로는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그 어근 형태소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단어의 ‘히’로 적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오히려 규정의 내용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제51항과 제25항의 내용을 통합하여 제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한글 맞춤법 해설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1.5. 기타 의견 및 한글 맞춤법 개정

### 1.5.1. 기타 의견

문항 7에서는 앞서 다른 조항 외에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7. 이 외에 한글 맞춤법에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의 내용뿐만 아니라 용어나 문장, 표현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1) 한글 맞춤법과 관련한 기타 의견

- ㄱ. 한글 맞춤법의 존치
- ㄴ. 한글 맞춤법의 체계
- ㄷ. 한글 맞춤법의 표현
- ㄹ. 한글 맞춤법의 용어
- ㅁ. 한글 맞춤법의 예시
- ㅂ. 한글 맞춤법의 구체적인 조항

한글 맞춤법의 존치와 관련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은 불필요하며 전문가용으로서 역사적 자료로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실상 한글 맞춤법 무용론이라 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의 체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글 맞춤법은 역사적 산물이므로 국민의 문자 생활에 불편한 규정 외에 체계성과 관련된 부분은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표준어 규정이나 사전으로 넘길 것은 넘기고 전체적인 체제를 정돈하고 장과 절을 재정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글 맞춤법의 표현과 관련하여 대체로 모호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명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제6항의 ‘종속적 관계’는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로, 제14항의 ‘구별하여’라는 표현은 ‘원형을 밝혀’로, 제18항의 ‘줄어질 적’은 ‘떨어질 경우’ 또는 ‘탈락할 경우’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글 맞춤법의 용어와 관련해서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해설에서 전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글 맞춤법의 예시와 관련해서는 예시에 원칙을 두어 실제 사용하거나 언어생활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것들을 선정하고 비교적 예시를 많이 제시하여 예시 중심으로 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정한 단어의 올바른 표기를 알고 싶어도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몰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시 중심으로 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 맞춤법의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더라, -던’과 ‘-든지’의 올바른 표기를 다룬 제56항과, 구별해 써야 할 말의 목록을 제시한 제57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조사 ‘요’의 표기를 다룬 제17항은 ‘4장 2절 어간과 어미’가 아니라 ‘4장 1절 체언과 조사’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16항, 제19항, 제57항과 관련해서는 조항의 내용과 예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제16항

에서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으로 ‘ㅏ, ㅑ’만 언급하였는데 예시에서는 끝음절 모음이 ‘ㅑ’인 ‘얕아, 얕아도’ 등이 제시되었고, 제19항에서는 ‘-음/-ㅁ’이 붙어 명사가 된 경우를 언급하였는데 예시에는 명사형인 ‘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57항에서는 ‘다친 다리가 저린다’라는 예시를 들었는데, 이때 ‘저린다’는 동사가 아닌 형용사이므로 ‘다친 다리가 저리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항 7에 대한 응답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집단별로 제시된 의견이 특색을 보였다. 국어학자들은 맞춤법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하여 맞춤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사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는 등 맞춤법의 존치, 체계, 조항에 관한 의견을 비교적 많이 제시하였다. 언론인과 출판인의 경우에는 맞춤법에 쓰인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용어가 부연 설명이 필요할 만큼 전문적이고 딱딱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였다. 교사와 국어정책 전문가의 경우에는 맞춤법의 예시에 대한 의견이 많아, 새로 생겨난 신조어를 한글 맞춤법 관련 예시들에 적극 반영하고, 언어 현실을 고려해서 실제 자주 사용하거나 언어생활에 혼란을 느끼는 단어들,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을 권장할 만한 말 중심으로 예시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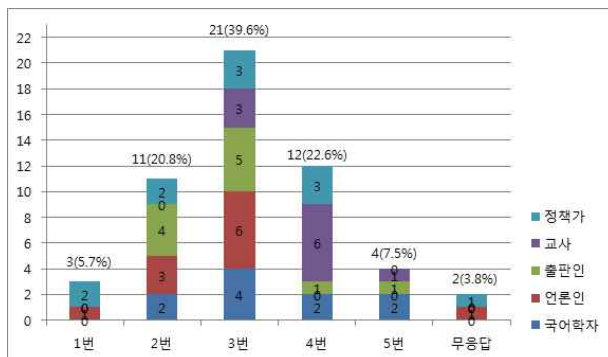
### 1.5.2. 한글 맞춤법 개정

문항 8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개정의 필요성, 개정의 이유, 개정의 정도, 개정의 수준 및 범위, 개정의 절차 및 범위, 개정의 시기 등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했으며, 이 중 개정의 필요성 항목만 선택형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항목은 서술형으로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8.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한글 맞춤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필요성’ 정도를 √로 표시하고, 개정의 이유, 개정의 정도, 개정의 수준 및 범위, 개정의 절차 및 방식, 개정의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약함      ② 약함      ③ 보통      ④ 강함      ⑤ 매우 강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한글 맞춤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구분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국어학자	0	2	4	2	2	0
언론인	1	3	6	0	0	1
출판인	0	4	5	1	1	0
교사	0	0	3	6	1	0
정책가	1	2	3	3	0	1
총계	2	11	21	12	4	2
비율(%)	5.7	20.8	39.6	22.6	7.5	3.8

<표 7 한글 맞춤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전체 응답자 중 26.5%(13명)가 개정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응답하였고 30.1%(16명)가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두 의견이 거의 대등한 가운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약간 많았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보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9.6%(21명)로 가장 많았는데, 한글 맞춤법의 개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많은 응답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로 보면, 한글 맞춤법의 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교사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응답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 준다. 교사의 경우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서술형 의견에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집단과 달리 교사는 언어생활의 변화를 쉽게 수용하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글 맞춤법이 현실 언어생활과 유리된 점이 많아 언중의 표기 관습에 맞게 맞춤법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정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글 맞춤법 개정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12) 개정 찬성 이유

- ㄱ. 언어생활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 ㄴ. 현실 언어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 ㄷ. 한글 맞춤법 항목 간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 ㄹ.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12ㄱ)은 새로운 어휘들이 만들어지고 언어생활에서 그동안 여러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ㄴ)은 한글 맞춤법 규정과 현실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사이시옷 규정을 들 수 있다. (12ㄷ)은 한글 맞춤법의 각 조항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규정의 논리성과 충실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12ㄹ)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내용과 형식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다. 특히 형식적인 면에서 해설이나 지문이 딱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 전문가용이라는 전제하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한글 맞춤법 무용론과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이 일반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완성도 높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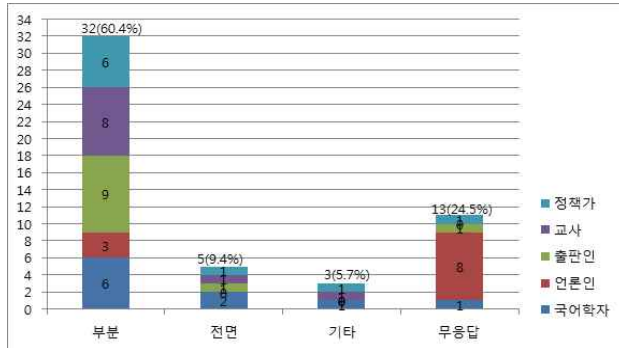
한글 맞춤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3) 개정 반대 이유

- ㄱ. 현행 한글 맞춤법에 불편한 점이 없다.
- ㄴ. 현행 한글 맞춤법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다.
- ㄷ.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을 자제해야 한다.
- ㄹ. 남북한 표기법 통일안 등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13ㄱ)은 현행 한글 맞춤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서 단 한 명만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3ㄴ)은 한글 맞춤법이 채 3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안정성의 측면에서 규정의 효력을 일정 기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다. (13ㄷ)은 한글 맞춤법 개정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반영하고 있다. (13ㄹ)은 남북한 언어 통일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다음으로 개정의 정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정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부분 개정 또는 전면 개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맞춤법 개정 정도에 대한 의견>

구분	부분	전면	기타	무응답
국어학자	6	2	1	1
언론인	3	0	0	8
출판인	9	1	0	1
교사	8	1	1	0
정책가	6	1	1	3
총계	32	5	3	13
비율(%)	60.4	9.4	5.7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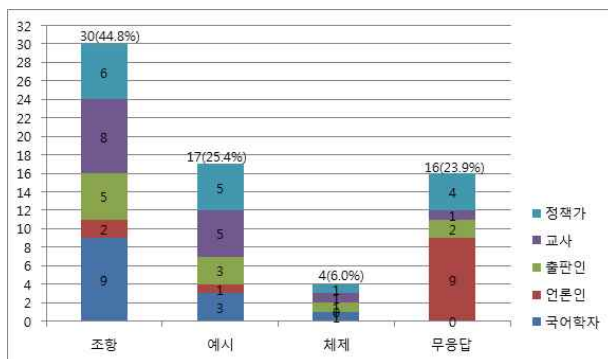
<표 8 맞춤법 개정 정도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 부분 개정에 대한 의견이 32명으로 60.4%를 차지하여 5명으로 9.4%에 그친 전면 개정 의견 보다 월등히 높았다. 부분 개정을 주장한 응답자 중 13.2%(7명)는 최소한의 개정을 강조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민 다수가 공감할 만한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설문 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 중 압도적인 비중으로 지적된 조항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앞선 설문 문항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주장한 응답자가 16명(30.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40명(75.5%)이 부분 또는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하였다. 이는 개정의 필요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던 응답자들이 개정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잠재적으로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집단별로 보면, 대부분의 집단에서 부분 개정이 적절하다는 데에 의견 일치를 보였다. 다만 언론인의 경우에는 무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언론인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기회가 적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가 곤란해 응답을 피한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한글 맞춤법의 개정 수준 및 범위, 한글 맞춤법 개정 절차 및 범위, 한글 맞춤법 개정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개정의 수준 및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정의 수준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조항 수준, 예시 어휘 수준 등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맞춤법 개정 수준 및 범위에 대한 의견>

구분	조항	예시	체제	무응답
국어학자	9	3	1	0
언론인	2	1	0	9
출판인	5	3	1	2
교사	8	5	1	1
정책가	6	5	1	4
총계	30	17	4	16
비율(%)	44.8	25.4	6.0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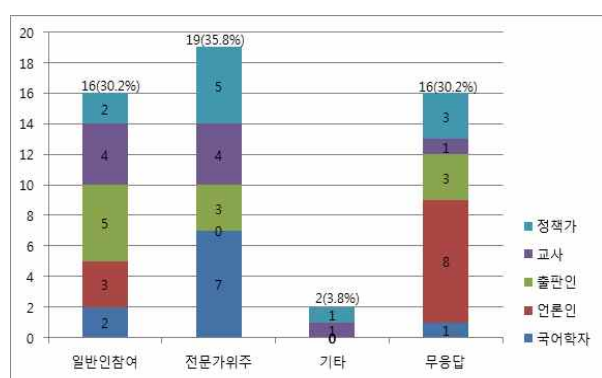
<표 9 맞춤법 개정 수준 및 범위에 대한 의견>

이 문항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을 한 경우가 많았다. 조항 수준이나 예시 수준 어느 한쪽을 택한 경우도

있었지만 조항과 예시에서 모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견해가 많았다. 이들 복수 응답을 모두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조항 수준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예시 수준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훨씬 많았다. 예시에 대한 개정 의견도 무시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조항 수준의 개정이 예시 수준의 개정보다 더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글 맞춤법의 개정 수준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조항 수준 및 범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실 언어생활과 괴리된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에 각 집단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한 것이다. 예시 단어를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바꾸는 등 예시 수준 및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 뒤를 따랐다.

다음으로 개정의 절차 및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정의 절차 및 범위는 일반인 참여 여부 또는 구체적인 절차의 제시와 관련된 문항이다.



<그림 10 맞춤법 개정 절차 및 범위에 대한 의견>

구분	일반인 참여	전문가 위주	기타	무응답
국어학자	2	7	0	1
언론인	3	0	0	8
출판인	5	3	0	3
교사	4	4	1	1
정책가	2	5	1	3
총계	16	19	2	16
비율(%)	30.2	35.8	3.8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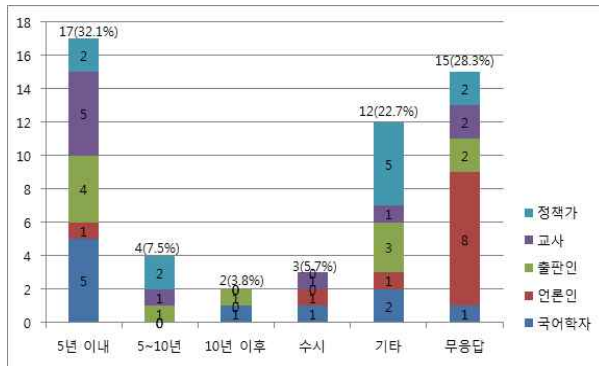
<표 10 맞춤법 개정 절차 및 범위에 대한 의견>

일반인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슷했으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35.8%(19명)로 30.2%(16명)인 일반인을 참여시키자는 주장보다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일반인들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의견은 드물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한글 맞춤법 규정의 조항 중 오답률이 높은 조항을 좀 더 자세하게 예시나 설명을 곁들여 수정하자는 의견,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을 진행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전문가 집단별로는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어학자와 국어정책 전문가는 한글 맞춤법의 개정 절차 및 범위를 논할 때 전문가 위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면 출판인은 한글 맞춤법의 개정 절차 및 범위를 정할 때 일반인의 참여 위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 교사 집단의 경우 전문가 위주로 하자는 의견과 일반인 참여 위주로 하자는 의견이 동등했으며, 언론인의 경우에는 일반인 참여를 주장하면서도 무응답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개정의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정의 시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사 내용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맞춤법 개정 시기에 대한 의견>

구분	5년 이내	5~ 10년	10년 이후	수시	기타	무응답
국어학자	5	0	1	1	2	1
언론인	1	0	0	1	1	8
출판인	4	1	1	0	3	2
교사	5	1	0	1	1	2
정책가	2	2	0	0	5	2
총계	17	4	2	3	12	15
비율(%)	32.1	7.5	3.8	5.7	22.7	28.3

<표 11 맞춤법 개정 시기에 대한 의견>

개정 시기를 5년 단위로 구별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기간은 5년 이내였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정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빨리 개정할수록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둔 의견도 많아 그 전에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더라도 통일 이후에 전면적으로 다시 한글 맞춤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집단별로 보면, 한글 맞춤법의 개정 시기와 관련하여 언론인과 국어정책 전문가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5년 이내에 개정하자는 의견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언론인은 역시 무응답이 많았고, 국어정책 전문가는 기타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서술형 의견에 제시된 기타 의견으로는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컴퓨터의 보유 및 스마트폰 보급이 빨라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1~3년이 적당하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또 개정의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말고 많은 이들이 개정에 공감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 2.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 조사(Ⅱ)

### 2.1. 전문가 의식 조사(Ⅱ) 개요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로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것에 이어,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1차 조사의 대상자인 53인(국어학자: 10명, 언론인: 11명, 출판인: 11명, 교사: 10명, 국어정책 전문가: 11명)이었는데, 이 중 회신을 하지 않은 언론인 1인을 제외한 52인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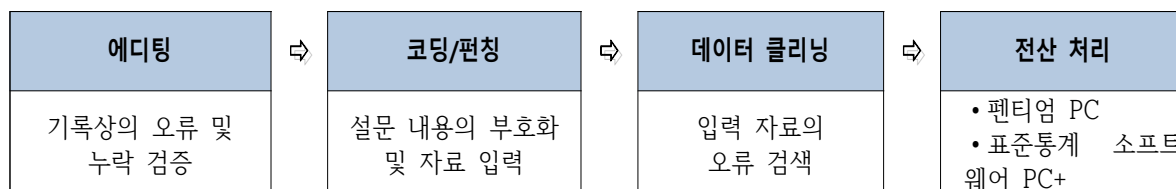
2차 조사의 설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으며, 총 20문항이다.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5번은 한글 맞춤법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 주장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이고, 16~20번은 한글 맞춤법의 전반에 관한 의견 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설문 문항

문항 번호	해당 한글 맞춤법 조항	영역
1-3	제4항	한글 자모의 이름과 수 및 받침 글자
4-6, 15	제11항, 제51항, 제29항	두음 법칙과 접미사 ‘-히’ 및 표기의 역사적 변천 고려
7-9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10-14	제43항, 제48항, 제50항, 제42항, 제47항	띄어쓰기
16-17	없음	한글 맞춤법의 복수 표기 인정 및 표준어 규정 관련
18-20	없음	한글 맞춤법의 주체 및 폐지, 그리고 법적 지위

수집된 자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전산 처리하였다.

(2) 2차 조사의 자료 처리



## 2.2. 한글 자모의 이름과 수 및 받침 글자

### 2.2.1. 전체 통계 분석

한글 자모의 이름과 수 및 받침 글자를 묻는 1번부터 3번 문항까지의 전체 기술 통계의 평균은 3.17, 표준편차는 1.06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의 직업별 기술 통계는 (3)과 같다. 전문가들은 한글 자모의 이름과 수 및 받침 글자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사 집단은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여 개정에 긍정적이었고, 언론인과 출판인은 이와 반대로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여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3)

구분	N	표준 편차	평균
국어학자	10	1.09149	3.1667
언론인	10	.39284	2.8333
출판인	11	1.22351	2.8182

교사	10	.67036	4.1333
국어정책 전문가	11	1.15907	2.9697
합계	52	1.05511	3.1731

일원분산분석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레빈(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직업별 집단의 등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분산 분석(ANOVA) 대신 웰치(Welch) f 검정을 실시하였다.  $F(4,23.25)=8.069$ ,  $p<.001$ 로 유의수준 5%하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자음자 이름을 규칙적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에 직업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터키(Tukey) HSD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출판인과 교사( $p=.006$ ), 교사와 국어정책 전문가( $p<.001$ ) 간 동의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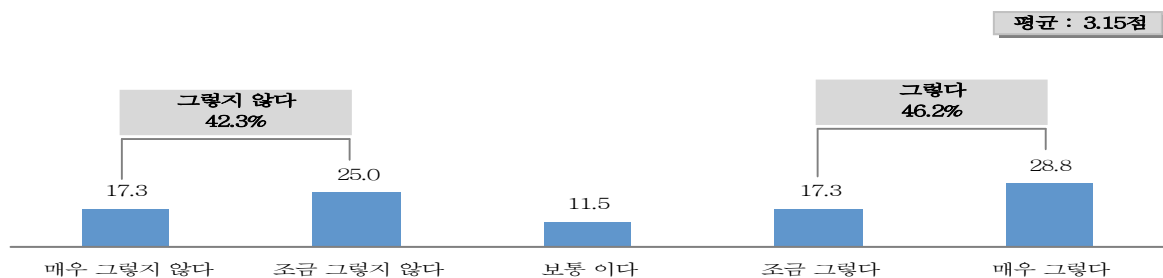
### 2.2.2. 문항별 통계 분석

#### 1. 한글 자음자 이름을 규칙적으로 하자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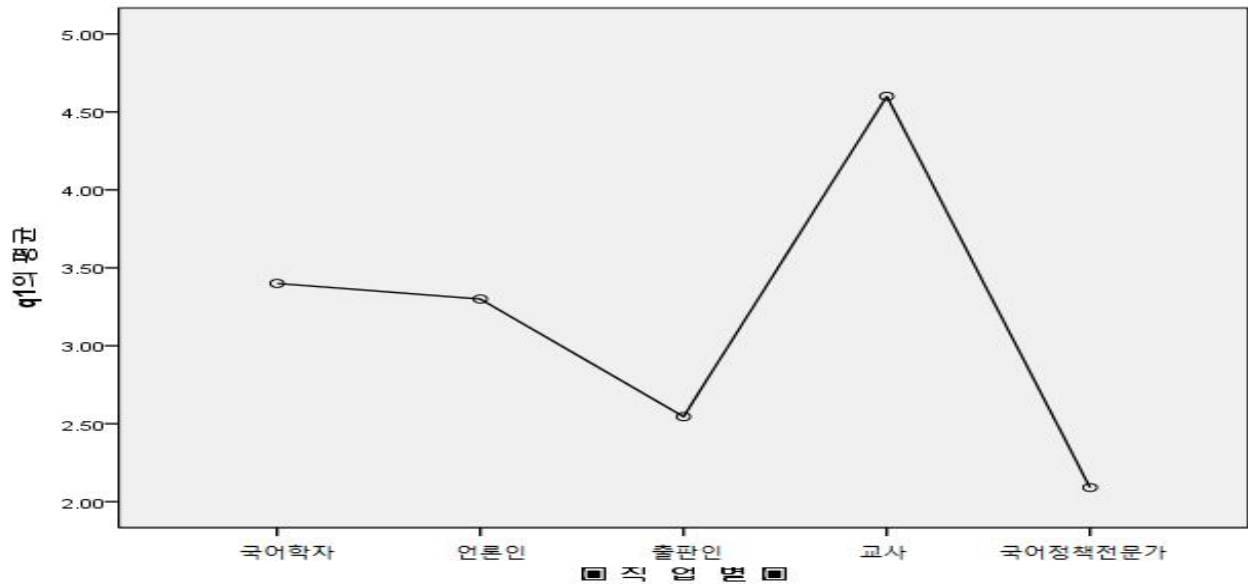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이 규정에서 ‘ㄱ, ㄷ, ㅅ’의 이름을 ‘기역, 디은, 시읏’으로 고쳐 자음자의 이름에 적용되는 원리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ㅣ’와 ‘ㅡ’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음자의 이름을 통일시키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항 1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3.15, 표준 편차는 1.51로 나타났다. 한글 자음자 이름을 규칙적으로 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46.2%)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42.3%)보다 3.9%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교사(4.60)>국어학자(3.40)>언론인(3.30)>출판인(2.55)>국어정책 전문가(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정책 전문가>출판인>국어학자>언론인>교사’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교사>국어학자>언론인>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 2. 한글 자모의 숫자를 40개로 하자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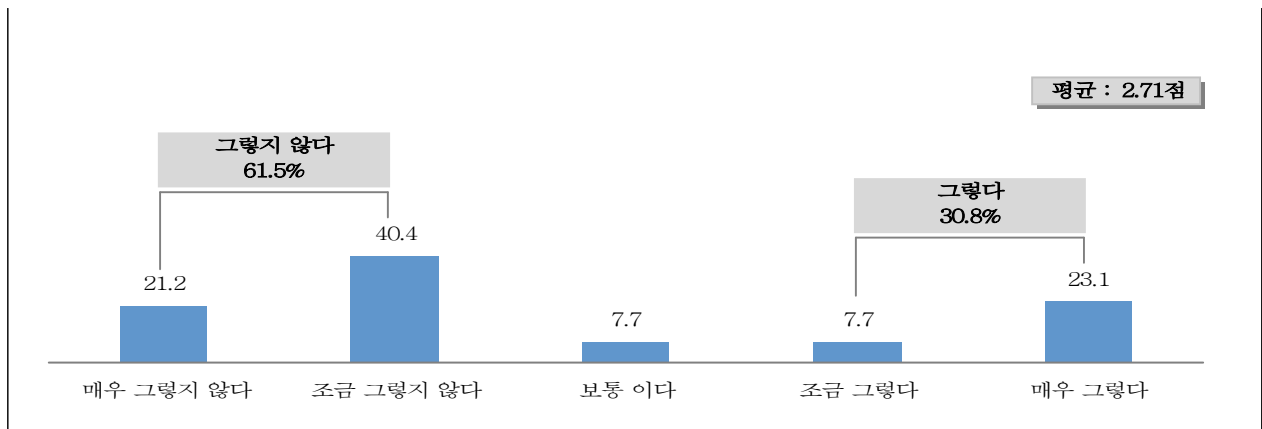
이 규정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를 스물넉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붙임 1]의 16개 자모를 위로 올려서 상위 규정에 40자를 제시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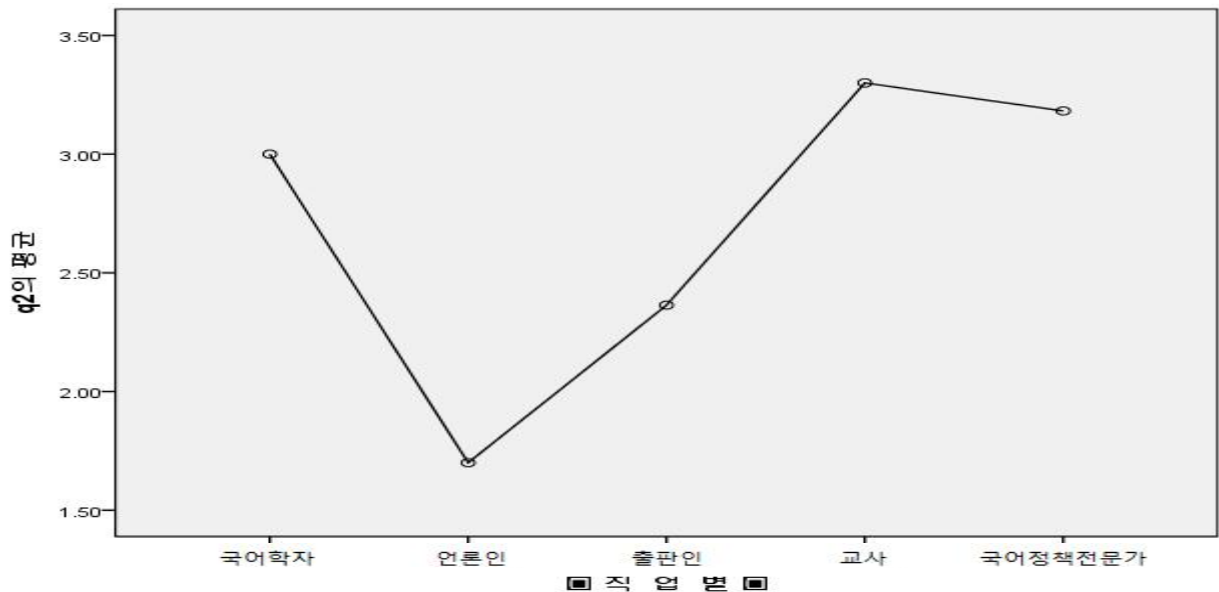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여)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쌍기역)	ㄷ(쌍디귤)	ㅂ(쌍비읍)	ㅅ(쌍시옷)	ㅈ(쌍지읒)	
ㅏ(애)	ㅑ(애)	ㅓ(에)	ㅕ(예)	ㅗ(와)	ㅛ(왜)
ㅓ(외)	ㅕ(워)	ㅗ(웨)	ㅛ(위)	ㅓ(의)	



문항 2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2.71, 표준 편차는 1.49로 나타났다. 한글 자모의 숫자를 40개로 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61.5%)이 ‘그렇다’는 응답(30.8%)보다 30.7%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교사(3.30)>국어정책 전문가(3.18)>국어학자(3.00)>출판인(2.36)>언론인(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언론인>출판인>국어학자>국어정책 전문가>교사’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국어정책 전문가>국어학자=교사>출판인>언론인’ 순으로 나타났다.

### 3. 받침 글자의 종류와 그 순서를 규정에서 명문화하자는 주장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생략>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평균값은 ‘교사(4.50)>국어정책 전문가(3.64)>출판인(3.55)>언론인(3.50)>국어학자(3.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학자>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교사’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교사>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국어학자’ 순으로 나타났다.

## 2.3. 두음 법칙과 접미사 ‘-히’ 및 표기의 역사적 변천 고려

### 2.3.1. 전체 통계 분석

두음 법칙과 접미사 ‘-히’ 및 표기의 역사적 변천 고려를 묻는 4번부터 6번 문항 및 15번 문항까지의 전체 기술 통계의 평균은 3.30, 표준편차는 0.81로 나타났다. 이 영역의 직업별 기술 통계는 (4)와 같다. 전문가들은 두음 법칙과 접미사 ‘-히’ 및 표기의 역사적 변천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집단이 수정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4)

구분	N	표준 편차	평균
국어학자	10	.99443	3.1000
언론인	10	.48281	3.6083
출판인	11	.57307	3.4091
교사	10	.54582	3.7250
국어정책 전문가	11	.96131	2.7121
합계	52	.80797	3.3013

일원분산분석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레빈(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직업별 집단의 등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분산 분석(ANOVA) 대신 웰치(Welch) f 검정을 실시하였다.  $F(4,23.149)=2.612$ ,  $p>.05$ 로 유의수준 5%하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즉, 두음 법칙과 접미사 ‘-히’ 및 표기의 역사적 변천 고려에 대해 직업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3.2. 문항별 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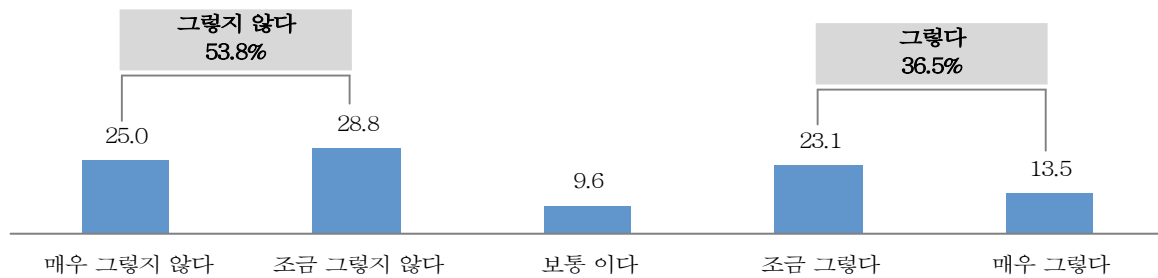
#### 4. ‘ㄹ’ 두음 법칙을 폐지하자는 주장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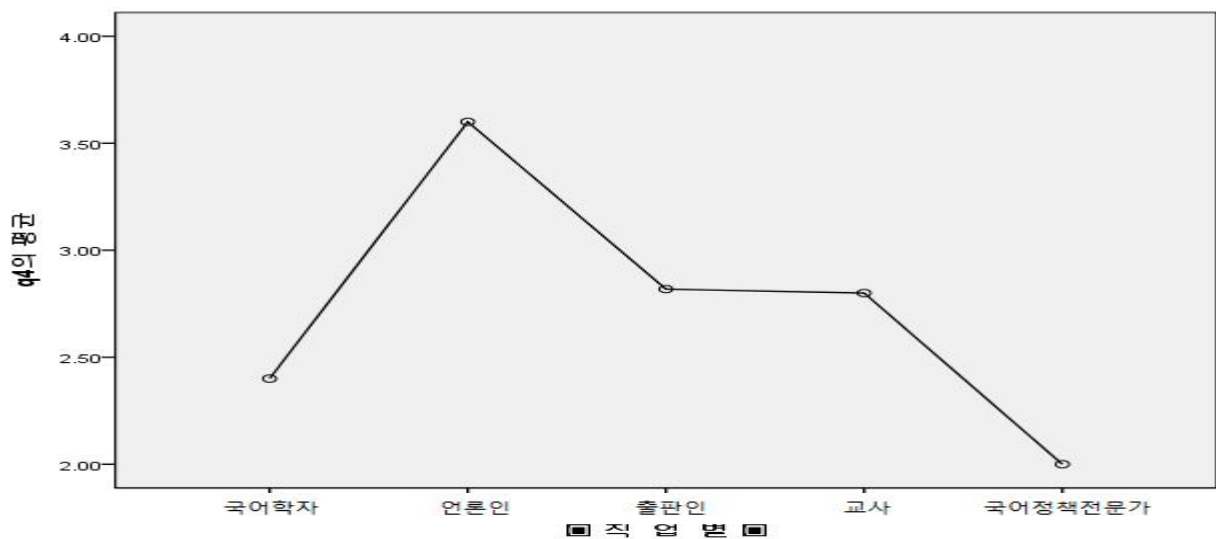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랑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이것은 ‘ㄹ’을 한자어의 첫머리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씨 표기에서 ‘류(柳), 라(羅), 리(李)’ 표기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또 의존 명사(리), 외자인 사람 이름(신립, 채륜), 준말[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국련(국제연합)] 등의 표기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ㄹ’ 두음 법칙을 고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평균 : 2.71점



문항 4의 전체 기술 통계의 평균은 2.71, 표준 편차는 1.42로 나타났다. ‘ㄹ’ 두음 법칙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53.8%)이 ‘그렇다’는 응답(36.5%)보다 17.3%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언론인(3.60)>출판인(2.82)>교사(2.80)>국어학자(2.40)>국어정책 전문가(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정책 전문가>국어학자>출판인>교사>언론인’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언론인>출판인>국어학자=교사>국어정책 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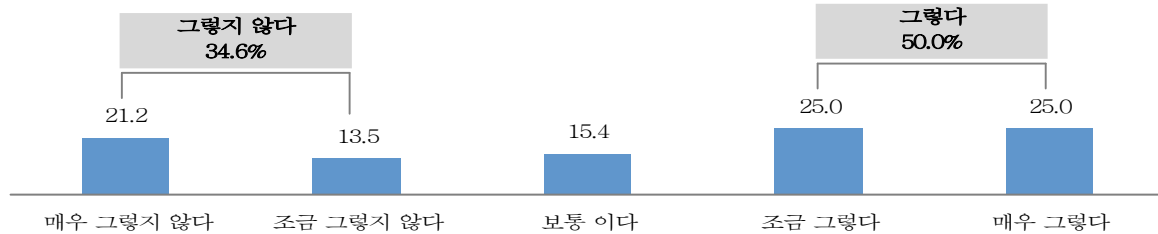
## 5. '실패율, 선율'의 '열, 율'에 대해 애초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자는 주장

제11항 한자음 '라,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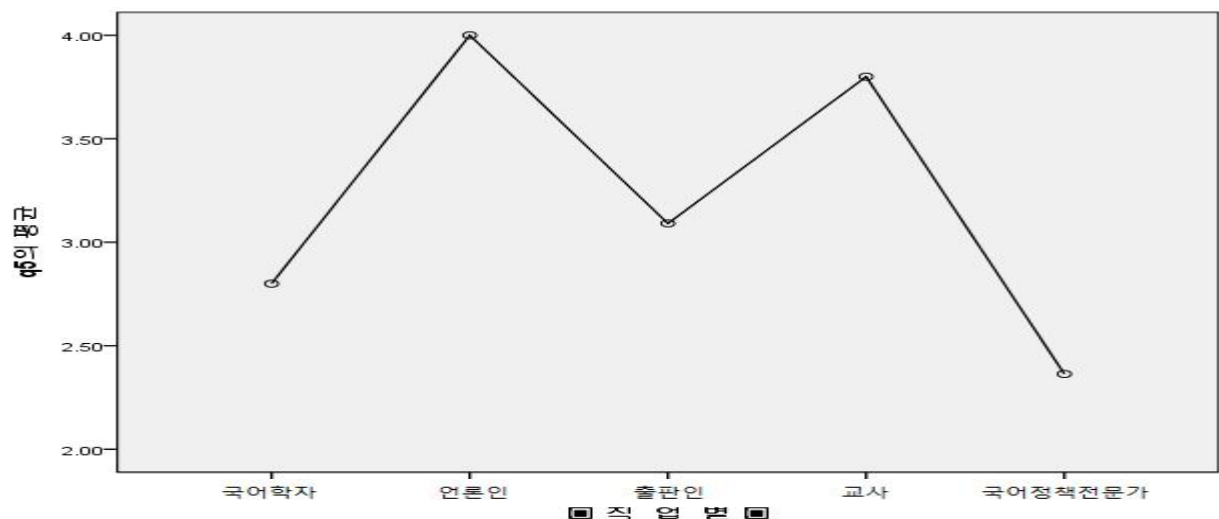
[붙임 1]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붙임 1]에서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만 '열, 율'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모음이나 'ㄴ' 받침 외의 다른 소리 뒤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일관되게 '열, 율'로 적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평균 : 3.19점



문항 5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3.19, 표준 편차는 1.50으로 나타났다. '실패율, 선율'의 '열, 율'에 대해 애초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50.0%)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34.6%)보다 15.4%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언론인(4.00)>교사(3.80)>출판인(3.09)>국어학자(2.80)>국어정책 전문가(2.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정책 전문가>국어학자>출판인>교사>언론인'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언론인>교사>출판인>국어학자>국어정책 전문가' 순

으로 나타났다.

## 6. 어근에 ‘-하다’가 붙을 때 ‘-히’를 붙이자는 주장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1. ‘이’로만 나는 것

가볍이 깨끗이 나뭇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틸틸이

### 2. ‘히’로만 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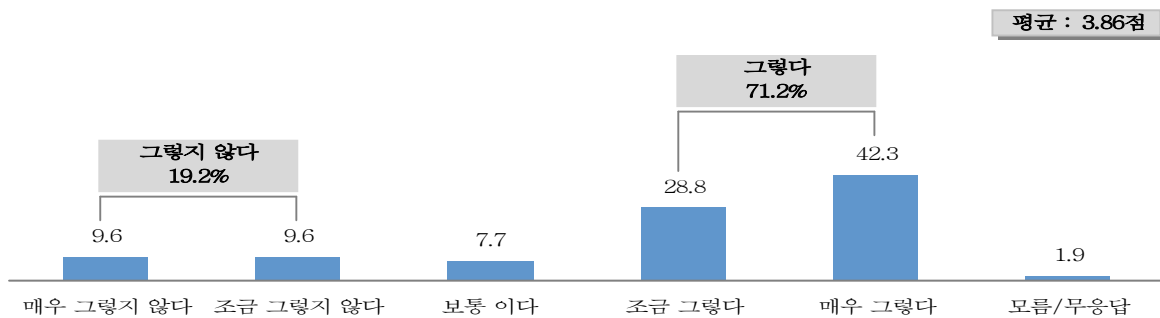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 3. ‘이, 히’로 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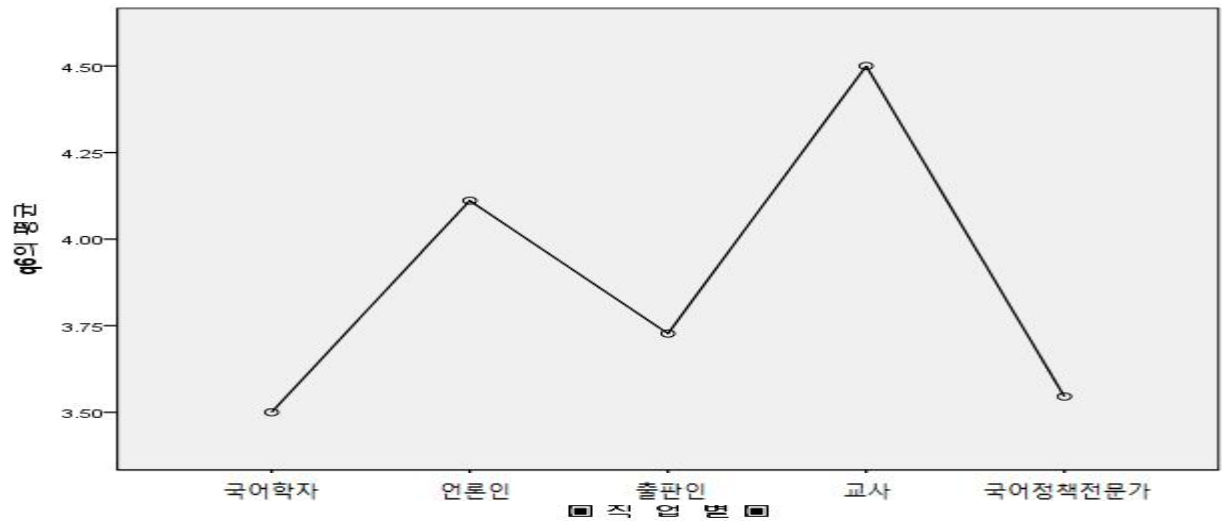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이 규정은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음이 ‘이’인지 ‘히’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발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물론 ‘깨끗이’처럼 어근이 ‘ㅅ’으로 끝나는 경우 등과 같은 일부 예외는 있음.)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항 6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3.86 표준 편차는 1.34로 나타났다. 어근에 ‘-하다’가 붙을 때 ‘-히’를 붙이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71.2%)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9.2%)보다 52%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교사(4.50)>언론인(4.11)>출판인(3.73)>국어정책 전문가(3.55)>국어학자(3.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학자>국어정책 전문가>출판인>언론인=교사’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교사>언론인>출판인>국어학자>국어정책 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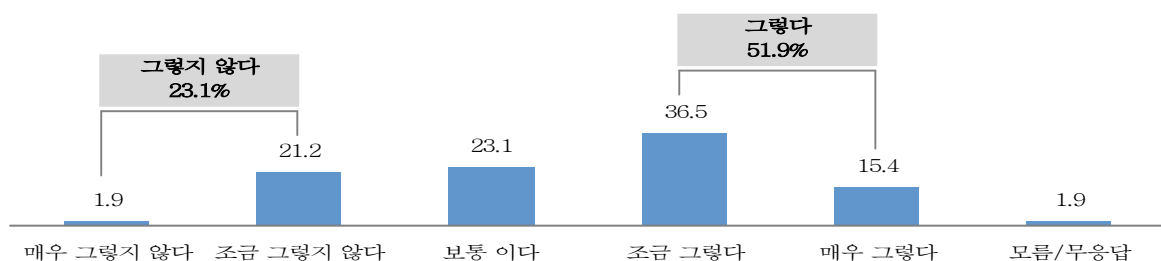
## 15.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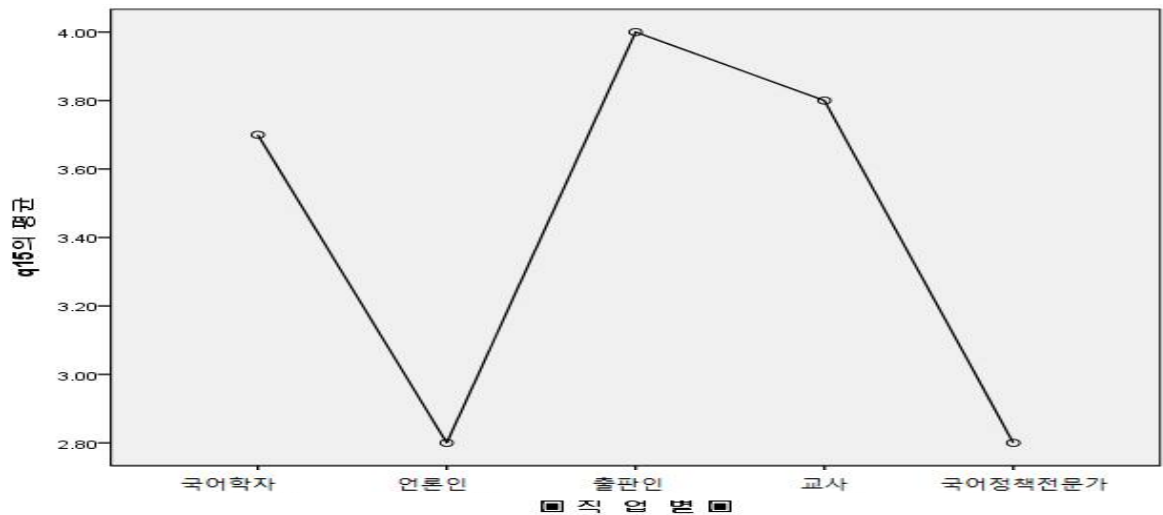
- 반진고리(바느질~) 사흔날(사흘~) 삼진날(삼질~) 선달(설~)
- 순가락(술~) 이틀날(이틀~) 잔주름(잘~) 풀소(풀~)
- 선부르다(설~) 잘다듬다(잘~) 잘다랴다(잘~)

이 규정에 대하여, 역사적 변천 과정과 어긋나기 때문에 본문이든 예시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컨대, ‘순가락’이 ‘숯가락 → 숯가락 → 순가락’의 변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난다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평균 : 3.43점



문항 15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3.43, 표준 편차는 1.06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51.9%)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3.1%)보다 28.8%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출판인(4.00)>교사(3.80)>국어학자(3.70)>언론인=국어정책 전문가(2.8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국어학자>교사>출판인’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출판인>국어학자=교사>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 순으로 나타났다.

## 2.4. 사이시옷 표기

### 2.4.1. 전체 통계 분석

사이시옷 표기를 묻는 7번부터 9번 문항까지의 전체 기술 통계의 평균은 3.08, 표준 편차는 0.69로 나타났다. 이 영역의 직업별 기술 통계는 (5)와 같다. 전문가들은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어정책 전문가의 경우, 사이시옷 표기를 수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의견 일치를 보여 다른 집단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5)

구분	N	표준 편차	평균
국어학자	10	.78881	2.8667
언론인	10	.18922	3.3000
출판인	11	.65751	3.3030
교사	10	.47140	3.3333
국어정책 전문가	11	.88763	2.6364
합계	52	.69192	3.0833

일원분산분석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레빈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직업별 집단의 등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분산 분석 대신 웰치 f 검정을 실시하였다.  $F(4,21.285)=1.977$ ,  $p>.05$ 로 유의수준 5%하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즉,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의견은 직업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4.2. 문항별 통계 분석

### 7.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말자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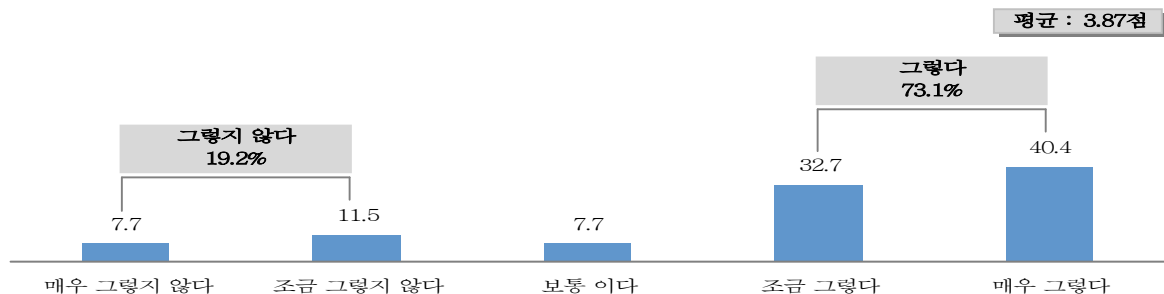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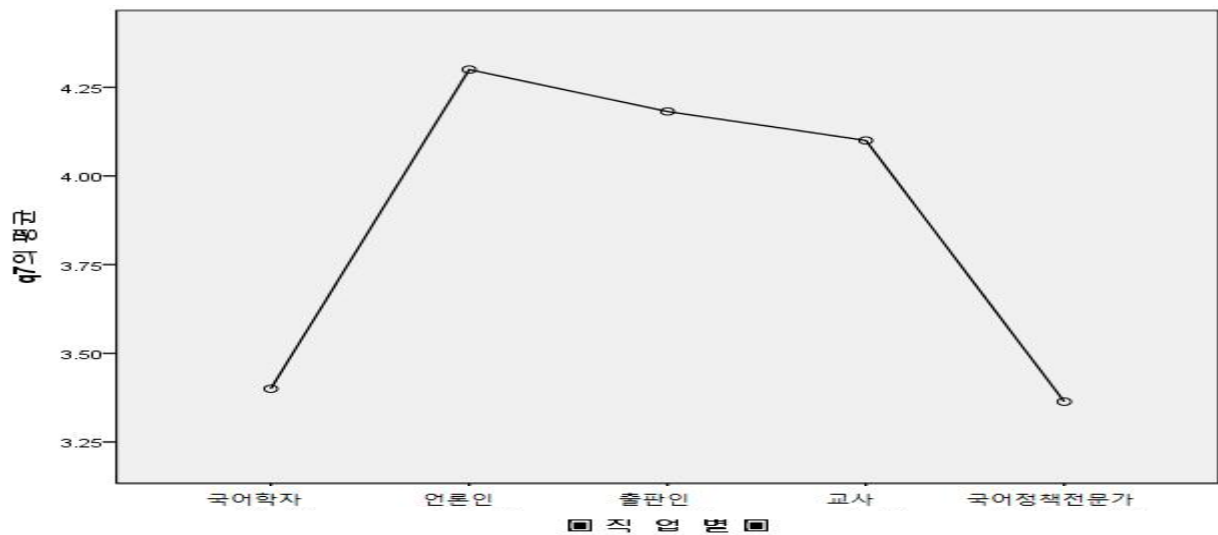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컷병 머릿방 뱃병 붓둑 사자밥 섯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 찻잔 찻종 좇국 콧병 텃줄 텃세 핏기 햇수 횃가루 횃배

이것은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규정입니다. 현행 사이시옷 규정을 준수하면, ‘한자어+고유어’ 구성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절댓값, 최댓값, 최솟값, 만두국, 등곶길’ 등과 같이 한자어 부분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이시옷 없는 표기가 단어 구성 요소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하게 해 주며 ‘내과, 소수점’과 같은 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한글 맞춤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값, 최대값, 최소값, 만두국, 등교길’과 같이 ‘한자어+고유어’ 구성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항 7의 전체 기술 통계의 평균은 3.87, 표준 편차는 1.28로 나타났다.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말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73.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9.2%)보다 53.9%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언론인(4.30)>출판인(4.18)>교사(4.10)>국어학자(3.40)>국어정책 전문가(3.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국어학자>교사>출판인’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국어정책 전문가>국어학자>출판인>교사>언론인’ 순으로 나타났다.

## 8.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여섯 개로 한정하지 말고 늘리자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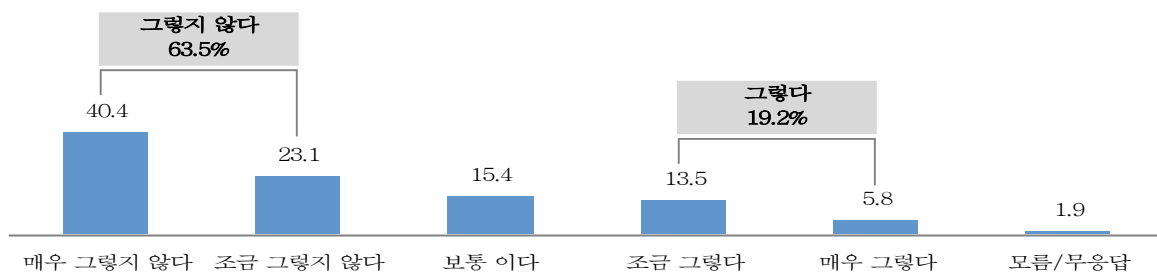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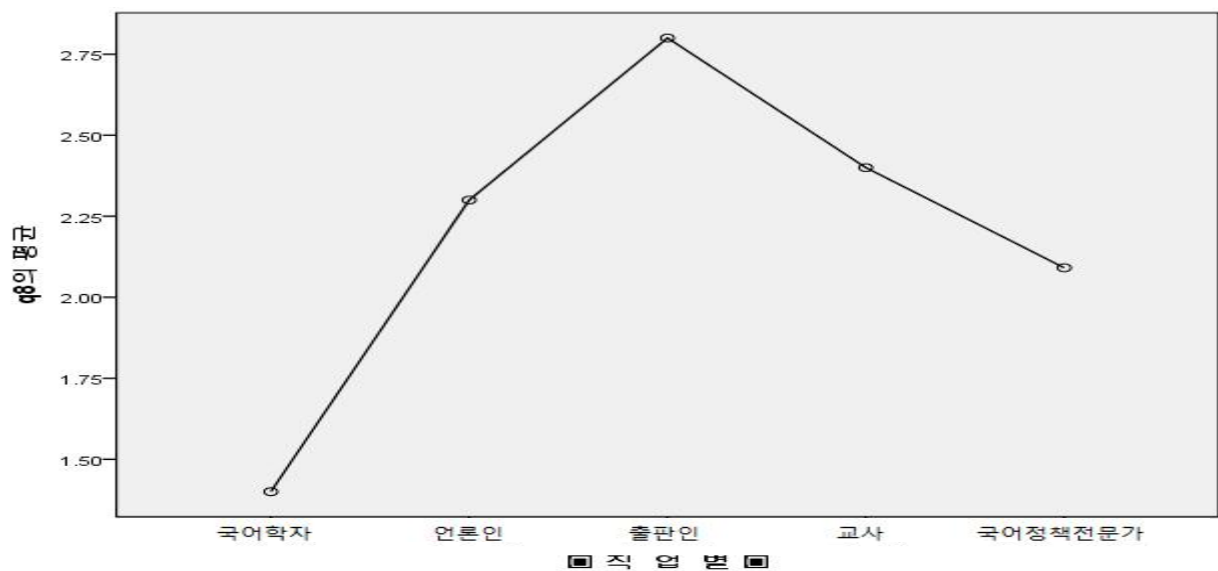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횟수(回數)

이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한자어를 여섯 개로 한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개수(改修), 초점(焦點), 내과(內科)’ 등은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여섯 개에 한정하지 말고 늘리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평균 : 2.20점



문항 8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2.20, 표준 편차는 1.28로 나타났다.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여섯 개로 한정하지 말고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63.5%)이 ‘그렇다’는 응답(19.2%)보다 44.3%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출판인(2.80)>교사(2.40)>언론인(2.30)>국어정책 전문가(2.09)>국어학자(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학자>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교사>출판인’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교사>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국어학자’ 순으로 나타났다.

### 9.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없애자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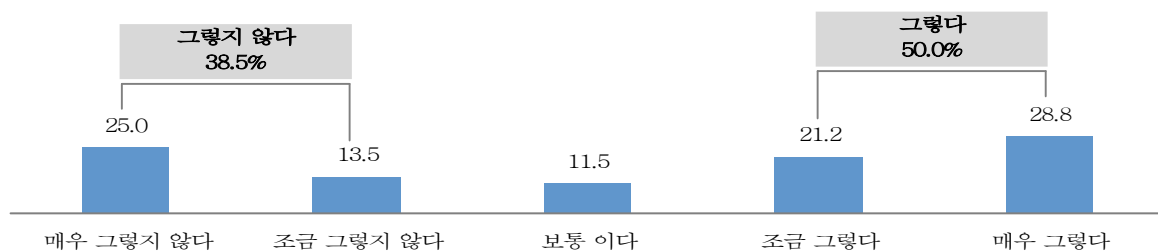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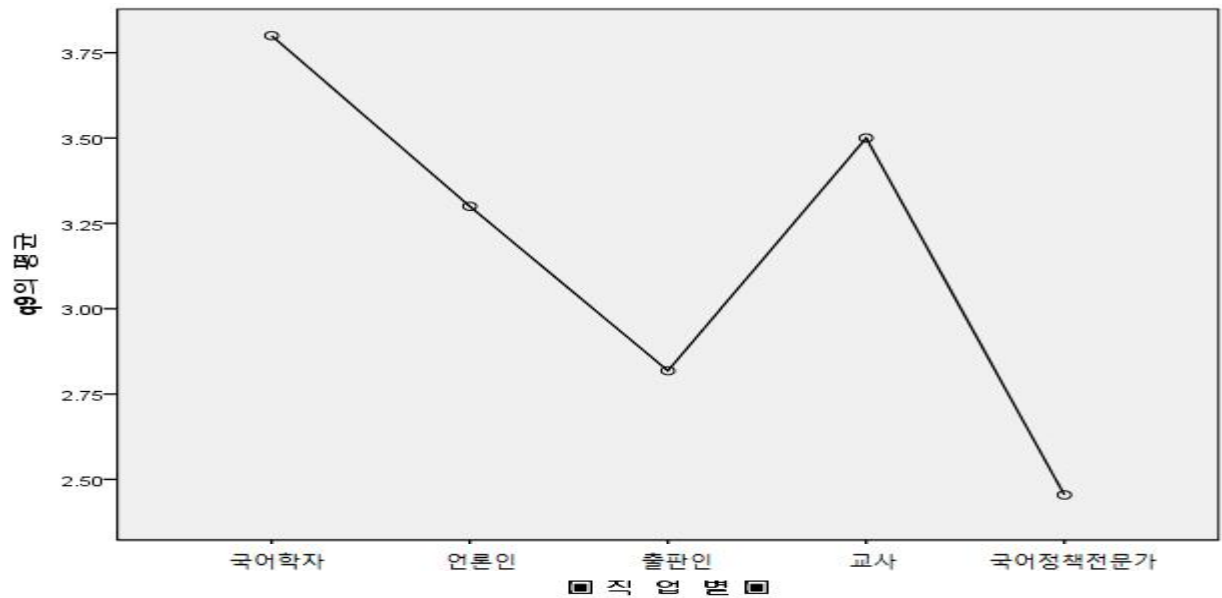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개수(改修), 초점(焦點), 내과(內科)’ 등에서는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처럼 위의 여섯 개 한자어도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평균 : 3.15점



문항 9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3.15, 표준 편차는 1.59로 나타났다.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없애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50.0%)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38.5%)보다 11.5%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국어학자(3.80)>교사(3.50)>언론인(3.30)>출판인(2.82)>국어정책 전문가(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정책 전문가>출판인>교사>언론인>국어학자’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국어학자>언론인>교사>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 2.5. 띄어쓰기

### 2.5.1. 전체 통계 분석

띄어쓰기를 묻는 10번부터 14번 문항까지의 전체 기술 통계의 평균은 3.18, 표준 편차는 0.67로 나타났다. 이 영역의 직업별 기술 통계는 (6)과 같다. 전문가들은 띄어쓰기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서도 국어정책 전문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6)

구분	N	표준 편차	평균
국어학자	10	.71957	3.3000
언론인	10	.53500	3.0800
출판인	11	.45045	3.2909
교사	10	.74267	3.4600
국어정책 전문가	11	.76420	2.8000
합계	52	.66893	3.1808

일원분산분석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레빈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지 못하였으므로 직업별 다섯 집단 간 등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었다.

분산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F(4,47)=1.611$ ,  $p>.05$ 로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즉, 띄어쓰기에 대한 의견에 직업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5.2. 문항별 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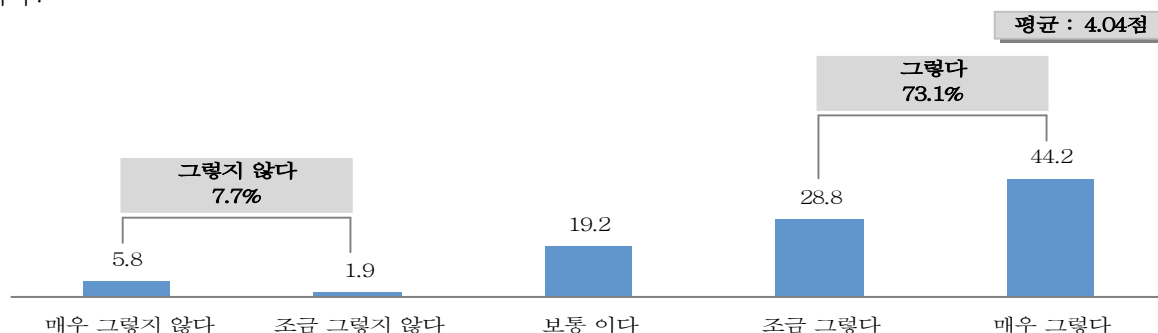
### 10. 숫자와 의존 명사를 항상 붙여 쓰자는 주장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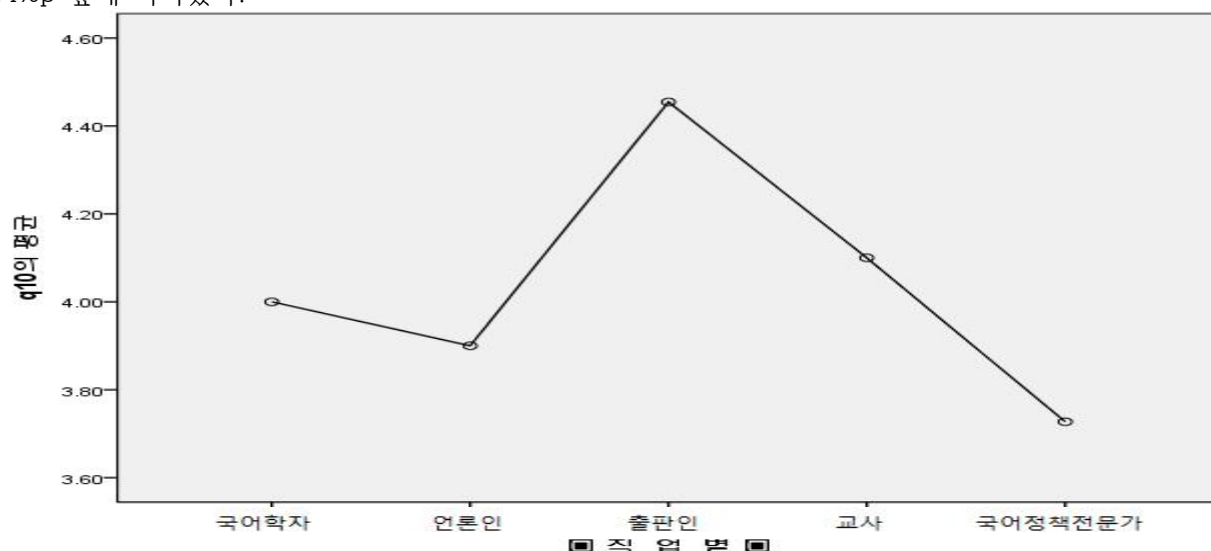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이 규정에 따라 숫자와 의존 명사를 띄어 쓰면 시각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예: 16 동 502 호), 숫자와 의존 명사는 항상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항 10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4.03, 표준 편차는 1.12로 나타났다. 숫자와 의존 명사를 항상 붙여 쓰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73.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7.7%)보다 65.4%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출판인(4.45)>교사(4.10)>국어학자(4.00)>언론인(3.90)>국어정책 전문가(3.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정책 전문가>국어학자=교사>언론인=출판인’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출판인>국어학자>교사>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 순으로 나타났다.

## 11. 성과 이름을 띄어 쓰자는 주장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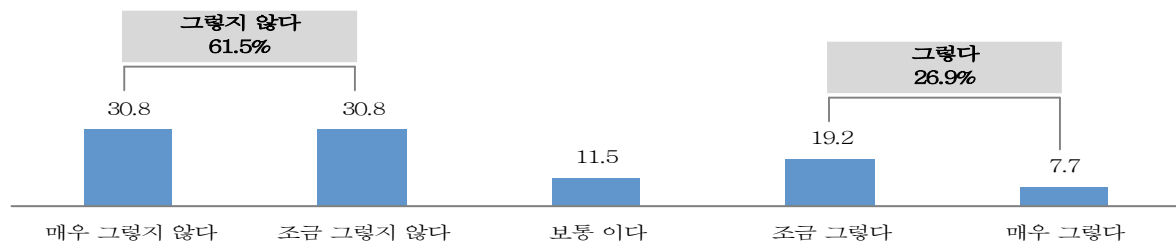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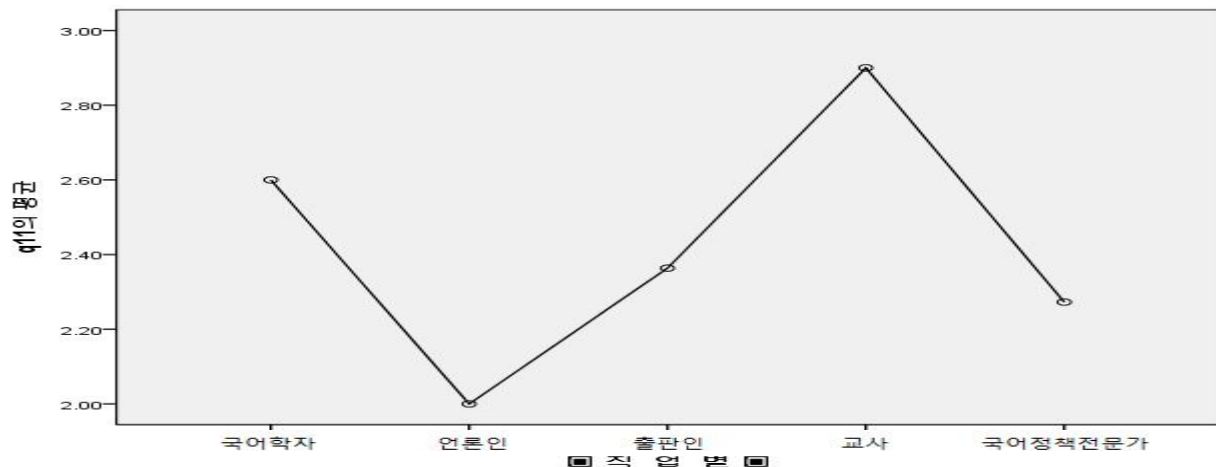
남궁역/남궁 역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이 규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궁역, 독고준, 황보지봉’ 같은 경우처럼 성과 이름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성과 이름을 모두 띄어 쓰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이 두 자(字)인 경우 ‘남궁 역, 독고 준, 황보 지봉’처럼 띄어 쓰면 되고, 성이 한 자(字)인 경우에도 ‘김양수’처럼 띄어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평균 : 2.42점



문항 11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2.42, 표준 편차는 1.32로 나타났다. 성과 이름을 띄어 쓰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61.5%)이 ‘그렇다’는 응답(26.9%)보다 34.6%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교사(2.90)>국어학자(2.60)>출판인(2.36)>국어정책 전문가(2.27)>언론인(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언론인>국어정책 전문가>국어학자>출판인>교사’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국어학자=교사>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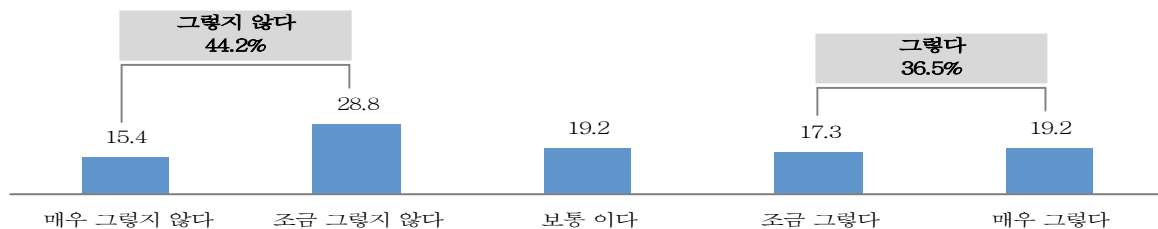
## 12. 전문 용어 및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에서 붙여쓰기를 원칙으로 하자는 주장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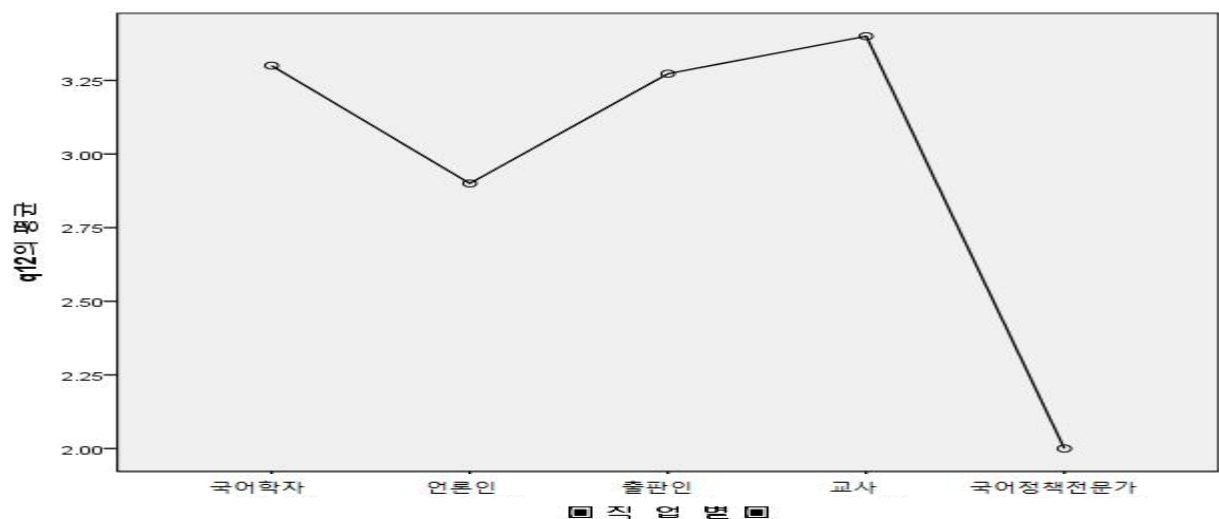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이 조항은 전문 용어를 단어별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전문 용어는 전체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므로 오히려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평균 : 2.96점



문항 12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2.29, 표준 편차는 1.37로 나타났다. 전문 용어 및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에서 붙여쓰기를 원칙으로 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44.2%)이 ‘그렇다’는 응답(36.5%)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교사(3.40)>국어학자(3.30)>출판인(3.27)>언론인(2.90)>국어정책 전문가(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출판인>교사>국어학자’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국어학자=교사>언론인>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 13. 의존 명사 띄어쓰기에서 붙이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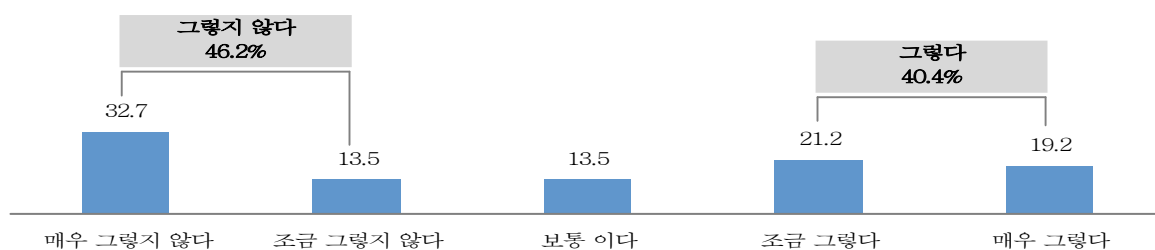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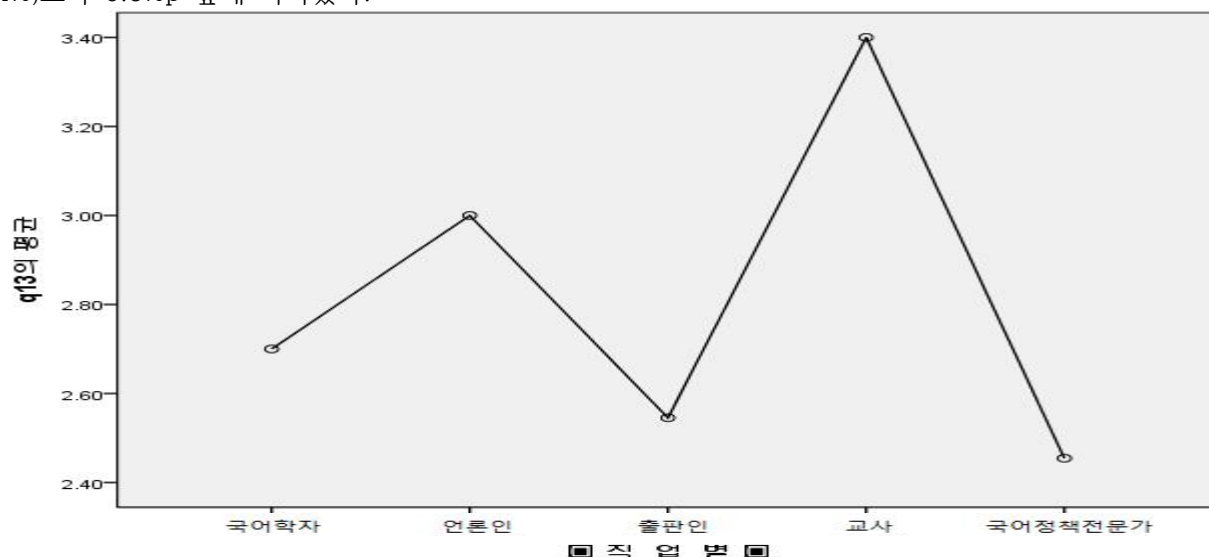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이것은 의존 명사가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의존 명사는 의존성이 짙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 입장에서 문법적으로 구별해 내서 일일이 띄어서 쓰는 것이 매우 번거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는 융통성을 주어서 ‘띄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와 같이 허용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평균 : 2.81점



문항 13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2.81, 표준 편차는 1.56으로 나타났다. 의존 명사 띄어쓰기에서 붙이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46.2%)이 ‘그렇다’는 응답(40.4%)보다 5.8%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교사(3.40)>언론인(3.00)>국어학자(2.70)>출판인(2.55)>국어정책 전문가(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국어학자>언론인>교사’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교사>국어학자=언론인>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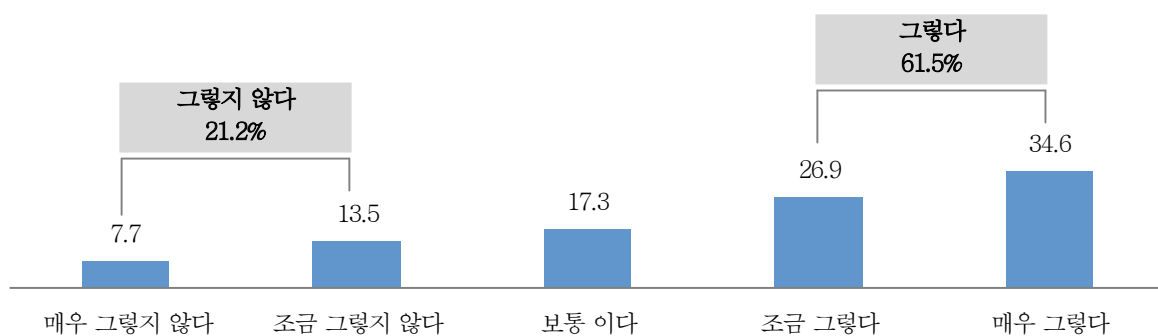
#### 14. 보조 용언 띄어쓰기를 현실화하자는 주장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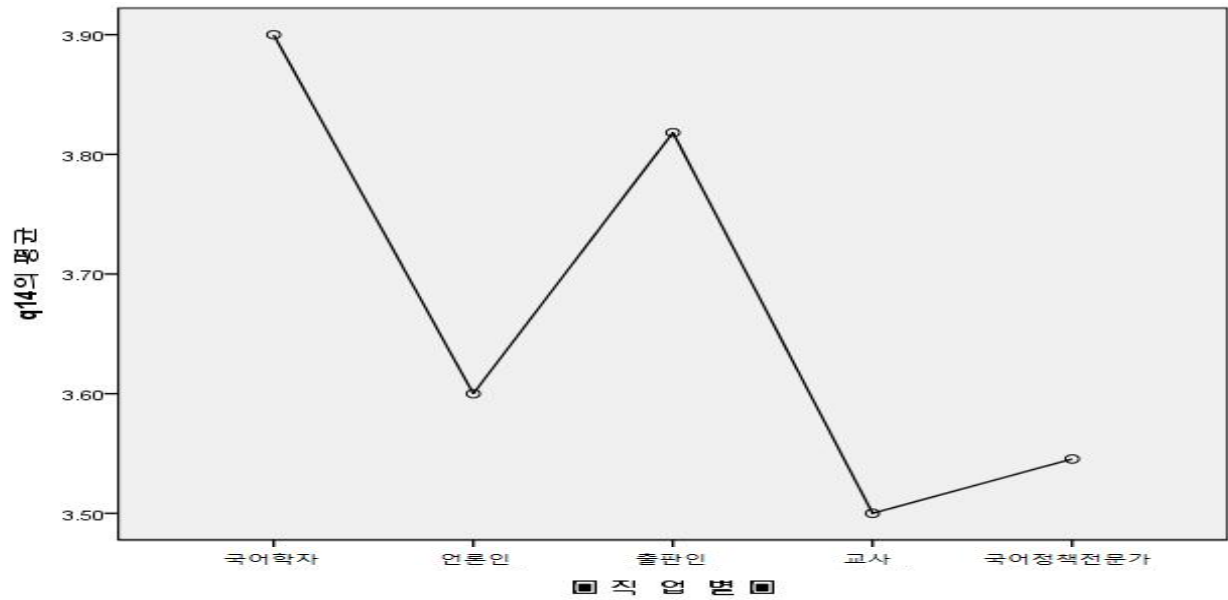
ㄱ	ㄴ
불이 꺼져 <b>간다</b> .	불이 꺼져 <b>간다</b> .
내 힘으로 막아 <b>낸다</b> .	내 힘으로 막아 <b>낸다</b> .
어머니를 도와 <b>드린다</b> .	어머니를 도와 <b>드린다</b> .
그릇을 깨뜨려 <b>버렸다</b> .	그릇을 깨뜨려 <b>버렸다</b> .
비가 올 <b>듯하다</b> .	비가 올 <b>듯하다</b> .
그 일은 할 <b>만하다</b> .	그 일은 할 <b>만하다</b> .
일이 될 <b>법하다</b> .	일이 될 <b>법하다</b> .
비가 올 <b>성싶다</b> .	비가 올 <b>성싶다</b> .
잘 아는 <b>척한다</b> .	잘 아는 <b>척한다</b> .

이것은 일부 보조 용언을 본용언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게 하다’, ‘-지 않다’, ‘-고 있다’ 등의 구성에서는 보조 용언을 띄어 쓰는 경우도 있고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따라서 모든 보조 용언을 일관되게 띄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평균 : 3.67점



문항 14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3.67, 표준 편차는 1.29로 나타났다. 보조 용언 띄어쓰기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61.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1.2%)보다 40.3%p 높게 나타났다.



직업 집단별로는 ‘국어학자(3.90)>출판인(3.82)>언론인(3.60)>국어정책 전문가(3.55)>교사(3.50)’의 순으로 평균값이 제시되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언론인>국어학자=교사>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 순으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보였고, ‘국어학자>출판인>언론인>국어정책 전문가>교사’ 순으로 그렇다는 답변을 보였다.

## 2.6. 한글 맞춤법의 복수 표기 인정 및 표준어 규정 관련

### 2.6.1. 전체 통계 분석

한글 맞춤법의 복수 표기 인정 및 표준어 규정 관련 내용을 묻는 16번부터 17번 문항까지의 전체 기술 통계의 평균은 3.23, 표준편차는 0.98로 나타났다. 이 영역의 직업별 기술 통계는 (7)과 같다. 전문가들은 한글 맞춤법의 복수 표기 인정 및 표준어 규정 관련 내용의 수정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서는 국어학자와 국어정책 전문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수정하자는 의견에 덜 동의하였다.

(7)

구분	N	표준 편차	평균
국어학자	10	.91894	2.8000
언론인	10	.68516	3.4500
출판인	11	1.25408	3.4545
교사	10	.76194	3.5500
국어정책 전문가	11	1.06813	2.9091
합계	52	.98250	3.2308

일원분산분석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레빈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지 못하였으므로 직업별 다섯 집단 간 등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었다.

분산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F(4,47)=1.341$ ,  $p>.05$ 로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즉, 한글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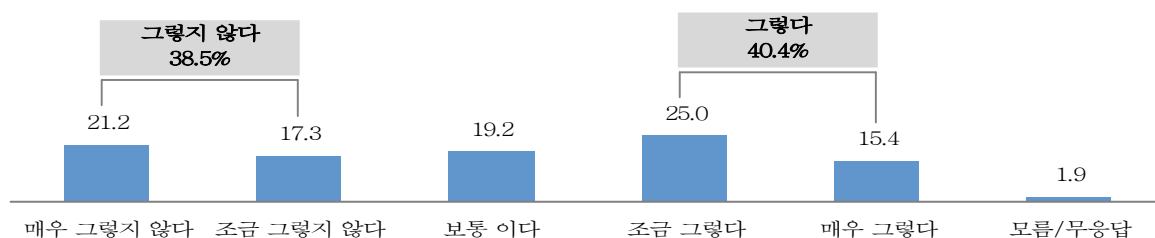
법의 복수 표기 인정 및 표준어 규정과 관련한 의견에서 전문가 직업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6.2. 문항별 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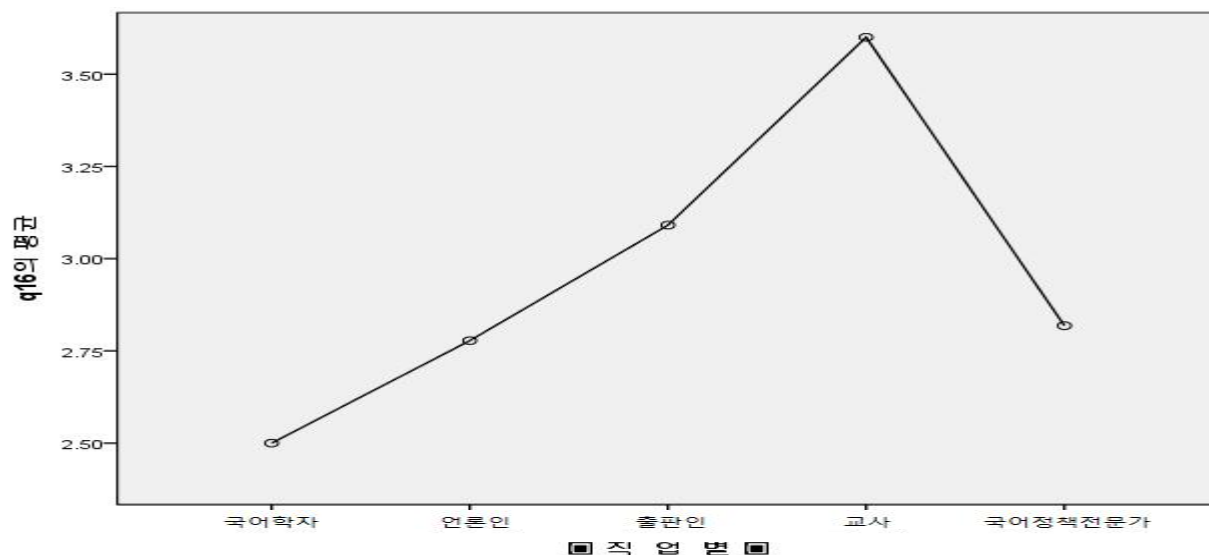
#### 16. 한글 맞춤법 개정 방향을 예외 인정과 복수 인정 쪽으로 하자는 주장

현행 한글 맞춤법은 예외나 복수에 대한 인정의 여지가 협소한 편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대폭 허용하는 쪽으로 한글 맞춤법을 개편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평균 : 2.96점



문항 16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3.23, 표준 편차는 0.98로 나타났다. 한글 맞춤법 개정 방향을 예외 인정과 복수 인정 쪽으로 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40.4%)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38.5%)보다 1.9%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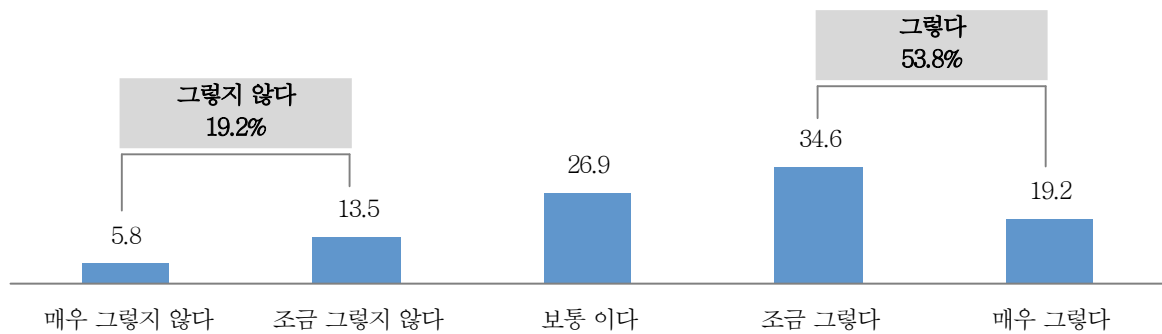


평균값은 ‘교사(3.60)>출판인(3.09)>국어정책 전문가(2.82)>언론인(2.78)>국어학자(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학자>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교사’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교사>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국어학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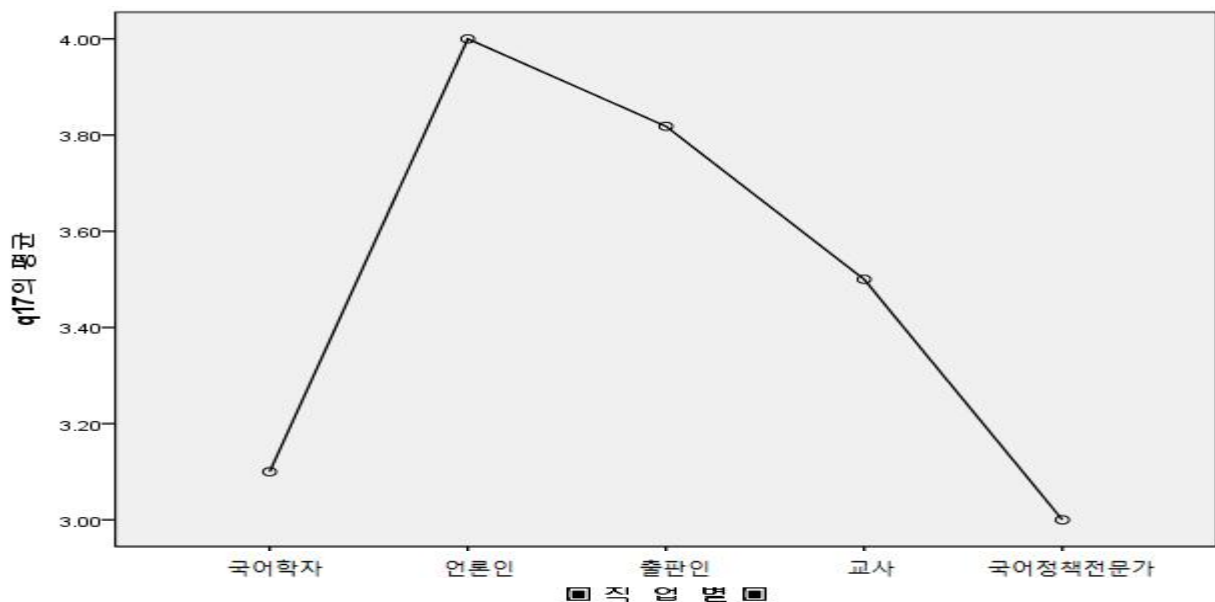
### 17.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통합하자는 주장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중복되는 설명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그 둘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표준어 규정의 일부는 한글 맞춤법에 통합시키고 개별 어휘가 표준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국어사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평균 : 3.48점



문항 17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3.48, 표준 편차는 1.13으로 나타났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53.8%)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9.2%)보다 34.6%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언론인(4.00)>출판인(3.82)>교사(3.50)>국어학자(3.10)>국어정책 전문가(3.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정책 전문가>국어학자>출판인>교사>언론인’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출판인>언론인>교사>국어정책 전문가>국어학자’ 순으로 나타났다.

## 2.7. 한글 맞춤법의 주제 및 폐지, 그리고 법적 지위

### 2.7.1. 전체 통계 분석

한글 맞춤법의 주제 및 폐지, 그리고 법적 지위를 묻는 18번부터 20번 문항까지의 전체 기술 통계의 평균은 2.33, 표준 편차는 0.78로 나타났다. 이 영역의 직업별 기술 통계는 (8)과 같다. 지금까지 제시된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이 영역에서는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8)

구분	N	표준 편차	평균
국어학자	10	.95323	2.4000
언론인	10	.63246	2.2000
출판인	11	.85635	2.6667
교사	10	.72350	2.2000
국어정책 전문가	11	.74941	2.2121
합계	52	.78241	2.3397

일원분산분석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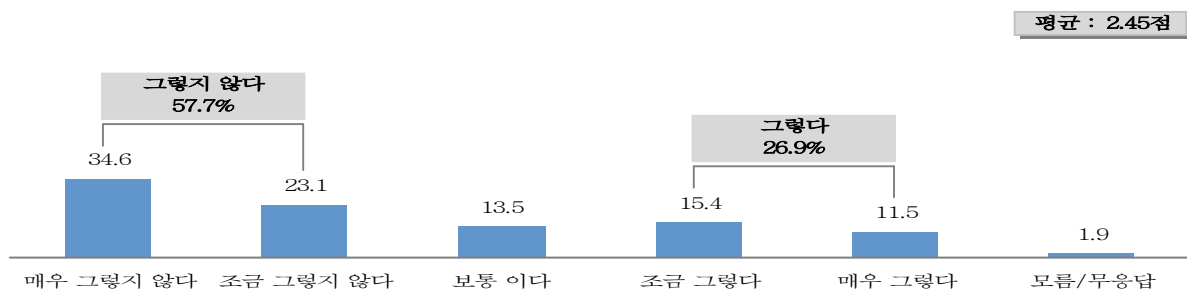
레빈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지 못하였으므로 직업별 다섯 집단 간 등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었다.

분산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F(4,47)=.711$ ,  $p>.05$ 로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즉, 맞춤법의 주제 및 폐지, 그리고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에서 전문가 직업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7.2. 문항별 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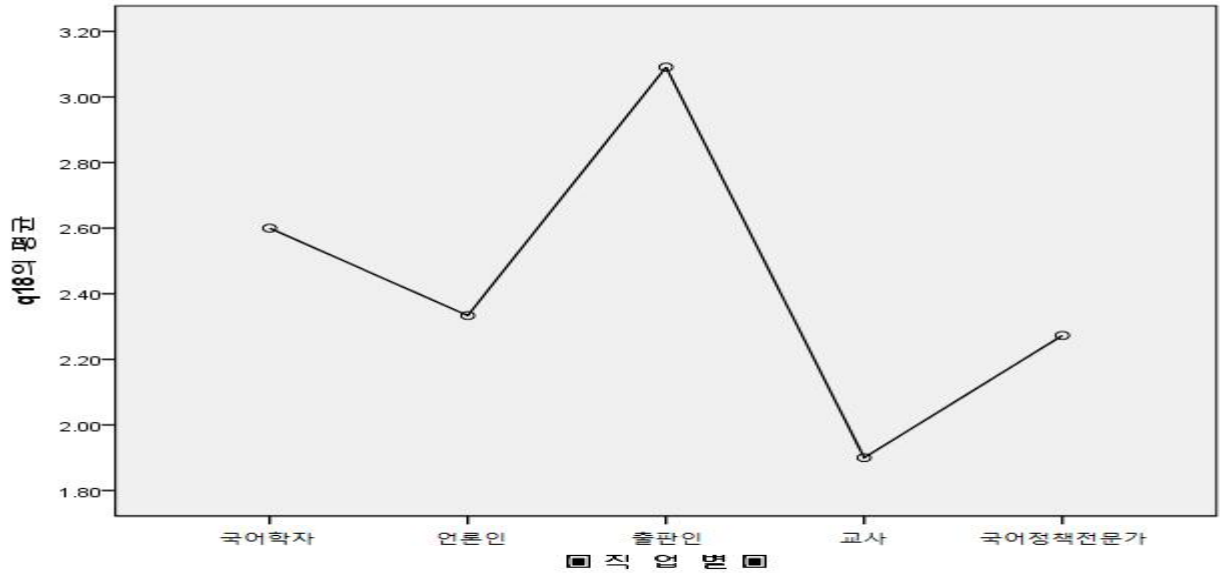
#### 18. 한글 맞춤법을 전문가용으로 하자는 주장

현행 한글 맞춤법은 일반인을 위한 것으로 대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그 내용을 쉽게 홍보 및 교육만 하면 충분하다는, 즉 한글 맞춤법 규정은 전문가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항 18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2.45, 표준 편차는 1.42로 나타났다. 한글 맞춤법을 전문가용으로 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57.7%)이 ‘그렇다’는 응답(26.9%)보다 30.8%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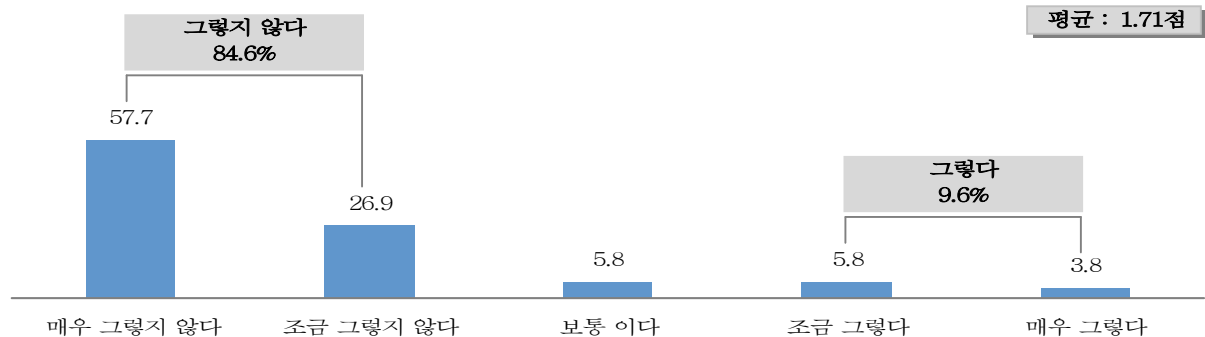


평균값은 ‘출판인(3.09)>국어학자(2.60)>언론인(2.33)>국어정책 전문가(2.27)>교사(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교사>국어학자>출판인’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국어학자>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 19.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폐지하자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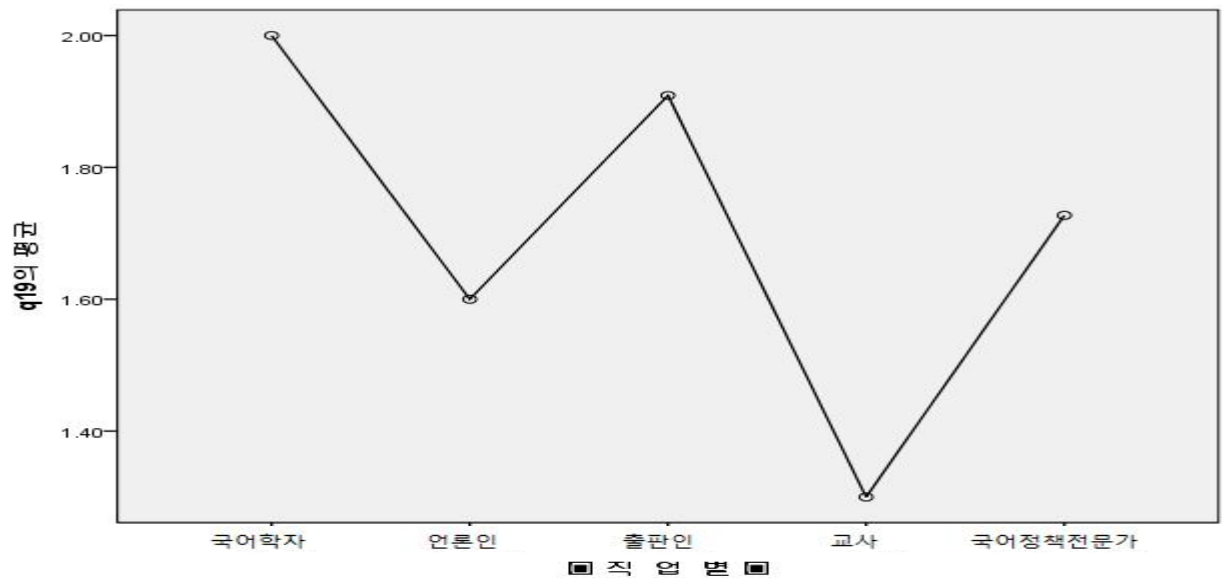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은 필요 없고 국어사전이 국어생활의 지침이 되도록 하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현재는 1957년 이후 상당수의 사전 발행과 더불어 국가에서 편찬한 표준 국어사전도 있으며 그 사전을 이용하기에도 커다란 불편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 규정만 익히면 국어 규범을 바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반 대중들은 표준 국어사전을 이용하여 국어 규범을 익혀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어 규정 자체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교육하지 말 것이며, 그 규정은 역사적 자료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문항 19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1.71, 표준 편차는 1.07로 나타났다.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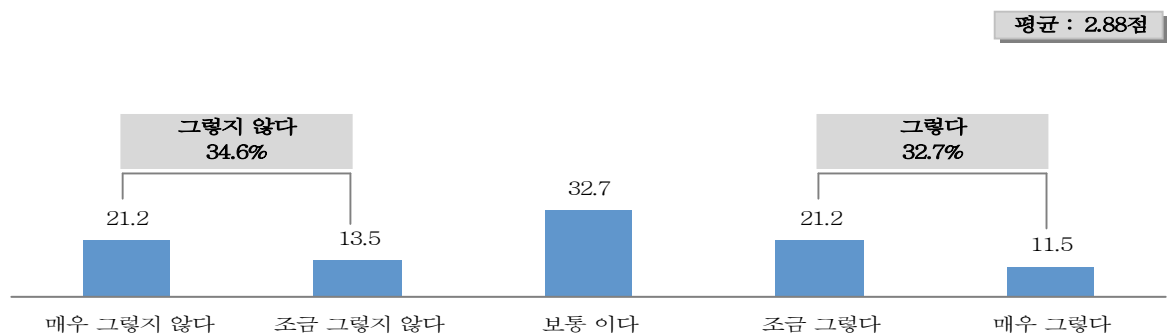
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84.6%)이 ‘그렇다’는 응답(9.6%)보다 75%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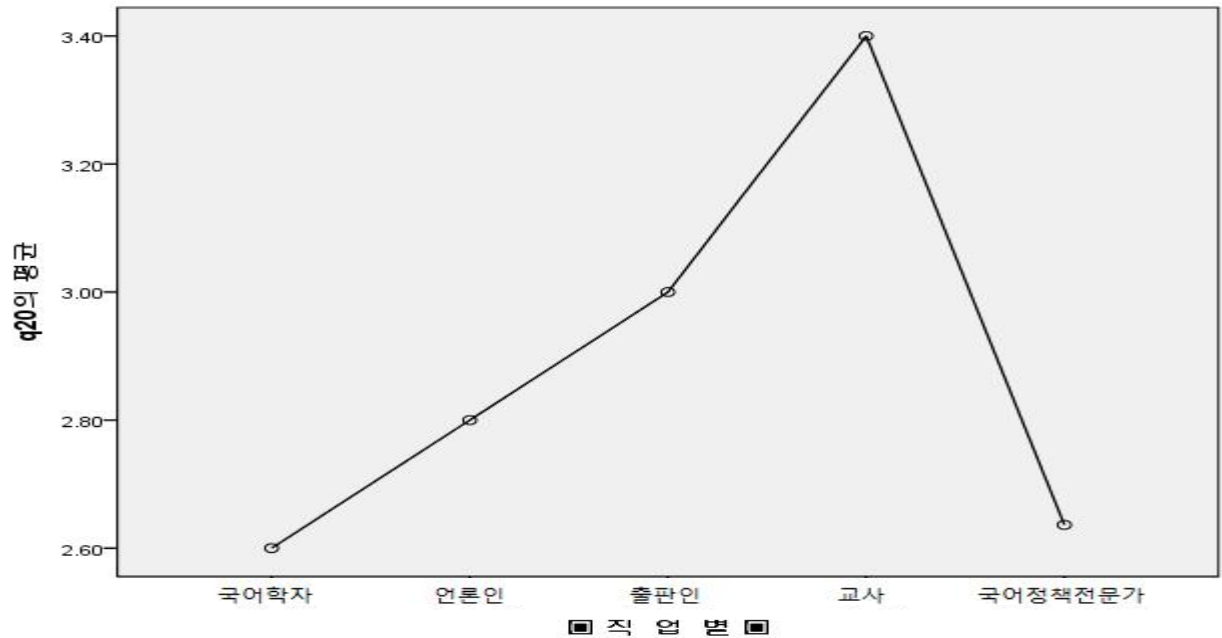
평균값은 ‘국어학자(2.00)>출판인(1.91)>국어정책 전문가(1.73)>언론인(1.60)>교사(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교사>언론인>국어정책 전문가>국어학자>출판인’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국어학자>출판인>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 20.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자는 주장

현행 어문 규범은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한글 맞춤법 고시를 비롯한 어문 규범 고시들은 국어기본법을 보완하는 ‘법을 보충적 고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항 20의 전체 기술 통계 평균은 2.88, 표준 편차는 1.29로 나타났다.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34.6%)이 ‘그렇다’는 응답(32.7%)보다 1.9%p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교사(3.40)>출판인(3.00)>언론인(2.80)>국어학자(2.60)>국어정책 전문가(2.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국어학자>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교사>출판인’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답변은 ‘출판인>교사>국어학자>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 순으로 나타났다.

### 3. 정리

#### 3.1. 1차 전문가 설문 결과 요약

-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1차 전문가 의식 조사 설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글 맞춤법의 구체적인 조항의 수정과 관련된 의견을 분석해 보면, 수정 의견이 높은 조항과 수정 의견이 낮은 조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4) ㄱ. 수정 의견이 높은 조항

- 제10항~제12항(두음 법칙)
- 제30항(사이시옷)
- 제41항~제50항(띄어쓰기)
- 제51항(부사 파생 접미사 표기)

##### ㄴ. 수정 의견이 낮은 조항

- 제1항~제3항(총칙)

#### 제4항(한글 자모)

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구체적인 표기법 조항과는 달리 총칙이나 한글 자모와 같이 다소 총괄적이거나 전통성을 갖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칙 및 한글 자모와 관련한 수정 의견을 보면 깊이 있게 검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 ‘어법’이라는 표현의 문제점 지적, 띄어쓰기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자세하게 기술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음의 명칭을 통일하고 자모의 수를 40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수정 의견이 높은 각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두음 법칙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복잡하다는 지적과 ‘열, 율’의 표기에 대한 지적을 참고할 만하고, 사이시옷과 관련해서는 규정과 현실 표기의 불일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띄어쓰기와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이들을 참고하여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그러면서도 너무 소략하지 않게 규정을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사 파생 접미사의 표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여러 제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표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한글 맞춤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글 맞춤법의 존치, 체계, 표현, 용어, 예시 및 개별 조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글 맞춤법의 존치와 관련해서는 한글 맞춤법 무용론이 제시되었고, 체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비하자는 의견과 규정의 내용 위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표현과 관련해서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명시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용어와 관련해서는 전문 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예시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시 위주로 구성을 하고 예시를 중심으로 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제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한글 맞춤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다는 의견(30.1%)이 개정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의견(26.5%)보다 조금 많았지만, 보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9.6%로 제일 많았다. 개정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언어생활의 변화를 반영하고 현실 언어와 규정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고,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현행 한글 맞춤법이 오래되지 않았고 한글 맞춤법 개정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시되었다.

개정 정도와 관련해서는 전면 개정(9.4%)보다 부분 개정(60.4%)에 대한 의견이 높았고, 개정의 수준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복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조항, 예시, 체제’ 순으로 조사되었다. 개정의 절차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반인을 참여시키자는 의견(30.2%)보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정하자는 의견(35.8%)이 조금 많았으나, 후자의 경우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자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5년 이내에 하자는 의견(32.1%)이 많았으나 빨리 개정할수록 좋다는 의견과 전면적인 개정은 통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3.2. 2차 전문가 설문 결과 요약

-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2차 전문가 의식 조사는 1차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20문항으로 구체화하였는데, 특히 일정한 주장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객관식으로 들어보았다.

○ 2차 전문가 설문에서 수정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주요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정 의견이 높은 주장

1. [문10] 제43항 숫자와 의존 명사를 항상 붙여 쓰자는 주장 - 75.9%
2. [문7] 제39항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말자는 주장 - 71.6%
3. [문6] 제51항 어근에 ‘-하다’가 붙을 때 ‘-히’를 붙이자는 주장 - 71.2%
4. [문3] 제4항 받침 글자의 종류와 그 순서를 규정에서 명문화하자는 주장 - 65.4%
5. [문14] 제47항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를 현실화하자는 주장 - 61.5%

1위는 숫자와 단위 명사를 항상 붙여 쓰도록 하자는 주장이다(75.9%).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80원, 10 개, 16 동 502 호’처럼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80원, 10개, 16동 502호’처럼 붙여 쓰는 게 허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하여 ‘80원, 10개’처럼 항상 붙여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2위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구성된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말자는 주장이다(71.6%).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만듯국, 등곶길’처럼 사이시옷이 중간에 나면 사이시옷 표기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발음은 지역별, 개인별 차이가 나니까 맞춤법 차원에서는 그냥 ‘만두국, 등교길’로 표기하자는 것이다. 3위는 ‘-이’, ‘-히’의 표기 규정을 수정하자는 주장이다(71.2%). 즉,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히’ 표기가 무척이나 헷갈리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다’를 붙일 수 있으면 모두 ‘히’로 적자는 것이다. ‘솔직히, 열심히. 조용히, 간소히’ 등은 사실 ‘이’로 소리 나기도 하고 ‘히’로 소리 나기도 하여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이에 대하여 어근 뒤에 ‘하다’를 붙일 수 있으므로 모두 ‘히’로 적자는 것이다. 반면 ‘번번이, 일일이’는 ‘\*번번하다, \*일일하다’가 안 되므로 ‘히’가 아닌 ‘이’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4위는 받침 글자의 종류와 그 순서를 맞춤법 조항으로 승격시키자는 주장이다(65.4%). 현행 받침 글자에 대해서는 맞춤법 규정에 제시된 바가 없는 실정이며, 단지 해설서에만 나와 있다. 5위는 현재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쓰는 것을 원칙, 붙여 쓰는 것을 허용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보조 용언 구성에서는 항상 띄어 쓰는 현실을 규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61.5). ‘-게 하다, -지 않다, -고 있다, -고 싶다’ 등을 보면 항상 띄어 쓰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2차 전문가 설문에서 수정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가 낮은 주요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정 의견이 낮은 조항

1. [문19]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폐지하자는 주장 - 84.6%
2. [문8] 제30항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여섯 개로 한정하지 말고 늘리자는 주장 - 63.5%
3. [문11] 제48항 성과 이름을 띄어 쓰자는 주장 - 61.5%
3. [문2] 제4항 한글 자모자의 숫자를 40개로 하자는 주장 - 61.5%
5. [문18] 한글 맞춤법을 전문가용으로 하자는 주장 - 57.7%

수정 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전문가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일부 학자들의 한글 맞춤법 폐지 주장이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84.6%로 압도적으로 맞춤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2위는 현재 6개 한자어에만 인정하고 있는 사이시옷 표기를 ‘넋과, 갯수, 촛점’처럼 늘리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63.5%나 되는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앞의 사이시옷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부

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위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원칙에 대하여 띄어 쓰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즉 ‘김 양수’처럼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하면 ‘남궁 역, 독고 준, 황보 지봉’으로 띄어 써서, 헛갈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식의 부정적 의견이 61.5%나 되었다. 동일한 3위로 한글 자모 수를 현행 24자에서 40자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현행 24자는 ‘ㄱ, ㄲ, ㅋ, ㆁ’ 등 실제 사용되는 자모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0자로 해서 이들을 모두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61.5%나 되는 전문가들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붙임 1]에서 나머지 16개 자모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5위는 한글 맞춤법을 전문가용으로 하자는 주장인데, 57.7%의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다.

### 3.3. 1차와 2차 전문가 의식 조사의 비교 및 제언

여기서는 1차 전문가 설문 조사의 결과와 2차 전문가 설문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연구팀의 의견을 서술하기로 한다. 1차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는 구조화된 개방형 설문 방식으로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주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주장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20문항으로 구성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조사에서 제시된 한글 맞춤법 조항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2차 조사를 통해 집단별로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1차 조사의 전문가 집단에서 수정 의견이 높거나 낮은 조항 및 주장은 2차 조사의 전문가 집단에서도 역시 대체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1차 조사에서 총칙이나 한글 자모와 같이 다소 총괄적이거나 전통성을 갖는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이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차 조사에서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나 ‘한글 맞춤법을 전문가용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정 의견도 역시 낮았다. 이는 음소주의를 고려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형태주의 차원을 지지하는 현재의 한글 맞춤법 입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둘째, 1차 조사의 전문가 집단에서 사이시옷, 띄어쓰기,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의 표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표기법 조항은 수정 의견이 높았는데, 2차 조사의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들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이 역시 높았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두음 법칙에 대해 수정 의견이 높았으나, 2차 조사에서 제11항과 관련하여 ‘두음 법칙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실패율, 선율’의 ‘열, 율’에 대해 애초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자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이 분명한 의견(평균값: 2.71, 3.19)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두음 법칙 규정이 복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나, 이를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차에서의 포괄적인 두음 법칙 의식이 2차에서의 개별적인 두음 법칙 상세 규정에 들어가서는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음 법칙에 대한 전면적인 맞춤법 연구 및 개정이 깊고 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부 조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집단별 차이는 문항별로 제시된 분산도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문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징적인 것은 언론인 집단이 다른 집단과 차이 나는 응답을 자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집단 중 언론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맞춤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국어학자와 국어정책 전문가 집단은 특정 주장에 대한 의견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교사 집단은 변화 주장에 대하여 비교적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많이 하였다. 출판

인 집단은 언론인과 교사 집단의 중간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한글 맞춤법이라는 규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국어학자나 이론도 그렇고 정책 차원의 실제 시행도 그렇고 잘 알고 있는 국어정책 전문가들은 맞춤법의 허와 실을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개혁적으로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국어 교사들 같은 경우는 직접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 문제가 있는 맞춤법은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별 의식 차이는 차후 한글 맞춤법 개정 작업에서 누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지를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넷째,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 조사를 통해 살펴본 이번 조사 결과가 한글 맞춤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한글 맞춤법을 전문가용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한글 맞춤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쉽고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지금까지 느꼈던, 한글 맞춤법이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정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인들이 한글 맞춤법을 친숙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교육 기관 및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글 맞춤법은 ‘국어 교사’나 ‘국어학자’만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사용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오늘날 독서 교육이 국어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긍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맞춤법에 대해서만은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 싶은 특별한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에는 검색을 통해 확인하면 되니 잘 몰라도 된다는 식의 인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려 쓰는 방법인 맞춤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 V. 한글 맞춤법 관리 방법 개선 여부 및 개선 방향

### 1. 한글 맞춤법 관리의 의의

사전적인 의미에서 ‘관리(管理)’란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하거나 시설 또는 물건을 유지하고 개량하는 일을 맡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글 맞춤법 관리’는 유지·개량의 대상이 한글 맞춤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때 한글 맞춤법의 유지 및 개량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내적인 차원에서 한글 맞춤법 규정 내용을 유지하고 개량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외적인 차원에서 한글 맞춤법을 유지 및 개량하는 것으로 한글 맞춤법의 교육이나 홍보, 보급 등에 대한 정책적 사안과 관련된다. 이 장에서 다룰 한글 맞춤법의 관리 방법은 후자에 해당한다. 한글 맞춤법 제정 및 고시 후 전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다룬 바 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만을 주제로 다룬 연구들을 찾기 어렵다.<sup>1)</sup>

그러나 한글 맞춤법의 내용을 다루는 일 못지않게 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한글 맞춤법을 만든다고 하여도 정책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글 맞춤법은 유명 무실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한글 맞춤법 관리와 관련하여 좀 더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관리’ 혹은 ‘유지 및 개량’이라는 말은 그 범위가 모호하며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정책 차원의 한글 맞춤법 관리에 대해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그 법적 지위 및 근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 관리 방법의 개선을 위해 어떤 내용을 살필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은 고시 형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sup>2)</sup> 또한 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은 주로 국어기본법에 근거한다. 국어기본법에 의하면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로 산하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 국어기본법 중 한글 맞춤법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국어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체로 ‘언어 정책, 국어 정책, 어문 정책’ 등의 포괄적인 논의에서 어문 규범이나 한글 맞춤법의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소략하게 언급할 뿐이다.

2) 고시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으로 공시(公示)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내려진다. 대외적이기는 하나 명령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일이 있으며, 일반 처분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이 중 제14조와 제18조는 공문서와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한글 맞춤법을 포함하는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함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15조 ②의 내용 역시 제14조와 제18조가 ‘작성하여야 한다/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어구를 사용한 것과 달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그 어조가 약하기는 하지만 대중매체 역시 어문 규범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15조 ①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람직한 국어문화’란 곧 어문 규범이 잘 준수되는 국어문화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어기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한글 맞춤법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고민해야 할 내용이 추려진다. 먼저 한글 맞춤법의 현 법적 지위가 공문서나 대중 매체 또는 일반 언중의 한글 맞춤법 준수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법적 지위의 영향력은 언어생활뿐 아니라 어문 정책까지 확대해서 살펴야 하며 나아가 현 법적 지위 수준의 적절성까지 따져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한글 맞춤법의 바람직한 홍보 및 교육 방안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문가 의식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한글 맞춤법이 지니는 공시(公示)라는 현 법적 지위 수준의 영향력(언어생활 및 어문 정책)과 적절성 그리고 홍보 및 교육 방안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살피고 이를 통해 관리 방법의 개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2. 한글 맞춤법의 관리 방법

### 2.1. 1차 전문가 의식 조사

한글 맞춤법 규정 내용과 관리 방법 개선을 위해 전문가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sup>3)</sup> 1번부터 8번까지의 문항은 앞서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문항은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항으로 9, 10번 문항은 맞춤법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고, 11, 12번 문항은 맞춤법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것이다. 3장에서는 설문 결과를 각각 법적 지위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것으로 나눠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맞춤법 관리 방법의 개선 여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1.1.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 2.1.1.1.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법적 지위와 관련한 다음 문항 (9-1)에서는 먼저 현 법적 지위의 맞춤법이 언어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

3) 전체 전문가 설문에 대한 개요는 앞서 기술하였기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치는지를 물었다.

9. 현재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어문 정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어문 정책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1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 약함	② 약함	③ 보통	④ 강함	⑤ 매우 강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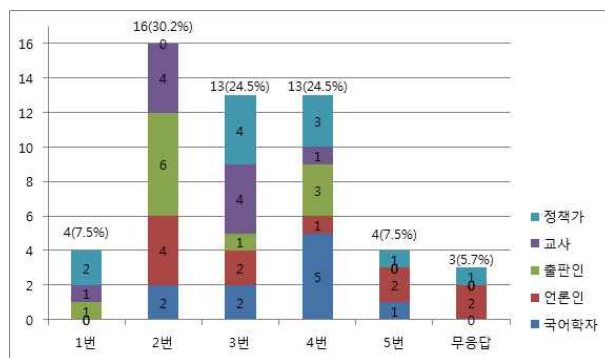


그림 1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구분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국어학자	0	2	2	5	1	0
언론인	0	4	2	1	2	2
출판인	1	6	1	3	0	0
교사	1	4	4	1	0	0
정책가	2	0	4	3	1	1
총계	4	16	13	13	4	3
비율(%)	7.5	30.2	24.5	24.5	7.5	5.7

표 1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글 맞춤법의 현 법적 지위 수준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는 의견(④+⑤=32%)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견(①+②=37.7%)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국어학자와 국어정책 전문가는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다고 본 전문가가 더 많았지만 언론인, 출판인, 교사의 경우에는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고 보는 전문가가 더 많았다.

집단별 서술형 응답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ㄱ. 국어학자

강하다: 교육과 언론이 맞춤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개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를 부끄러워한다.

약하다: 학교 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맞춤법이 지나치게 어려운 탓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 ㄴ. 언론인

강하다: 인터넷 환경에서 맞춤법 파괴 현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영향력이 큰 매체 등에서 맞춤법을 준수하고 있다.

약하다: 인터넷 환경에서 맞춤법을 고려한 표기를 찾기가 힘들다. 학교 이외의 환경에서 표기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 ㄷ. 출판인

강하다: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지만 관공서나 기업, 방송국 등 맞춤법을 준수하려는 곳이 많다. 맞춤법은 교양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약하다: 시험 외에 맞춤법이 영향력을 지니지 않으며 인터넷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이

맞춤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ㄴ. 국어교사

강하다: 법적 지위 수준이 곧 어문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다시 언어생활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약하다: 공문서와 방송 언어를 제외하면 영향력이 강하지 않다. 현 수준에서는 법이라기보다 참고 사항에 가깝다. 의무 교육 기간 이후 영향력은 더 약해진다.

ㄷ. 국어정책 전문가

강하다: 국민들은 스스로 아는 범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문서, 교과서, 시험 등 여러 분야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약하다: 현행 법적 지위 수준은 고시로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지니지 않는다. 이는 곧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합하면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았다. 언중들이 맞춤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큰 의무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험 등의 목적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맞춤법을 활용하며 심지어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문서나 매체 등에서도 맞춤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제시한 것으로 여러 공통된 의견 중 하나는 맞춤법이 너무 어렵고 현실 언어와 동떨어진 탓에 언중들이 맞춤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4)</sup> 법조인의 경우 법적 지위가 고시인 만큼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지 않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발적 관심이나 이해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맞춤법의 영향력이 특히 미비한 환경으로 인터넷 공간을 꼽고 있었다. 인터넷상에서의 언어 사용이 맞춤법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반면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언어생활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견 역시 적지 않았다. 이 경우 대체로 언중들이 맞춤법을 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맞춤법 수준을 통해 교양의 정도를 가늠하기 때문임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았다. 앞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에서도 그 환경을 대체로 인터넷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교육 체계 내에서는 영향력이 강하다가 점차 약해진다거나 예전엔 강했지만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집단별로는 ‘출판인(2.5).교사(2.5)>언론인(3.1).국어정책 전문가(3.1)>국어학자(3.5)’ 순으로 영향력을 낮게 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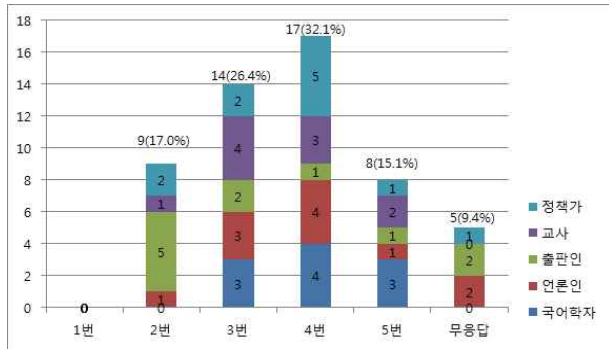
#### 2.1.1.2.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어문 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어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설문 (9-2)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9. 현재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어문 정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어문 정책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4) 맞춤법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 맞춤법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법적 지위 수준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앞으로의 관리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충분하므로 해당 의견들을 실어 보인다.

2	어문정책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 약함	② 약함	③ 보통	④ 강함	⑤ 매우 강함
의견						



구분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국어학자	0	0	3	4	3	0
언론인	0	1	3	4	1	2
출판인	0	5	2	1	1	2
교사	0	1	4	3	2	0
정책가	0	2	2	5	1	1
총계	0	9	13	17	8	5
비율(%)	0	17.0	26.4	32.1	15.1	9.4

그림 2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어문 정책에 미치는 영향

표 2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어문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한글 맞춤법의 현 법적 지위 수준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보다 어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응답(47.2%)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7%)의 3배 가까이 되었다.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과의 차이가 특기할 만한데 이는 국가에서 맞춤법에 고시의 형태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기에 국립국어원 등 정부 기관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발표 및 수행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 언중들의 언어생활에까지는 잘 스며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출판인 집단을 제외하고는 어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다고 본 전문가가 더 많았다.

집단별 서술형 응답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ㄱ. 국어학자

강하다: 맞춤법은 국가 차원의 표기법이므로 당연히 어문 정책과는 떼어 수 없는 관계이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그러하다.

약하다: 의견 없음.

#### ㄴ. 언론인

강하다: 한글 맞춤법과 유기적인 관계 하에 어문 정책이 시행된다.

약하다: 의견 없음

#### ㄷ. 출판인

강하다: 한글 맞춤법을 어기면서 어문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 현 수준으로도 어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약하다: 어문 정책이 외래어나 비속어, 전문어 등의 순화에 치중되어 있는 듯하다. 맞춤법과 관련한 정책적인 사항이 많지 않아 보인다.

#### ㄹ. 교사

강하다: 어문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법적 지위 수준에서도 한글 맞춤법의 영향력이 크다. 교과서 등에 가해지는 제재 등에서 그러하다.

약하다: 공교육 이후 한글 맞춤법과 관련한 어문 정책을 찾기 어렵다.

□. 국어정책 전문가

강하다: 어문 정책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준다.

약하다: 대국민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현 법적 지위에서는 어문 정책 실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어문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어문 정책이 맞춤법보다는 국어 순화(외래어, 비속어 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국어학자(4)>언론인(3.6)>교사(3.6)>국어정책 전문가(3.5)>출판인(2.8)’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2.1.1.3. 한글 맞춤법의 현 법적 지위 수준의 적절성

한글 맞춤법이 지니고 있는 ‘고시’라고 하는 현재의 법적 지위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문(10)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10. 현재 ‘한글 맞춤법’(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은 고시(告示) 형태로 대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이러한 법적 지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글 맞춤법 규정의 내용과 사용 정도를 고려했을 때 법적 지위가 어느 수준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 지위가 바뀌면 어문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고시, 지침 등)

참고 사항 2. <고시>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 공시(公示)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내려진다. 대외적(對外的)이기는 하나 명령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일이 있으며, 일반 처분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행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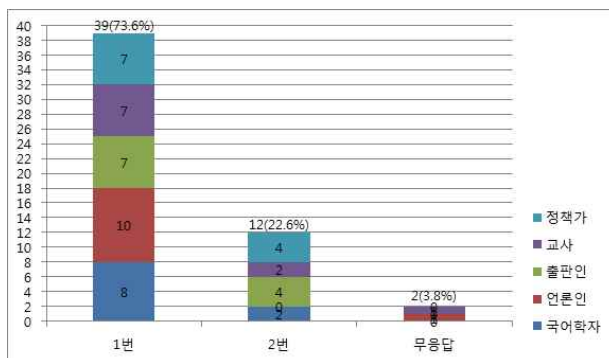


그림 3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의 적절성

구분	①	②	무응답
국어학자	8	2	0
언론인	10	0	1
출판인	7	4	0
교사	7	2	1
정책가	7	4	0
총계	39	12	2
비율(%)	73.6	22.6	3.8

표 5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의 적절성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과 관련해서는 고시(告示)라고 하는 현행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73.6%),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대체로 법적 지위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집단별로도

다섯 집단 모두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출판인 집단의 경우 다섯 집단 중 유일하게 현 법적 지위 수준의 맞춤법이 언어생활과 어문 정책 모두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의 유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였다. 이는 맞춤법 준수 실태의 개선이 법적 지위 수준의 조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별 서술형 응답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ㄱ. 국어학자

적절하다: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 지위 수준을 변경해도 어문 정책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적절하지 않다: 맞춤법은 기준으로 작용하면 충분하다. 강제력보다는 국민의 맞춤법 지식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ㄴ. 언론인

적절하다: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가할 수는 없다. 지나친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적절하지 않다: 의견 없음.

ㄷ. 출판인

적절하다: 맞춤법 준수 실태는 법적 지위와 무관하다. 대외적이지만 명령적이지 않은 현 수준이 적절하다. 다만 관공서 등에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적절하지 않다: 법적 지위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매체 등에서 맞춤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어문 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ㄹ. 교사

적절하다: 현 수준에서도 맞춤법에 대한 신뢰는 높다. 법적 지위는 현 수준으로 적절하며 홍보 등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다: 집단 내 언어 사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지위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ㅁ. 국어정책 전문가

적절하다: 언어가 강제성을 지녀서는 안 된다. 지위를 높인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우며 지위를 낮출 경우 규범으로서의 근거가 미약해진다.

적절하지 않다: 그 중요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법규적 구속력을 지닐 필요가 있다. 다만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나 준수했을 때의 혜택 등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고시(告示)라는 현 법적 지위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맞춤법이 준수되지 않는 실태의 원인이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교육 및 홍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 지위를 낮출 경우에는 공공언어에 교열을 요청할 근거조차 마련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문제이고 법적 지위를 높인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현 법적 지위 수준에서도 행정기관 등에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발휘해 일반 언중들에게는 이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자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현 법적 지위 수준을 부적절하게 보는 경우는 약화하자는 의견과 강화하자는 의견으로 나뉘는데 후자가 더 많았다. 전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법적 지위 수준보다도 낮추어서 단지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특히 공적 기관에 대한 제재를 통해 맞춤법의 법적

지위를 높이자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법적 지위 수준을 높여야 하는 이유로 표기의 혼란 방지를 통한 언어생활의 편의 보장 등을 들고 있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현 맞춤법 준수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언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제로 법적 지위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약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법 준수를 위해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특히 행정 기관이나 매체 등에서는 일반 언중에 비해 더 강제력이 작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 2.1.2. 홍보 및 교육 방안

### 2.1.2.1. 한글 맞춤법의 홍보 방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글 맞춤법의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문 (11)로 알아보았다.

11. 한글 맞춤법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맞춤법의 홍보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역시나 매체와 관련한 것이다. 크게 TV나 라디오 같은 방송 매체와 스마트폰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로 나눌 수 있다. 방송의 경우, 공익 광고 등으로 캠페인을 벌이거나 KBS의 ‘우리말 나들이’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맞춤법 내용을 언중에게 노출시키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그 외에도 맞춤법 퀴즈 대회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날씨, 증권’ 등의 범주와 유사한 지위의 카테고리를 신설한다거나 블로그를 통한 홍보 혹은 맞춤법 상담사 운용 등의 방안이 있었다. 어떤 의견이든 간에 대중 노출도가 높은 매체를 통해 언중들에게 맞춤법의 내용을 계속해서 노출시키자는 취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 방송이나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야구장 전광판, 지하철 등의 매체도 언급되었다.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련하여 일종의 강화물로서 연예인을 통한 홍보나 퀴즈 대회 등에서의 경품 활용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매체를 통한 홍보 외에 맞춤법 보급을 위한 책자 제작 및 배포나 한글 맞춤법 검사(교열)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sup>5)</sup> 또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에 맞춰 문자 메시지나 메일 내용을 자동으로 교열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맞춤법을 어긴 문자를 발송했을 시 경고음을 주는 어플리케이션 등 맞춤법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활발히 개발 및 보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홍보의 수단으로 학교 교육 만한 것이 없다는 주장 역시 있었다. 특히 학교 교육을 강화해서 매 학년마다 맞춤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거나 대학교 교육에서도 맞춤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과학이나 외국어 특성화 학교가 있는 것처럼 국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학교도 있어야 한다

5) 현재 부산대학교 인공지능연구실과 (주)나라인포텍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가 보급되어 있으며, 그 외에 네이버에서 베타 버전으로 공개하고 있는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가 있다. 국가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감수를 하거나 협업하는 식으로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의 경우, ‘먹을지 말 지’를 검색할 경우, 의존 명사 ‘지’ 때문에 ‘말 지’의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모로 보완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의견도 있었다. 혹은 최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취업 등에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처럼 맞춤법 능력 인증제 등을 도입하거나 입사 시험 등에 필수 영역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맞춤법의 홍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고 맞춤법을 쉽게 개정하는 그 자체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거나 홍보의 기대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보다는 국어 사전, 교과서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노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홍보는 아니지만 방송 매체 등의 틀린 맞춤법을 강하게 규제해서 언중들에게 틀린 맞춤법이 노출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2.1.2.2. 한글 맞춤법의 교육 방안: 학생 대상

한글 맞춤법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은지 묻는 설문은 다음 (12)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12. 한글 맞춤법을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의 주체나 장소, 방식, 평가 수단 등)

학생 대상	
-------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법 교육 방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대입과 관련하여 맞춤법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수능에 출제하자는 것이다. 혹은 대학 교육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방법적인 면에서 맞춤법 백일장, 혹은 맞춤법 경시 대회와 같은 식으로 맞춤법과 관련한 지식 경연의 장을 자주 개최하거나 정기적으로 맞춤법 특강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받아쓰기를 활용하거나 일기에서 맞춤법 지도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 교과서를 흥미롭게 개발하거나 만화 같은 형식으로 흥미로운 교·보재를 개발하는 측면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사 연수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맞춤법이 국어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맞춤법 내용을 독립적으로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현행 정도의 교과서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다 원론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 원리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특히 문법 지식 교육을 선행해야 한다거나 문법교육과 관련지어서 규정의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또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텍스트 맥락 내에서 틀린 예를 찾고 왜 틀렸는지 알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이러한 바탕에는 학습자의 흥미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일원화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1.2.3. 한글 맞춤법의 교육 방안: 일반인 대상

12. 한글 맞춤법을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의 주체나 장소, 방식, 평가 수단 등)

일반인 대상	
--------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법 교육 방안에 대한 응답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그 필수성에 대한 정도가 덜했다. 맞춤법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하며 일반인의 경우 국어사전 활용 방법 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사한 의견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보다는 언어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혹은 일반인 전체가 아니라 글쓰기 관련 직업군을 대상으로만 교육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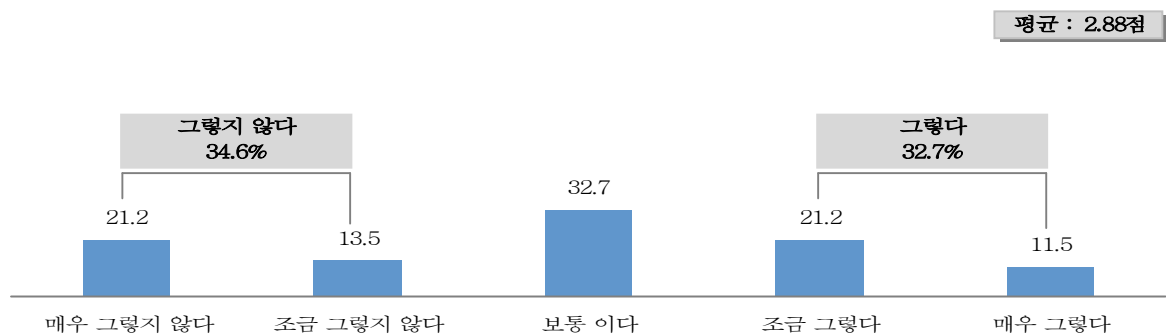
일반인을 대상으로 맞춤법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대입에서의 비중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취업이나 승진에 가산점을 둔다는 식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보다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sup>6)</sup> 그 외 공무원이나 기업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생활 속에서 내용이 홍보될 수 있게 방송을 통하거나 문화 콘텐츠와 연계하는 방법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교육보다도 홍보를 중시하여 홍보 방안으로 맞춤법 관련 책자나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하거나 퀴즈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혹은 지역별 국어과 초등 교사를 재교육하여 지역 주민의 맞춤법 상담사가 되어 주게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 2.2. 2차 전문가 의식 조사

1차 전문가 의식 조사에서 도출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의 통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차 전문가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sup>7)</sup> 전체 20문항 중 맞춤법 관리와 관련한 문항은 20번 문항으로 1차 전문가 의식 조사에서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22.6%)이 적지 않았던 법적 지위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물었다. 문항 및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자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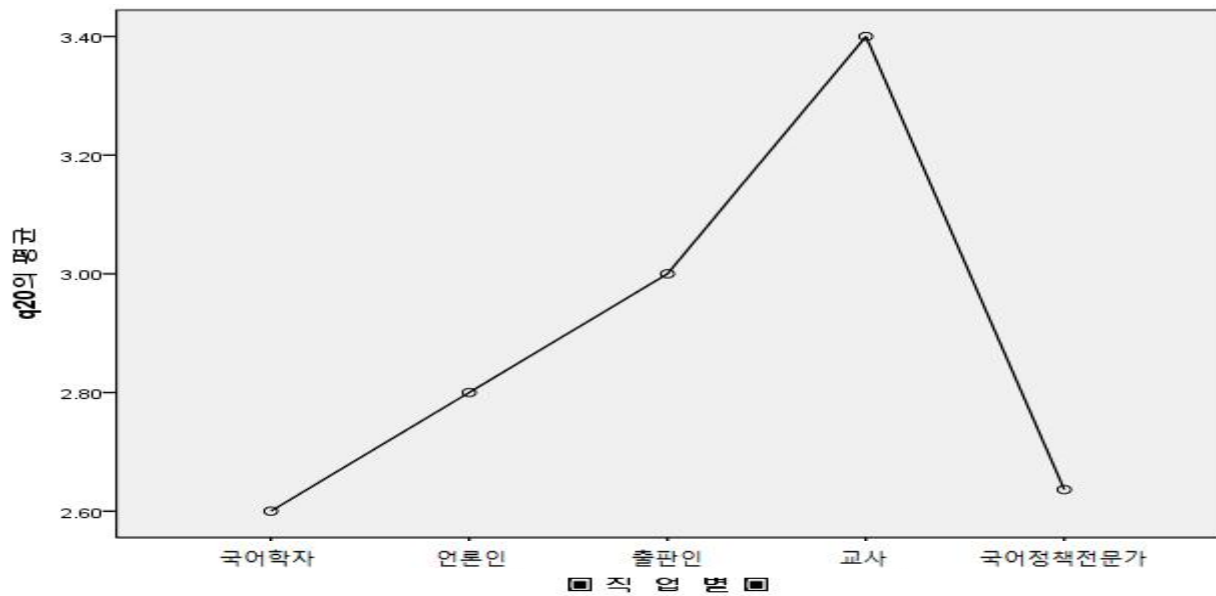
현행 어문 규범은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한글 맞춤법 고시를 비롯한 어문 규범 고시들은 국어기본법을 보완하는 ‘법률 보충적 고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32.7%)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34.6%)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6) 동영상 강좌는 아니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플래시 파일을 활용한 맞춤법 관련 온라인 강좌가 있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 가입만 하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7) 2차 전문가 의식 조사 역시 전체 전문가 설문에 대한 개요는 앞서 기술하였기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집단별로는 ‘교사(3.40)>출판인(3.00)>언론인(2.80)>국어학자(2.60)>국어정책 전문가(2.64)’의 순으로 평균 값이 제시되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국어학자>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교사>출판인’ 순으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보였고, ‘출판인>교사>국어학자>국어정책 전문가>언론인’ 순으로 그렇다는 답변을 보였다. 출판인 집단의 경우 1차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도 현 맞춤법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 그 강화를 주장하였던 집단이었다. 그에 반해 대체로 국어학자와 국어정책 전문가 집단의 경우 법적 지위 수준을 강화하지 않는 것을 보다 바람직하게 보았다. 의견이 팽팽한 만큼 어느 한쪽이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 3. 정리

#### 3.1. 요약

- 한글 맞춤법 관리의 개념과 의미를 규정하고 맞춤법 관리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한글 맞춤법 관리는 맞춤법을 유지하고 개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 그간 한글 맞춤법의 내용 외적인 차원인 법적 지위나 홍보 및 교육 방안과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의 관리에 대해 살핀 연구가 드물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와 ‘홍보 및 교육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한글 맞춤법의 현 법적 지위 수준이 어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글 맞춤법의 현 법적 지위가 고시(告示) 수준으로 실질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언중의 준수 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인터넷에서의 지나치게 자유로운 언어생활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언어를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법적 지위는 현 수준, 즉 고시(告示)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현 법적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도 방송을 포함한 매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정의 강제력을 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현 법적 지위 수준의 강화 여부를 질문한 2차 전문가 의식 조사 결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32.7%)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34.6%)이 비슷하게 맞섰으나 후자가 근소한 차이로 더 많았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맞춤법 관련 방송, 캠페인, 책자나 어플리케이션, 맞춤법 검사기 보급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또 교육의 빈도나 기간을 확대하여 학창 시절에 맞춤법과 관련하여 올바른 사용 태도를 확립하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일반인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교육보다는 올바른 언어 환경의 조성 등을 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맞춤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 3.2. 제언

- 이를 바탕으로 차후 한글 맞춤법 관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현 법적 지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글 맞춤법이 준수되지 않는 실태는 현실 언어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 효과적으로 홍보 및 교육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국민의 언어 생활을 강제하고 구속하는 것으로 개선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현 법적 수준을 유지하되 매체 등을 통해 올바른 언어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교육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책 실행과 관련해서는 실행 기관에서 일반 언중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보다 언중과 밀접한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글 맞춤법 관리 개선은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소위 맞춤법 대회를 정기적으로 연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의 spelling bee 같은 전국적 대회를 염두에 둔다면, 가칭 한글 맞춤법 대회를 학교별 지역별 전국적으로 확대해 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어 맞춤법은 틀리면 큰일 나고 한글 맞춤법은 틀리거나 맞거나 별 신경도 쓰지 않는 현 실태는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맞춤법 교육과 홍보가 우리말 우리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수능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아예 불박이로 각종 시험에서 맞춤법 문항을 출제하는 것도 구체적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VI. 한글 맞춤법 오타기 목록 추출

### 1.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한글 맞춤법>이 1988년에 개정된 후로 2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오늘날의 언어생활은 1980년대와는 다르게 현격히 변화하였으므로 현행 <한글 맞춤법>이 오늘날의 언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 맞춤법>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언중들의 실제 언어생활로부터 규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을 마련하는 작업이야말로 기초 자료 확보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조사는 <한글 맞춤법>에 근거한 표기 중 오류 빈도가 높은 항목 및 오타기 목록을 추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언어생활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4권의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오타기 목록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들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일반 언중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언어 규범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이다.<sup>1)</sup> 인터넷 사이트, 아동 도서, 만화, 일간지, 텔레비전 방송 등은 언중들의 실제 언어생활 양상을 엿볼 수 있는 매체이므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중심으로 일련의 오타기 목록을 작성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의 ‘가나다 전화<sup>2)</sup>’, ‘온라인 가나다<sup>3)</sup>’의 문의·응답 내용은 일반 언중들이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근거한 오타기 및 일반 언중들의 궁금한 사항을 살핌으로써 오류 빈도가 높은 조항 및 오타기 목록을 추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우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으로 국립국어연구원(2000~2003)에서 총 714개의 오타기 용례를 바탕으로 485개의 오타기를 추출하였고,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는 525개의 질의와 1,175,769건의 조회 수를 바탕으로 총 525개의 오타기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의 경우 국립국어연구원(2000~2003)에 제시된 4,517개의 용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오타기 용례보다는 ①체언+조사, ②관형어#의존 명사, ③체언#의존 명사, ④수 관형사#단위성 의존 명사, ⑤수(만 단위로 띄어쓰기), ⑥열거하는 말 띄어쓰기, ⑦본용언#보조 용언, ⑧고유 명사 붙여 쓰기, ⑨성 또는 이름#관직명 등 총 9개의 유형별 빈도를 정리하였고,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는 띄어쓰기 관련 질의 105개(총 조회 수 355,093건)를 중심으로 하여 띄어쓰기 오류 유형을 정리하였다<sup>4)</sup>(이에 대한 자세한 오타기 추출 목

- 1) •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 (2000년): 인터넷 사이트, 아동 도서, 만화, 일간지, 텔레비전 방송  
•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 (2001년): 정부 홈페이지, 방송, 신문 광고, 잡지, 한국어 교재, 학습지  
•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I (2002년): 방송,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V (2003년): 방송, 잡지, 신문, 정부 기관 홈페이지

- 2) ‘가나다 전화’는 1992년 자료집(1991. 2. 2.~1992. 2. 1.), 1995년 자료집(1992. 2. 2.~1995. 12. 31.), 1996년 자료집, 1997년 자료집, 1999년 ‘국어연구원에 물어보았어요(1993. 1.~1998. 8.)’, 2010년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에 물어보았어요’ 등 총 6권의 자료집에서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질의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 3) ‘온라인 가나다’는 2002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질의응답’에서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 ‘자주 나오는 질문’, ‘주요 답변 모음’ 가운데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한 문의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경우 그 질문의 용례 각각을 한 건으로 처리하였다. 해당 질문에 대해 누리집 이용자들의 조회 수 및 개인별로 유사한 내용을 질문한 수도 함께 입력함으로써 언중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한글 맞춤법 표기가 무엇인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조회 수와 질문 수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온라인 가나다’를 ‘가나다’로 줄여서 표현한다.

- 4)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의 다른 조항과 분리하여 정리한 까닭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의 용례와 질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비유상 띄어쓰기 조항만이 강조되고 자칫 다른 조항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록은 <부록> 참고).

이와 같이 추출된 오폭기 목록은 본 사업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 맞춤법>의 인지도와 이해도 및 수용도 설문 조사 문항 개발의 근거 자료가 된다. 그리고 오류 빈도가 높은 항목을 통해 <한글 맞춤법> 규정 가운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별 조항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오폭기 목록과 각 조항에 제시된 대표 어휘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각 조항에 따른 대표 어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폭기 목록은 앞으로의 <한글 맞춤법> 개선안 마련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글 맞춤법 교육의 어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2. 소리에 관한 것

‘소리에 관한 것’에 따른 <한글 맞춤법>은 제5항의 된소리 관련 규정과 제6항의 구개음화 관련 규정, 제8항~제9항의 모음 관련 규정, 제10항~제12항의 두음 법칙 관련 규정, 그리고 제13항의 겹쳐 나는 소리 관련 규정이다. ‘소리에 관한 것’의 오폭기 목록 빈도와 ‘가나다’에 질문한 내용의 조회 수 및 질문 수는 다음과 같은데, 오폭기 목록 빈도가 높은 항목과 ‘가나다’의 조회 수가 많은 항목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로써 소리에 관한 규정에서 언급들은 어떠한 맞춤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해당 항목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조항	내용	보고서		‘가나다’	
		빈도	백분율	조회 수	질문 수
제5항	된소리	8	1.12%	1,922	4회
제6항	구개음화	4	0.56%	58	1회
제9항	모음	1	0.14%	0	0회
제10항	두음 법칙 [한자어 어두 구개음 /ㄴ/의 표기]	38	5.32%	44,691	11회
제11항	두음 법칙 [한자어 어두 /ㄹ/ 탈락 표기]	43	6.02%	53,904	35회
제12항	두음 법칙 [한자어 어두 /ㄹ/의 /ㄴ/ 표기]	14	1.96%	2,107	6회
제13항	겹쳐 나는 소리	1	0.14%	0	0회

[표1] ‘소리에 관한 것’의 오류 빈도 및 질문(조회) 수<sup>5)</sup>

### 2.1. 된소리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의 제5항에서는 된소리로 적어야 할 경우[제5항1, 2]와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경우[5항 다

을 우려하여 이 둘을 분리하여 다루기로 한다.

- 5) [표1]은 국립국어연구원(2000~2003)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으로 제시된 오폭기와 관련된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의 질의에서만 확인되는 <한글 맞춤법> 규정(제7항)의 질문 수와 조회 수는 별책의 ‘실태 조사4. 오폭기 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오폭기로는 대체로 다음 (1)과 같은 용례가 나타나고 있다. ‘꼭뚜새벽’, ‘시끌벅적’과 같이 예사소리로 적어야 할 것을 된소리로 적은 경우보다는 ‘초자, 등살, 민자, 안스러웠다, 취향껏, 한 것’과 같이 된소리로 적어야 할 것을 예사소리로 표기한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

- (1) ㄱ. 막 데뷔한 초자에게 배역을 제의했는데  
 ㄴ. 간섭과 등살에 견디다 못한  
 ㄷ. 이걸 민자 타이건데  
 ㄹ. 안스러웠다  
 ㅁ. 취향껏 해 주세요  
 ㅂ. 아시아 신기록 경신 기대도 한 것 부풀렸다.  
 ㅅ. 꼭뚜새벽  
 ㅇ. 옆 집에서 잔치를 하는지 시끌벅적하네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가나다’에 질문된 내용은 주로 표기에 된소리가 반영된 것과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의 차이와 그 이유에 대한 것이다(전체 0.76%). 예컨대 ‘안쓰럽다’는 표기에 된소리를 반영하고 있는데 ‘꺼꾸로, 썩스럽다, 법석, 뚝배기, 언덕배기’ 등은 각각 [꺼꾸로], [썩스럽다], [법석], [뚝배기], [언덕배기]로 발음되지만 표기에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데 대한 질문이다. 이와 함께 ‘눈굽’은 ‘[눈뿔]’으로, ‘눈살’은 ‘[눈쌀]’로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표기에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들을 ‘된소리’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부록> 참조).

## 2.2. 구개음화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6항에서는 음운 현상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폭기 목록에는 다음 (2)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 곧 구개음화가 반영된 표기로 나타난다.

- (2) ㄱ. 무섭게 몰아부치는 정수  
 ㄴ. 초반부터 밀어부치는 한국  
 ㄷ. 의약분업실시를 밀어부친 정치권 인사  
 ㄹ. 초상나면 자리거지를 하고

위의 (2ㄱ, ㄴ,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몰아붙이는’, ‘밀어붙이는’, ‘밀어붙인’과 같이 본동사에 보조 동사 ‘붙이다’가 결합된 합성 동사이므로 그 어형을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기에 구개음화를 반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2ㄹ)의 ‘자리건이’의 경우는 오늘날 언중들이 잘 쓰지 않는 어휘이다. 따라서 사용 빈도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 어형 인식도 함께 낮아져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오폭기라 판단된다. 한편,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를 통틀어 구개음화에 관한 질문 내용은 ‘해돋이’ 단 하나로 질문 수 및 조회 수 또한 적었다.

## 2.3. 모음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8항과 제9항에서 각각 ‘ㄷ’과 ‘ㄴ’에 대한 모음 표기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규

정에 위배된 오폭기로는 아래 (3)과 같이 단 한 건만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는 모음 ‘ㄷ’, ‘ㄴ’ 표기 규정과 관련된 질문 내용이 없었다.

(3) 눈에 띄는

## 2.4. 두음 법칙 관련 규정

### 2.4.1. 제10항: 한자어 어두 구개음 /ㄴ/의 표기 규정

<한글 맞춤법> 제10항에는 ‘다만’과 세 개의 ‘붙임’ 규정을 두어 한자어의 첫소리 /ㄴ/을 표기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 (4) ㄱ. 당해 년도에서 정정된 것입니다.  
ㄴ. 년 2회(1월, 10월) 신청하도록 하며  
ㄷ. 년간 교육계획  
ㄹ. 남도 없고 녀도 없었다  
ㄹ. 근무년수가 아닌 능력에 의한 승격제  
ㅂ. 년중 휴한기(1, 2월)와 휴서기(7, 8월)  
ㅅ. 년회비 8만 원은 1년간 책값  
ㅇ. 님도 보고 뽕도 따고  
ㅈ. 남여 취업

이에 대한 오폭기로 총 38건(5.32%)이 나타났으나 절반 이상이 ‘연(年)’과 관련된 오폭기이다. 비교적 잦은 오류를 보이는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어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의 경우에도 ‘연도(年度)’, ‘생년월일(生年月日)’, ‘졸년월일(卒年月日)<sup>6)</sup>’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질문 내용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있다(전체 2.10%).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구개음 /ㄴ/이 어두에 오지 못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언중들이 어려워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2.4.2. 제11항: 한자어 어두 /ㄹ/ 탈락 표기 규정

<한글 맞춤법> 제11항은 한자어의 첫소리 /ㄹ/이 탈락되어 표기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섯 개의 ‘붙임’ 및 두 개의 ‘다만’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오폭기 역시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연(年)’과 관련된 어휘에 대한 오폭기가 절반 이상인 제10항의 경우와는 달리 다양한 어휘에서 오폭기가 나타난다. 그런데 아래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제11항 [붙임 1의 ‘다만’] 규정과 관련된 내용에 오폭기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두음 법칙과 관련하여서 어휘 개별적 교육보다는 조항에 대한 교육으로 접근함으로써 오류 빈도를 낮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6) 어떤 사람이 죽은 해와 날짜를 뜻한다.

(5) ㄱ. 고장 발생을

- ㄴ. 타 외식업에 비교해 성공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 ㄷ. 년 수익을 19.2% 초우량 고수익 쇼핑몰 등극!
- ㄹ. 도로 포장율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 ㅁ. 1순위 계약율 100%의 열풍을
- ㅂ.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고용율이 가장 낮음.
- ㅅ. 전지 산업의 평균 성장율은
- ㅇ.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수출 보험 이용율은
- ㅈ. 우리나라 자살율은 낮은 편이다.
- ㅊ. 올림픽보다 높은 TV 시청율을 보여왔다.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의 경우에는 ‘늠름하다’, ‘열렬하다’, ‘일양(일량)’, ‘성공률’, ‘공정률’, ‘노동량’, ‘물염치’, ‘파렴치’ 등에 대한 질문 내용이 많았다. 제11항에 해당하는 어두 /ㄹ/ 탈락에 대한 질문은 두음 법칙과 관련한 규정 중 가장 많다(전체 6.67%). 이러한 질문 내용과 질문 수, 조회 수 등을 두고 볼 때 두음 법칙에 의한 변화의 원리를 언중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언중들의 인식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는 질문들이라 판단된다.

한편,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성씨, 이름, 사찰 명, 지명 등 고유 명사의 두음 법칙 적용 표기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다.

번호	정표기	오표기	용례	‘가나다’ 자료집
1	서현룡	서현용	徐玄龍: 서현룡-서현용	1992
2	김운룡	김운용	金雲龍: 김운룡/김운용	1992
3	김기룡-김기용		龍	2010
4	김낙	김락	金樂: 김낙/김락	1992
5	백나혜	백라혜	白羅惠: 백라혜/백나혜	1997
6	금룡사	금용사	金龍寺: 금룡사/금용사	1992
7	금룡리	금용리	金龍里: 금룡리/금용리	1992
8	유	류	柳: 류/유	
9	유	류	劉: 류/유	
10	이	리	李: 이/리	

[표2] 고유 명사의 두음 법칙 적용 표기에 대한 질문

위와 같이 고유 명사와 관련한 두음 법칙 적용 표기는 시대에 따라 달리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름 표기와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호적 법규에 명시된 예외 규정에 따라 인명용 한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그러한 한자가 이름자의 첫 음으로 사용된 경우이든 나중 음으로 사용된 경우이든 관계없이 출생 신고인에게 선택권을 주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ㄴ/ 또는 /ㄹ/이나 /ㄴ/ 또는 /ㅇ/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유 명사와 관련한 두음 법칙 적용 표기는 오늘날에도 꾸준히 재검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오폭기 용례는 현시점에서 일반화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협의와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2.4.3. 제12항: 한자어 어두 /ㄹ/의 /ㄴ/ 표기 규정

<한글 맞춤법> 제12항은 어두 유음의 비음화와 관련한 규정으로, 한자어의 첫소리 /ㄹ/을 /ㄴ/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6) ㄱ. 본 란에 제시된 제안이나 의견은

ㄴ. 장농, 쇼파, 식탁, 장식장 등 200세트한정

ㄷ. 황녹색

두음 법칙과 관련된 세 개의 조항들 중에서 가장 낮은 오류(14건, 1.96%)를 보이며, 특정 어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도 어두 유음의 비음화와 관련한 질의는 전체 1.14%로 다른 두음 법칙 관련 조항보다 낮은 편이다. 질문 내용 중 ‘가정란’, ‘비고란’, ‘피란(避亂)’ 등에 대한 조회 수가 많다. 이는 언중들이 이들을 각각 [가정난], [비고난], [피난] 등으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폭기라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항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으나 제12항과 관련된, 특정 이휘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2.5. 겹쳐 나는 소리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13항은 한 단어 안에 겹쳐 나는 소리를 같은 글자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오폭기는 (7)과 같은 경우 외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도 이 조항과 관련된 질문 내용이 없었다.

(7) 혈덕혈덕

### 3. 형태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에 따른 <한글 맞춤법>은 제15항~제18항의 어간과 어미 관련 규정과 제19항~제26항의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관련 규정, 제27항~제30항의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관련 규정, 그리고 제32항~제40항의 준말 관련 규정이다.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오폭기 목록 빈도가 높은 항목은 대체로 ‘가나다’ 조회 수 및 질문 수도 많은 편이지만, 소리에 관한 규정에 비해 빈도수와 조회 수의 비중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4권의 보고서에서는 사이시옷(제30항)에 대한 오폭기 빈도(228건, 31.93%)가 가장 높다. ‘가나다’에서의 질문 수에 있어서도 제30항 사이시옷 표기(133회)에 대한 질문 내용이 많았지만, 조회 수(55,639건)는 다른 조항에 대한 질문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조회 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19항 명사화 접미

사와 부사화 접미사 표기(149,992회)와 제18항 용언의 활용(132,536회)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오폭기 빈도가 가장 낮은 제21항, 제23항, 제29항, 제32항에 대하여 ‘가나다’의 질문은 천여 건이 넘는 조회 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오폭기 목록에서 빈도가 높다고 하여 해당 조항과 관련한 표기에 대해 언중들이 궁금해 한다고 일반화할 수가 없다. 이는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당시 매체를 이용하여 언어생활을 한 언중들과 ‘가나다’에 질문한 언중들이 <한글 맞춤법>, 특히 ‘형태에 관한 것’에 대한 인식 및 인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형태에 관한 것’에서는 언중들이 어떤 항목에서 한글 맞춤법의 어려움을 보이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 조항	내용	보고서		‘가나다’	
		빈도	백분율	조회 수	질문 수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 구별	73	10.22%	59,681	25회
제16항	어간과 어미의 모음조화	12	1.68%	31,821	11회
제17항	어미 뒤 높임의 조사 ‘요’	19	2.66%	17,047	4회
제18항	용언의 활용	70	9.80%	132,536	81회
제19항	명사화 접미사 ‘-이, -음/-ㅁ’, 부사화 접미사 ‘-이’, ‘-히’	7	0.98%	149,992	44회
제20항	명사 뒤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	2	0.28%	71	2회
제21항	명사, 용언 어간 뒤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	0.14%	2,215	7회
제23항	‘-하다’, ‘-거리다’가 붙은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	1	0.14%	1,672	2회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과 부사에 부사화 접미사 ‘-히’, ‘-이’가 붙어서 된 말	7	0.98%	42,184	5회
제27항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의 원형 밝혀 적기	2	0.28%	21,939	3회
제29항	어근 받침 ‘ㄷ’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합성어	1	0.14%	13,785	2회
제30항	사이시옷	228	31.93%	55,639	133회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고 자음만 남는 말의 준말 표기	1	0.14%	1,237	3회
제35항	어간 말음 ‘ㄱ, ㅌ’와 어미 ‘ㅏ/ㅑ, ㅗ/ㅛ’의 준말	24	3.36%	55,078	15회
제36항	어간 말음 ‘ㅣ’와 어미 ‘어’의 준말	14	1.96%	4,326	15회
제40항	어간 끝음절 ‘하’의 준말	32	4.48%	30,491	27회

[표3] ‘형태에 관한 것’의 오류 빈도 및 질문(조회) 수<sup>7)</sup>

### 3.1. 어간과 어미 관련 규정

#### 3.1.1.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 구별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는 제15항의 내용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데 반해 전체 오류 빈도의 10.22%(73건)를 차지할 정도로 오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8) 가. 머물고 싶은 곳이예요.  
    나. 잘못된 길이예요.  
    다. 오늘 최고의 공연이었어.  
    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음을 반영했다.  
    미. 남편의 이름이 실종자 명단에 끼여 있을까봐  
    바. 수환경 관리란 개념으로 바뀌여야 하며  
    사. 맛 보십시오.  
    오. 다시 한 번 응시해 주십시오.
- (9) 가. 눈으로 확 들어나는 장애  
    나. 자꾸만 미끌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빈도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많은 어휘에서 오타가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오타기들은 (8)과 같이 대부분 ‘ㅣ’ 모음 뒤에 오는 단모음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예요, -었-, -어, -오’ 등의 어미 활용형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의 경우 “밥을 해 놓읍시다/놓시다.”와 “하늘이 파랳습니다/파랴니다.”를 용례로 어간과 어미를 정확히 구별하여 표기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는 질의 내용이 많았다.

이와 같은 오타기 용례를 통해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조항에서는 언중들이 어간과 어미의 정확한 형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표기에 ‘ㅣ’ 모음 순행 동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9)와 같이 제15항 [붙임 1]과 관련된 오타기의 해결 방안으로는 어휘 개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 3.1.2. 제16항: 어간과 어미의 모음 조화

제16항은 어간의 끝 음절 모음에 따라 ‘-아’로 적을 것과 ‘-어’로 적을 것을 구별한 규정으로 이와 관련된 오타기는 아래 (10)과 같다.

- (10) 가. 나 팔 아퍼 죽겠다.  
    나. 풀만 먹어도 괜찮어요.  
    다. 서울 생활은 고달팠다.

7) [표3]은 국립국어연구원(2000~2003)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으로 제시된 오타기와 관련된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의 질의에서만 확인되는 <한글 맞춤법> 규정(제22, 28, 31, 34, 37, 38, 39항)의 질문 수와 조회 수는 별책의 ‘실태 조사4. 오타기 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ㄹ. 얼굴 큰 애들이 인정을 받아.
- ㄴ. 맞아.

양성 모음이 대응되는 음성 모음으로 자주 잘못 발음되는 것에 비해서 적은 수의 오류(총12건, 1.68%)가 출현하였다.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의 경우 ‘얹아/얹어’, ‘뵈어/뵈아’, ‘뵈어/뵈아’, ‘뵈앗아/뵈앗어’, ‘꺼메지다/꺼매지다’와 같이 어간과 어미 결합 시 일어나는 모음조화 현상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전체 2.09%). 이러한 오폭기 용례들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일반 언중들이 어간과 어미 결합 시 일어나는 모음조화의 원리를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 판단된다.

### 3.1.3. 제17항: 어미 뒤 높임의 조사 ‘요’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와 관련된 제17항 관련 오폭기 용례는 아래 (11)과 같이 나타난다. ‘내보내다니’라는 용언 어미 뒤에 높임의 보조사 ‘요’가 결합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잘못 된 것이다.

(11) 저런 애를 내보내다니오

### 3.1.4. 제18항: 용언의 활용

<한글 맞춤법> 제18항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뀔 경우 이를 그대로 표기한다는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오폭기 용례는 아래와 같다.

(12) ㄱ. 사실 워낙 연애 기간 길으셨잖아요.

- ㄴ. 어느 정도 늘은 것 같아요?
- ㄷ. 사과 독 들은 주스, 아니 맛있는 주스
- ㄹ. 내가 줄게 오늘 벌은 것
- ㄴ. 유신화 사건 등 잇달은 일제의 탄압으로
- ㅂ. 거짓말 말아라!
- ㅅ. 너무 늦게 오지 말아요.
- ㅇ. 손대지 말아.

(13) ㄱ. 가느다라서

- ㄴ. 아이의 눈은 유난히 커다랐습니다.

(14) ㄱ. 수도꼭지는 꼭 잠권.

- ㄴ. 물에 담그어 가라앉은 종자를 선별 소독후

(15) 물을 길러 올리는

(16) ㄱ. 갑작스런 장애인 형의

- ㄴ. 까다로와
- ㄷ. 고마와하지도 않을 텐데

- ㄹ. 사랑스런
- ㅁ. 고집스런 비판의 정신으로
- ㅂ. 방송보다 더 자유로와야 한다.
- ㅅ. 맛깔스런 대나무 음식을 먹어 보는 것
- ㅇ. 꼴사나와.

(17) 이미 엮지러진 물인 걸.

제18항과 관련된 오타기는 전체 70건(9.80%)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12)와 같은 제18항 1 ‘ㄹ 탈락’과 (16)에 해당하는 제18항 6 ‘ㅂ 불규칙’에 집중된다.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도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질의가 전체 15.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규칙 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는/날으는’, ‘전/절은’, ‘는/늘은’, ‘간/같은’ 등과 같이 ‘ㄹ 탈락’에 대한 질문 내용은 전체 2.6%를 차지하고, ‘담가/담귀’, ‘잠가라/잠귀라/잠거라’, ‘들러서/들려서’, ‘치렀다/치뤘다’ 등과 같은 ‘ㅇ 탈락’은 전체 1.1%를 차지하고 있다. 불규칙 활용에 대한 질문 내용으로 ‘(짓다)지어진/지워진’, ‘(낫다)날/나을’과 같이 ‘ㅅ 불규칙’에 대한 것은 0.2%, ‘어떠니/어떻니’, ‘까마니/까망니’, ‘누러네/누렁네’ 등의 ‘ㅎ 불규칙’은 3.3%, ‘부서뜨리다/부쉬뜨리다/부셔뜨리다’ 등의 ‘ㄷ 불규칙’은 0.2%, ‘불다/불다’, ‘신는/실는/실으는’ 등의 ‘ㄷ 불규칙’은 0.6%, ‘고마워요/고마와요’, ‘가여워/가엎어’, ‘여쭙어/여쭙워’ 등의 ‘ㅂ 불규칙’은 3.2%, ‘발라/바라’, ‘서툴러/서툴어’, ‘머물러/머물어’ 등의 ‘ㄹ 불규칙’은 1%를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규칙 활용보다는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표기 질문 내용이 많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ㅎ 불규칙’과 ‘ㅂ 불규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제18항에 대한 내용, 특히 불규칙 활용에 대한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언중들의 언어생활에서 잦은 오류를 보인다는 것은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3.2.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19항에서 제26항까지는 접미 파생어에 대한 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오타기 빈도는 비교적 낮은 편인데 이들 용례를 한데 묶어 제시하면 아래 (18)과 같다.

(18) ㄱ. 금귀거리

- ㄴ. 우리 것 같지 않은 낯설음으로 다가온다.
- ㄷ. 사람을… 놀이개로 이용하다니
- ㄹ. 머리 위에서 종달이가 떠돌고
- ㅁ. 담 넘어 예쁜 여자의 사진
- ㅂ. 외톨이
- ㅅ. 맥아리가 없어!?
- ㅇ. 착한 아들을 위한 넋직한 침대
- ㅈ. 오투기
- ㅊ. 눈을 지긋이 감고
- ㅋ. 이 산자락은 일찌기 명당으로 알려져
- ㅌ. 더우기

제19항(18ㄱ~ㄴ)과 제25항(18ㅅ~ㅈ)은 각각 7건(0.98%), 제20항(18ㄷ, ㅈ)은 2건(0.28%), 제21항(18ㅇ)과 제23항(18ㅈ)은 각각 1건(0.14%)으로 나타났다.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는 명사화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 명사화 접미사 ‘-음/-ㅁ’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 접미사 ‘-이-, -히-, -추-, -치-, -뜨리-, -트리-’ 등이 붙어서 된 말의 표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명사화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 명사화 접미사 ‘-음/-ㅁ’가 붙어서 된 말, 부사화 접미사 ‘-이’, ‘-히’는 ‘형태와 관련된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조회 수(149,992회)를 기록하고 있다. ‘오이 소박이/오이소배기’, ‘설거지/설것이’ 등과 같이 명사화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1.3%)와 ‘설렘/설레임’, ‘바람/바렘’, ‘만둣/만듬’<sup>8)</sup> 등의 명사화 접미사 ‘-음/-ㅁ’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5.2%)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개구리, 뼈꾸기, 기러기, 딱따구리, 매미’ 등은 각각 ‘개굴/뼈꾹/기력/딱따굴/멤멤거리다’가 가능한데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된 명사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항목에 적용되지 않고 ‘붙임’으로 처리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 3.3.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관련 규정

이 규정과 관련된 오폭기 용례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9) ㄱ. 몇일 전에 장모님 생신

ㄴ. 요 몇칠 동안은

(20) 라디에이터 등의 흡은 숫가락 등으로 눌러서 주름을 잡으면

(21) ㄱ. 오래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ㄴ. 사실은 뭐 우스개소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ㄷ. 감자국이 요리인줄 몰랐어요

ㄹ. 물고기의 좋은 먹이감이다

ㅁ. 하루밤 사이에 산더미만한 정보들이

ㅂ. 꼬릿말이 붙어가는 메일은

ㅅ. 이것을 본디말로 고쳐 다시 쓰세요.

ㅇ. 이래 가지고는 나라 일이 안 된다

(22) ㄱ. 종가집 김치는

ㄴ. 공기밥 추가

ㄷ. 등교길 곳곳에 선도부 학생을 배치

ㄹ. 손수 복어국을 끓여 저녁상을 봐 줬다.

8) ‘낫섬/낫설음’, ‘설렘/설레임’, ‘만둣/만듬’ 등을 제19항 2와 관련된 오폭기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글 맞춤법> 제19항 2는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표기 규정으로 대표 용례로서 ‘만둣’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오폭기 용례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만둣’은 동사 어간 ‘만들-’에 명사형 전성어미 ‘-ㅁ’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품사는 명사가 아닌 동사이다. 제19항 2에서 말하는 ‘음/-ㅁ’은 명사 파생 접미사로 파생 명사 표기에 대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명사형을 용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 조항의 본질적인 오류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이끓, 머끓, 흔끓’, ‘서툼, 낫설’ 등의 용례 또한 명사가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 옳겠으나 본 보고서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동사의 명사형에 관한 오폭기 용례도 포함시키기로 한다. 제19항 2에 대한 용례 검증 문제는 차후 <한글 맞춤법> 개선안 준거 마련에 반영되길 바라는 바이다.

- ㄹ. 어느 회집의 낙지회
- ㅂ. 어른에게는 존대말을 써야 합니다.
- ㅅ. 인삿말조차 모릅니다.
- ㅇ. 그는 20년간 지역사회에서 농삿일을 하면서

(23) ㄱ. 운동 회수를 천천히 올려 나가십시오.

- ㄴ. 물질적 댕가 없이
- ㄷ. 물품 확인(갯수, 포장 상태) 등을 꼭 확인한 후
- ㄹ. 성형수술 붓기가 덜 빠져서
- ㄹ. 월셋방에다 소형차를 타고 다녔던
- ㅂ. 제조형 벤처 기업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 ㅅ. 송종국 장래에 초점

(19), (20)의 오폭기 용례는 제27항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의 원형 밝혀 적기와 제29항 어근 받침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합성어에 대한 것으로 각각 2건(0.28%)과 1건(0.14%)으로 나타났다. (21)~(23)의 오폭기 용례는 제30항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 오류 빈도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높은 빈도(228건, 31.93%)를 보인다.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도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질문 수가 무려 133개로 개별적으로 질문한 수로만 볼 때 전체 25.3%를 차지한다. 순 우리말끼리의 합성어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하여 ‘김치국/김치국’, ‘고춧가루/고춧가루’, ‘윗글/위글’, ‘오랫동안/오래동안’, ‘나랏일/나라일’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그리고 순 우리말과 한자어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사이시옷 표기로는 ‘북엇국/북어국’, ‘찻잔/차잔’, ‘사글셋방/사글세방’, ‘최댓값/최대값’, ‘존댓말/존대말’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한자어끼리의 합성어에 나타나는 사이시옷 표기로는 ‘셋방’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표기로는 ‘전세방/전셋방’, ‘유리잔/유릿잔’, ‘우유잔/우윳잔’, ‘피자집/피자집’, ‘핑크빛/핑크빛’, ‘농사일/농삿일’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그리고 제27항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조회 수를 차지한 것은 ‘며칠’이다. 실제 언중들이 표기에서 많이 틀리고 있는 단어로 높은 관심으로 보이는 증거라 하겠다. ‘며칠’은 ‘몇+일’이라면 [면]+[일]로 [며딜]이라고 발음되어야 하지만, [며칠]로 발음되므로 ‘몇’과 연관되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곧, 소리대로 적어야 할 것을 지나치게 기저형을 밝혀 적음으로써 발생한 오류에 해당하는 용례이다.

한편 ‘어문 규범 실태 조사’ 보고서와 ‘가나다’에서 공통적으로 ‘해님’의 오폭기 ‘햇님’이 나타났는데, 이는 자립적인 말과 접미사가 결합되는 구성에서는 사이시옷이 쓰이지 않는데, 일반 언중들이 단어 형성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 3.4. 준말 관련 규정

준말과 관련된 규정 제32항에서 제40항까지의 오폭기 목록 용례는 아래와 같다.

(24) ㄱ. 휴대폰 좀 빌려주라.

- ㄴ. 피해서는 안돼쥬?
- ㄷ. 이제는 친근한 존재가 되버리고
- ㄹ. 이것 말고 또 더 가야 되요?
- ㄹ. 교사가 되야지!

ㄴ. 밑거름이 되주길 기대한다.

(25) ㄱ. 전화를 걸던 사람이 누구요?

ㄴ. 훨씬 어른스러운 아이예요.

ㄷ. 하숙비가 얼마예요?

ㄹ. 그런 의미예요.

ㅁ.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ㄴ. 어머니께 보낼 편지예요.

(26) ㄱ. 온갖 개인적인 시련을 마다지 않고

ㄴ. 신용도가 좋지 안을 경우

ㄷ. ‘행운의 숫자’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ㄹ. 여성이 더 장수하는 이유는 명확치 않으나

ㅁ. 넉넉치 않은 동네 사람들은

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생각치 못했던 부분

ㅅ. 다만 수많은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ㅇ. 추측컨데 앞으로도

(24)는 제35항 어간 말음 ‘ㄴ, ㄷ’와 어미 ‘-아/-어, -았-/-(으)었-’의 준말에 대한 오폭기로 총 24건 (3.36%)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오폭기가 ‘되-’의 활용형과 관련되어 있다. (25)는 제36항 어간 말음 ‘ㅣ’와 어미 ‘-어’의 준말에 관련된 오폭기로 총 14건(1.96%)을 보인다. 그리고 어간 끝음절 ‘하’의 준말에 대한 규정인 제40항은 (26)과 같이 다양한 어휘에서 오폭기가 나타난다.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만 탈락하는 경우와 ‘하’ 전체가 탈락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오폭기라 할 것이다.

한편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 내용으로 많은 조회 수를 보이는 것은 ‘되다’와 ‘돼다’를 혼동하는 경우이다(조회 수 55,078회, 질문 수 전체 2.86%). ‘되어’의 축약형인 ‘돼’와 ‘되’를 서로 혼동하여 사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ㅣ’ 뒤에 오는 ‘께’ ‘이에요’ ‘예요’의 경우도 혼란을 보이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는 언중들이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에 어미 ‘-예요’가 붙어 ‘예요’로 축약됨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오류라고 판단된다.

## 4.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제41항에서부터 제50항까지는 띄어쓰기 관련 규정이다. 이 가운데 제46항, 제49항, 제50항은 각각 단음절로 된 단어,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면서 붙여 씀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띄어 씀과 붙여 씀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오폭기 목록 추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이들을 유형화하여 오류 빈도 및 오폭기 용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관련 조항	정표기 유형	오폭기 유형	보고서		‘가나다’	
			빈도	백분율	조회 수	질문 수
제41항	체언+조사	체언#조사	431	9.54%	27,166	11회

제42항	관형어#의존 명사	관형어+의존 명사	914	20.23%	121,424	31회
	체언#의존 명사	체언+의존 명사	1088	24.09%	73,214	18회
제43항	수 관형사#단위성 의존 명사	수 관형사+단위성 의존 명사	1189	26.32%	38,210	15회
제44항	수(만 단위로 띄어 쓰기)	수(붙여 씀)	73	1.62%	1,000	4회
제45항	열거하는 말 띄어 쓰기	열거하는 말 붙여 씀	141	3.12%	1,684	3회
제47항	본용언#보조 용언	본용언+보조 용언	184	4.07%	66,027	17회
제48항	성명#관직명	성명+관직명	485	10.74%	24,582	5회
	성명 붙여 쓰기	성명 띄어 씀	12	0.27%	1,786	1회

(‘+’는 붙여 쓰기, ‘#’은 띄어쓰기)

[표4] ‘띄어쓰기’ 유형별 오류 빈도 및 질문(조회) 수

(27) ㄱ. 불필요한 요식절차 입니다.

- ㄴ. 긴장한 근육이나 뻘 관절을 감는데 이용
- ㄷ. 감염된 파일중 치료가 안되는 파일
- ㄹ. 발견한 문제의식은 크게 세가지다.
- ㅁ. 17억1천7백35만여병
- ㅂ. 인형이나 기타 솜털로 된 물건등이 있을 곳에서는
- ㅅ. 새롭게 언더를 맡게된 배우들이 많이 있다.
- ㅇ. 이 기형 대표이사, 이 상균 부사장, 강 철 전무
- ㅈ. 김감독의 ‘감의 야구’는 성공했다.

제41항은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쓰라고 규정하고 있어 ‘체언+조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27ㄱ)처럼 조사를 앞말인 체언과 띄어 쓰는 오류를 종종 보인다. (27ㄴ, ㄷ)은 제42항과 관련된 것으로 각각 ‘관형어#의존 명사’와 ‘체언#의존 명사’ 유형에 해당하는 오표기이다.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용례처럼 붙여 쓰는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27ㄹ)은 제43항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는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수 관형사#단위성 의존 명사’ 유형에 해당된다. (27ㅁ)은 제44항의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규정에 따라 ‘17억 1천7백35만’으로 써야 한다. (27ㅂ)은 열거하는 말 띄어 쓰기에 해당하는 오표기이다. 제47항에서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연결될 때, 보조 용언을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데 보조적 연결 어미의 경우 ‘-아’에 국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쓴다는 원칙만 적용하고 있는 용례를 준거로 하여 보조적 연결 어미 ‘-어/아’가 아닌 ‘-게, -지, -고’ 등의 연결 어미를 보조 용언과 붙여 쓴 경우는 오표기로 간주하였다. 제48항은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는 규정으로 (27ㅇ)과 같은 경우는 붙여 써야 하고, (27ㅈ)과 같은 경우는 띄어 써야 한다.

한편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 띄어쓰기 문제와 관련된 질문은 105회(조회 수 355,093회)로

<한글 맞춤법> 가운데 언중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질문 내용은 주로 복합어와 구를 판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와 의존 명사인 지 접미사(혹은 어미)인지, 본용언인지 보조 용언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의 띄어쓰기 문제(예. 어떤 분, 주변 분, 찬성하시는 분; 친구분, 형제분, 환자분, 유가족분 등), 그리고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하는 말의 띄어쓰기에 관련된 것,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순으로 문의가 많았다.

## 5.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에 따른 <한글 맞춤법>은 제51항의 부사 끝 음절 ‘이’와 ‘히’ 관련 규정과 제52항의 한자어의 본음과 속음 표기 관련 규정, 제53항~제54항의 된소리가 나는 어미와 접미사 관련 규정, 그리고 제55항~제57항의 의미 구별하여 적기 관련 규정이다.

관련 조항	내용	보고서		‘가나다’	
		빈도	백분율	조회 수	질문 수
제51항	부사 끝 음절 ‘이’와 ‘히’ 소리 적기	26	3.64%	48,125	16회
제52항	한자어의 본음과 속음 적기	1	0.14%	1,749	6회
제53항	된소리가 나는 어미	23	3.22%	15,331	3회
제54항	된소리가 나는 접미사	9	1.26%	28,193	6회
제56항	‘-더라, -던, -든지’ 구별하여 적기	9	1.26%	40,150	3회
제57항	의미 구별하여 적기	43	6.02%	212,059	29회

[표5] ‘그 밖의 것’의 오류 빈도 및 질문(조회) 수<sup>9)</sup>

### 5.1. 부사 끝 음절 ‘이’와 ‘히’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51항과 관련된 오타기는 총 26건(3.64%)이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용례는 아래 (28)과 같다.

- (28) ㄱ. 어찌 번번히 저리도 줄행랑을 치는 겐지…  
 ㄴ. 야채라면 끔찍히 싫어하는 자녀들을 위해  
 ㄷ. 깨끗이  
 ㄹ. 도서 카드가 뽁뽁히 꽃혀 있습니다.  
 ㄹ. 이용호씨 사건 깊숙히 연루된듯  
 ㅂ. 나뭇잎들이……수북히 쌓여

9) [표5]은 국립국어연구원(2000~2003)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으로 제시된 오타기와 관련된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의 질의에서만 확인되는 <한글 맞춤법> 규정(제55항)의 질문 수와 조회 수는 별책의 ‘실태 조사4. 오타기 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ㅅ. 귀염둥이 역할을 톡톡이 해내고 있다.
- ㅇ. 수재민들로 빼곡이 찬 학교 강당
- ㅈ. 거뜰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ㅊ. 꼼꼼이 따져봐도

위 (28)과 같이 ‘이’로 적어야 할 것을 ‘히’로 적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1항은 소리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 언중들의 발음이 변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 이 부문과 관련된 질의 내용은 개별 형태나 특수한 발음, 그리고 그에 따른 표기상의 통일 등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부사화 접미사 ‘-이’, ‘-히’에 의해 파생된 부사의 끝음절을 어떻게 구별하여 표기하는가에 대한 질의 용례가 전체 3.04%, 조회 수 48,125회를 차지하고 있어 언중들이 이에 대해 꽤 혼란스러워 하는 규정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로만 소리 나거나 ‘히’로만 소리 나는 것이란 발음하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모호한 문제라 할 수 있다.

## 5.2. 한자어의 본음과 속음 적기

<한글 맞춤법> 제52항에 의하면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어야 하는데, 그 예로 ‘諾, 難, 寧, 怒, 論, 六, 木, 十, 八’이 제시되어 있다.

(29) 인간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제52항과 관련하여 (29)와 같이 단 한 건의 오표기가 나타났다. 제52항은 본음과 속음을 가지는 한자를 알아야 하고 해당 한자가 본음 또는 속음으로 나는 어휘를 개별적으로 익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휘 개별적으로 올바른 표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 5.3. 된소리가 나는 어미와 접미사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53항은 된소리로 발음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는 어미에 관한 규정으로 총 23건(3.22%)의 오표기가 출현하였다. 제53항 ‘다만’에 의해 된소리로 적어야 하는 어미를 예사소리로 적은 것(30ㅇ)보다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는 어미를 된소리로 적은 경우(30ㄱ~ㅅ)가 압도적으로 많다. 제54항은 (31)과 같이 된소리로 적어야 하는 접미사와 관련된 규정으로 총 9건(1.26%)의 오표기가 나타났다.

- (30) ㄱ. 물고기를 많이 잡아 드릴께요.  
 ㄴ. 간장과 고추장을 얻어 올께요.  
 ㄷ. 같이 나갈께.  
 ㄹ. 자기 영원히 사랑할꺼야.  
 ㄴ. 결과가 나오면 연락할께.  
 ㄷ. 그냥 줄게.  
 ㅅ. 준우가 꿈에서 밤새 지켜줄께.  
 ㅇ. 몇 마리나 잡을갑쇼?

(31) ㄱ. 장삿꾼은

ㄴ. 나무꾼

ㄷ. 먼저 뒷꿈치가 땅에 닿은 후에

ㄹ. 짓밟은 땅군

ㅁ. 쑥스럽고 멋쩍다.

ㅂ. 멋쩍은

ㅅ. 파삿꾼의 역할을 함으로서

ㅇ. 팔굽치

제53항의 경우 (30)과 같이 오폭기가 ‘-ㄹ게’의 표기에 집중되어 있다. 규정의 내용으로 보아 특정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ㄹ게’의 정확한 표기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5.4. 의미 구별하여 적기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55항, 제56항, 제57항에는 구별해서 적어야 하는 말들이 제시되어 있다. 음소주의 표기와 형태주의 표기에 의해 의미가 각각 구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여기에 제시된 어휘들은 소리와 형태가 비슷하여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32)와 (33)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32) ㄱ. 범인을 검거했다던가 그렇게 하면

ㄴ. 나를 민던 말던

ㄷ. 당신이 어디에 있던, 어떤 시간이던간에

ㄹ. 어떤 시간이던간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ㅁ. 차라도 좀 크던가

ㅂ. 아이를 안고 앞 좌석에 탄다던가

(33) ㄱ. 치기 쉬운 곳에 놓아 주므로써

ㄴ. 피해를 줌으로서

ㄷ. 공연을 함으로서 이름을 떨치던 그는

ㄹ. 사업경험자로써 당사와 뜻을 같이 할 분

ㅁ. 나도 공부시간을 2시간 정도는 늘려야겠다.

ㅂ. 소년은 어디에 부딪혔는지

ㅅ. 기구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님으로 가발이 들뜨거나

ㅇ. 가슴을 조리며 할아버지와 이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ㅈ.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으로 가까운 시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한편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에서는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변별되는 어휘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예를 들면 ‘샬넉-샬넉’, ‘저물넉-저물넉’, ‘알은척(체)하다-아는 체(척)하다’, ‘이 외-이외’, ‘한 걸음-한걸음’, ‘다음날-다음날’, ‘그 다음-그다음’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띄어쓰기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의미 구별하며 적기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6. 정리

### 6.1. 요약

- 본 조사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4권의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보고서(2000년~2004년)를 활용하여 <한글 맞춤법>에 근거한 표기 중 오류 빈도가 높은 항목과 그에 대한 오표기 목록을 추출하였다. 이 자료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일반 언중들의 구체적인 의식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의 ‘가나다 전화’, ‘온라인 가나다’를 활용하여 일반 언중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표기 및 조항도 살펴보았다.
-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로 제시된 용례는 총 714건으로, 띄어쓰기와 관련된 10개 조항을 제외한 47개 조항 중 29개의 조항에서 오표기가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여 개별 조항별 오류 빈도와 띄어쓰기 유형별 오류 빈도를 빈도순으로 앞 순위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별 오류 빈도순

순위	관련 조항	내용	빈도	백분율
1	제30항	사이시옷	228	31.93%
2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 구별	73	10.22%
3	제18항	용언의 활용	70	9.80%
4	제11항	두음 법칙: 한자어 어두 /ㄹ/ 탈락 표기 규정	43	6.02%
5	제57항	의미 구별하여 적기	43	6.02%
6	제10항	두음 법칙: 한자어 어두 구개음 /ㄴ/의 표기 규정	38	5.32%
7	제40항	어간 끝음절 ‘하’의 준말	32	4.48%
8	제51항	부사 끝 음절 ‘이’/‘히’ 소리 적기	26	3.64%
9	제35항	어간 말음 ‘ㄱ, ㄷ’와 어미 ‘과/거, ㄴ/었’의 준말	24	3.36%
10	제53항	된소리가 나는 어미	23	3.22%
11	제17항	어미 뒤 높임의 조사 ‘요’	19	2.66%
12	제12항	두음 법칙: 한자어 어두 /ㄹ/의 /ㄴ/ 표기 규정	14	1.96%
13	제36항	어간 말음 ‘ㄷ’와 어미 ‘어’의 준말	14	1.96%
14	제16항	어간과 어미의 모음조화	12	1.68%
15	제54항	된소리가 나는 접미사	9	1.26%
16	제56항	‘-더라, -던, -든지’ 구별하여 적기	9	1.26%
17	제5항	된소리	8	1.12%
18	제19항	명사화 접미사 ‘-이, -음/-ㅁ’, 부사화 접미사 ‘-이’, ‘-히’가 붙어서 된 말	7	0.98%
19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과 부사에 부사화 접미사 ‘-히’, ‘-이’가 붙어서 된 말	7	0.98%
20	제6항	구개음화	4	0.56%
21	제20항	명사 뒤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	2	0.28%
22	제27항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의 원형 밝혀 적기	2	0.28%
23	제9항	모음 관련	1	0.14%

24	제13항	접쳐 나는 소리	1	0.14%
25	제21항	명사, 용언 어간 뒤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	0.14%
26	제23항	‘-하다’, ‘-거리다’가 붙은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	1	0.14%
27	제29항	어근 받침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합성어	1	0.14%
28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고 자음만 남는 말의 준말 표기	1	0.14%
29	제52항	한자어의 본음과 속음 적기	1	0.1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0항의 ‘사이시옷’의 규정에 대한 오폭기 빈도는 전체 오폭기 빈도의 31.93%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사이시옷’ 표기 조항에 나타난 일관되지 못한 설명도 문제이거나 최근 국어사전에서 사이시옷 표기 용례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중들은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시옷’ 표기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 ▲ 띄어쓰기 유형별 오류 빈도순

순위	정표기 유형	오폭기 유형	관련 조항	빈도	백분율
1	수 관형사#단위성 의존 명사	수 관형사+단위성 의존 명사	제43항	1189	26.32%
2	체언#의존 명사	체언+의존 명사	제42항	1088	24.09%
3	관형어#의존 명사	관형어+의존 명사	제42항	914	20.23%
4	성명#관직명	성명+관직명	제48항	485	10.74%
5	체언+조사	체언#조사	제41항	431	9.54%
6	본용언#보조 용언	본용언+보조 용언	제47항	184	4.07%
7	열거하는 말 띄어 쓰기	열거하는 말 붙여 씀	제45항	141	3.12%
8	수(만 단위로 띄어 쓰기)	수(붙여 씀)	제44항	73	1.62%
9	성명 붙여 쓰기	성명 띄어 씀	제48항	612	0.27%

(‘+’는 붙여 쓰기, ‘#’은 띄어쓰기)

이 표에서 보듯이 언중들이 국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규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띄어쓰기’이다. 국어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써야 하느냐 붙여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어 간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언중들이 문장에서 단어를 구분하는 능력을 함께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단어인 경우는 붙여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띄어 써야 하는데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품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단어의 자격을 갖고 있지만 띄어 쓰지 않는 조사에 대한 이해와, 어미와 의존 명사의 구분 등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띄어쓰기의 문제는 특별히 언중들의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비단 ‘띄어쓰기’ 규정에 한정되지 않는다. ‘형태에 관한 것’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눈꼽”, “\*눈쌀”, “\*몰아부치다”, “\*밀어부치다” 등이 오폭기라는 근거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합성어의 형태 경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오폭기가 자주 출현한다는 것은 언중들의 문법 정보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 하겠다.

## 6.2. 제언

○ 한편,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는 조사,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 하는 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언중들의 언어생활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부분에서 띄어쓰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때로는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띄어쓰기’ 규정의 범위를 넓히거나 해당 조항에 대해 개념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온라인 가나다’의 질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일반 사전들과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 조항의 내용 및 설명이 보다 충실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글 맞춤법> 규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한글 맞춤법 오폭기 목록 추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폭기 목록을 추출할 것인지였다. 그나마 본 사업에서는 기존에 국립국어원에서 작업해 두었던 자료를 가지고 했지만, 사실 이 자료들도 2000년~2003년 것이어서 시의성이 떨어진다. 현대와 같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하는 이 시대에 한글 오폭기 목록 추출 작업을 제대로 한다면 매우 큰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번 사업에서 오폭기 목록 추출은 매우 작은 일부분으로 들어갔지만, 바로라도 단독 사업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문회의에서 전 국립국어원장께서도 강력히 요청하셨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초등학생용, 중등학생용, 일반인용으로 나누어서 맞춤법 오폭기를 추출하는 작업은 그 처치(處置)를 위해서라도 긴급 필요한 일이다.

## VII. 북한 및 외국의 자국어 표기 규범 실태 및 특징

### 1. 조사 목적 및 대상

본 장에서는 북한 및 외국의 표기 규범과 각국 어문 규범의 정책 변화 및 그 효과를 살펴보고 한글 맞춤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자국어와 자국어에 대한 어문 규범을 갖고 있고 최근 이를 개정한 국가로 북한,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이다. 각 국가의 어문 규범 중에서 철자법, 맞춤법 등을 포함하는 표기 규범이 언제 개정되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문 규범과 관련한 국가 기관 및 연구 기관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경우 해당 어문 규정을 표기법이라고 하며, 정서법은 해당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기법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이익섭, 1992; 민현식, 2000; 민현식, 2008).

어문 규범은 각 국가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며, 법적 지위도 다르다. 또한 어문 규범의 체계와 내용도 각 언어마다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각 언어의 표기 규범 내용과 변화 방향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에서 드러난 공통점을 찾고자 한다. 해당 언어의 표기 규범의 개정 방향과 내용을 근거로 한글 맞춤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북한

북한의 맞춤법은 분단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으나 초기에 내세웠던 형태주의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북한 맞춤법의 체계는 점차 간소화되었으며 맞춤법의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다. 여기에서는 북한 어문 규범의 개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남북한의 맞춤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남북한 맞춤법 비교는 전수태 외(2004, 2005), 최호철(2012)을 근거로 하였으며, 그 외에 고영근(1989), 이희승·안병희(1989), 이승욱(1991) 등도 참고하였다.

#### 2.1. 북한의 어문 규범 변화

분단 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 어문 규범을 개정하였다. 규범을 차례로 나열해 보면, 1950년 4월의 『朝鮮語 新綴字法』, 1954년 9월의 『조선어 철자법』, 1966년 6월의 『조선말규범집』, 1987년 2월의 『조선말규범집』, 2000년의 『조선말 띄어쓰기규범』, 2003년의 『띄어쓰기규정』, 2010년의 『조선말규범집』(초판 발행 10월 9일, 2판 발행 12월 23일) 등이 있다.

『朝鮮語 新綴字法』(1950)은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의 불철저한 형태주의 표기를 비판하였지만 이 철자법 역시 실제 사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조선말규범집』(1966)은 이전 철자법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여 전체적인 체제를 바꾸고, 내용 면에서 세밀한 규정과 자세한 설명을 두었다. 하나의 단일한 규정으로 된 ‘철자법’을 독립적인 네 부문으로 세분하고 명칭을 ‘철자법’에서 ‘규범집’으로 바꾸었다.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을 확립함으로써 각각의 총칙과 세칙을 두었다. 『조선말규범집』(1987)의 경우는 정밀하게 다듬어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이다. 자모의 규정과 한자어의 ‘ㄴ, ㄹ’ 두음 표기 및 사이시옷 표기의 폐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나 용어는 고유어로 대체하였다. 예를 들어 어간은 ‘말줄기’, 합성어

는 ‘합친말’, 접사는 ‘붙이’, 어근은 ‘말뿌리’ 등으로, 한자어는 ‘한자말’, 의문표는 ‘물음표’ 등으로 수정하였다. 전체 틀에서 큰 변화는 없으나 ‘내려쓰기’를 신설하였으며, 이전의 4부가 아닌 5부 체계로 재정비하였다(최호철, 2012: 254-5).

그 후 『조선말 띄어쓰기규범』(2000)에서 형식상 전체 22개 항목이 9개 조항으로 줄어들었으며, 『띄어쓰기규정』(2003)은 2000년의 띄어쓰기 규범 제1항과 제2항을 합쳐 1항으로 하고, 제3항과 제8항은 2항으로 합치고, 제5항과 제6항은 3항으로 합쳐 전체 6항으로 조정하였다. ‘보조용언’을 띄어 쓰도록 수정한 것이 내용상 변화에 해당한다. 또 동사, 형용사의 어미 ‘아, 어, 여’ 뒤와 ‘고’ 뒤에 오는 동사는 조사나 어미가 붙은 단어의 띄어쓰기 규정을 적용하여 띄어 쓰게 하였다. 예를 들어 ‘남아 있다’, ‘누워 있다’, ‘놓여 있다’, ‘공부하고 있다’, ‘전개되어 오다’ 등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술 용어는 조사나 어미가 있어도 붙여 쓰도록 하였다.

최호철(2012)에서는 최근 개정된 『조선말규범집』(2010)을 형식적,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전의 규정과 비교하였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표기와 발음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조항의 문구나 예시 항목과 조항 번호를 조정하였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표기나 발음의 변동을 초래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문화어발음법’ 네 부분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문장 부호와 발음법에서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1987년부터 이어져 온 복잡한 띄어쓰기 규정이 공식적으로 폐기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맞춤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암/수’가 붙은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말고 ‘암개, 수개’처럼 뒷말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50년부터 줄곧 이어 온 형태주의 표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최호철, 2012: 260-1).

『조선말규범집』(2010)은 총칙에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표기 형태와 실제 발음 중에서 형태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이전 맞춤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표기의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발음의 유연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2. 남북한의 맞춤법 비교

남북한의 맞춤법 비교는 ‘한글 맞춤법’(1988)과 『조선말규범집』(2010)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선말규범집』(2010)에서 이전 규범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조선말규범집』(1987)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 2.2.1. ‘ㄱ’의 차이

전수태(2004:47-48)는 이중 모음의 표기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ㄱ’에 대한 표기라고 보고 있다. 『조선말규범집』(2010)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말규범집』(2010:31-32)<sup>1)</sup>

제26항 한자말에서 모음 《ㄱ》이 들어있는 소리마디로는 《계》, 《례》, 《혜》, 《예》만 인정한다.

례: 계산, 계획, 려절, 레의, 실례, 서례, 혜택, 연예대, 은혜, 예술, 예지, 예약

그러나 그 본래소리가 《계》인 한자는 그대로 적는다.

례: 게시판, 게재, 게양대

1) 인용 부분의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 반영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ㄱ’ 표기에서 남북한 차이는 ‘매, 폐’의 표기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모음 ‘ㅐ’ 표기를 ‘계, 레, 헤, 예’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8항의 ‘매, 폐’를 북한에서는 그 소리가 ‘매, 폐’로 바뀐 것으로 처리하며 ‘매, 폐’로 표기한다. 이희승·안병희(1989:53)에서는 ‘세, 제, 체’와 달리 ‘계, 레, 매, 폐, 헤’의 발음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계, 레, 매, 폐, 헤’로 발음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 레, 매, 폐, 헤’로 적지 않는 것은 표기상의 역사성과 독해의 능률을 중시한 것이었다.

본래 한자음이 ‘계’인 것을 ‘계’로 표기하는 규정은 남북한이 동일하나 ‘휴게실(休憩室), 휴게소(休憩所)’의 경우는 남북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憩’의 음을 ‘계’로 볼 것인가 ‘계’로 볼 것인가의 차이로 볼 수 있다(이경희, 1997:113).

### 2.2.2. ‘ㄴ’의 차이

북한에서는 ‘ㄴ’에 대한 규정을 한자어에 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글 맞춤법’(1988) 10항에서는 한자어뿐만 아니라 ‘보늬, 하늬바람, 씌어, 툇어’ 등의 고유어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유어와 한자어를 함께 비교했을 때는 남북한이 ‘닐리리’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

『조선말규범집』(2010:32)

제27항 한자말에서 모음 《ㄴ》이 들어가는 소리마디로는 《희》, 《의》만을 인정한다.

례: 순희, 회의, 희망, 유희, 의견, 의의

이중 모음 ‘ㄴ’ 표기에는 변화가 없지만 『조선말규범집』(2010) 새로운 개정안의 발음 규정 부분을 살펴보면 이전 규정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 최호철(2012:274)에서는 ‘문화어발음법’의 제2항 [붙임 1]에서 “자음과 결합할 때와 단어의 가운데나 끝에 있는 《ㄴ》은 [ ]로 발음함을 허용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하였다. 해당 부분의 예에는 ‘희망[희망/히망], 결의문[거리문/겨리문], 회의[회의/회이], [띠우다], 씌우다[씨우다]’ 등이 제시되어 있다. ‘희망, 결의문, 회의’에서는 이중 모음과 단모음을 모두 인정하는 반면 ‘띠우다, 씨우다’에서는 단모음만을 인정하고 있다. 현실음을 반영하면서 규정 내에서도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2.2.3. 두음 법칙

전수태(2004: 67)는 두음 법칙이 남북한 맞춤법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남한은 두음 법칙을 반영하여 표기하는 데 비해 북한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朝鮮語 新綴字法』(1950)에서부터 두음 법칙을 부정하고 한자의 본음을 밝혀 적는 형태주의 표기를 취하였다. 『조선말규범집』(1966)에서는 발음에 대해서 신설된 ‘표준발음법’ 항목의 ‘제2장 단어 첫머리의 발음’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말규범집』(1987)에서도 이를 유지하였으나 세칙 면에서는 일부 한자어의 두음 ‘ㄱ’이 변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조선말규범집』(2010:31)

제25항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국가, 여자, 뇨소, 당, 락원, 로동, 레외, 천리마, 풍모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한말은 변한 소리대로 적는다.

(울음)	(그름)
궁냥	궁량
나사	라사
나팔	라팔
류월	륙월
시월	십월
오뉴월	오류월, 오륙월
요기	료기

『조선말규범집』(2010)에 나타난 위 내용을 이전 규정의 것과 비교해 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 다만 ‘ㄴ’ 표기에 대한 발음 규범을 제시한 ‘문화어발음법’의 제6항이 삭제되었다. 북한 맞춤법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예로 ‘녀사, 뇨소, 뉴톤, 니탄’ 등이 있다. 이는 남한의 ‘한글 맞춤법’(1988)의 제10항, 제11항, 제12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 2.2.4. 사이시옷과 ‘ㅎ’의 차이

남북한 맞춤법의 차이는 사이시옷과 덧나는 ‘ㅎ’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전수태, 2004:82-83). 먼저 북한 규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말규범집』(1987)

제15항 합친말을 이룰 적에 《ㅂ》이 덧나거나 순한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어나는것은 덧나고 바뀌어나는대로 적는다.

례: 마파람, 살코기, 수개, 수돼지, 좁쌀, 휘파람, 안팎

[붙임] 소리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적는다.

례: 셋별 - 새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

비바람(비와 바람)

『조선말규범집』(2010:23)

제14항 합친말은 매개 말뿌리의 본래 형태를 각각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1: 견잡다, 낫보다, 눈웃음, 돈보다, 물오리, 밤알, 손아귀, 철없다, 꽃철, 끝나다

례2: 값있다, 겉늬다, 몇날, 빛나다, 칼날, 팔알, 흙내

《암, 수》와 결합되는 동물의 이름이나 대상은 거센소리로 적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는다.

례: 수돼지, 암돼지, 수개, 암개, 수기와, 암기와

제15항 합친말에서 오늘날 말뿌리가 뚜렷하지 않은것은 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례: -며칠, 부랴부랴, 오라버니, 이틀, 이태

-마파람, 휘파람, 좁쌀, 안팎

북한의 『조선말규범집』(1987)의 제15항과 『조선말규범집』(2010)을 비교해 보면 ‘수개, 수돼지’가 ‘수개, 수돼지’로 표기가 수정된 것이 먼저 눈에 띈다(최호철, 2012:264-5). 남한은 ‘수개, 수돼지’로 표기하기 때문에, 남북한 차이가 새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한은 사이시옷 표기를 고유어끼리의 결합이나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일부 한자어끼리의 결합 등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빗바람’과 ‘셋별’에

한해서만 사이시옷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비바람’, ‘새별’과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이시옷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말규범집』(2010)에서는 『조선말규범집』(1987)의 [불임]을 삭제하여 사이시옷 표기의 불규칙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사이시옷 표기 폐기로 예사소리 표기와 된소리 발음의 불일치 현상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예사소리 표기와 거센소리 발음의 불일치가 더 추가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강개[강까]’, ‘내개[내까]’, ‘수개[수캐]’, ‘암돼지[암태지]’ 등과 같이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조선말규범집』(2010) 이전에 고시한 『조선말퓌어쓰기규범』(2000)의 부록에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조선말 퓌어쓰기규범(2000)』의 부록

수(암)강냉이 → 수(암)강냉이	수(암)닭 → 수(암)닭
수(암)강아지 → 수(암)강아지	수(암)돌쩌귀 → 수(암)돌쩌귀
수(암)커미 → 수(암)거미	수(암)태지 → 수(암)돼지
수(암)코양이 → 수(암)고양이	수(암)팜나무 → 수(암)밤나무
수(암)곰 → 수(암)곰	수(암)팜송이 → 수(암)밤송이
수(암)개 → 수(암)개	수(암)떨 → 수(암)벌
수(암)개미 → 수(암)개미	수(암)뽕 → 수(암)범
수(암)게 → 수(암)게	수(암)평아리 → 수(암)병아리
수(암)꿩 → 수(암)꿩	수(암)피둘기 → 수(암)비둘기
수(암)괘이 → 수(암)괘이(《고양이》의 준말)	

두 말이 합해질 때 덧나는 ‘ㅎ’에 대한 표기를 북한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데 비해, ‘한글 맞춤법’(1988)의 31항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 2.2.5. 의문형 어미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에 대해 남북한 모두 형태주의 표기법에 따라 ‘(으)ㄹ’ 뒤에서 된소리가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으)ㄹ수록’, ‘-(으)ㄹ지라도’, ‘-올시다’로 표기한다.

『조선말규범집』(2010:11)

제6항 한 형태부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ㅇ》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된소리로 적는다.

그러나 토에서는 《ㄹ》뒤에서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례	(울음)	(그림)
	~ ㄹ가	~ ㄹ까
	~ ㄹ수록	~ ㄹ쭈룩
	~ ㄹ지라도	~ ㄹ찌라도
	~ 올시다	~ 올씨다

그러나 의문형 어미의 표기에서는 남북한 맞춤법이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의문형 어미에서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는 반면, 남한의 ‘한글 맞춤법’(1988) 제53항에서는 의문형 어미에 대해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고 있다. 즉 남한에서는 ‘-(으)ㄹ까?’, ‘-(으)ㄹ꼬?’, ‘-(으)ㄹ쏘냐?’처럼 표기하고 있다.

#### 2.2.6. 어미 ‘여’와 ‘엿’ 표기

북한은 『朝鮮語 新綴字法』(1950) 이래로 모음 동화를 반영한 음소주의 표기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는 용언 어간의 모음이 ‘ㅣ, ㅐ, ㅑ, ㅓ, ㅕ, ㅗ, ㅛ’의 전설 계열의 모음일 때와 어간이 ‘하-’로 끝날 때에는 뒤에 오는 어미 ‘어’를 ‘여’로 적는다.

『조선말규범집』(2010:17)

제11항 말줄기가 《아, 어, 여》 또는 《았, 었, 였》과 어울릴적에는 그 말줄기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적는다.

1) 말줄기의 모음이 《ㅏ, ㅑ, ㅓ, ㅕ, ㅗ, ㅛ》인 경우에는 《아, 았》으로 적는다.

례: 막다 - 막아, 막았다  
 얹다 - 얹아, 얹었다  
 오다- 와, 왔다  
 따르다-따라, 따랐다  
 오르다 - 올라, 올랐다

[붙임]

말줄기의 모음이 《ㅏ, ㅓ》인것이라도 합친말줄기인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례: 곱들다 - 곱들어, 곱들었다  
 받들다 - 받들어, 받들었다  
 올들다 - 올들어, 올들었다

2) 말줄기의 모음이 《ㅓ, ㅕ, ㅗ, ㅛ, ㅓ, ㅕ, ㅗ, ㅛ, ㅓ, ㅕ, ㅗ, ㅛ, ㅓ, ㅕ, ㅗ, ㅛ》인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례: 넣다 - 넣어, 넣었다  
 겪다 - 겪어, 겪었다  
 두다 - 두어, 두었다  
 크다 - 커, 컸다  
 거들다 - 거들어, 거들었다  
 부르다 - 불러, 불렀다  
 흐르다 - 흘러, 흘렀다  
 치르다 - 치러, 치렀다

3) 말줄기의 모음이 《ㅣ, ㅐ, ㅑ, ㅓ, ㅕ, ㅗ, ㅛ》인 경우와 줄기가 《하》인 경우에는 《여, 였》으로 적는다.

례: 기다 - 기여, 기였다  
 깨다 - 개여, 개였다  
 베어 - 베여, 베였다  
 되다 - 되여, 되였다  
 쥐다 - 쥐여, 쥐였다  
 희다 - 희여, 희였다  
 하다 - 하여, 하였다

그러나 말줄기의 끝소리마디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례: 길다 - 길어, 길었다  
심다 - 심어, 심었다  
짓다 - 지어, 지었다

[붙임]

부사로 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말줄기와 토로 갈라 적지 않는다.

례:	(웁음)	(그름)
	구태어	구태어
	도리어	도리어
	드디어	드디어

『조선말규범집』(2010)에서는 표면적으로 『조선말규범집』(1987) 제11항의 [붙임]이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11항의 하위 내용인 3)의 [붙임]으로 이동하였다. 이전의 1), 2) 체제에서 1), 2), 3)으로 늘어났으며, 예시 배열 순서도 수정되었다(최호철, 2012:260). 제11항은 내용상 변화보다는 형식상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말규범집』(2010)은 초기부터 유지해 온 북한식 ‘형태주의’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이 새로운 맞춤법은 표기 형태와 실제 발음 중에서 ‘형태’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일부 수정된 표기와 발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기를 유지하되 현실음을 허용하여 형태주의의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부분도 있다. 또한 복수 표기를 허용하는 예도 이러한 형태주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는 형태주의 원칙의 적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현실 발음을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의 개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표기 규범에 해당한다. 비록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며 언어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다르지만, 동일 언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 3. 일본

일본은 언어 정책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경우에 속한다. 일본은 17세기에 중심지를 도쿄로 옮기면서 공용어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예도 상류층의 언어가 전국에 통용되는 공통어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 후 중앙집권적으로 언어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보급하였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어문 규범을 관리, 운영하던 방식을 오랫동안 유지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그러나 최근 공포된 상용한자는 그 법적 지위가 다소 변화되었다. 일본어 표기법과 그 변화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일본어 정책과 관련된 기관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강인성(1988), 민병찬(2005), 형진의(2011) 등의 대표적인 연구를 참고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3.1. 일본의 언어 정책과 표기 변화

일본어는 가타가나(カタカナ, 片假名), 히라가나(ひらがな, 平仮名), 한자 등 세 가지를 섞어서 표기한다. 가타가나는 한자의 일부분을 생략하여 일본어 표기용으로 만든 것이며,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체를 더 간략화해서 일본어 표기용 글자로 삼은 것이다. 이 두 가지 표기법을 가나라고 부른다. 가타가나는 외래어, 외국인의 인명, 외국 지명 등의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 사용하며, 의성어, 생물 및 광물의 일본명 등을 표

기할 때에도 사용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공식 문서에서는 한자와 함께 이를 사용하였다. 1988년 8월 이전의 일본 전보 및 2바이트 문자를 지원하지 않는 컴퓨터 환경,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의 경우 인간과 동떨어진 기계 말투에서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

히라가나는 동사의 활용 어미, 조사, 조동사, 일본 고유어로서 해당 한자가 없는 단어, 해당하는 한자가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글자인 경우에 사용된다. 히라가나는 여성 작가가 쓰는 글에서 한자를 변형시켜, 일본어의 발음을 표기한 것에서 기원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일본의 공용문서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 철도의 역명판에는 히라가나와 간지가 적혀 있다.

역사적으로 1866년 마에지마(まへじま)가 표기법의 통일을 위해 한자를 폐지하고 가나를 써서 문자와 국어를 일치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1868년 메이지 유신 후 한자 폐지론이 활발해져서 1883년에는 가나 전용론자들이 연합하여 단체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한자 제한은 『강희자전』에 실린 4만여 한자 중에서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3,000자에서 5,000자까지 정도이며, 일본어로 친숙하지 않은 한자 사용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문장어 교육 및 보급, 문서의 간편화, 인쇄 사무기기의 능률화를 위한 각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일본은 상용한자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신문, 잡지, 실업계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일본의 상용한자(常用漢字)는 현대 일본어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 가운데 문부과학성 국어심의회<sup>2)</sup>가 ‘한자와 관련된 정책’에 따라 발표한 표준 한자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제정된 고등 교육 수준의 표준 한자인 당용한자(当用漢字)<sup>3)</sup>를 일부 개편하여 만들어졌다. 상용한자는 1981년 10월 1일 일본의 내각 고시 제1호 ‘상용한자표(常用漢字表)’로 발표되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법령, 공용, 문서, 신문, 잡지, 방송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공통성이 높은 한자를 모아 알기 쉽고 소통하기 쉬운 문장을 표기하기 위한 한자 사용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한다. 1981년의 상용한자는 총 1,945자와 4,087개 음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총 2,136자와 4,388개 음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은 초등 교육과정 학습 대상에 포함되는 한자 1,006자와 중·고등학교 학습 대상에 포함되는 1,130자이며, 전자의 경우는 교육 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1981년 고시한 상용한자와 2010년 고시된 상용한자의 변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981년 개정 시 당용한자 와 다른 점	<p>-글자 수는 아래의 95자가 늘었고 삭제된 문자는 없다. 猿 凹 渦 靴 稼 拐 涯 垣 殼 瀾 喝 褐 缶 頑 挾 矯 襟 隅 溪 螢 嫌 洪 溝 昆 崎 皿</p> <p>-글자 모양을 바꾼 한자: 당용한자의 ‘燈’이 ‘灯’으로 바뀌었다.</p> <p>-음훈(音訓)이 추가된 한자: 榮 (は・える) / 憩 (いこ・う) / 香 (かお・る) / 愁 (うれ・える) / 謡 (うた・う) / 露 (ロウ) / 和 (オ)</p> <p>-음훈이 없어진 한자: 膚 (はだ) / 盲 (めくら)</p>
2010년 개정 시 이전과 다른 점	<p>- 추가된 196자 : 挨 暖 宛 嵐 畏 菱 椅 彙 茨 咽 淫 唄 鬱 怨 媛 艷 旺 岡 臆 俺 苛 牙 瓦 楷 漬 諧 崖 蓋 骸 柿 顎 葛 釜 鎌 韓 玩 伎 龜 毀 畿 臼 嗅 巾 僅 錦 惧 串 窟 熊 詣 憬 稽 陳 桁 拳 鍵 舷 股 虎 鋼 勾 梗 喉 乞 傲 駒 頃 痕 沙 挫 采 塞</p>

2) 1921년 문부과학성 산하에 ‘임시국어조사회’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1934년 12월에 임시국어조사회를 대신하여 ‘국어심의회’가 설치되었다. 국어심의회는 단순한 조사기관인 국어조사위원회나 임시국어조사회에 비해 권한이 강화되었다. 국어조사위원회에서 1935년 3월 문부대신의 자문에 응해 ‘한자자체정리안’(漢字字体整理案, 1938), ‘표준한자표’(標準漢字表, 1942), ‘신자음가나표기법표’(新字音仮名遣表, 1942), ‘국어 가로쓰기에 관한 건’(国語ノ横書ニ関スル件, 1942), ‘외래어 표기’(外来語の表記, 1991) 등 일본어에 관한 문제에 적극 참여했다. 2001년 1월 행정 조직 재편으로 국어심의회는 폐지되고 새로 발족한 문화심의회의 국어분과회에 계승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임영철, 2011:294-5).

3) 당용한자는 1946년 11월 16일 일본 내각에서 발표한 한자로, 전체 1,850자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B%8B%B9%EC%9A%A9%ED%95%9C%EC%9E%90>)

	<p>埼 柵 刹 拶 斬 恣 摯 餌 鹿 叱 嫉 腫 呪 袖 羞 蹴 懂 拭 尻 芯 腎 須 裾 淒 醒 脊 威 煎 羨 腺 詮 箋 膳 狙 遡 曾 爽 瘦 踪 捉 遜 汰 唾 堆 戴 誰 旦 綻 緻 耐 貼 嘲 涉 椎 爪 鶴 諦 溺 填 妬 賭 藤 瞳 柄 頓 貪 井 那 奈 梨 謎 鍋 匂 虹 捻 罵 剝 箸 汜 汎 阪 斑 眉 膝 肘 訃 阜 蔽 餅 壁 蔑 哺 蜂 貌 頰 睦 勃 昧 枕 蜜 冥 麵 治 弥 闇 噏 湧 妖 瘍 沃 拉 辣 藍 璃 慄 侶 瞭 瑠 呂 賂 弄 籠 麓 脇</p> <p>- 삭제된 5자: 勻 鍾 銑 脹 𠂇 (같은 해 동시에 개정된 신생아용 인명 한자에는 삭제되지 않아 인명에는 사용이 가능함)</p> <p>-추가된 음: 委(ゆだねる)、育(はぐくむ)、応(こたえる)、滑(コツ)、関(かかわる)、館(やかた)、鑑(かんがみる)、混(こむ)、私(わたし)、臭(におう)、匂(シュン)、伸(のべる)、振(ふれる)、粹(いき)、逝(いく)、拙(つたない)、全(すべて)、創(つくる)、速(はやまる)、他(ほか)、中(ジュウ)、描く(かく)、放(ほうる)、務(つとまる)、癒(いえる・いやす)、要(かなめ)、絡(からめる)、類(たぐい)</p> <p>-변경된 훈독: 側 - 훈독 かわ 를 がわ로 변경</p> <p>-삭제된 음: 浦 ホ</p> <p>-삭제된 훈: 畝 せ, 疲 つからす</p>
--	---

법령에서는 상용한자만을 사용하도록 하며, 상용한자 외의 글자는 단어 자체를 바꾸거나 상용한자 외의 글자만 히라가나로 쓴다. 상용한자 외의 한자를 사용하되 처음 나온 한자에 대해서만 후리가나(ふりがな)<sup>4)</sup>를 표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단어 자체를 바꾸는 것은 일본 전후 시기 당용한자를 사용할 때 많이 쓰였다. 예를 들면 ‘포기(抛棄 ほうき)’라는 단어를 같은 음의 다른 한자 ‘방기(放棄 ほうき)’로 바꾸는 것이다. 그밖에도 ‘시체(屍体 したい)’를 ‘사체(死体 したい)’로 대체하고 수학의 ‘함수(函数 かんすう)’를 ‘관수(関数 かんすう)’로 표기하거나 ‘간첩(間諜 かんちょう)’이란 단어를 ‘스파이(スパイ)’로 쓰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히라가나로 쓰기는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여 왔지만, 동음 이의어가 있는 경우와 ‘주둔지(駐とん地/駐屯地)’, ‘부두(ふ頭/埠頭)’의 예처럼 단어의 일부만 히라가나를 쓰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점차 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처음 나오는 한자에만 후리가나를 표기하는 방식은 상용한자 사용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자연스러운 표기를 할 수 있어서 법조문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헤이세이 시대<sup>5)</sup>로 들어오면서 구어화된 형법, 민사소송법 등은 모두 이 방식을 사용한 예이다.

상용한자표가 새롭게 정비되기까지 정부 차원에서 꾸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용한자 본연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 2005년 3월 문부 과학성은 상용한자표의 재검토에 관해 문화 심의회에 문의했다. 같은 해 9월부터 문화심의회 국어 분과회의 한자소위원회(漢字小委員会)가 상용한자의 재검토 심의에 들어갔고 그 결과 2010년 상용한자표가 새롭게 정리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상용한자표가 한글 맞춤법처럼 법적 지위가 확고하거나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4) 한자 옆에 읽는 법을 가나로 단 것을 말한다.

5) 여기서 ‘헤이세이 시대(平成時代 へいせい, 평성시대)’란 일본의 현재 천황인 평성천황의 재위 기간을 가리키는 일본의 시대 구분으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D%97%A4%EC%9D%B4%EC%84%B8%EC%9D%B4\\_%EC%8B%9C%EB%8C%8](http://ko.wikipedia.org/wiki/%ED%97%A4%EC%9D%B4%EC%84%B8%EC%9D%B4_%EC%8B%9C%EB%8C%8))

### 3.2. 개정된 상용한자표

문부과학성에서 상용한자를 2010년 새롭게 정리하여 2,136자로 공표하였다. 이 표는 법령, 공용문서, 신문, 잡지, 방송 등의 한자 사용을 보이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과학, 기술, 예술, 기타 각종 전문 분야나 개인의 표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문 분야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본어의 표기는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도도부현(とどうふけん, 都道府県)<sup>6)</sup>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및 그에 준하는 한자를 제외하고, 고유 명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고시된 상용한자표의 전문에서는 상용한자표가 의무적인 사항이지만 개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을 미리 밝히고 있다.

<상용한자표에 대하여><sup>7)</sup>

공용문의 한자 사용은 『상용한자표(헤이세이 22년 제2호)』에 제시된 것들로 한다. 글자체에 대해서는 통용자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상용한자표’에 제시된 음훈으로 단어를 나타낼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아래 대명사는 원칙적으로 한자로 쓴다.

예) 俺 彼 誰 何 僕 私 我々

다음 부사 혹은 연체사(連体詞)는 원칙적으로 한자로 쓴다.

예) (부사)

余り 至って 大いに 恐らく 概して 必ず 必ずしも  
辛うじて 極めて 殊に 更に 実に 少なくとも 少し  
既に 全て 切に 大して 絶えず 互いに 直ちに  
例えば 次いで 努めて 常に 特に 突然 初めて  
果たして 甚だ 再び 全く 無論 最も 専ら 僅か 割に

(연체사)

明る 大きな 来る 去る 小さな 我が(国)

단, 다음의 부사는 원칙적으로 가나(仮名)로 쓴다.

예) かなり ふと やはり よほど

다음 접두어는 그 접두어가 붙는 단어를 한자로 쓸 경우 원칙적으로 한자로 쓰고, 그 접두어가 붙는 단어를 가나로 쓸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나로 쓴다.

예) 御案内(御+案内) 御挨拶(御+挨拶)

ごもっとも(ご+もっとも)

다음의 접미어는 원칙적으로 가나로 쓴다.

예) げ(惜しげもなく) ども(私ども) ぶる(偉ぶる)

み(弱み) め(少なめ)

6) 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県)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도도부현의 하부에는 시정촌이나 군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도시는 행정상 별도의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7) 문부과학성 누리집을 참고할 것.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kokujikunrei\\_h221130.html](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kokujikunrei_h221130.html))

다음의 접속어는 원칙적으로 가나로 쓴다.

예) おって かつし たがって ただし ついては ところが  
ところで また ゆえに

단, 다음 4개는 원칙적으로 한자로 쓴다.

及び 並びに 又は 若しくは

조동사 혹은 조사는 가나로 쓴다.

예) ない (現地には, 行かない。)  
ようだ (それ以外に方法がないようだ。)  
ぐらい (二十歳ぐらいの人)  
だけ (調査しただけである。)  
ほど (三日ほど経過した。)

다음의 어구를 ( ) 안에 나타낸 예와 같이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나로 쓴다.

예) ある (その点に問題がある。)  
いる (ここに関係者がいる。)  
こと (許可しないことがある。)  
できる (だれでも利用ができる。)  
とおり (次のとおりである。)  
とき (事故のときは連絡する。)  
ところ (現在のところ差し支えない。)  
とも (説明するとともに意見を聞く。)  
ない (欠点がない。)  
なる (合計すると1万円になる。)  
ほか (そのほか..., 特別の場合を除くほか...)  
もの (正しいものと認める。)  
ゆえ (一部の反対のゆえにはかどらない。)  
わけ (賛成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  
...かもしれない (間違いかもしれない。)  
...てあげる (図書を貸してあげる。)  
...ていく (負担が増えていく。)  
...ていただく (報告していただく。)  
...ておく (通知しておく。)  
...てください (問題点を話してください。)  
...てくる (寒くなってくる。)  
...てしまう (書いてしまう。)  
...てみる (見てみる。)  
...てよい (連絡してよい。)  
...にすぎない (調査だけにすぎない。)  
...について (これについて考慮する。)

<오쿠리가나(送り仮名) 표기법><sup>8)</sup>

공용문의 오쿠리가나 표기법은 원칙적으로 『오쿠리가나 표기법(쇼와 48년 제 2호)』 본문의 통칙 1부터 통칙 6까지의 ‘본칙’, ‘예외’, 통칙 7 및 ‘부표 단어’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단, 복수어 중에서 활용하지 않는 단어(語)와 오독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해 ‘오쿠리가나 표기법’의 본문 통칙 6의 ‘허용’을 적용하여 오쿠리가나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明渡し 預り金 言渡し 入替え 植付け 魚釣用具  
受入れ 受皿 受持ち 受渡し 渦巻 打合せ 打合せ会  
打切り 内払 移替え 埋立て 売上げ 売惜しみ 売出し  
売場 売払い 売渡し 売行き 縁組 追越し 置場 贈物  
帯留 折詰 買上げ 買入れ 買受け 買換え 買占め  
買取り 買戻し 買物 書換え 格付 掛金 貸切り 貸金  
貸越し 貸倒れ 貸出し 貸付け 借入れ 借受け 借換え  
刈取り 缶切 期限付 切上げ 切替え 切下げ 切捨て  
切土 切取り 切離し 靴下留 組合せ 組入れ 組替え  
組立て くみ取便所 繰上げ 繰入れ 繰替え 繰越し  
繰下げ 繰延べ 繰戻し 差押え 差止め 差引き 差戻し  
砂糖漬 下請 締切り 条件付 仕分 据置き 据付け  
捨場 座込み 栓抜 備置き 備付け 染物 田植 立会い  
立入り 立替え 立札 月掛 付添い 月払 積卸し  
積替え 積込み 積出し 積立て 積付け 釣合い 釣鐘  
釣銭 釣針 手続 問合せ 届出 取上げ 取扱い 取卸し  
取替え 取決め 取崩し 取消し 取壊し 取下げ 取締り  
取調べ 取立て 取次ぎ 取付け 取戻し 投売り 拔取り  
飲物 乗換え 乗組み 話合い 払込み 払下げ 払出し  
払戻し 払渡し 払渡済み 貼付け 引上げ 引揚げ  
引受け 引起し 引換え 引込み 引下げ 引締め 引継ぎ  
引取り 引渡し 日雇 歩留り 船着場 不払 賦払  
振出し 前払 巻付け 巻取り 見合せ 見積り 見習  
未払 申合せ 申合せ事項 申入れ 申込み 申立て 申出  
持家 持込み 持分 元請 戻入れ 催物 盛土 焼付け  
雇入れ 雇主 譲受け 譲渡し 呼出し 読替え 割当て  
割増し 割戻し

기타

1 및 2는 고유 명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전문 용어 또는 특수 용어를 표기하는 경우 등, 특수한 한자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 및 2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 용어 등으로 읽기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는 필요에 응하여 후리가나(振り仮名)를 이용하는

8) 오쿠리가나(おくりがな)는 일본어를 한자와 가나를 섞어 써서 표기할 때, 한자로 된 말을 쉽게 읽기 위하여 한자 밑 혹은 뒤에 덧붙는 가나를 뜻한다. 한자가 혼독으로 읽혔을 때만 사용되며, 음독으로 읽힐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 문부과학성 누리집 참고할 것.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kokujikunrei\\_h221130.html](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kokujikunrei_h221130.html))

등, 적절한 배려를 한다.

#### 법령 취급

법령의 한자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각 법제국으로부터 통지된다.

일본 내에서 표기법의 통일을 위해 한자 폐지론이 적극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것은 서양의 언어처럼 일본어 표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 표기는 단순화되지 않았으며, 가나 표기법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상용한자표를 중심으로 일본의 표기 규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상용한자표는 1981년과 개정된 2010년을 비교하였으며, 추가된 한자와 대체된 단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해당 기관에서는 언어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한자를 계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모든 기관에서 이 상용한자표를 의무적으로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사나 방송 등의 언론 매체에서 이 규정을 강제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지 않고 회사마다 따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과 비교해 본다면 한자상용표가 갖는 법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4. 영국

15세기 이후 런던에서 쓰인 영어를 초기 근대 영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무렵부터 철자가 고정되기 시작했고, 어순이 확립되는 변화를 겪었다. 근대 이후 민간 차원에서 표기 규범이 정비되었으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수용한 사례에 해당한다.<sup>9)</sup> 영국은 미국보다 철자의 표준화가 먼저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최근 연방 정부나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언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국 영어의 철자법 변화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철자 개혁 협회의 목표와 철자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4.1. 영어 철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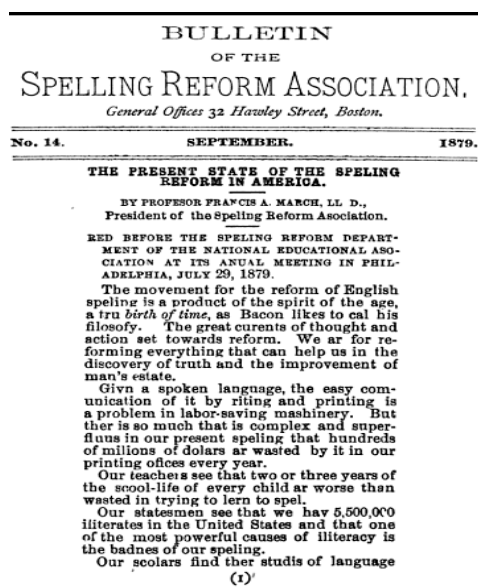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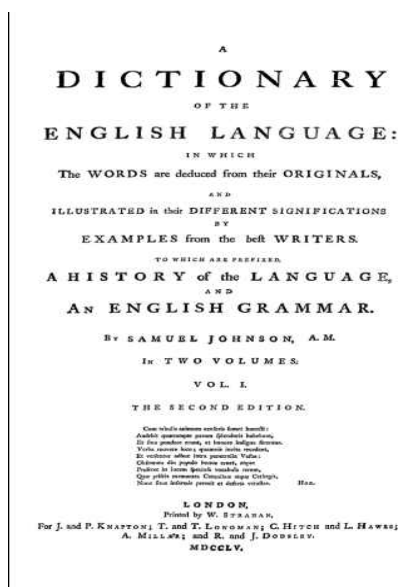
18세기 초반까지 영어 철자법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다. 철자법의 표준화는 주로 인쇄를 담당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영향력 있는 사전에서조차 철자법 차이가 나타났다. 오늘날 영국 영어 철자법은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의 『영어 사전(A Dictionary of the English, 1755)』에서 온 것이며, 반면에 미국 영어 철자법은 노아 웹스터(Noah Webster)의 『미국 영어 사전(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28)』에서 온 것이다. 사무엘 존슨의 사전은 영어 철자와 단어 용법에 대한 표준화를 하였다. 사무엘 존슨의 사전은 이후 오랫동안 영국 영어에 영향을 끼쳤으며, 173년 후에 비로소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영어의 철자법은 계속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철자 개혁 운동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당시 영국 영어는 형식적인 규범보다는 관습적 지배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프랑스 어 학술원이나 스페인 왕립 학술원처럼 권위 있는 기관이나 언어 정책을 위한 중앙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언중들은 다만 전통적으로 인정받았던 옥스퍼드 영어 사전, 롱맨 현대 영어 사전, 콜린스 영어 사전 등의 기록

9) 영어의 표기법을 ‘맞춤법(orthography)’ 혹은 ‘철자법(spelling)’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좁은 의미의 표기법을 가리킨다. 본 논의에서는 프랑스 어나 독일어 등의 유럽어는 주로 맞춤법으로, 영어는 철자 혹은 철자법으로 사용하며, 언어에 따라 표기법이 아닌 정서법(a writing system)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할 것이다. 이는 철자를 비롯하여 구두법이나 문체까지도 포함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민현식, 2000 참고).

에 의존하였는데 그 방대한 양 때문에 정비하거나 표준화하는 시도는 불가능했다. 세대가 흘러 단어나 용법이 변화된 경우 사전에 등재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다른 언어에서 차용하는 단어가 늘어났고, 신조어도 계속 탄생하게 되었다. 런던에서 사용되는 영어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표준 영어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법률 분야나 정부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문학 분야에서도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1707년 영국은 스코틀랜드 의회 연맹과 함께 별도의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1755년 사무엘 존슨이 쓴 영어 사전이 나타나기 전까지 작가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보다는 작가들이 오랜 기간 영어 문법 및 용법에 대한 안내서를 썼으며 이는 출판되었고 널리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영국 영어의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문제 안내서가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흔히 정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두법, 철자법, 단어 선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타임즈 신문,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 스타일 가이드(Style Guide)가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 1893년 호레이스 헨리 하트(Horace H.H.)가 초안을 마련한 안내서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의 안내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이후 하트의 규칙이라는 소제목으로 2002년 옥스퍼드 매뉴얼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안내서의 권위와 위상이 공고하여 이후 등장한 매뉴얼에 계속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영어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 매뉴얼인 시카고 매뉴얼(Chicago Manual of Style)도 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표기법을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해 왔던 영국 영어는 철자 개혁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또한 영국 영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미국 영어만을 위한 철자 개혁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계속 있었다. 1837년 아이작 피트만(Isaac Pitman)은 음성 속기에 대한 자신의 체계를 출판하였으며, 1848년 알렉산더 존 엘리스(Alexander John Ellis)는 『음성 표기 서설(A Plea for Phonetic Spelling)』을 출판하였다. 이 두 저서 모두 새로운 음성학적 알파벳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데,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은 매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림] 『영어 사전(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755)』과 『철자 개혁 협회(Bulletin of the Spelling Reform Association, 1880)』

1870년에 이르러 비로소 대영제국과 미국의 언어학회들은 이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철자 개혁 협

회'가 영국과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영어 철자와 발음 사이의 일관되지 못한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철자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영어 철자 개정을 위한 국제 회의'가 1876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영어철자개혁협회'와 '미국영어개혁협회' 등이 결성되었다. 미국 언어학회는 즉시 사용 가능한 11개의 철자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are→ar, give→giv, have→hav, live→liv, though→tho, through→thru, guard→gard, catalogue→catalog, (in)definite→(in)definit, wished→wisht'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한 철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한 미국 신문사는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인데, 이 신문사의 편집자이자 소유주인 조셉 메딜(Joseph Medill)은 철자 개혁 학회 위원회의 위원이었다. 1883년 미국 언어 학회와 미국 언어 협회는 24개의 철자 개정 규칙을 만들었으며, 이를 출판하게 되었다.

1898년 미국국가교육위원회(the America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모든 글쓰기에 12개의 단어 목록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단어는 'tho, altho, thoro, thorofare, thru, thruout, catalog, decalog, demagog, pedagog, prolog, program' 등이다. 이후 단순 철자 위원회(the Simplified Spelling Board)가 1906년 미국에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작가, 교수, 사전 편집자 등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는 창립 회원이면서 막대한 돈을 이 기구에 기부하였다. 1906년 4월 300개의 단어 목록을 출판하였으며, 이 중 157개는 미국 영어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1906년 8월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이 위원회의 단어 목록을 즉시 사용하도록 인쇄물에 명령하였다. 1906년 12월 미국 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이전 시기에 소개되었던 철자법이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되었다. 이후 일부 철자는 살아남게 되었고 오늘날 미국 영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anaemia/anæmia→ anemia, mould→mold'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mixed→mixt, scythe→sithe' 등의 단어 목록은 살아남지 못했다. 1920년 이 위원회는 『단순화 표기 핸드북(Handbook of Simplified Spelling)』을 출판하였으며, 이 책은 25개 이상의 철자 개정 규칙을 제시하였다. 특정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개정 철자를 사용하였으며, 초기에는 소수 추종자들만이 이를 반영하였다. 이후 추종자들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 위원회는 해산되었다.

## 4.2. 영어 철자 협회의 활동 및 의의

영어 철자 협회(The English Spelling Society)는 1908년부터 시작된 모임으로 영어 철자의 불규칙성이 야기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이 협회는 영어 철자 개혁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단지, 책, 신문, 광고, 고시 등을 발행하고 있다.



<영어 철자 협회 누리집>

이 누리집에는 협회의 운영자 및 활동 내용, 목적 및 운영 취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철자 교육 내용 등이 제공된다. 우선 영어 철자 협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협회의 운영 목표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영어 철자의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철자의 단순화와 이것이 지니고 있는 이점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2. 알파벳 원칙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 문어 영어가 지닌 오랜 역사 속에서 알파벳 원칙이 변질된 것을 알고, 또한 다른 언어에 좀 더 합리적인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영어 철자법을 개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도록 하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나타나도록 한다. 또한 단어의 형태와 말소리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4. 영어 철자법을 위한 여러 제안을 조정하도록 하며, 이것이 영어 화자뿐만 아니라 비영어 화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한다.
5. 영어 철자법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며, 언론, 의견 결정자, 정책 결정자, 관련 단체 등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어권 화자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화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어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 협회는 여전히 영어 보급 및 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협회에서는 매년 세계 각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철자 개정에 대한 언어학적, 사회학적, 교육학적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학문적 성과와 실용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어 사용을 확산시키고 영어 철자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협회에서 제안한 단어 목록이 영어권 국가에서 채택되고 이를 활발히 보급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 협회에서는 영어 철자의 원칙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 <영어 철자에 대한 6가지 원칙>

1. 알파벳 철자는 말소리를 표현하도록 제작되었다. 이것은 알파벳 원칙에 해당한다.
2. 알파벳 원칙은 문식성을 높이고, 독자가 철자를 보고 그 소리를 발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자는 그들의 소리에 맞게 철자를 적도록 해야 한다.
3. 몇 세대에 걸쳐 발음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알파벳 원칙이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어의 철자는 새로운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다른 언어와 달리 영어는 과거 천 년 이상 철자법이 변화하였으며, 오늘날 알파벳 원칙이 우연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5. 오늘날 알파벳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어 문식성이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되었으며, 학습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
6. 영어 철자를 세계적 의사소통 체계로 만들기 위해 영어 철자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협회에서는 알파벳의 개정 목적이 문식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오랜 문자 역사로 인한 문자와 소리의 불일치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알파벳 원칙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영어 학습자의 읽기 쓰기를 위한 것이며, 영어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영어 철자 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영국 영어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미국 영어, 호주 영어, 캐나다 영어

등에도 계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영어 철자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협회는 음소 문자의 자질을 가진 영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말소리와 형태의 차이를 줄이고자 노력한다. 영어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 문식성을 높이고, 또한 영어권과 비영어권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것이 영어 철자 개혁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현재 철자 체계가 형태론적 상관 관계나 어원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샤 벨(Masha Bell)은 2011년 3월 철자 개혁 협회의 누리집에 영어 철자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sup>10)</sup>. 모음과 자음 체계가 갖고 있는 불규칙성을 항목별로 나열하여 철자와 소리의 불일치로 영어 읽기가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소리가 예외가 있으며 이것 때문에 학습자가 3,700개의 소리를 무작정 암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목록 때문에 학습자는 정확한 철자를 익히는 데 10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엄청난 학습 부담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읽기 학습을 어렵게 하는 철자 목록	
a: and - apron, any, father	cc: success - soccer
a-e: came - camera	ce: centre - celtic
ai: wait - plait, said	ch: chop -chorus, choir, chute
al: always - algebra	cqu: acquire - lacquer
all: tall - shall	e: end - english
are: care - are	-e: he - the
au: autumn - laugh, mauve	ea: mean - meant, break
-ate: to deliberate (a deliberate act)	ear: ear - early, heart, bear
ay: stays - says	-ee: tree - matinee
	(이하 생략)

이 목록은 영어 철자 협회에서 제시한 ‘영어 읽기를 어렵게 하는 69개의 철자 목록’에 해당한다. 마샤 벨은 69개의 목록이지만 각 철자가 갖고 있는 소리를 모두 포함한다면 실제 2,000개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A’에 대한 소리를 보여 줄 수 있는 단어 목록에는 ‘able, advance, after, aghast, ah, almond, almost, also, altar, alter, alternative, always, amble, ample, an, and’ 등을 포함하여 41개 이상이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A’는 예외적인 발음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예이다. 각각의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른 소리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단어 목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 철자 협회는 이런 목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철자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운동은 영어권 국가인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 계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10) The listing above gives just one example of the different ways in which each spelling pattern is undermined; and a few patterns have no other exceptions (e.g. ‘cat - plait meringue’), but some have very many. The ee-sound of ‘beef’, for example, is not spelt ee in at least 320 words (e.g. leaf, grief, even). Between them, all the different exceptions create a rote-learning list of at least 3700 common words. They are the reason why speakers of English take an average of 10 years to become proficient spellers. Some manage it in less time, but many also get totally defeated by this learning burden. (참고 자료: <http://www.spellingsociety.org/spelling/irregularities>)

## 5. 미국

미국은 다른 영어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철자법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표준 영어의 개념이 암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 역사의 초창기부터 언중의 대부분은 영어를 사용했으며, 영국 영어의 영향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철자법을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여기서는 영어 철자 개혁 협회 이후 미국 영어만의 독특한 표기 규범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5.1. 철자 개혁을 위한 노력

19세기에 이르러 음성학이 발전하면서 철자 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본격화되었다. 미국에서는 1806년 노아 웹스터가 처음으로 『영어 간이 사전(A Compendious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을 출판하였다. 이는 철자법 개혁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이론은 언어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그가 주장한 철자 개혁은 매우 급진적이어서 대중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발음이 안 되는 묵음이나 불필요한 철자를 삭제하는 원칙이 있다. 예를 들어 ‘bread>bred, head>hed, give>giv, breast>brest, built>bilt’ 등으로 쓰고, 프랑스 어에서 들어온 ‘ch’ 대신 ‘sh’를 써서 ‘machine>masheen, chasie>shaze, chevalier>shevaleer, pique>peek, oblique>obleek’ 등으로 쓰는 것이다. 『미국 혁명 동반자(A Companion to the American Revolution)』(2008)에서 “노아 웹스터가 발명한 미국식 철자는 매우 특징적인 것으로 언급된다. 그는 특정 철자를 대중화하는 데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지만 그가 그것들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그는 ‘center, color, check’ 등의 단어를 선정하여 단순화하고 유추하거나 어원에 근거하여 개혁하고자 했다.”라고 기술한다. 1807년부터 웹스터는 자신의 사전을 개정하고 확장하였으며, 1828년 앞서 언급한 『영국 영어 미국 사전(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을 완성하였다. 그의 주장은 점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오늘날 미국 영어에 영향을 주었다.

1812년 루이지애나 주에 이어 1920년 네브래스카 주가 영어를 공식어로 지정하면서 1990년까지 28개의 공식어 지정 명령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연방 정부에서 이런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공식 기관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와 기관이 공식어의 보급과 관리를 맡고 있었다. 문법책, 영어 활용서, 사전 등의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표기 규범을 기술하고 있었다. 이는 영국 영어와 매우 유사한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표준(Language Standard)에 대한 교육 방침이나 목표가 각 주마다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연방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 교육과정을 제정하였으며, 공공 언어 사용에 대한 법령과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는 데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공공 언어 정책을 수립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다. 난해한 표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2010년 ‘쉬운 글쓰기 법(Plain Writing Act)’을 공표하였고, 2011년 5월 1일 미국 연방 정부는 쉬운 글쓰기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걸쳐 발표했던 연방 관보의 행정 명령, 의회 의안, 법률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 5.2. 공공 언어 사용 법령 및 지침

2010년 공표된 ‘쉬운 글쓰기 법(Plain Writing Act)<sup>11)</sup>’은 미국의 공공 언어 정책을 전면적으로 살펴볼

11) 쉬운 글쓰기 법령은 표면적으로는 표기 규범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구두법, 문체, 단어 선택, 문장 구성

수 있는 것으로, 각 연방 정부의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시민들의 개인 언어생활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연방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은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는 공공문서를 비롯한 개인 기록 및 개인 문서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법령에서는 ‘대중이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정부와의 명확한 소통’을 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대중에 대한 연방 기관들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법률>

대중에게 발표되는 정부 문서를 명확하게 작성함으로써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 및 기타의 다른 목적을 위한 것임.

1조. 간략한 제목. 이 법안은 “2010 쉬운 글쓰기 법”이라고 한다.

2조. 목적. 이 법률의 목적은 대중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정부와의 명확한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연방 기관들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3조. 정의. 이 법률에서

(1) 기관—“기관”이란 용어는 미국 법령 5의 105조에 정의된 대로 책임 집행 기관을 의미한다.

(2) 적용 문서—“적용 문서”라는 용어—

(A) 다음 문서를 의미한다.

(i) 연방 정부 혜택이나 서비스를 얻거나 세금 납부 신고에 필요한 문서

(ii) 연방 정부 혜택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iii) 연방 정부가 관리하고 시행하는 요구 사항을 대중이 따르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

(B) (종이든 전자적 형태이든) 편지, 발간물, 양식, 공고 또는 지시를 포함한다.

(C)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쉬운 글쓰기—“쉬운 글쓰기”라는 용어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잘 구성되어 있고 아울러 주제 또는 분야 그리고 대상 독자에게 적합한 다른 최상의 관례들을 따르는 글쓰기를 의미한다.

4조. 연방 기관들의 책임

(a) 쉬운 글쓰기 요구 사항의 시행을 위한 준비—

(1) 일반 사항—이 법률의 시행일 후 늦어도 9개월 이내에 각 기관의 장은 다음을 행해야 한다.—

(A) 해당 기관의 이 법률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1명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기관 내에서 지정한다.

(B) 이 법률의 요구사항을 해당 기관의 고용인들에게 알린다.

(C) 해당 기관의 고용인들에게 쉬운 글쓰기를 교육시킨다.

(D) 이 법률의 요구 사항에 해당 기관이 지속적으로 따르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E) 문단 (2) 이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당 기관의 웹 사이트에 쉬운 글쓰기 섹션을 작성하고 유지하며, 이 섹션은 해당 기관 웹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F) 아래 사항에 대한 대중 의견을 접수하고 대응하는 1명 이상의 기관 연락책을 지정한다.

---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표기법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정서법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표기 규범의 한 예로 살펴보려고 한다.

12) 다음 누리집을 참조할 것. ([www.plainlanguage.gov/contactus.cfm](http://www.plainlanguage.gov/contactus.cfm)).

- (i) 이 법률의 기관 시행, 그리고 (ii) 5조 이하에서 요구하는 기관 보고
- (2) 웹 사이트- 문단 (1)의 (E) 아래에 설명된 쉬운 글쓰기 섹션-
  - (A) 기관이 이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르고 있음을 대중에게 알려야 하며
  - (B) 아래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대중 의견을 접수하고 대응할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 (i) 이 법률의 기관 시행, 그리고 (ii) 5조 이하에서 요구하는 기관 보고

(b) 새 문서에 쉬운 글쓰기를 활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 이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각 기관은 해당 기관이 발행하거나 상당히 수정하는 모든 적용 문서에 쉬운 글쓰기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c) 지침-

- (1) 일반 사항- 이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늦어도 6개월까지 관리 예산처의 장은 이 조의 요구 사항 시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발행해야 한다. 관리 예산처의 장은 하나의 주도 기관을 지정해도 좋으며, 지침을 마련하고 발행하는 데 도움을 줄 기관 간의 실무 그룹을 사용해도 좋다.
- (2) 임시 지침-문단 (1)의 지침이 발행되기 전에 기관들은 다음의 지침을 따라도 좋다.
  - (A) 쉬운 글쓰기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가 개발한 글쓰기 지침,
  - 또는 (B) 해당 기관의 장이 제공한 것으로, (A)에 언급된 지침과 일맥상통하는 지침.

## 5조. 의회 보고

- (a) 초기 보고- 이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늦어도 9개월까지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웹 사이트의 쉬운 글쓰기 섹션상에 이 법률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해당 기관의 계획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 (b) 연례 준수 보고- 이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늦어도 9개월까지 그리고 이후 매년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웹 사이트의 쉬운 글쓰기 섹션상에 이 법률의 요구 사항을 기관이 준수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 6조. 사법적 검토와 강제성

- (a) 사법적 검토- 이 법률 조항의 준수 또는 비준수에 대해 사법적 검토는 하지 않는다.
- (b) 강제성- 이 법률의 어떤 조항도 어떤 행정적 내지 사법적 행위에 의해 강제될 수 있는 실질적이거나 절차적인 권리 또는 혜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7조. 이 법률에 대한 페이고(PAYGO) 입법의 예산 효과. 이 법률의 예산상 효과는 2010년 예산 한도 (Statutory Pay-As-You-Go) 법을 준수할 목적으로, 이 법률에 대한 “페이고 입법의 예산 효과”라는 제목의 최신 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하원예산위원회 의장에 의해 국회기록보관소에서 인쇄하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단 이 과정은 그러한 보고서가 진행 중인 투표 전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원 대변인  
미국 부통령 및 상원의장

2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인 ‘영어 사용자와 정부의 의사소통’을 명시하고 있으며, 언어 사용의 효율성과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다. 3조에서는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방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문서나 공공 행정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쉬운 글쓰기가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하며, 무엇보다 독자의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 외에 법률의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기관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6조에서 제시한 것처럼 법률의 효력이나 적용의 강제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연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 법률의 적용을 적극 장려하되 이후 하위 기관에서 이를 적극 홍보할 수 있으나 자율적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2010 쉬운 글쓰기 법’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이후 2011년 1월 18일 ‘행정 명령 13563호 대통령 문서’로 승인되었으며, 4월 13일 ‘행정부 및 기관장에게 보내는 지시 사항’이 각 기관으로 전달되었다. 이는 ‘2010 쉬운 글쓰기 법’에 대한 최종 시행 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열린 정부 계획 목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잘 짜인 글을 쉬운 글쓰기로 간주하고 전문 용어, 중복 표현, 애매성 및 불명확성을 피하는 데 필요한 세부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쉬운 언어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PLAIN, [www.plainlanguage.gov](http://www.plainlanguage.gov))’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대중에게 보급하고 있다.



<쉬운 언어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PLAIN, [www.plainlanguage.gov](http://www.plainlanguage.gov))> 누리집

2011년 7월에 누리집이 완전히 구축되었으며, 선임 공무원들과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대중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그 내용을 계속 수정하였다. 결과적으로 2011년 5월 13일 ‘연방 쉬운 언어 지침’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각종 기관이나 교육 정책을 통해 적극 보급되었다. ‘연방 쉬운 언어 지침’의 서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 문

쉬운 언어 행동과 정보 네트워크(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 PLAIN)는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명확한 의사소통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에 충실한 연방 직원들의 커뮤니티이다. 우리는 90년대 중반에 이 문서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명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최신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몇 년마다 그 문서를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다. 이 문서가 유용하고 여러분이 - 그리고 여러분의 기관이 - 글쓰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음의 내용이 가능하기를 바란다.

- 필요한 것을 찾기
- 찾은 것을 이해하기
- 찾은 것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기 (이하 생략)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지침은 정부와 시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목표로 시행되는 것이며, 정부의 지침은 누리집을 통해 보급, 운영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쉬운 언어 행동과 정보 네트워크’는 일반 시민들의 글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갖는 강제성이나 법률적 지위는 현재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보급한 ‘쉬운 글쓰기 지침’을 살펴보면 세부 항목들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 글쓰기 전반에 필요한 내용에서부터 단어 선택, 철자, 구두법까지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식어를 지나치게 나열하거나 전치사 구를 사용하거나 문장의 도치를 권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문장의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문장만을 사용할 것을 의미한다.

Don't say	Say
a number of	several, a few, many
a sufficient number of	enough
at this point in time	now
is able to	can
on a monthly basis	monthly
on the ground that	because
an amount of X	X
be responsible for	must
in order to	to

전치사를 사용할 때에는 구 단위의 형태보다는 ‘to, of, on’ 등의 전치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 개 혹은 두 개의 전치사로 줄여 문장 쓰기를 할 경우 독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 기관의 문서나 공공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글쓰기를 적극 권하고 있다.<sup>13)</sup>

Don't say	Say
No approval of any noise compatibility program, or any portion of a program, may be implied in the absence of the agency's express approval.	You must get the agency's express approval for any noise compatibility program or any portion of a program.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전치사 구를 사용하여 문장의 첫 부분을 작성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어가 명확히 드러나는 문장을 사용하도록 권한다. 또한 전치사구의 삽입이나 도치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Change the double negative	To a positive
no fewer than ...	at least
has not yet attained	is under

13)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March 2011 Revision 1, May 2011)의 38쪽에 있는 표를 인용한 것임.

may not ... until	may only
when is not ... unless	is ... only if

또 다른 예로 이중 부정어를 살펴볼 수 있다.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거나 까다로운 부분에 해당하는 이중 부정을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이중 부정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sup>14)</sup>

쉬운 글쓰기 법률의 하위 지침서는 글 전개에서부터 문단 구성, 문장과 구 단위의 단어 선택, 철자, 구두법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철자를 포함하는 표기 규범과 구두법과 문체를 포함하는 글쓰기 상황을 위한 정서법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연방 정부에서 먼저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에 나서고 있다. 이후 교육 기관에까지 그 영향력은 점차 확산될 것이다. 지침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의 기본 원칙이 ‘삭제와 단순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복을 피하며 유의어를 썼던 기존의 글쓰기에서 탈피하여 동일한 단어를 중복 사용하고 복잡한 구조는 단순화시키고자 했다. 이는 기존에 문법적 오류로 분류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연중의 글쓰기를 보다 용이하게 만든 것이다.

언어 정책의 방향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어 철자 개혁과 쉬운 글쓰기는 영어 사용자의 문식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데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6. 호주

호주 영어의 표기 규범은 그 기준을 영국 남부에서 사용하는 영어에 두고 있는데, 연방을 선포한 후 독립된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언어문화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독립한 후 노아 웹스터가 미국 영어의 독자적인 노선을 강조하여 개척하고자 했던 것처럼 호주도 20세기 이후 영국 영어와는 다른 경향을 지니게 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미국 영어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변화된 언어 현상을 적극 수용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박영배(2001), 박종원(2001), 피터 로드니 외(2013), 위키피디아와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 6.1. 호주 영어의 변화

호주는 식민 초기부터 공식적인 문건이나 책 출판,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어 사무엘 존슨의 영어 사전에 인쇄된 영국 영어 철자법을 지켜 왔다. 영국 본토의 34배나 되는 광범위한 국토이면서도 영국,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지역 방언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평가받는다. 내륙에서의 고립된 언어생활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지역 차이가 형성되지 않았다. 초기 도시 형성 과정에서 시드니를 비롯하여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 항구 도시부터 빅토리아 주 해안선 가까운 멜버른, 브리즈번, 캔버라 등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국민 교육 수준과 교통 시설의 발달로 언어 사용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 영어의 기본 규범은 영국의 남부 표준 영어에 두고 있으며, 호주 정착민들의 대부분은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인들이 많았는데, 영국 런던이나 남부 지역 출신의 죄수였다<sup>15)</sup>. 이러한 영향 때문에 호주인이 사

14)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March 2011 Revision 1, May 2011)의 54쪽에 있는 표를 인용한 것임.

용하는 영어는 런던식의 토박이 발음처럼 빠르고 억양이 음악적이면서도 끝을 흐리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18세기 식민지 개척 당시부터 영국 관리나 교회 목회자가 사용하는 영어는 호주인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오늘의 영국 RP(Received Pronunciation) 표준 영어와 흡사한 것이다. 이는 국립호주방송위원회(Australia Broadcasting Commission)의 아나운서가 즐겨 사용하는 발음이다. 현재도 호주의 관청, 외교관, 교육 기관(특히 사립학교), 교회, 국제 상거래 종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호주의 언론 매체나 출판물에서 변화된 표기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화폐 단위를 파운드 대신 달러로 사용할 정도로 호주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미국 영어를 공공연하게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호주 국가 상원을 영국식 표기 'House of Lords'로 사용하지 않고 미국식 표기 'The Senate'로 수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철자나 발음 면에서도 미국식 영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이 현상은 더 심화되었으며, 공항에서 영국 영어인 'luggage' 대신 미국 영어인 'baggage'를 사용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호주의 주요 신문, 잡지, 소설 등에서도 철자나 어휘, 문장, 관용어 표현, 속어까지도 상당수가 미국 영어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보다 실용적이고 새로운 영어 변화를 흡수하여 차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가 된다.

## 6.2. 호주 영어의 표기 규범 변화

호주는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들처럼 표기나 문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와 규범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대학을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는 맥쿼리 사전(Macquarie Dictionary)<sup>15)</sup>의 영어를 호주 영어 표기의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 차원에서 발간한 Style Manual: For Authors, Editors and Printers<sup>17)</sup>, the Cambridge Guide to Australian English Usage<sup>18)</sup>, Australian Guide to Legal Citation 등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이 안내서에서 제공하는 표기 규범은 맥쿼리 사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 영어의 표기법은 일반적으로 미국 영어보다는 영국 영어에 가깝다. 이는 앞서 밝힌 바대로 호주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01년 1월 호주가 연방을 선포한 이래 진보적 공화주의에 힘입어 1945년부터 점차 영국 영어와 간결한 미국 웨스턴식 철자법을 함께 혼용하려는 풍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대

15) The convict settlers were chiefly Irish(30%) and Southern English. The Later had the strongest influence on the nature of Aussie English. Because of their largely urban origins, the English they used contained relatively few rural, faring terms and perhaps a greater preponderance of words considered to be less refined in polished English society.

S. Gramley & Kurt-Michael, Pätzold. *Survey of Modern English*, London: Routledge, 1992, 396p

16) 호주 영어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전으로 평가받으며, 대학 및 법조계 등에서 주로 인용된다. 브리즈번 교육 출판사에서 시작한 사전이었으나 맥쿼리 대학 언어학부에서 연구하고 맥밀란 출판사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출판 및 간행되었다. 호주 내 표준 영어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호주 영어의 용법과 표기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전이다. 2013년 10월 6판이 출판되었으며, 온라인으로도 출간되었다. (<https://www.macquariedictionary.com.au/> 참고)

17) 이 매뉴얼은 1966년 연방 정부 인쇄국(the Commonwealth 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처음 출간하였으며, 출판 및 인쇄를 위한 안내서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 안내서는 상업적 출판이나 전자 출력이 불가능하며, 호주 정부에서 1972년, 1978년, 1988년, 1994년, 2002년까지 제6판에 걸쳐 출판되었다. 최근 개정판에서는 전자 출판을 위한 글쓰기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인터넷의 영향으로 변화된 언어 환경에 필요한 전략과 용법을 제공하고 있다. (<http://australia.gov.au/publications/style-manual> 참고)

18) 2007년 팸 피터(Pam Peters)가 저술한 924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안내서이다. 영어 사전, 스타일 매뉴얼, 문법 등의 최신 호주 영어 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에 대한 대중의 설문 조사 및 호주의 스타일을 통해 언어 말뭉치를 근거로 기술한 것이다. 이 안내서는 호주 영어에 있는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정부에서 발행한 매뉴얼을 포함하여 최근 변화된 철자법, 문장 부호 및 단어 선택 등의 정보를 A부터 Z까지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생부터 교직원, 출판사 관계자, 전문 언론인들이 참고하는 안내서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안내서의 기술된 예문을 주로 참고하여 제시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표적인 예로 명사 어미에 ‘-or’과 ‘-our’가 오는 경우가 있다.

‘-or’과 ‘-our’이 혼용된 표기의 예	
arbo(u)r	armo(u)r
behavio(u)r	clamo(u)r
colo(u)r	demeano(u)r
endeavo(u)r	favo(u)r
glamo(u)r	harbo(u)r
hono(u)r	humo(u)r
labo(u)r	neighbo(u)r
ado(u)r	parlo(u)r
savio(u)r	savo(u)r
splendo(u)r	succo(u)r
tumo(u)r	vapo(u)r

1912년 호주 노동당의 공식 명칭이 ‘The Australian Labor Party’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미국식 단축 형인 ‘-or’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호주에서 발행하는 출판물 속에 심지어 동일한 장에서도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를 혼용하여 인쇄되는 경우가 많다.

팸 피터의 『호주 영어 용법에 대한 캠브리지 안내서(The Cambridge Guide to Australian English Usage, 2007)』에서 ‘labor’의 ‘-or’과 ‘-our’의 철자 빈도수를 비교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labour’이 95회, ‘labor’이 129회로 미국식 표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전문 출판사에서 미국 영어를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behaviour’의 경우 ‘-or’보다는 ‘-our’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haviour’는 99회, ‘behavior’는 10회 사용되었다. 학자들은 주로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에는 ‘-or’을 선호하며, 프랑스 어에서 차용한 단어에는 ‘-our’을 선호한다. 이런 영향 관계와 달리 언론이나 정부에서 선호하는 철자도 다르게 나타난다. 멜버른 시의 주요 신문은 거의 미국 영어의 철자를 따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소설이나 잡지류 기타 일반 출판물 중 일부는 간결하고 실용적인 웨스턴식 철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atre, centre, manoeuvre’처럼 ‘-er’보다는 ‘-re’를 선호하는 영국 영어의 영향이 호주 영어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ize’를 선호하며, ‘-ise’를 변이로 인정하고 있다. 호주 영어 사전에서는 이러한 예가 거의 드물다. 맥쿼리 사전에는 비록 ‘-ise’와 ‘-ize’의 혼용이 나타나지만, ‘organise, realise’처럼 ‘-ise’를 선호하는 예가 더 많다. ‘ae’ 또는 ‘oe’를 유지하는 예도 마찬가지로 있다. 일반적으로 ‘manoeuvre, paedophilia, foetus’ 등을 사용하지만 맥

19) -or/-our These are alternative spellings for a sizable group of abstract nouns, such as colo(u)r, favo(u)r, hono(u)r and humo(u)r. Both spellings are current in Australia, though the ratios between them in the ACE corpus vary considerably. The instances of labor (excluding references to the Labor Party) outnumber labour by 129:95, whereas behaviour outnumbers behavior by 99:10. The ratios for the rest lie in between. Spellings with -or are more often found in newspapers and magazines than book publishers, and were house style for newspapers with big circulations in Adelaide, Brisbane, Melbourne and Sydney during the 1980s and 90s. (중략) Official Australian usage has followed the British tradition, though -or spellings could be found in scattered sources in the nineteenth century, including regional newspapers and some legal codes.

Pam Peter, *The Cambridge Guide to Australian English Usage*, 2007, p. 580. 참고

쿼리 사전에서는 ‘e’를 선호하여 ‘pedophilia, fetus’ 등을 수용하고 있다.

미국식 표기를 선호하는 호주 영어의 예	
programme → program	sulphur → sulfur
enquire → inquire	burka → burqa
analogue → analog	pasty → pastie(food)
liveable → livable	on to → onto 또는 on to
guerrilla → guerilla	any time → anytime
yoghurt → yogurt	any more → anymore
veranda → verandah	all right → alright 또는 all right

그 외에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 모두 인정하는 예도 있다. ‘acknowledgement’와 ‘acknowledgment’, ‘abridgement’와 ‘abridgment’는 혼용 표기를 인정하는 예가 된다. 일상용어 중에서 통조림을 의미하는 ‘tin(영국 영어)’과 ‘can(미국 영어)’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식 표기라고 하는 호주 영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매우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 빅토리아 주의 교육부에서는 1970년부터 이를 승인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각종 언론에서도 이를 수용하였다. 그 외에 매뉴얼에는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큰따옴표 표지가 인쇄 매체의 구두법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영어 표기를 위한 키보드 배치도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호주의 경우 미국식 배치를 사용한다.

단어 표기는 전통적으로 영국 영어를 더 선호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영어로 전환하거나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예가 많으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외에 호주 영어만의 독창적인 표기나 단어 의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영어나 미국 영어가 아닌 호주 영어만의 어휘를 갖고 있거나 호주 원주민 언어의 영향으로 생겨난 독특한 명사(동물명이나 지명 등)가 있다.

독창적인 호주 영어의 예	영국 영어에서 의미가 변화된 예
mince(영), pressed(미), crushed(호) → 영국 고기를 잘게 저미는 행위	shout(영) 외침, 고함 → (호) 대접, 술 한 잔 사는 것
pepper(영), bell-pepper(미), capsicum(호) → 고추류 식물	station(영) 죄수 대기소 → (호) 가축 목장
single cream(영), coffee cream(미), cream(호) → 커피 속에 넣는 크림	paddocks (영) 들판 → (호) 울타리친 목장
gammon(영), hamsteak(미), pickled pork (호) → 훈제햄	bush (영) 숲속 → (호) 시골
	bungalow (영) 1층집 → (호) 모든 집
	field (영) 들판 → (호) 축구장 <sup>20)</sup>
	parker (영) 방한용 옷 → (호) anorak
	push-chair (영) 수레 달린 의자 → (호) stroller
	cinema (영) 극장 → (호) picture theatre

과거 영국에서 들어온 단어가 호주에서는 상징적 개념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예도 있다. 버스 정거장의 ‘station’은 호주에서 죄수들을 가둬 두는 대기소로 사용되었으나 훗날 소나 말 등 가축을 가둬 기르는 목장으로 의미 변화가 일어났다. ‘Seoul Station’은 호주 영어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목장’이 되며, ‘Seoul Railway Station’인 경우 ‘서울역’이 될 수 있다.

20) 영국 영어에서 축구장은 ‘football pitch’이다.

영국 영어	호주 영어
to support	to barrack for
to loafer sponger	bludger
pavement	footpath
dress	frock
fetch	get
hello	goodday
bungalow	house
sweet	lolly
field	paddock
electric fire	radiator
salon car	sedan
vest	singlet
cooker	stove
breakers	wreckers

이 표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 중에서 호주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호주 영어가 영국 영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체계나 영어 표기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인이 사용하는 물질 명사나 고유 명사 가운데 영국 영어나 미국 영어에서 찾아보기 힘든 호주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되고 차용된 독특한 토착 영어가 상당수 있다. 동식물의 이름이나 지명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baramundi(물고기 종류)’, ‘bandy-bandy(뱀 종류)’, ‘billabong(강이 범람하여 호수가 된 경우)’, ‘banka-banka(물고기 종류)’, ‘boomerang(나무 무기)’, ‘cockatoo(큰 앵무새)’, ‘dingo(야생견)’, ‘gang-gang(앵무새 종류)’, ‘goanna(큰 도마뱀)’, ‘kai-kai(음식)’, ‘mallee(유칼리나무)’ 등이 있다. 지명으로는 ‘kwinana’, ‘waga-waga’, ‘wallaroo’, ‘wollongong’ 등이 있다.

호주 영어는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표기 규범은 초기 영국 영어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기 방식을 따르는 예가 많으며, 복수 표기를 인정하는 예도 많다. 또한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전문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표기 규범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표기 규범이 운영된다. 표기 규범은 법적 강제성보다는 관습법을 따르는 영어권 국가의 예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전문 기관의 사전 개발을 꾸준히 지원하며, 연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스타일 매뉴얼을 출판하고 배부하고 있다.

## 7. 독일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표기 규범을 비교적 늦게 완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법을 비롯한 표기 규범을 잘 운영한 대표 사례가 된다. 독일은 독일어를 공용어로 하는 주변 국가들과 국제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독일어 맞춤법에 적용하고자 했다. 독일은 독일어를 위한 국제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회의와 연구를 거쳐 맞춤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김원(2000), 김건환(2003), 이진희(2013) 등과 만하임의 독일어 연구소(IDS)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7.1. 독일의 표기 변화

독일은 1871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나의 독일 제국으로 탄생하였고, 이후 통일된 독일어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1880년 두덴(Duden)의 『프로이센의 학교 맞춤법』을 토대로 해서 『독일어 맞춤법 사전(das vollständige orthographisch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을 발간하였다(김건환, 2003:285). 이 사전은 27,000개의 단어를 수록하였으며, “말하는 대로 써라(Schreibe, wie du sprichst)”라는 기본 규칙을 갖고 있었다. 1901년 이 맞춤법 사전은 제 6판까지 인쇄되었으며, 국가에서는 1901년 정서법 회의에서 맞춤법과 어휘 용법을 제정하였다. 법이 공포되면서 독일의 모든 주에서 두덴 사전에 명기된 맞춤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1927년 7월 독일 정부 산하 내무부의 해당 부서에서 맞춤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후 1931, 1932년에는 독일 서적 인쇄업자들의 교육연합체가 ‘적절한 소문자 기재, 더 많은 띄어쓰기, 외래어의 독역화(獨譯化), 음철에 따른 분리, 장음 부호의 제거와 단음의 표시, 어려운 철자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요구하였다. 1984년부터 독일의 문교장관회의에서 새로운 맞춤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1986년 빈(Wien)에서 독일어권 국가들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7년 독일 만하임(Manheim)의 독일어 연구소(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가 맞춤법 개혁을 위한 제안서를 준비하게 되었다(김원, 2000, 김건환, 2003).

1992년 맞춤법 개정안은 계속적인 논의와 토론, 공청회를 거쳐 1996년 7월 1일 빈에서 독일어 사용 국가들과 관련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새로운 규정에 합의했다. 독일어 맞춤법을 보다 쉽게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오늘날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식적인 규칙서를 마련하고자 했던 다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만하임(Mannheim)의 독일어 연구소(IDS)<sup>21)</sup>에서 독일어 맞춤법을 위한 국제 위원회가 독일어 사용권 내에서 맞춤법의 통일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8월부터 10개 연방 주들이 학교에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였다. 1996년 9월 시작되는 학기부터 학교에서 새 정서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했으며, 1998년 4월 1일부터는 학교에서 새 맞춤법만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2004년부터 2005년 말까지는 옛 맞춤법을 틀린 것이 아닌 ‘낡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2006년 8월 1일 독일어권 3국(독일 연방 공화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공화국)은 새로운 독일어 맞춤법을 승인했다.

독일어는 영어나 프랑스 어보다 비교적 일정한 철자 규칙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변화를 겪게 되면서 언어 사용자와 주변 국가의 요구로 표기 규범을 수정하게 되었다. 수정된 내용은 크게 ‘어간 원리에 따른 음-문자 배열의 철자 변경’, ‘하이픈 사용’, ‘대소문자’, ‘구두법’, ‘분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외에 광범위한 어휘표가 추가되었다. 어휘표는 12,000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 독일어의 모든 어간 철자를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문어에서부터 일상어와 지역어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사용되었던 신어도 포함하게 되었다.

## 7.2. 개정된 맞춤법<sup>22)</sup>

독일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자소와 음소의 대응 관계의 문제로 표기법 논란이 시작되었다. 맞춤법 변화는 한 어족의 모든 단어들에서 한 어간의 똑같은 표기는 지키도록 하는 목표를 추구한다. 음(소리)과 문자

21) 이 연구소는 1964년에 설립한 현대 독일어 연구소이며, 1977년부터 새로운 맞춤법을 위해 독일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일어 연구를 위한 기초 말뭉치 자료부터 독일의 외래어 사전, 전후 독일어 연구, WiW 단어에 대한 지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누리집 주소는 [www.ids-mannheim.de](http://www.ids-mannheim.de))

22) 이 부분은 독일어 연구소(IDS) 누리집에 게시된 보고서(번역 강승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http://pub.ids-mannheim.de/laufend/sprachreport/sr96-extra.html> 참고)

배열은 외래어 기술을 포함하여 음과 문자의 관계를 어간 원리에 따라 정돈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변모음의 경우 변모음을 그대로 사용한다. 즉 ‘behende’는 그 어원이 ‘beider Hand’이므로 ‘behände’로 써야 하고, ‘Stengel’도 ‘Stange’에서 온 말이므로 ‘Stängel’로 써야 한다. 아래는 독일어 맞춤법 변화를 초기, 1996년, 2006년으로 나누어 표로 제시한 것이다.

Schiffahrt	Schiffahrt Schiff-Fahrt	Schiffahrt Schiff-Fahrt
Kammolch	Kammolch Kamm-Molch	Kammolch Kamm-Molch
Kenntnisstand	Kenntnisstand	Kenntnisstand
Mißstand	Missstand	Missstand
Meßergebnis	Messergebnis	Messergebnis
Meßstation	Messstation Mess-Station	Messstation Mess-Station

위의 예에서 합성어 어간이 그대로 보존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독일어는 합성 과정에서 똑같은 자음이 3개가 겹치더라도 항상 모두 쓴다. 예를 들어 ‘Ballett’와 ‘Tänzer’가 합치면 ‘Ballettänzer’가 아닌 ‘Ballettänzer’처럼 모두 써야 한다. 또 ‘Flußsand’는 ‘Flusssand’로 써야 하고, ‘Stoffetzen’은 ‘Stoffetzen’으로 쓴다.

띄어쓰기와 붙여 쓰기는 두덴(Duden) 정서법 사전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다. 단어 단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띄어쓰기가 붙여 쓰기보다 많다. 예를 들어 ‘radfahren/haltmachen’은 ‘Rad fahren/Halt machen’으로 띄어 쓴다. 또한 합성어를 기술할 때에도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쓰도록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aneinander/auseinander/beieinander’와 동사의 결합형은 ‘aneinander fügen’처럼 띄어 쓴다.

Rechtschreibung	Schulschreibung 1996	Schulschreibung 2006
preisgeben	preisgeben	preisgeben
achtgeben	Acht geben	achtgeben/Acht geben
maßregeln	maßregeln	maßregeln
maßhalten	Maß halten	maßhalten/Maß halten
kehrtmachen	kehrtmachen	kehrtmachen
haltmachen	Halt machen	haltmachen Halt machen
zusammensetzen	zusammensetzen	zusammensetzen
aneinandersetzen	aneinander setzen	aneinandersetzen
vorhanden sein	vorhanden sein	vorhanden sein
abhanden kommen	abhanden kommen	abhandenkommen
kennenlernen	kennen lernen	kennen lernen kennenlernen
liebenlernen	lieben lernen	lieben lernen

대문자와 소문자 쓰기에서도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언어들과 달리 독일어는 대문자 표기가 문장의 시작을 표시하고, 대문자 표기가 고유 명사나 존경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일 뿐 아니라

명사라는 품사를 분명히 드러나게 한다. 독일어에서 명사가 아닌 모든 품사가 문장 속에서 명사로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은 대문자로 사용될 수도 있다.

Rechtschreibung	Schulschreibung 1996	Schulschreibung 2006
abends	abends	abends
heute abend	heute Abend	heute Abend
angst und bange sein	angst und bange sein	angst und bange sein
angst und bange machen	Angst und Bange machen	Angst und Bange machen
pleite sein	pleite sein	pleite sein
pleite gehen	Pleite gehen	pleitegehen
leid sein	leid sein	leid sein
leid tun	Leid tun	leidtun
es ist recht	es ist recht	es ist recht
er hat recht	er hat Recht	er hat recht er hat Recht
zuliebe	zuliebe	zuliebe
zuleide	zuleide zu Leide	zuleide zu Leide

예를 들어 전치사와 명사 또는 동사와 명사의 결합형은 명사를 대문자로 쓴다. 또한 명사화된 형용사가 서수를 나타낼 때에는 대문자로 쓴다. 고정된 낱말 결합 속에 있는 형용사는 대문자로 쓴다. 예를 들면 ‘im klaren’은 ‘im Klaren’으로, ‘im folgenden’은 ‘Folgenden’으로 표기한다. 또한 때를 나타내는 표현은 ‘heute’, ‘(vor)gestern’, ‘(über)morgen’과 함께 쓴다. 즉 ‘heute mittage’은 ‘heute Mittag’으로, ‘gester abend’는 ‘gestern Abend’으로 쓴다. 분철법에서는 지금까지 띄어 쓰지 않던 ‘st’를 띄어 쓰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We-ste’, ‘Ka-sten’, ‘Mu-ster’는 ‘Wes-te’, ‘Kas-ten’, ‘Mus-ter’로 띄어 쓴다.

개정된 맞춤법은 규칙과 그 적용을 단순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예외와 특수한 경우들을 제거함으로써 기본 규칙들의 적용 범위를 넓혔고 체계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명확하고 통일된 관점에서 새 규정은 텍스트들의 판독 용이성을 보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언어의 발전을 관찰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명하고 일반적인 언어 변천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꾸준히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00년 이상 개정안을 위해 노력한 독일어 연구소와 현장 실무자, 사전 편찬가, 교사들 간의 긴밀한 공동 연구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을 정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예가 될 수 있다.

### 7.3. 개정 이후 남은 문제<sup>23)</sup>

1996년과 2006년 독일어 개정 이후에도 독일은 개정한 내용을 실제 언어생활 속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어는 다른 유럽어보다 표기할 때 그 특성이 잘 드러나는 언어에 속한다. 독일어는 문장 내에 위치한 명사도 대문자로 표기하는 관습이 있으며, 학자들은 이 표기 규정이 독일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표기 규범을 체계화하고 간소화하여 쓰기 쉽고 읽기 쉽게 하며 교육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어문 규범화의 최종 목표이다. 그러나 지난 100여 년간의 독일어 맞춤법 규정에 대한 논의에서 대문자와 소문자 표기 문제는 띄어쓰기와 붙여 쓰기 문제와 함께 가장 난해한 대상이다. 1996년 맞춤법

23) 이 부분은 이진희(2013ㄱ), 이진희(2013ㄴ)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사회적으로 언어학적, 비언어학적 논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대문자 표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장 내에서 소문자 표기를 일반화하려는 맞춤법 개정주의자들의 입장은 명사의 대문자 표기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려는 입장이었다. 현행 독일어 맞춤법 규정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 대문자로 표기한다.

- 표제, 제목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표현
- 문장의 처음
- 명사와 명사화
- 명사가 아닌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고유 명사
- 명사가 아닌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관용어로 사용되는 명사구
- 존칭 대명사와 존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유 명사의 기준과 범위이다. 어떤 경우 고유 명사인지를 보통 명사인지를 명확히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대문자와 소문자 표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에서 고유 명사는 사람이나 지역, 나라, 기관 등을 지칭하는 경우로 한다.

- 인명, 종교나 신화에서의 고유 명칭, 별명 등

Johann Wolfgang von Goethe, der Apokalyptische Reiter, der Alte Fritz, Katharina die Große, Klein Erna

- 지명이나 지리적, 정치적 고유 명칭

Vereinigte Staaten von Amerika, Tschechische Republik, Neu Lützenau, Unter den Linden, An den Drei Pfählen, Holsteinische Schweiz, Bayerischer Wald, Stiller Ozean, Kleine Antillen, Großer Belt

- 다양한 대상의 고유 명칭

Kleiner Bär(별자리), der Fliegende Hamburger(열차 명칭), das Alte Rathaus(라이프치히), die Große Mauer(중국), die Alte Eiche(나무), Großer Österreichischer Staatspreis für Literatur(상훈)

- 기관, 기구, 단체, 조직, 기업체 등의 명칭

Deutscher Bundestag, Statistisches Bundesamt, Naturhistorisches Museum(빈), Grünes Gewölbe(드레스덴), Zweites Deutsches Fernsehen, Klinik für Innere Medizin der Universität Rostock, Akademie für Alte Musik Berlin, Vereinte Nationen, Internationales Olympisches Komitee, Allgemeiner Deutscher Automobilclub, Deutsche Bank, Deutsche Bahn, Hotel Vier Jahreszeiten, Gasthaus zur Neuen Post, Rheinisch-Westfälisches Elektrizitätswerk AG, Sächsische Neueste Zeitung, Dermatologische Monatsschrift, Die Zeit(신문)

- 비공식적인 고유 명칭, 약칭 또는 약어

Schwarzer Kontinent, Ferner Osten, J. W. v. Goethe, SPD(=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 DGB(= Deutscher Gewerkschaftsbund), EU(=Europäische Union), SBB(=Schweizerische Bundesbahn), ORF(= Österreichischer Rundfunk)

그러나 ‘Unter den Linden’, ‘An den Drei Pfählen’, ‘Die Zeit’에서처럼 전치사나 관사의 대문자가 표기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준다. 맞춤법 개정 이후에도 고유 명사의 범위와 고유 명사가 동사, 형용사, 전치사 등과 결합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독일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독일어 맞춤법 개정의 기본 취지는 읽는 이의 입장에서 표기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끼치지 않으면서 글쓴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명사의 대문자 표기는 독일어 고유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표기상의 강조 효과로 정보 전달력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읽는 이의 입장에서 눈에 띄어 가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 사회는 명사의 대문자 표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개정주의자들이 글쓴이의 편리성을 위해 문장 내에서 대문자 표기를 간소화하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고유 명사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표기법의 규정화 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출된다.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의 경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하면 고유 명사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데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명사로 시작되지 않는 고유 명사의 경우에 더욱 증폭된다. 명사가 아닌 구성 성분까지도 대문자 표기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는 한글 맞춤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한글 맞춤법의 개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개정 내용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개정의 목적과 방향이다. 독일어에 대한 논쟁처럼 언어적 특성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언중의 독해와 글쓰기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언중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표기나 규범의 단순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 후 실제 언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처리 과정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개정의 목적과 취지일 것이다.

## 8. 프랑스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언어 정책으로 자국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가장 큰 언어 쟁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영어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프랑스는 자국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언어 정책 기관을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맞춤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프랑스 학술원 누리집 자료와 이재영(1993), 한문희(2003), 이재영(2008), 정희원·위진(2011), 최이정(2011)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8.1. 프랑스의 언어 정책과 표기 변화

프랑스의 주요 언어 정책 기관으로는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Française)’과 ‘프랑스 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sup>24)</sup>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학술원은 이탈리아 학술원을 본받아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프랑스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랑스 학술원의 주요 목표는 대다수의 프랑스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용어를 등재 기준으로 하여 사전을 발간하는 것이다. 프랑스 학술원 사전을 발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전문 분야 신어의 순화어

24) ‘프랑스 언어들’이란 프랑스 내의 75개 지방 방언인 브르타뉴어, 알자스어, 바스크어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를 주로 심의하는 것이다. 프랑스 학술원 사전은 현재 9판이 발간 중이며 프랑스 어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현대 프랑스 어는 1789년 혁명과 함께 국가차원의 공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언어 환경의 변화로 민간 차원에서 표기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프랑스 학술원은 언어 변화에 매우 보수적 태도로 대응하거나 관습적 규범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노력은 계속 나타났고, 1832년 프랑스 학술원이 새로운 맞춤법을 제안하였으며 국가에서 정식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이후 공공의 채용시험에서 프랑스 어 표기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프랑스 학술원과 국립과학연구소 철자 구조 연구팀(CRNSHESO)이 프랑스 어 철자 구조 체계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다.

1953년 유네스코 직원들이 프랑스 어 철자의 간소화를 주장하였으며, 1960년 프랑스 과학원이 이를 지지하며 간소화 운동을 펼쳤으나 프랑스 학술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1989년 초등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민간단체에서 『철자를 살립시다(Que vive l'orthographe)』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로써 맞춤법 개정 에 대한 논쟁이 또 다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작가, 지식인, 우파 세력 등은 맞춤법 간소화를 반대하였다. 1990년 프랑스 총리가 2,000개의 단어와 문법 규칙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프랑스 어가 갖고 있는 보수성은 1995년 ‘프랑스 어 사용법(일명 투봉법, La Loi de Toubon)’으로 공식화되었다. 프랑스 어법은 모든 공식적인 문서를 비롯하여 각종 매체, 상품 거래 등에서 프랑스 어가 아닌 언어가 사용될 수 없음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과학 연구 분야나 무역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 프랑스 어법이 일부 수정되게 이르렀다.

프랑스 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은 1966년 고위 위원회를 구성하고, 1984년 프랑스 어 자문위와 프랑스 어 사무국을 설립했다. 프랑스 어 자문위는 프랑스 어의 사용과 보급, 프랑스 어권(La Francophonie), 프랑스의 언어들, 프랑스의 외국어 정책에 관련되는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 후 여러 차례 기관이 개편되면서 프랑스 어 총괄국이 오늘날 프랑스 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이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어 사용을 감독하고, 유럽 연합과 프랑스 어권의 국제기구를 통해서 프랑스 어와 언어적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프랑스 어가 갖고 있는 보수성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다.

투봉법이 프랑스 어의 보수성을 보여 주는 예라면 최근 개정된 맞춤법과 신어 목록은 그와 상반된 예에 해당한다. 프랑스 학술원과 프랑스 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에서는 맞춤법 개혁을 요구하는 여러 단체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그러나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래어를 전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언어 환경이 급변하게 되었다. 1990년 맞춤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프랑스는 벨기에, 퀘벡 등 프랑스 어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표기 규범을 제안하였으나 두루 적용되지 못하였다. 2009년 르 프티 로베르(Le Petit Robert) 출판사에서 새로운 표기법을 반영한 사전을 출판하였으며, 2012년 프랑스 학술원에서 『맞춤법 개정안(Les rectification de l'orthographe)』을 새롭게 발표했다. 같은 해 라로스(Larousse) 출판사에서 6,000개 이상의 단어를 수정한 사전을 출판하였다.

## 8.2. 개정된 맞춤법

2012년 발표한 맞춤법 개정안은 이전 맞춤법을 부분 개정한 것으로, 이전 표기 규정에 제시된 단어 목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였다.

첫 번째 규정은 ‘악상 시르콩플렉스(accent circonflexe)’와 ‘트레마(tréma)’에 관한 것이다. 악센트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며, 합성어의 경우 단어 구성을 명시하는 표시이기도 하다. 프랑스 어의 악센트는 ‘악상 그라브(accent grave)’, ‘accent aigu(악상 테귀)’, ‘accent circonflexe(악상 시르콩플렉스)’ 등의 부호가 있다. 예를 들어 ‘céder’형 동사의 경우 인칭 변화에 따른 악센트 부호가 달라진다. 동사가 단순 미래형인지 조건법 현재형인지에 따라서 동사 형태에 따라 ‘é’가 ‘e, è, ê’ 등의 형태로 전환된다. 이런 복잡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악센트 부호를 일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일반 동사의

활용 외에 대명 동사의 변화, 다양한 변칙들을 많은 부분 수정하고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근본 취지는 프랑스 어 철자법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점과 모순을 극단적으로 바로잡아 규칙화하기 위한 것이다.

**Règle générale :** Quelle que soit leur origine, les mots étrangers se coulent le plus possible dans l'orthographe française et, lorsque deux orthographes coexistent, on choisit la plus francisée (cacahouète, dorade, iglou, squatteur, supporteur ...). Ainsi :

**1. On ajoute un accent à chaque fois que nécessaire :**

- accent aigu (diésel, artéfact, pizzéria, véto, vadémécum)
- accent grave (à capella, à priori, à minima, faciès, condottière)

**2. Les pluriels suivent les règles françaises habituelles (un/des stimulus un/des minimums)**

**Sauf** quand ils ont valeur de citation : dans ce cas, il est recommandé de les écrire en italique (éventuellement avec une majuscule). Ex: chanter des *requiem*....

**Noter :** on utilise comme singulier la forme la plus fréquente : macaroni(s), paparazzi(s)

**3. On francise en « -eur » les terminaisons étrangères qui se prononcent -eur : un rockeur, un squatteur (différent du verbe squatter).**

**Liste non exhaustive :** babyboueur, cutteur, scooter ou scooteur suivant la prononciation...

**4. On francise l'orthographe pour respecter la prononciation**

- Permet de différencier le 'ponch' de 'avoir du punch'
- mais on tient compte du fait que certaines graphies étrangères, anglaises en particulier (comme *foot*), sont devenues familières à la majorité des utilisateurs du français.

**Liste non exhaustive :** acuponcture, gourou, goulache, pouding *mais* foot...

3번 항목은 영어와 같은 외래어를 자국어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예가 된다. 맞춤법이 일시에 개정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프랑스 어가 갖고 있는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 영어 명사 뒤의 '-er'는 '-eur'로 쓰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leader', 'speakeur', 'babyboueur', 'scooteur' 등의 표기 방식이다. 이전 시대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영어식 표현을 수용하되, 프랑스 어식 접미사나 어미를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변화된 언어 환경을 고려하여 복수 표기를 허용하는 한편 프랑스 어의 기본 형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 외 복합 명사의 복수도 지금까지와 달리 단어 끝에 's'를 붙이며, 발음과 철자를 가깝게 하여 변칙이 없도록 한다. 예를 들어 'oignon'은 'ognon'으로, 'souffler'에 맞추어 'boursouffler'으로, 'cil'에 맞춰 'dessiller'을 사용한다. 이런 변화는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어 맞춤법을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 중에서 지나치게 급진적인 것은 실제 연중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많다.

**1. Les numéraux sont systématiquement écrits avec un tiret : trois-cent-cinq ... Permet de distinguer quarante-et-un tiers (41/3) de quarante et un tiers (40 + 1/3)...**

**2. On écrit en un seul mot les mots précédemment unis par un trait d'union quand ils correspondent aux cas ci-dessous énumérés.**

**a) Les mots composés de deux mots et commençant par « contre » et « entre » :**  
contreplaqué, contrejour, entredeux

Attention : le « e » du préfixe disparaît devant une voyelle (contrattaque, entrouvrir)

Mais contre-amiral, contre-la-montre, entre-deux-mers (contre et entre ne sont pas des préfixes dans ces contextes)

'줄표(le trait d'union)'의 삭제도 주목할 만하다. 1번 항목처럼 프랑스 어는 숫자를 쓸 때나 2번 항목처럼

럼 ‘contre’와 ‘entre’로 시작하는 합성어의 경우 줄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표기를 단순화하기 위해 과감히 이를 삭제하도록 개정하였다. 그 외에 동사와 명사, 동사와 tout로 구성된 합성어, 명사와 형용사 요소로 구성된 합성어, 불변화 접두사 혹은 라틴어 접두사와 결합한 합성어, 관용 합성어로 된 외래어 등은 연결 부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합성어는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이 합성어를 언중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연결 부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00 이상의 숫자나 합성어가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프랑스 어의 수 표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barbe-de-capucin(식물)’, ‘langue-de-boeuf(식물)’, ‘bonnet-d’évêque(요리, 건축)’ 등이 있다. 다만 이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하나만 은유일 경우는 연결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연결 부호를 최대한 줄이며, 수 표기나 은유 표현처럼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에 줄표를 사용한다. 표기 규칙을 축소하면서 적용 방법을 최대한 단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복수형에 대한 표기도 변화된 내용에 포함된다. 프랑스 어는 성, 수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를 표기할 때에는 명확한 차이가 드러난다. 복수 표지도 앞서 언급했던 합성어나 구와 마찬가지로 꽤 복잡하다. 즉 결합한 모든 단어에 복수 표지를 다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단어에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명사와 동사가 결합한 합성어,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 외래어의 복수형 등의 경우 마지막에만 복수형 표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불필요하게 복수형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마지막 단어만 복수 표지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추가적으로 외래어의 복수형인 경우 매우 불규칙적인 복수 표지를 가지고 있으나 보통의 단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argüer (déplacement du tréma)	coincain (suppression du tiret)
artéfact (accent sur ‘é’)	colle (inchangé, à la différence de ‘girole’, ‘corole’...)
asséner (au lieu de ‘assener’, prononciation modifiée)	combattivité (au lieu de ‘combativité’, famille de ‘battre’)
assidument (suppression de l’accent sur ‘u’)	comparaitre (suppression de l’accent sur ‘i’)
asseoir et ses composés (au lieu de ‘asseoir’)	condottière (accent ajouté pour franciser)
auto-immune (trait d’union pour éviter ‘oi’)	connaitre (suppression de l’accent sur ‘i’)
auto-induction (trait d’union pour éviter ‘oi’)	contigüe, contigüité (déplacement du tréma)
babyboumeur (suppression du tiret)	continument (suppression de l’accent sur ‘ü’)
ballotage (au lieu de ‘ballottage’, formé sur ‘ballot’)	contrattaque (suppression du tiret)
balloter (au lieu de ‘balloter’, formé sur ‘ballot’)	contre-amiral (exception à la règle)

이것은 개정된 맞춤법에 제시된 단어 목록으로 기존의 형태를 괄호 속에 제시하고 있다. 트레마나 악센트 부호가 수정, 삭제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sup>25)</sup> 예를 들어 ‘connaitre’는 동사 ‘connaître(알다)’에서 악센트를 삭제한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급진적 변화는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는 맞춤법 개정이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보수성 때문에 대중들에게 외면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어 단어 목록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단어 사용을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프랑스의 맞춤법 개정은 보수 세력과 급진 세력 간의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철자법의 간소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맞춤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충분히 언어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공식화할 수 있으나 언중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언중의 요구는 연구자나 지식인들의 주장만큼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 개정안은 법적 강제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표기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개정 이전의 표기 방식을 다양한 형태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자 했다. 기존의 표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개정 후 표기법을 초등 단계의 교육기관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사용하도록

25) 같은 책 16쪽 인용.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맞춤법은 프랑스어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화 되고 있으며, 단어 목록들도 예외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신어나 영어의 사용을 절대 금지했던 국가 기관 및 보수 언론에서는 이를 정면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개정된 내용은 점차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점차 온건한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 9. 스페인

스페인어는 언중이 매우 포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언어이다. 넓은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말하기와 쓰기는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페인어의 발음과 어휘가 급격하게 변했다.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면서 스페인 왕립 한림원에서 표기 규범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여기서는 스페인 왕립 한림원과 한림원 연합회 활동을 중심으로 표기 규범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1999년부터 개정된 표기 규범과 이후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스페인 학술원 누리집 자료와 서경덕(2000), 이만기(2013) 등의 연구를 근거로 기술하고자 한다.

### 9.1. 스페인 왕립 한림원<sup>26)</sup>과 표기 변화

스페인 왕립 한림원(Real Academia Española, RAE)은 스페인어 규정을 총괄하는 왕립 학술 기관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페인어 학회 연합을 통해 21개의 한림원 연합회와 제휴하고 있다. 스페인 왕립 학술원은 사전과 문법서의 주요 출판처이다. 여기에 낱말을 등재하기 위해 공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페인 한림원의 스페인어 사전(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de la Real Academia Española, DRAE)이 가장 중요한 저서이다. 이것은 현재 23판까지 출판되었다. 2009년 『스페인어 신문법서(Nueva gramática de lengua española)』와 2011년 『스페인어 맞춤법(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을 출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법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714년 펠리페(Felipe) 5세가 스페인 중앙집권 정치의 산물로 스페인 왕립 학술원을 만들었다. ‘소리와 어휘를 품위 있고 세련되고 순수하도록 하기 위해(Limpia, fija y da esplendor)’라는 기치를 내걸고 스페인어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술원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어 맞춤법 규정을 만들어 1741년 ‘오르토그라피아’(Ortographía, 2판부터는 Ortografía로 표기했다) 1판을 발행했다. 이는 그 이후 1844년 왕의 칙령으로 스페인에서 공식 규정으로 자리 잡았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스페인어권 국가에서도 채택되었다. 한림원 연합회는 스페인 왕립 한림원(1714), 콜롬비아 한림원(1871), 에콰도르 한림원(1874), 멕시코 한림원(1875), 엘살바도르 한림원(1876), 베네수엘라 한림원(1883), 칠레 한림원(1885), 페루 한림원(1887), 과테말라 한림원(1887), 코스타리카 한림원(1923), 필리핀 한림원(1924) 등으로 매우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음운과 맞춤법의 새 규정(Nuevas Normas de Prosodia y Ortografía)』(1959)에서 어문 규범의 개혁이 단행되었으며 이 규정은 다른 국립 언어 학회와 협의를 통해 계속 조정되었다. 현행 규정과 실제 권고는 『오르토그라피아(Ortografía)』(1999) 최신판에 나와 있다.

스페인 왕립 학술원에서 편찬한 사전(DRAE)은 반도 스페인 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26) 스페인 왕립 학술원에 대한 설명은 위키백과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ko.wikipedia.org/wiki/%EC%8A%A4%ED%8E%98%EC%9D%B8\\_%EC%99%95%EB%A6%BD\\_%ED%95%99%EC%88%A0%EC%9B%90](http://ko.wikipedia.org/wiki/%EC%8A%A4%ED%8E%98%EC%9D%B8_%EC%99%95%EB%A6%BD_%ED%95%99%EC%88%A0%EC%9B%90))

했다. 하지만 실제 특정 지역의 스페인어를 표준어로 간주하지 않는다. 스페인어권 전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모두 인정해 주고자 했다. 스페인의 언어정책은 스페인어권 국가를 모두 포괄하는 '다양성 속에서의 단일성 추구'라고 집약할 수 있다. 중남미와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스페인어 어휘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스페인어라는 언어의 골격이 되는 문법을 통일시키고 있다. 문법 골격은 하나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 화자들은 별 문제없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별, 국가별로 존재하는 발음의 차이, 어휘의 상이한 사용법 등이다. 한림원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거쳐 중남미 국가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DRAE 사전에 등재하도록 한다. 스페인어의 다양성 속에서의 단일성을 추구하는 한림원의 정책은 표준어와 방언의 이분화에서 표준어 위주로 언어정책을 펴고 있다.

DRAE 사전에는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로 상이한 어휘를 모두 인정하여 등록하면서도 맞춤법은 표준 정책을 취하고 있다. 맞춤법이 국가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면 스페인어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중에서 'seseo(Z나 C를 e와 i 앞에서 S로 발음하기)'의 /θ/ 발음을 /s/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발음은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과 중남미 전 지역에 걸쳐 퍼져 있는 일반화된 발음 현상이다. 이를 따르면 'casar(결혼하다)'와 'cazar(사냥하다)'가 동일한 것으로 발음되게 된다. 만약 맞춤법이 없다면 'seseo'로 발음하는 지역에서는 두 어휘를 동일한 철자인 'casar'로 표기하여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ll/ 발음을 /y/로 발음하는 'yeísmo' 현상도 중남미와 스페인 남부 지방에서 흔한 것이다. 한림원에서는 이 발음 현상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발음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표준 발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맞춤법에서는 해당 어휘를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calló(조용히 했다)'와 'cayó(떨어졌다)'는 의미가 다르지만 'yeísmo'로 발음하는 화자들은 두 어휘를 모두 'cayó'로 발음할 것이다. 발음이 이렇게 동일할지라도 두 단어의 표기는 서로 다른 알파벳인 'll'과 'y'로 구분해야 한다. 'seseo'와 'yeísmo' 현상은 발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표기는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스페인어 맞춤법을 보여 주는 예가 된다.

## 9.2. 개정된 맞춤법

DRAE에서 2011년에 1999년판을 수정·보완하여 『스페인어 맞춤법(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을 발행하였다. 개정된 맞춤법은 스페인어 철자법 체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규범에만 얽매이지 않는 합리적인 맞춤법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역사적인 정보를 고려하여 맞춤법을 기술하되, 합성어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정된 맞춤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이만기, 2013:241-2).

ㄱ. 두 글자로 구성된 ch와 ll 철자를 알파벳(자모, abecedario)에서 배제한다.<sup>27)</sup>

ㄴ. 알파벳 철자의 이름을 하나로만 단일화시킨다.

27) *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2011) 1장의 1.1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a	B b	C c	Ch ch	D d	E e	F f	G g	H h	I i	J j	K k	L l	Ll ll	
a	be	ce	che	de	e	efe	ge	hache	i	jota	ka	ele	elle	
M m	N n	Ñ ñ	O o	P p	Q q	R r	S s	T t	U u	V v	W w	X x	Y y	Z z
eme	ene	eñe	o	pe	cu	erre	ese	te	u	uve	uve doble	equis	ye	zeta

En realidad: **ch** y **ll** son dígrafos, signos ortográficos compuestos de dos letras. Desde la cuarta edición del *Diccionario académico* (1803) vienen, sin embargo, considerándose convencionalmente letras —cuarta y decimocuarta, respectivamente del abecedario español—, por el hecho de que cada uno de ellos representa un solo fonema. A petición de diversos organismos internacionales, la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 acordó en su X Congreso (Madrid, 1994) reordenar esos dígrafos en el lugar que el alfabeto latino universal les asigna. Así pues, en el *Diccionario*, las palabras que comienzan por **ch** se registrarán en la letra C entre las que empiezan por **ce** y **ci**; las que comienzan por **ll**, en la letra L entre las que empiezan por **li** y **lo**. En el resto de la ordenación alfabética, las palabras que contengan **ch** y **ll** en otras posiciones distintas a la inicial pasarán a ocupar el lugar que en la secuencia del alfabeto universal les corresponde.

- ㄷ. 스페인 어로 차용된 외래어와 라틴어의 q 철자의 경우 ‘quorum>cuórum’처럼 스페인 어 철자 c 로 대체한다.
- ㄹ. 이중 모음, 삼중 모음에 표시하였던 강세 표시를 제거한다. ‘guion’, ‘truhan’, ‘fie’, ‘liais’ 등이 있다.
- ㄴ. 애매한 경우에도 단일 부사와 지시 대명사에 붙였던 강세 표시를 제거한다.
- ㄷ. 이접 접속사 ‘o’에 표기하였던 강세를 없앤다.
- ㄸ. 접두사 표기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exmarido’, ‘ex primer ministro’ 등으로 한다.
- ㄹ. 외래어, 라틴 어원 표기와의 비교

(이하 생략)

두 글자로 구성된 ‘ch’과 ‘ll’는 하나의 음소를 나타내는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철자가 아니므로 스페인 어 철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 어는 27개의 철자로 줄어들게 되었다. 철자가 삭제된다고 해서 발음 체계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라틴 알파벳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다. 이는 1994년 열린 제10차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 학술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도 하다. 철자의 이름을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경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 어 철자 중에서 일부는 지역별로 전통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v’는 ‘uve’, ‘ve’로, ‘w’는 ‘uve doble’, ‘ve doble’, ‘doble uve’ 등으로 사용된다. 언중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공통된 이름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스페인 어로 차용된 외래어와 라틴어의 철자를 대체하는 것이 있다. q는 스페인 어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외래어나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 q는 스페인 어로 차용되어 /k/로 소리 나는 경우 스페인 어 음소체계에 따라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어원에 대한 조항은 마지막에 표기 비교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스페인어로 완전히 차용되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큰따옴표와 이탤릭체로 구별하는 표기 방식에 해당한다.

그 외에 주목할 것은 강세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스페인 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solo’라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부사와 ‘홀로’라는 형용사로 사용된다. 지시사 ‘este, ese, aquel’ 등의 단어는 대명사로도 기능하지만 한정사로도 기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부사 ‘sólo’와 대명사 ‘éste’에는 강세를 표기하였으나 앞으로는 문맥상 애매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강세 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solo’는 부사와 형용사로, ‘este’는 지시 대명사와 지시 한정사로 표기될 수 있다. 이들 단어에 강세로 각 범주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스페인 어의 강세 표기 규칙에 근거한 것이다. 즉 스페인 어 어휘가 2음절 이상인 경우 끝에서 두 번째 음절 위치(llano)에 강세가 오면 정상적 강세 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강세 표시를 하지 않아도 이들 단어가 강세 단어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페인 어에서 동일한 철자로 이루어진 두 종류의 단어에 강세를 표기하여 구분하는 경우는 단일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강세 단어와 무강세 단어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정해서이다. 예를 들어, 강세대명사 ‘él’과 무강세 정관사 ‘el’이 그것이다. 기존 방식인 강세 표기의 장점은 이들 단어가 다음과 같이 문장 내에서 애매한 경우, 강세의 표기로 그 기능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4.6.4. Otros casos de tilde diacrítica

a) *sólo / solo*

La palabra *solo* puede funcionar como adjetivo o como adverbio. Ejemplos:

*A Tomás le gusta estar solo. Solo tomaremos fruta.*

Cuando quien escribe perciba riesgo de ambigüedad (*Estaré solo un mes*), llevará acento ortográfico en su uso adverbial.

Ejemplos:

*Este verano estaré solo un mes.* ('estará en soledad, sin compañía').

*Este verano estaré sólo un mes* ('solamente, únicamente un mes').

*A él le gusta tomar solo el café.* (Sin tilde nace la ambigüedad. ¿Le gusta tomar café en soledad? ¿Le gusta tomar café sin que le acompañe nadie?).

La palabra *solo*, tanto cuando es adverbio (*Solo trabaja de lunes a viernes*) como cuando es adjetivo (*Está solo en casa todo el día*), son voces que no deben llevar tilde. No obstante, las reglas ortográficas venían prescribiendo el uso diacrítico de la tilde en el adverbio *solo* para distinguirlo del adjetivo *solo*, cuando en un mismo enunciado eran posibles ambas interpretaciones y podían producirse casos de ambigüedad, como en los ejemplos siguientes: *Trabaja sólo los domingos* ('trabaja solamente los domingos'), para evitar su confusión con *Trabaja solo los domingos* ('trabaja sin compañía los domingos').

Sin embargo, puesto que ese empleo tradicional de la tilde diacrítica no opone en estos casos formas tónicas a otras átonas formalmente idénticas (requisito prosódico que justifica el empleo de la tilde diacrítica), ya que tanto el adjetivo *solo* como el adverbio *solo* son palabras tónicas, a partir de ahora se podrá prescindir de la tilde en estas formas incluso en casos de doble interpretación.

Las posibles ambigüedades son resueltas casi siempre por el propio contexto comunicativo (lingüístico o extralingüístico), en función del cual *solo* suele ser admisible una de las dos opciones interpretativas. Los casos reales en los que se produce una ambigüedad que el contexto comunicativo no es capaz de despejar son raros y rebuscados, y siempre pueden resolverse por otros medios, como el empleo de sinónimos (*solamente* o *únicamente*, en el caso del adverbio *solo*), una puntuación adecuada, la inclusión de algún elemento que impida el doble sentido o un cambio en el orden de palabras que fuerce a una sola de las interpretaciones. En todo caso, estas posibles ambigüedades nunca son superiores en número ni más graves que las que producen los numerosísimos casos de homonimia y polisemia léxica que hay en la lengua.

(원문 속의 예문)

Trabaja sólo los domingos. ('오직'이라는 부사로 사용된 경우)

Trabaja solo los domingos. ('혼자서'라는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

¿por qué aquéllos libros usados? ('저 사람들'이란 지시 대명사로 사용된 경우)

¿por qué compraron aquellos libros usados? ('저 중고책들'이라는 지시형용사로 사용된 경우)

그러나 맞춤법 규칙에 따르면 끝에서 두 번째 음절 위치에 강세가 오는 단어의 강세 표시를 앞으로는 하지 않게 된다. 기존 방식으로 강세를 표기한 경우는 문장 내에서 애매한 경우 그 기능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애매한 경우에는 대부분 담화상의 문맥이나 어순의 변화 등을 통하여 해당 단어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발음과 어휘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언어 용법을 인정하면서도 표기는 동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강세 표시의 삭제는 이접 접속사 'o'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경우 숫자 '0'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강세 표시를 사용했었다. 스페인 어 발음 규칙에 따르면 접속사 'o'는 무강세로서 음운론적으로 강세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o 2'와 '102'처럼 강세 표시가 아닌 띄어쓰기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어는 사용자가 넓은 지역에 걸쳐 이동하면서 언어 변화를 급격히 겪게 되었다. 이 때문에 스페인 왕립 학술원이 주도하여 스페인 어의 표기 규범을 정비하게 되었다. 철자의 복잡한 체계나 발음의 차이, 소리의 변화를 고려하여 표기 규범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스페인 어는 표기 규범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소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언어 규범을 정비한 대표적인 예가 된다.

## 10. 브라질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공식어는 포르투갈 어이며, 거대한 영토 때문에 단일한 언어 형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법은 표준 체계를 마련하여 반드시 기본적인 규칙을 따르도록 한다. 포르투갈 어는 스페인 어와 유사한 변화 과정을 겪었으며, 맞춤법 개정도 매우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최근 이루어진 협정을 중심으로 포르투갈 어의 맞춤법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이 부분은 김한철(2009), 임두빈(2008), Tufano, Douglas(2008)을 참고하였으며, 그 밖의 신문 기사 및 위키피디아 자료를 인용하였다.

## 10.1.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변화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포르투갈어는 포르투갈 본토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쓰이는 유럽 포르투갈어와 구별된다.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경우 교재 이름을 브라질 어라고 할 정도로 구별하여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어는 유럽 포르투갈어와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모두 인정하는 복수 표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포르투갈어(즉, 포어)가 생성된 후 16세기까지 철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어떤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발음조차 표준화되지 않고 다르게 쓰였다. 예를 들어 ‘i’와 ‘y’의 차이가 없으며, ‘m’, ‘n’, ‘til(~)’가 같은 발음을 생성하는 경우(예: am, an, â)에도 표기상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6세기 무렵 포르투갈어가 고전 문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이를 숭상하는 차원에서 라틴어의 특징을 취하기 시작했다. 일부 지식인들은 어원에 근거한 쓰임을 규정하려고 했으나 형태의 왜곡과 변이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철자법은 구어체와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ph(pharmacia)’, ‘ch(Achilles)’, ‘th(lythografia)’ 등과 같이 두 글자가 하나의 발음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p(esculptura)’, ‘c(character, fructo)’, ‘g(regno(reino))’ 등과 같이 첨가 문자를 임시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외에 이중 자음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도 많았다. 이처럼 임시로 사용하는 철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불편을 야기하게 되었다. 그 후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포르투갈어의 철자법을 표준화하고 단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1911년 포르투갈어가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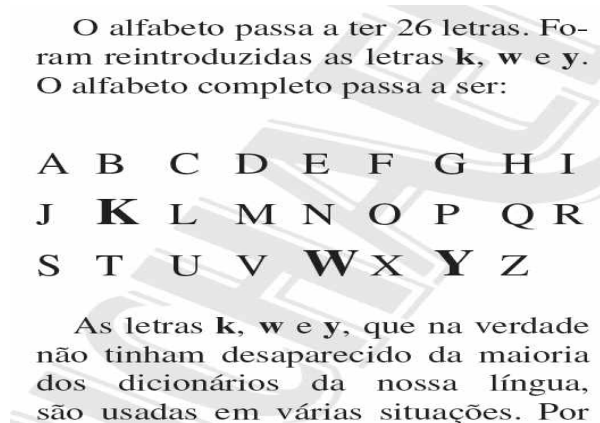
첫 번째 철자법 개정은 표기의 단순화와 구어체로의 접근을 강조하였다. ‘th, ph, rh’ 등의 자음군이 제거되었으며, ‘y’와 ‘i’를 함께 사용하던 위치에 ‘y’는 ‘i’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tt, ll’ 등의 이중 자음은 폐지되었으며, ‘rr, ss’만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강세 표기의 규칙화로 당시까지 강세 표기가 없던 단어에 강세 표기를 하게 되었다. 철자법을 개정하였지만 브라질과 포르투갈 간의 철자 차이는 여전히 상당했다. 1943년 브라질에서도 철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브라질과 포르투갈 양국 간의 표기법은 좀 더 유사하게 되었다. 묵음인 자음을 제거하고, ‘k, w, y’ 등의 문자는 제거하였으며, 어휘 중간의 ‘h’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결국 중간의 ‘h’는 ‘c, l, n’ 다음에만 사용되도록 하였다. 그 외에 라틴어가 기원인 ‘x, ss, sc’에 ‘x’를 사용하며, ‘s’가 라틴어로부터 파생된 경우 발음이 ‘z’이더라도 ‘s’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 이외에 표기상의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강세 표기, 고유 명사의 표기, 줄표와 ‘ç’의 사용, 음절 분해, 대문자와 소문자, ‘j’와 ‘g’의 사용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1971년 브라질의 새로운 철자법이 공포되었는데, 강세 표기와 관련하여 브라질과 포르투갈 간의 언어 차이를 제거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어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후 맞춤법 개혁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였으며, 1990년에 맞춤법 개혁이 한 번 더 이루어졌다.

## 10.2. 개정된 맞춤법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공동체(CPLP: Comunidade dos Países de Língua Portuguesa)에서 여러 단계를 걸쳐 철자 일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2009년부터 새로운 맞춤법을 공식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새로운 맞춤법은 1990년 12월 16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브라질, 포르투갈, 앙골라, 모잠비크, 상토메이브린시비, 카부베르지, 기네비사우 등이 서명하고 이후 동티모르가 추가적으로 서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포르투갈어 철자법 협정(Acordo Ortográfico da Língua Portuguesa)’을 근거로 하여 브라질에서는 1995년 4월 18일 법령 54호를 승인하였다. 이 협정은 철자법에 대한 것으로 문어체 포르투갈어에 한정된 것이며 구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식어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철자법의 차이를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철자법 단일화를 위

한 한걸음 전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브라질의 교육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0년에는 모든 교육용 교재에 새로운 맞춤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후 2012년까지 입학시험, 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시험 응시자가 이전 맞춤법을 사용할 경우 틀린 것으로 채점하지 않았다. 이처럼 변화된 맞춤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규정으로 알파벳의 변화, 분절 표시, 강세 표시, 하이픈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알파벳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이전 시대에 삭제되었던 알파벳 ‘k, w, y’가 다시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포르투갈어의 알파벳 숫자가 총 26개가 되었다.



그 동안 ‘k, w, y’는 포르투갈어 알파벳에 들어가지 않아 외국인 이름, 지명, 국제 단위를 기록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맞춤법 규정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악센트가 떨어져 나간 단어들도 있다. ‘idéia(사상, 생각)’, ‘jibóia(구렁이)’는 각각 ‘ideia’, ‘jiboia’로 표기되고, ‘crêem(믿다)’, ‘dêem(주다)’, ‘lêem(읽다)’, ‘vêem(보다)’의 악센트가 삭제되어 ‘creem’, ‘deem’, ‘leem’, ‘veem’으로 표기된다. 그 밖에 ‘enjôo(멀미나다)’, ‘vôo(비행)’, ‘pára(멈추다)’, ‘polo(극)’, ‘pêlo(털)’, ‘pêra(배)’에서도 악센트가 삭제된다. 그러나 단어에서 악센트 구분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pôr(동사)’와 ‘por(전치사)’는 품사 구별을 위해 악센트 표기를 한다. ‘pode(poder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와 ‘pôde(poder 동사 3인칭 단수 완전과거형)’는 시제 구별을 위해 악센트 표기를 한다. ‘ter’ 동사와 그 파생형인 ‘conter’, ‘deter’, ‘manter’, ‘reter’ 등의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tem’과 ‘têm’로 나누어 표기해야 한다. ‘vir’ 동사와 그 파생형인 ‘advir, convir, intervir’ 등의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는 경우도 ‘vem’과 ‘vêm’으로 나눈다.

하이픈(hípen)은 ‘intra, ante, anti, super, pré, sub, pan’ 등의 실제 접두사와 ‘aero, bio, eletro, macro, micro, mini, multi’ 등의 접두사가 두 번째 요소와 결합될 경우 사용하도록 한다. 포르투갈어 표기 규범에서 하이픈은 가장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포르투갈어는 접두사 다음의 요소가 h로 시작되는 경우에 하이픈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anti-higiênico’, ‘mini-hotel’, ‘super-homem’ 등이 있다. 또한 접두사의 마지막 모음이 두 번째 요소의 첫 모음과 동일한 경우에 하이픈을 사용한다. ‘anti-ibérico’, ‘auto-observação’, ‘contra-almirante’ 등이 이에 해당한다.

## Trema

Não se usa mais o trema (¨), sinal colocado sobre a letra **u** para indicar que ela deve ser pronunciada nos grupos **gue, gui, que, qui**.

### Como era

agüentar  
argüir  
bilíngüe

### Como fica

aguentar  
arguir  
bilíngue

그러나 ‘co’의 경우 두 번째 요소가 ‘o’로 시작하더라도 하이픈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외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coobrigação’, ‘coocupante’ 등이 있다. 그 외에 접두사의 마지막 모음과 두 번째 요소의 첫 모음이 다를 경우엔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aeroespacial’, ‘autoestrada’처럼 표기할 수 있다. 또 접두사가 모음으로 끝나고 두 번째 요소가 ‘r, s’가 아닌 자음으로 시작될 때 사용하지 않는다. ‘anteprojeto, microcomputador, pseudoprofessor’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가 된다.

그 밖에 예외 없이 꼭 하이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휘를 연결하여 특별히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pont Rio-Niterói’, ‘eixo Rio-São Paulo’ 등이다. 또한 복합어의 개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 하이픈을 사용하지 않는다. ‘girassol’, ‘paraquedas’, ‘pontapé’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새로운 표기 규범을 적용해 보면 ‘anti-semita(반유대주의자)’, ‘Contra-regra(반칙)’은 각각 ‘antisemita’, ‘contrarregra’로 표기할 수 있다. 알파벳 ‘ü’를 ‘trema’가 없는 ‘u’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frequência’, ‘linguiça’ 등으로 표기하게 된다.

브라질 포르투갈 어는 유럽 포르투갈 어와는 용법상의 차이가 있으며, 유럽 포르투갈 어가 고수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성장하면서 유럽식을 고수했던 표준 맞춤법에서 탈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2년부터 전면 개정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개정된 맞춤법을 적용하면서 바뀌게 된 표기는 전체 11만 단어 중에서 거의 2천 개에 이른다.

맞춤법 개정의 목적은 광범위하게 분포한 포르투갈 어를 통합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브라질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계약에서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에서도 단일한 표기 형태로 검색할 수 있어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브라질은 맞춤법 개정의 효과를 경제적, 사회적 이익으로 되돌려 받고자 하는 실제적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개정의 방향은 표기의 단순화, 사용의 용이성, 언중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 검색에서 더 간편해진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전 시대의 맞춤법은 철자는 비록 바뀌지만 발음은 유지한다는 방향성을 가졌었다. 그러나 문자는 음성의 시각적 표현이라는 입장과 대립하게 되었으며, 언어의 실제 사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최근 맞춤법 개정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인정하되, 통일된 표준 체계를 따른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말하기와 쓰기를 분리하여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표기 규범의 단순화와 체계의 통일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브라질 포르투갈 어는 스페인 어와 매우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언어 사용자가 거주하는 물리적 환경이 매우 다르며, 잦은 왕래 없이 고립된 채 오랜 시간이 지났다. 결국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매우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각 지역적 차이는 더욱 커져갔다. 포르투갈 어 사용자 간의 경제적, 사회 문화적 교

류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단계에 다다랐다. 결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언어 사용 국가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를 위해 인위적인 표기 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사용하도록 적극 권했다. 그러나 이전 표기 규범이 지닌 문제점이 점차 드러났으며, 이후 다시 표기 규범을 재수정하게 되었다. 먼저 알파벳을 정비하였으며, 이전 시대에 사용했던 복잡한 표기 규범을 과감하게 삭제, 수정하였다.

## 11. 정리

### 11.1. 요약

- <한글 맞춤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북한을 비롯하여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의 표기 규범을 살펴보았다.
- 북한의 어문 규범은 내용 면에서 표기 변화에 소극적이며 언어 변화에 대해 대개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조선말규범집』(2010)에서는 『조선말규범집』(1987), 『조선말띄어쓰기규범』(2000), 『띄어쓰기규정』(2003)을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변화가 있었다. 형태주의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차이를 드러내는 표기는 일부 수정하고 있다. 음소 문자인 한글을 음절 단위로 표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규범을 수정하여 그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언중이 사용하는 발음을 수용한 것은 표기 규범의 보급 및 실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 개선을 위해 북한의 어문 규범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자국의 고유한 문자를 갖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한자와 가나를 함께 사용하는 복잡한 표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복잡하지만 표기에 대한 오랜 역사가 있으며, 관습적으로 익혀 온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규제보다는 실제 사용 양상에 더 비중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일정한 표기법을 공표하고 한자 사용 방법과 소리 체계를 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어 표기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가 언중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표기 규범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 영어권 국가로 영국, 미국, 호주를 살펴보았다. 영어권 국가들은 대체로 중앙집권적 표기 규범을 사용하지 않거나 표기법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언어적 관습, 즉 철자와 용법을 유지하고 보급하도록 노력하였다. 사전학자나 출판업자들의 참여로 표기 규범을 표준화해 나갔으며, 언중은 이를 빠르게 흡수하였다. 그 결과 중앙 기관이나 연방 정부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언어 정책이 이루어졌다. 권위 있는 사전이나 국가 기관에서 출판한 매뉴얼 등이 표기 규범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영어는 오랜 언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와 소리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영어 철자 자체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쉬운 영어를 표방하는 철자개혁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영국 영어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 영어는 영국 영어와는 달리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었다. 연방 정부에서 1970년부터 공공 언어 사용의 용이성을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쉬운 글쓰기 법안을 마련하였다. ‘쉬운 언어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방 쉬운 언어 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 지침의 법적 강제성은 다소 약하지만 연방 정부와 하위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언중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정부 기관과 언중의 의사소통을 용

이하게 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호주는 영국 영어에서 출발하였지만 미국 영어의 영향으로 간편하고 명료한 표기 규범을 지향하고 있다. 호주 영어만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철자법을 포함한 글쓰기를 위한 정서법까지 보급하고있다. 대학이나 주요 언론 매체에서 매뉴얼과 안내서를 홍보하고 있으며, 호주 영어의 체계와 용법을 위해 사전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맥쿼리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자국어 사전 개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일 가이드나 글쓰기 매뉴얼을 만들어 꾸준히 배포하고 있다.

- 독일은 비교적 일정한 문자 체계를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만에 맞춤법을 개정하였다. 독일어권 국가들과 오랜 시간 합의를 거쳐 완성된 맞춤법은 그 시행 단계에서도 신중을 기했다. 언어 사용자가 맞춤법을 점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급에 따라 순차적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시범 적용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학문적 논의를 거쳐 개정 이전의 표기 형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독일의 표기 규범은 언어 고유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언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프랑스는 최근 영어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언어 환경도 변화하였다.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언어 정책자들도 프랑스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영어를 신어로 수용하되, 프랑스어의 특성을 활용한 표기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기존에 사용했던 악센트나 하이픈 등의 표기 방식을 과감하게 수정하였다. 자국어에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만큼 사용자의 편의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언론이나 지식인들은 여전히 자국어의 급진적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 스페인과 브라질은 해당 언어가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먼저 인지하였다. 심각한 발음 변화와 철자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동일한 언어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브라질 포르투갈어는 유럽 포르투갈어와 차이가 컸다. 알파벳을 정비하면서 발음의 차이는 수용하되 표기는 일치시키는 노력을 계속 시도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라 달라진 철자나 단어 목록을 포함한 복수 표준어 방식을 택했다. 발음의 변화는 인정하되, 맞춤법은 일관된 체계로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규범을 수정하여 단순화하였다.

## 11.2. 제언

○ 각국의 표기 규범은 언어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내용과 형식이 간소화되어 왔다. 규범을 과감히 삭제하기도 하며, 예외적 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규범으로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언어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표기와 소리의 불일치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자국어 변화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표기를 수정하기보다는 소리 변화를 반영한 표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대부분은 표기 규범의 개정 방향이 현실 언어를 수용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었다. 표기 규범은 글쓴이의 편리성과 독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각국의 언어 정책은 자국어를 통제하는 수단이면서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한글 맞춤법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언어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일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체계하에서 한글 맞춤법이 표기 규범으로 관리·운영되면서 동시에 언어 사용자의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화된 언어 환경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한글 맞춤법 개정을 위해 목표를 명확히 수립해야 하며, 정해진 목표에 따라 맞춤법의 성격과 개정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학문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동시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

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글 맞춤법의 보급을 위해 현재 한글 맞춤법의 체계와 내용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도 있다. 또한 개정 이후 발생할 문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표기 규범을 꾸준히 운영·관리해야 할 것이다.

## VIII. 총정리: 요약과 제언

한글 맞춤법에 대한 영향 평가는 2005년 7월에 새로 도입된 제도인 어문 규범 영향 평가에 근거한다. 국어 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본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는 한글 맞춤법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실질적 내용을 과업으로 하였다.<sup>1)</sup>

- ①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실태 조사 방법론
- ②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조사
- ③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 조사
- ④ 한글 맞춤법 관리 방법 개선 여부 및 개선 방향
- ⑤ 한글 맞춤법 오폭기 목록 추출
- ⑥ 북한 및 외국의 자국어 표기 규범 실태 및 특징

### 1.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실태 조사 방법론

-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구안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한국 갤럽이 조사하였고, 전문가 대상으로는 연구팀이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조사하였다.
- 일반인을 위한 설문 조사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어문 규범 영향 평가에서 사용되었던 조사 및 통계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일반인의 인식도, 이해도, 수용도를 설문 내용의 구인으로 정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집단 간 비율 차이 검정은  $z$  검정(Z-test) 비율 검정 혹은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통해서  $z$  검정 통계량을 구하였다. 또한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정을 위해서는 분산 분석(ANOVA)을 사용하였으며, 이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 사후 검정(Post hoc)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으로는 인식도를 묻는 것이 7개, 이해도와 수용도를 묻는 것이 23개 배당되었다.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누고 연령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나누었다. 직업별로도 12개 군을 설정하였고, 학력도 4개 군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일반인 설문 조사 방법은 일대일 면접 조사였으며, 전국적으로 1,025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갤럽이 대행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 한글 맞춤법에 대한 전문가 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은 기본적으로 정책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물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기 전에 연구팀 자체의 수차례에 걸친 델파이 기법으로 설문 문항을 대범주로 하여 만들었고, 그 이후로 이 안을 가지고 국어학자 10명, 언론인 11명, 출판인 11명, 국어 교사 10명, 국어정책전문가 11명 도합 53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하였다. 한글 맞춤법 규정 조항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1차로 전자 우편을 통해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2차 구체적인 맞춤법 조항의 논점에 대한 의식을 객관식으로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파악하였다.

1차 전문가 설문지에 한글 맞춤법 내용 범주를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전체로는 13문항 설문을

1) ○는 과업의 요약, □는 제언을 표시함. 이하 동일.

하였다. ‘총칙 - 한글 자모의 종류, 순서, 이름 - 두음 법칙 - 사이시옷 - 띄어쓰기 -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의 표기 - 기타 의견’으로 나누어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이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였다. 결국 객관식 6문항과 주관식 7문항이 주어진 셈이다.

대범주 차원의 1차 설문지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2차 설문지에는 구체적인 한글 맞춤법 수정 주장에 대한 의견을 객관식으로 적도록 하였다. 전체 20개 객관식 문항을 ‘한글 자모의 이름과 수 및 받침 글자 - 두음 법칙과 접미사 ‘-히’ 및 표기의 역사적 변천 고려 - 사이시옷 표기 - 띄어쓰기 - 맞춤법의 복수 인정 및 표준어 규정 - 맞춤법의 주제 및 폐지, 법적 지위’의 여섯 개 항목으로 내용상 나누어서 질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법적 지위와 교육 및 홍보 방안까지도 도출하였다.

- 2010년~2012년까지 있었던 어문 규범 관련 내용의 영향 평가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연구팀이 시행을 하였다. 그러다보니 영향 평가를 하는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고, 각 영향 평가의 양적 및 질적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문 규범 영향 평가라는 점에서 일정한 기준과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그 조사 통계의 전문성과 권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리라 본다.

## 2.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조사

-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를 묻는 문항은 7개이며 그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인식도 조사에서는 <한글 맞춤법> 규정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1에서 ‘그렇다’ 82.4%, 규정의 공적 효력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2에서 ‘그렇다’ 82.6%,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3에서 ‘그렇다’ 84.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글 맞춤법>의 교육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 6에서는 ‘있다’가 93.5%로 ‘없다’ 6.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규정 준수 노력에 대해 묻는 문항 5에서는 ‘그렇다’ 66.8%,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규정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 7-2에서는 ‘그렇다’가 56.4%로 문항 1~3에 비하여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았다.
- 이해도를 묻는 문항은 23개이다. ‘이 조항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라는 질문으로 개별 조항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이해도 조사 중 ‘그렇다’의 응답률 상위 5문항에 해당하는 조항

1. 제2항(총칙-단어 띄어쓰기) - 74.9%
2. 제11항(두음 법칙) - 71.2%
3. 제1항(총칙-맞춤법 원리) - 66.9%
4. 제9항(‘ㄴ’의 표기) - 66.4%
5. 제15항-붙임1-(2)(합성 용언의 표기) - 65.6%

### ▲ 이해도 조사 중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 상위 5문항에 해당하는 조항

1. 제47항(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 20.3%
2. 제40항-붙임 2(어간 ‘하’의 탈락 표기(생각건대)) - 19.3%

3. 제50항(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 19.0%
4. 제39항(‘잡’과 ‘참’의 준말 표기) - 18.6%
5. 제30항-2-(1)(사이시옷) - 18.2%

○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수용도 조사를 23개 문항으로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용도 조사 중 ‘그렇다’의 응답률 상위 5문항에 해당하는 조항

1. 제15항-붙임1-(2)(합성 용언의 표기) - 69.2%
2. 제9항(‘ㄴ’의 표기) - 69.1%
3. 제11항(두음 법칙) - 69.1%
4. 제2항(총칙 -단어 띄어쓰기) - 68.8%
5. 제5항(된소리의 표기) - 64.8%

▲ 수용도 조사 중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 상위 5문항에 해당하는 조항

1. 제43항(단위 명사의 띄어쓰기) - 25.0%
2. 제50항(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 23.9%
3. 제40항-붙임2(어간 ‘하’의 탈락 표기(예: 생각건대)) - 22.6%
4. 제47항(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 22.4%
5. 제30항-2-(1)(사이시옷) - 20.8%

○ 맞춤법 조항도 이해 잘 되고 실제 한글 표기 생활도 그렇게 하는, 즉 이해도와 수용도가 모두 높은 조항은 ‘단어 띄어쓰기, 두음 법칙, ‘ㄴ’의 표기, 합성 용언의 표기’ 항목이다. 반대로 이해도와 수용도가 공통적으로 모두 낮은 맞춤법 조항은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어간 ‘하’의 탈락 표기(생각건대),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사이시옷 표기’ 항목이다.

○ 개별 맞춤법 조항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는 어느 정도 일관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60대, 자영업, 중졸 이하 집단에서 낮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20대 혹은 30대, 학생, 대재 이상 집단에서 이해도와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일반인 의식 조사 결과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의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 결과 가장 보완이 시급한 것은 띄어쓰기 관련 조항이다. 특히 보조 용언 띄어쓰기와 전문 용어 띄어쓰기는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에서 모두 ‘그렇지 않다’ 상위 5문항에 포함되어 있다. 조항이든 예시든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원칙과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수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총칙에 해당하는 제1항과 제2항(단어 띄어쓰기)의 경우 이해도가 무척 높은 편이지만(각각 3위, 1위), 수용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각각 6위, 4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과 단어대로 띄어 쓴다는 원칙은 이해하지만 실제 한글 표기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다.

셋째, 두음 법칙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는 ‘그렇다’ 응답률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11항 ‘붙임 1 다만’에 해당하는 ‘렬, 룰’인지 ‘열, 율’인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이해도와 수용도 각각 7위와 8위). 조항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실제 한글 표기를 그대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나, 두음 법칙의 복잡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전셋집’이나 ‘숫자’와 같은 사이시옷 표기는 이해도나 수용도 모두에서 낮은 수치를 보여 준다.

맞춤법에서 사이시옷 표기는 어려운 것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시옷을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쉬운 맞춤법 표기로의 개정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다섯째, 각 문항 당 지역별 집단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렇다’의 경우에는 이해도에서 전라권이, 수용도에서 충청권이 응답률이 높은 문항들(10, 11, 15, 19, 29, 30)이 있었다. ‘그렇지 않다’의 경우 이해도와 수용도 모두에서 경상권의 응답률이 높은 문항(11, 12, 13, 16, 17, 18, 21, 29, 30)이 있었다.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한 <2013년 국민의 언어 능력 평가> 조사에서 16개 시도별 변인에 따른 조사 결과 충북, 대전, 충남의 충청권이 각각 1위, 2위, 4위를 전남 전북 광주가 5위, 7위, 13위를, 대구, 경남, 부산, 경북, 울산의 경상권이 10위, 11위, 12위, 14위, 15위를 차지하였다. 우리의 조사와 <2013년 국민의 언어 능력 평가> 조사 모두에서 경상권이 ‘그렇지 않다’ 응답률이 높거나 국어 능력 결과가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서 지역을 변인으로 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3.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 조사

#### 3.1. 1차 전문가 의식 조사 설문 결과

○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1차 전문가 의식 조사 설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수정 의견이 높은 조항

제30항(사이시옷) - 60.4%

제41항~제50항 (띄어쓰기) - 56.6%

제51항(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 표기) - 50.9%

제10항~제12항(두음 법칙) - 49.0%

##### ▲ 수정 의견이 낮은 조항

제1항~제3항(총칙) - 26.4%

제4항(한글 자모) - 28.3%

○ 한글 맞춤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글 맞춤법의 존치, 체계, 표현, 용어, 예시 및 개별 조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부분 일반인은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84.1%) 맞춤법 무용론이 극소수지만 제시되기도 했고, 체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자는 의견과 규정의 내용 위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게 나오기도 했다. 모호하고 불명확한 맞춤법 조항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수정하자거나 전문 용어를 쉽게 풀자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적인 예시 어휘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 한글 맞춤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다는 의견(30.1%)이 약하다는 의견(26.5%)보다 조금 많았지만, 보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9.6%로 제일 많았다. 개정 찬성 이유로는 현실 언어와 규정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고, 개정 반대 이유로는 맞춤법 개정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시되었다.

○ 개정 정도와 관련해서는 전면 개정(9.4%)보다 부분 개정(60.4%)에 대한 의견이 높았고, 개정의 수준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조항, 예시, 체제’ 순으로 조사되었다. 개정의 절차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반인을 참여시키자는 의견(30.2%)보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정하자는 의견(35.8%)이 조금 많았으나, 후자의 경우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개정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5년 이내에 하자는 의견(32.1%)이 많았으나 5~10년 사이에 하자는 의견(7.5%)이 두 번째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물론 빨리 개정할수록 좋다는 의견과 전면적인 개정은 통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3.2. 2차 전문가 의식 조사 설문 결과

-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2차 전문가 의식 조사는 1차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20문항으로 구체화하였는데, 특히 일정한 주장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식으로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수정 의견이 높은 주장

- 제43항(숫자와 의존 명사를 항상 붙여 쓰자는 주장) - 75.9%
- 제30항(순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말자는 주장) - 71.6%
- 제51항(어근에 ‘-하다’가 붙을 때 ‘-히’를 붙이자는 주장) - 71.2%
- 제4항(받침 글자의 종류와 그 순서를 규정에서 명문화하자는 주장) - 65.4%
- 제47항(보조 용언 띄어쓰기를 현실화하자는 주장) - 61.5%

#### ▲ 수정 의견이 낮은 주장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폐지하자는 주장 - 84.6%
- 제30항(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여섯 개로 한정하지 말고 늘리자는 주장) - 63.5%
- 제48항(성과 이름을 띄어 쓰자는 주장) - 61.5%
- 제4항(한글 자모의 숫자를 40개로 하자는 주장) - 61.5%
- 한글 맞춤법을 전문가용으로 하자는 주장 - 57.7%

- 수정 의견이 높은 주장 중 제43항(숫자와 의존 명사를 항상 붙여 쓰자는 주장)은 국어학자(80.0%)와 출판인(70.9%) 집단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제30항(순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말자는 주장)과 제51항(어근에 ‘-하다’가 붙을 때 ‘-히’를 붙이자는 주장)은 언론인 집단에서 각각 100.0%와 80.0%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제4항(받침 글자의 종류와 그 순서를 규정에서 명문화하자는 주장)은 교사(90.0%)와 국어정책 전문가(72.7%) 집단에서, 제47항(보조 용언 띄어쓰기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은 국어학자(80.0%) 집단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 수정 의견이 낮은 주장 중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교사(100.0%)와 국어정책 전문가(81.8%)와 출판인(72.7%) 등 대부분의 집단에서 수정이 필요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제30항(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여섯 개로 한정하지 말고 늘리자는 주장)은 국어학자(90.0%) 집단에서 수정이 불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제48항(성과 이름을 띄어 쓰자는 주장)과 제4항(한글 자모의 숫자를 40개로 하자는 주장)은 언론인 집단에서 각각 80.0%와 100.0%로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한글 맞춤법을 전문가용으로 하자는 주장은 국어정책 전문가(72.7%) 집단에서 수정이 필요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 3.3. 일반인과 전문가의 개정 의식 비교

-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식을 맞춤법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주목되는 점

이 있다. 일반인들이 실제 맞춤법 생활에서 잘 안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전문가들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여 보면 맞춤법 개정의 구체적인 항목 혹은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도록 하자.

일반인<수용도 낮은 것>	전문가 1차<개략>	전문가 2차<구체>
1. 사이시옷(제30항- 20.8%) 2.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제47항- 22.4%) 3. 어간 ‘하’의 탈락 표기(예: 생각건대)(제40항- 22.6%) 4.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제50항- 23.9%) 5. 단위 명사의 띄어쓰기(제43항- 25.0%)	1. 사이시옷(제30항- 60.4%) 2. 띄어쓰기(제41항~ 제50항- 56.6%) 3.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 표기(제51항- 50.9%) 4. 두음 법칙(제10~ 제12항- 49.0%)	1. 숫자와 의존 명사를 항상 붙여 쓰자는 주장(제43항- 75.9%)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말자는 주장(제30항- 71.6%) 3. 어근에 ‘-하다’가 붙을 때 ‘-히’를 붙이지는 주장(제51항- 71.2%) 4. 받침 글자의 종류와 그 순서를 규정에서 명문화하자는 주장(제4항- 65.4%) 5. 보조 용언 띄어쓰기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제47항- 61.5%) 6. ‘비열, 실패율’의 ‘열, 율’에 대해 애초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자는 주장(제11항- 50.0%)

- 위 표를 보면 일반인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맞춤법은 대체로 사이시옷 표기와 띄어쓰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반인의 맞춤법 생활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의견과도 비교적 일치한다. 전문가 1차 및 2차 조사에서 사이시옷 표기와 띄어쓰기가 수정해야 할 조항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 한편 전문가의 1, 2차 의견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1차 전문가 의견에서 수정해야 할 조항으로 나온 것은 구체적인 2차 설문 조사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시옷과 띄어쓰기 조항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 표기에서 ‘하다’가 붙는 것은 ‘히’로 적자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복잡한 두음 법칙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의식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정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 4. 한글 맞춤법 관리 방법 개선 여부 및 개선 방향

- 한글 맞춤법의 현 법적 지위 수준이 어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미비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았다. 한글 맞춤법의 현 법적 지위가 고시(告示) 수준으로 실질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언중의 준수 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인터넷에서의 지나치게 자유로운 언어생활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언어를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법적 지위는 현 수준, 즉 고시(告示)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현 법적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방송을 포함한 매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강제력을 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 홍보와 관련해서는 맞춤법 관련 방송, 캠페인, 책자나 어플리케이션, 맞춤법 검사기 보급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또 교육의 빈도나 기간을 확대하여 학창 시절에 맞춤법과 관련하여 올바른 사용 태도를 확립하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일반인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교육보다는 올바른 언어 환경 조성 등을 해서 자연스럽게 맞춤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 한글 맞춤법 관리 방향의 하나로 먼저 현 법적 지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현 법적 수준을 유지하되 매체 등을 통해 올바른 언어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교육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책 실행과 관련해서는 실행 기관에서 일반 언중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

여 보다 언중과 밀접한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글 맞춤법 관리 개선은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소위 맞춤법 대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칭 한글 맞춤법 대회를 학교별, 지역별, 전국적으로 확대해 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능 등 각종 시험에서 맞춤법 문항을 출제하는 것도 구체적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한글 맞춤법 오타기 목록 추출

- 본 조사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4권의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보고서(2000년~2004년)를 활용하여 <한글 맞춤법>에 근거한 표기 중 오류 빈도가 높은 항목과 그에 대한 오타기 목록을 추출하였다. 이 자료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일반 언중들의 구체적인 의식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의 ‘가나다 전화’, ‘온라인 가나다’를 활용하여 일반 언중들이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는 표기 및 조항도 살펴보았다.
-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로 제시된 용례는 총 714건으로, 띄어쓰기와 관련된 10개 조항을 제외한 47개 조항 중 29개 조항에서 오타기가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여 개별 조항별 오류 빈도와 띄어쓰기 유형별 오류 빈도를 빈도순으로 앞 순위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별 오류 빈도순

순위	관련 조항	내용	빈도	백분율
1	제30항	사이시옷	228	31.93%
2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 구별	73	10.22%
3	제18항	용언의 활용	70	9.80%
4	제11항	두음 법칙: 한자어 어두 /ㄷ/ 탈락 표기 규정	43	6.02%
5	제57항	의미 구별하여 적기	43	6.02%
6	제10항	두음 법칙: 한자어 어두 구개음 /ㄴ/의 표기 규정	38	5.32%
7	제40항	어간 끝음절 ‘하’의 준말	32	4.48%
8	제51항	부사 끝 음절 ‘이’/‘히’ 소리 적기	26	3.64%
9	제35항	어간 말음 ‘ㄱ, ㄷ’와 어미 ‘과/거, 갔/났’의 준말	24	3.36%
10	제53항	된소리가 나는 어미	23	3.22%
이하 생략(본문에 제시되어 있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0항의 ‘사이시옷’의 규정에 대한 오타기 빈도는 전체 오타기 빈도의 31.93%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사이시옷’ 표기 조항에 나타난 일관되지 못한 설명도 문제이거니와 최근에 국어사전에서 사이시옷 표기 용례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중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시옷’ 표기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 띄어쓰기 유형별 오류 빈도순

순위	정표기 유형	오타기 유형	관련 조항	빈도	백분율
----	--------	--------	-------	----	-----

1	수 관형사#단위성 의존 명사	수 관형사+단위성 의존 명사	제43항	1189	26.32%
2	체언#의존 명사	체언+의존 명사	제42항	1088	24.09%
3	관형어#의존 명사	관형어+의존 명사	제42항	914	20.23%
4	성명#관직명	성명+관직명	제48항	485	10.74%
5	체언+조사	체언#조사	제41항	431	9.54%
6	본용언#보조 용언	본용언+보조 용언	제47항	184	4.07%
7	열거하는 말 띄어쓰기	열거하는 말 붙여 씀	제45항	141	3.12%
8	수(만 단위로 띄어쓰기)	수(붙여 씀)	제44항	73	1.62%
9	성명 붙여 쓰기	성명 띄어 씀	제48항	612	0.27%

(‘+’는 붙여 쓰기, ‘#’은 띄어쓰기)

이 표에서 보듯이 언중들이 국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규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띄어쓰기’이다. 국어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써야 하느냐 붙여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어 간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는 조사,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 하는 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언중들의 언어생활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부분에서 띄어쓰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때로는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띄어쓰기’ 규정의 범위를 넓히거나 해당 조항에 대해 개념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 사전들과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 조항의 내용 및 설명이 보다 충실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글 맞춤법 오표기 목록 추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표기 목록을 추출할 것인지였다. 그나마 본 사업에서는 기존에 국립국어원에서 작업해 두었던 자료를 가지고 했지만, 사실 이 자료들도 2000년~2003년 것이어서 시의성이 떨어진다. 현대와 같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하는 이 시대에 한글 오표기 목록 추출 작업을 제대로 한다면 매우 큰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번 사업에서 오표기 목록 추출은 매우 작은 일부분으로 들어갔지만, 바로라도 단독 사업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생용, 중등학생용, 일반인용으로 나누어서 맞춤법 오표기 추출 작업은 그 처치(處置)를 위해서라도 긴급 필요한 일이다.

## 6. 북한 및 외국의 자국어 표기 규범 실태 및 특징

- <한글 맞춤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북한을 비롯하여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의 표기 규범을 살펴보았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곳들의 맞춤법 공통 특징은 ‘①규범의 간소화, 단순화, ②쉬운 언어 사용을 권장, ③소리 변화에 맞게 표기를 수정, ④의사소통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강조’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국가	표기 규범의 개정 및 특징
북한	○ 중앙집권적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조선어 신철자법(1950)’부터 ‘조선말규범집(1987)’까지: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갖게 적는 원

	<p>칙”: 형태주의 표기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개정된 ‘조선말규범집(2010)’: 현실음을 표기에 반영. 불규칙한 띄어쓰기의 예외와 붙임 조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표기 조항을 수정.</li> <li>○ 북한 맞춤법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음. 예) 레외, 락원, 녀자 등</li> <li>-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예) 수강아지, 수개, 수닭 등</li> <li>-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의 ‘어’를 ‘여’로.. 예) 기여(기어), 되여(되어)</li> </ul> </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어 표기 방식: 가타가나, 히라가나, 한자 혼용</li> <li>○ 중앙집권적 관리 및 운영 : 1981년 발표한 ‘상용한자표’를 2010년 개정</li> <li>○ 개정 이유: 정보화 시대 변화된 언어 환경 고려, 의사소통의 효율성</li> <li>○ 개정 상용한자표의 특징 : 법적 강제성은 다소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한자 추가, 음독과 훈독의 표준화를 강화</li> <li>- 법령, 공용, 문서, 신문, 잡지, 방송 등에 적용하도록 권장</li> </ul> </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기 규범을 국가에서 정비하지 않음. 표기 관련 전문 기관이나 연구 단체의 연구 결과를 선호함.</li> <li>○ 철자법 개혁의 필요성 대두: 18세기부터 철자법 통일하고자 노력함.</li> <li>○ 연구 기관: 철자 개혁 협회(The Spelling Reform Society)- 1908년 영국에서 설립, 매년 국제회의 주최 (2014년 4월 개최)</li> <li>○ 철자 개혁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음의 변화로 문자와 소리의 차이 발생. 이를 위해 철자를 수정</li> <li>- 쉬운 영어 사용과 철자 개혁으로 영어 사용자의 문식성과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li> </ul> </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철자: 노아 웹스터의 『영어 간이 사전』에서 출발</li> <li>○ 2010년 ‘쉬운 영어 글쓰기 법’(Plain English writing law) 공포</li> <li>○ 정서법(style manual) 및 쉬운 언어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PLAIN, <a href="http://www.plainlanguage.gov">www.plainlanguage.gov</a>)’를 구축.(2011년 5월 13일부터 일반에 공개)</li> <li>○ 연방 쉬운 언어 지침의 특징: 삭제와 단순화 예) 전치사구나 도치 문장보다는 주어가 명확한 문장, 반복적인 단어 사용을 허용함.</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및 전문 기관에서 표기 규범 연구하고 호주 정부가 이를 수용</li> <li>○ 초기의 영국 영어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표기로 변화</li> <li>○ 호주 정부에서 ‘스타일 가이드(Style manuel, 2013, 6판)’를 출판, 맥쿼리 사전(Macquarie Dictionary)을 온라인으로 공개함.</li> <li>○ 표기 규범의 내용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를 혼용한 표기 방식</li> <li>- 미국 영어를 선호하는 예가 증가됨.</li> <li>- 호주 원주민의 영향으로 독창적인 표기 존재(지명, 동물 및 식물명 등)</li> </ul> </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개입보다는 관습적으로 표기 규범을 유지함.</li> <li>○ 개정 이유: 변화된 언어 환경을 고려하여 독일어권 국가들의 협의</li> <li>○ 1996년 개정 후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을 2006년 재수정 : 표기 규범을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대표적인 사례</li> <li>○ 대표적인 연구 기관: 만하임의 독일어 연구소</li> <li>○ 개정 내용 및 특징: 단순화 및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줄표의 사용을 최소화</li> </ul> </li> </ul>

	- 대문자 표기를 허용하되 최소화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국가 중 표기 규범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국가</li> <li>○ 프랑스 학술원에서 지속적으로 표기 규범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 맞춤법 개정 후 부분 수정, 2012년 맞춤법 개정안 발표</li> </ul> </li> <li>○ 개정 이유: 영어 등의 외래어 사용 증가, 신어 및 전문어의 증가로 프랑스어의 고유한 특성 파괴 및 변화</li> <li>○ 개정 내용 및 특징: 하이픈을 삭제, 악센트 표기 삭제, 영어를 수용하되 프랑스어의 특성을 살리는 신어</li> <li>○ 대표적인 출판사 라로스 사전 출간: 6,000개 이상의 단어를 수정함.</li> </ul>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페인 왕립 학술원에서 지속적으로 스페인어를 관리함.</li> <li>○ 1999년 개정, 이후 부분 수정하여 2011년 ‘스페인어 맞춤법’을 발행</li> <li>○ 개정 이유: 지역, 국가별 소리 차이가 크며, 표기법도 다르게 적용함.</li> <li>○ 개정 내용 및 특징: 통일성과 간소화로 효율성을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파벳 철자의 이름을 하나로 통일</li> <li>- 두 글자로 된 철자 ‘ch’, ‘ll’를 과감히 삭제</li> <li>- 소리 변화 수용하되 철자법을 통일함.</li> <li>- 복수 표준어 선정</li> </ul> </li> </ul>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랫동안 표기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16세기까지 철자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함.</li> <li>○ 관습법에서 탈피하여 1911년에 맞춤법 개혁을 시도함.</li> <li>○ 1995년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간의 협의</li> <li>○ 개정 이유: 광범위하게 분포한 포르투갈어의 통합. 유럽의 포르투갈어와 남미의 포르투갈어의 차이가 매우 큼.</li> <li>○ 개정 내용 및 특징: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알파벳을 새롭게 정비, 강세, 분철, 하이픈의 과감한 생략</li> <li>- 2012년부터 브라질 모든 분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li> </ul> </li> </ul>

- 각국의 표기 규범은 언어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내용과 형식이 간소화되어 왔다. 특히 북한은 최근 규정을 과감히 삭제하기도 하며, 예외적 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으로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언어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표기와 소리의 불일치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자국어 변화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표기를 수정하기보다는 소리 변화를 반영한 표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대부분은 표기 규범의 개정 방향이 현실 언어를 수용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다. 표기 규범은 글쓰이의 편의성과 독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각국의 언어 정책은 자국어를 통제하는 수단이면서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한글 맞춤법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언어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일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체계 하에서 한글 맞춤법이 표기 규범으로 관리, 운영되면서 동시에 언어 사용자의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화된 언어 환경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글 맞춤법의 보급을 위해 현재 한글 맞춤법의 체계와 내용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도 있다. 또한 개정 이후 발생할 문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표기 규범을 꾸준히 운영, 관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강희숙(2003). 『국어 정서법의 이해』. 역락.
- 강희숙(2010). 『(개정판)국어 정서법의 이해』. 역락.
- 고창운(2006). 『한글 맞춤법 해설과 이해』. 경진문화사.
- 국립국어연구원(2001). 『한국 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국어연구소.
- 국어학회(1995). 『한글맞춤법·표준어사전』. 국어교육연구소.
- 기주연(2001). 『한글 맞춤법 안내』. 박이정.
- 김계곤(1979). 『한글 맞춤법 풀이』. 과학사.
- 김광희(2010). 『실무자를 위한 정서법과 바른 국어생활』. 학문사.
- 김남미(2013). 『100명 중 98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한국어 사용자의 필독서』. 나무의 철학: 토네이도미디어그룹.
- 김민수(1969). 『국어 표기법 사전』. 일조각.
- 김병제(1946). 『한글맞춤법 해설』. 정음사.
- 김봉모(1993). 『국어 정서법』. 세종출판사.
- 김봉모(2001). 『국어정서법강의』. 세종출판사.
- 김봉모(2007). 『국어 정서법 강의(증보판)』. 세종출판사.
- 김영선(2008). 『국어정서법: 우리말 바로쓰기의 이론과 실제』. 세종.
- 김정태(2005). 『(현행) 한글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 김진규(2011). 『국어 정서법의 이해』. 공주대학교 출판부.
- 김진호·정영벽(2012). 『생활 속 글쓰기의 어문 규범』. 박이정.
- 김현권(2000). 『프랑스어 발달사』. 한국문화사.
- 김희보(1980). 『한글 바로 띄어쓰기』. 종로서적.
- 나찬연(2002). 『한글 맞춤법의 이해』. 월인.
- 나찬연(2003). 『한글 맞춤법의 이해(수정판)』. 월인.
- 나찬연(2005). 『한글 맞춤법의 이해(개정판)』. 월인.
- 남광우(1971). 『국어 정서법안』. 일조각.
- 남영신(1990). 『우리말 맞춤법 표준어 사전』. 한강문화사.
- 독서와 논술 기획집필팀(2004). 『한글 띄어쓰기 큰 사전』. 휘닉스.
- 리의도(1999). 『(리의도 교수의) 이야기 한글 맞춤법』. 석필.
- 리의도(2004). 『(리의도 교수의) 이야기 한글 맞춤법(다듬판)』. 석필.
- 미승우(1982). 『맞춤법과 교정의 실제』. 어문각.
- 미승우(1988). 『새 맞춤법과 표준어 해설』. 지학사.
- 미승우(1994). 『(증보판)새 맞춤법과 교정의 실제』. 어문각.
- 민족문화사 편집부(2003).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외래어표기, 문장부호』. 민족문화사.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박대순(1999). 『(박대순의 맞춤법 이야기) 말글과 함께 숨쉬기』. 토마토.  
 박승빈(1936/1973). 『‘한글 맞춤법 통일안’ 비판』. 통문관.  
 박인환(2006). 『간추린 우리말 바로쓰기』. 지식산업사.  
 박종덕(2008). 『한글 맞춤법 연구』. 파미르.  
 박창원(2012). 『한국어 표기와 발음』. 지식과교양.  
 박형익 외(2008). 『한국 어문 규정의 이해』. 태학사.  
 북피아 편집부(2005). 『(새로운)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북피아.  
 북피아 편집부(2007). 『(새로운)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개정판)』. 북피아.  
 북한 국어사정위원회(1987).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출판사.  
 서덕주(2013).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부해야 할) 한글 맞춤법과 어법』. 형설.  
 서상준·손춘섭(2013). 『한국어 어문 규범』. 역락.  
 성기지(1998). 『맞춤법 사슬을 풀어주는 27개의 열쇠』. 박이정.  
 신창순(1992). 『국어 정서법 연구』. 집문당.  
 신창순·지춘수·이인섭·김종진(1992). 『국어 표기법의 전개와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안병희 · 이희승(1989/1994). 『한글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엄태수(2012). 『한글 표기법과 글쓰기에 관한 연구』. 지식과 교양.  
 여세주(2010). 『한국어 어문 규정 강의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정림사.  
 연규동(1998). 『통일 시대의 한글 맞춤법』. 박이정.  
 우형식(1995). 『국어 정서법』.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우형식(1997). 『국어 정서법(수정 증보판)』. 부산외국어대학교.  
 우형식(2004). 『한글과 정서법(3판)』.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원영섭(1993). 『초·중·고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띄어쓰기·맞춤법 용례』. 세창출판사.  
 원영섭(1995). 『(예문으로 배우는) 한글 맞춤법』. 세창출판사.  
 유태영(2007). 『(2주 완성) 한글 맞춤법』. 신구문화사.  
 유태영(2010). 『(2주 완성) 한글 맞춤법(개정판)』. 신구문화사.  
 이견범, 피터 로드니 외(2013). 『쉬운 언어 정책과 자국어 보호 정책의 만남』. 피어나.  
 이경우(2010). 『한국말 바로쓰기』. 역락.  
 이관규 외(2012). 『차곡차곡 읽히는 우리말 우리글 1, 2』. 박이정.  
 이광호·장소원(1994). 『국어정서법』.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이민우(1988). 『새 맞춤법·표준어에 따른 바른말 사전』. 탑출판사.  
 이상억(1994). 『국어 표기 4법 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성구(1996). 『국어 정서법』. 애플기획.  
 이승구 편저(1993). 『정서법 자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이은정(1988). 『개정한 한글 맞춤법 · 표준어 해설』. 대제각.  
 이은정(1989). 『한글맞춤법에 따른 붙여쓰기 · 띄어쓰기 용례집』. 백산출판사.  
 이은정(1990). 『최신 표준어 · 맞춤법 사전』. 백산출판사.  
 이은정(1991). 『(최신) 표준어 · 맞춤법 사전』. 국어문화사.  
 이은정(1993). 『어문규정에 따라 정리한 띄어쓰기 용례 및 해설』. 백산출판사.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 연구』. 서울대 출판부.

- 이종운(1998). 『국어의 맞춤법 표기』. 세창출판사.
- 이진희 율김(2008). 『독일어 맞춤법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창순(2000). 『프랑스어사 개요』. 신아사
- 이현복·임홍빈·김하수·박형익(1997). 『한글 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태학사.
- 이희승(1959). 『한글맞춤법통일안 강의』. 신구문화사.
- 이희승(2004). 『(새로 고친) 한글 맞춤법 강의(새로고친판)』. 신구문화사.
- 이희승(2010). 『(증보)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임성규(2008/2009/2012). 『(제3판) 교사를 위한 국어 맞춤법 길라잡이』. 교육과학사.
- 장하늘(2007). 『표기법 소사전』. 문장연구사.
- 전수태 외(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전수태 외(2005).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원.
- 전영표(1988). 『새 국어 표기법』. 동일출판사.
- 정희창 감수(2007). 『친절한 맞춤법』. 종이책.
- 조영희(1988). 『새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의 이론과 실제』. 신아출판사.
- 조영희(1992).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방법』. 신아출판사.
- 조영희(2007). 『한글의 의미적 띄어쓰기 정석』. 신아출판사.
- 최기호(1994). 『한글 맞춤법 새 길라잡이』. 토담.
- 최병선(2003). 『한글 정서법의 실제와 원리』. 경진문화사.
- 최병선(2009). 『(교양의 조건) 한글 맞춤법』. 역락.
- 최태영(1989/1991). 『한글맞춤법 강해』. 숭실대학교 출판부.
- 학문사 편집부(1997). 『국어정서법』. 학문사.
- 학술원·국어연구소(1989).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1: 발음·맞춤법 편』. 국어연구소.
- 한국 문화관광부(2010). 『국어 어문 규정집(30版)』. 대한교과서.
- 한국논술교육원(2009). 『한글 띄어쓰기 큰 사전』. 스타북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국어정서법의 종합적 검토』.
- 한글연구회(1988). 『(89년부터 시행) 새 한글 맞춤법 및 용례집』. 이시야.
- 한글학회(1980). 『한글맞춤법』. 한글학회.
- 한글학회(1989). 『한글맞춤법통일안(1933년안-1980년안 자료모음)』.
- 한용운(2004).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한국문화사.
- 훈민정음연구소(1998). 『국어 정서법 익히기』. 애플기획.
- Algeo, John(2010).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Boston, MA:Wadsworth. pp. 182-187.
- Departement of Finace and Adimistration(2002), *Style Manual:For Authors, Editions and Printers* (6th ed)
- Pam Peters(2007), *The Cambridge Guide to Australian English Usage*(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phan Gramley & Kurt-Michael Pätzold(1992), *Survey of Modern English*, London: Routledge
- Tufano, Douglas(2008), *Guia Prático da Nova Ortografia*. São Paulo: Melhoramentos.

<논문>

- 강내희(2004). 어문규범 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강인선(1988). 일본의 국어 순화 정책. 『국어생활』 가을 14호, pp.108-114.
- 姜昶錫(2002). 국어 표기법과 漢字. 『개신어문연구』19. 개신어문학회. pp.5-32.
- 姜昶錫(2005). 漢字語의 한글 표기에 대하여. 『국어학』45. 국어학회. pp.243-274.
- 고영근(1966). 현대 정서법의 몇 가지 검토. 『국어국문학』 33. 국어국문학회. pp.61-73.
- 고영근(1989). 북한의 초기 철자법과 문법 연구. 『정신문화연구』 36. 정신문화연구회. pp.171-190.
- 구본관(2008).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127. 한국어교육학회. pp.195-232.
- 구본관(2010).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 권재일(2012). 국어 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2년 겨울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어학회, pp.3-10.
- 金貞男(2009). 漢字語의 한글 標記에 나타나는 頭音法則과 그 例外 條項에 대한 考察. 『語文研究』3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63-90.
- 김건환(2003). 독일어 새 정서법에 대한 小考. 『독일어문학』 vol. 20, 한국독일어문학회, pp.283-307.
- 김경석(1990). 한글 전산화의 입장에서 살펴본 한글맞춤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교육한글』 3. 한글학회.
- 김미미(2012). 한글 자음자 배열의 역사적 변천과 그 수정의 필요성. 『국어사연구』14. 국어사학회. pp.103-131.
- 김상태(2005). <한글맞춤법>의 자소체계 연구 -정보화시대 입력단위 관점에서-. 『새국어교육』71. 한국국어교육학회. pp.405-427.
- 김성규(2012).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 김성환(1986). 띄어쓰기 원칙과 실제. 『논문집』 21. 대구교육대. pp.1-15.
- 김재원(1992). 한글맞춤법 오류의 교정 기법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2008). 한글 맞춤법의 원리: 총칙 제1항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27. 한국어의미학회. pp.21-44.
- 김종훈(1971). 한글맞춤법과 받침 문제. 『어문논집』 6. 중앙어문학회. pp.45-56.
- 김주필(2005). 한글 맞춤법 원칙의 특성과 의미. 『어문학논총』24.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pp.87-107.
- 김진규(2010). 국어정서법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한어문교육』2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201-229.
- 김한철(2009).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새로운 철자법 사용. 『포르투갈-브라질연구』 제6권 11호, pp.29-40.
- 김형규(1991). 우리어문학회 그리고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 대하여. 『국어학』 21. 국어학회. pp.3-16.
- 김형배(2004). 파생 부사의 원형밝히기와 접미사 "-이, -히"의 표기 문제 -"한글 맞춤법" 조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말연구』15. 한말연구학회. pp.121-375.
- 김형배(2007). 현행 한국어 어문규정의 문제점 -국어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22. 한민족문화학회. pp.31-58.
- 김환(1999). 독일어 정서법의 성립과 발전, 『외대논총』 제19권 5호, 부산외국어대학교, pp. 103-135.
- 김희진(1988). 쓰기 교육을 위한 한글맞춤법 개정안 변천고. 『한국교육논총』 1. 서울교육대 초등교육연구소. pp.33-77.
- 남광우(1987). 현행 맞춤법의 원리와 그 문제점. 『국어생활』. 국어연구소. pp.60-79.
- 도수희(1972). 한글 맞춤법의 개정 문제. 『어문연구』 8.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pp.93-110.

- 리의도(1983), “띄어쓰기 방법의 변해 온 발자취”, 『한글』 제132호, 한글학회, pp.195-224.
- 리의도(1995). <표준어 규정(1988)>과 <한글 맞춤법(1988)>에 대한 비판적 검토. 『國際語文』16. 국제어문학회. pp.39-60.
- 리의도(1996). <표준어규정(1988)>과 <한글 맞춤법(1988)>에 대한 비판적 검토. 『人文社會教育研究』1. 춘천 교대 인문사회연구소. pp.89-110.
- 리의도(2013),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변천, 『한글』 제301호, 한글학회, pp.143-218.
- 민병찬(2005), 일본어 가타카나어의 표기사적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24호, 한국일본문화학회, pp. 23-38.
- 민현식(1982). 국어 맞춤법의 문제점에 대하여(1). 『선정어문』 13. 서울대 국어교육과. pp.21-35.
- 민현식(1994). 국어 띄어쓰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4. 숙명여대 한국학연구소. pp.1-52.
- 민현식(2003), “언어 규범 정책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제12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7-71.
- 민현식(2008). 한글 맞춤법 교육의 체계화 방안 -문법 교육과 맞춤법 교육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試論)-. 『국어교육연구』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7-75.
- 朴德裕(1998). 國語 語文 規程에 대하여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1-24.
- 박문제(2001).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의 선정. 『국어교과교육연구』2. 국어교과교육학회. pp.173-198.
- 박수영(2007). 헝가리어 정서법의 역사에 대한 연구. 『동유럽발칸학』 9(1)호, pp.3-23.
- 박영배(2001), 영어의 정자법 : 변천과 개혁, 『어문학논총』 제20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pp. 197-226.
- 朴錠奎(2011). 國語 띄어쓰기 規定의 검토와 改善案 연구. 『語文研究』3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441-465.
- 박종원(2001), 현대호주영어특징연구, 『시민인문학』 제9호,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15-152.
- 박준범(2012).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 관련 몇 가지 문제 : 한글 맞춤법 제25항과 제51항을 중심으로. 『人文研究』 6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95-126.
- 박홍길(1988). 맞춤법과 표준말의 논의점. 『새얼어문논집』 4. 동의대학교 새얼어문학회. pp.153-214.
- 서경덕(2000), “스페인어 철자법 개정 문제에 대한 고찰”, 『스페인어문학』 제16권, 한국스페인어문학회, pp.53-71.
- 송기형·정천현(1999), 프랑스의 언어정책과 불어 사용법, 『한국프랑스학논집』 제27집, 한국프랑스학회, pp.391-411.
- 송창선(2008). 현행 한글 맞춤법의 몇 가지 문제점 - ‘아니요’와 부사화 접미사 ‘-이’, ‘-히’를 대상으로-. 『語文學』100. 한국어문학회. pp.59-84.
- 시정곤(1988). 한글 맞춤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한국어문교육』 3.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pp.62-74.
- 신창순(1991). 국어 표기법과 띄어쓰기 문제. 현산김종훈박사 회갑논총. 집문당.
- 申昌淳(1998). 複合語의 맞춤법과 國文法. 『한국어학』8. 한국어학회. pp.159-172.
- 신희삼(1993). 정서법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어문집』 12. 원광대학교대학원. pp.23-40.
- 심을석(2002), 프랑스의 언어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8집, 한국프랑스학회, pp.73-92.
- 심을석(2002). 프랑스의 언어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38. pp.73-92.
- 양명희(2013), 띄어쓰기 변천을 통해 본 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제163호, 국어국문학회, pp.197-223.
- 양순임(2011).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에 대하여. 『한글』293. 한글학회. pp.117-167.
- 양순임(2012). 'ㅎ'불규칙용언의 표기 규정에 대한 고찰. 『韓民族語文學』62. 한민족어문학회. pp.315-338.
- 양영희(2013). 아저씨의 '-씨'와 '홍 길동 씨·홍씨'의 '(-)씨'에 나타난 상호 관련성 고찰. 『한글』 299. 한글학회. pp.141-175.

- 엄태수(1998). 한글 맞춤법의 검토. 『새국어교육』56-1. 한국국어교육학회. pp.27-45.
- 엄태수(2001).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검토. 『시학과 언어학』1. 시학과 언어학회. pp.221-247.
- 엄태수(2007). 사이시옷 현상과 한글 맞춤법. 『시학과 언어학』13. 시학과 언어학회. pp.239-288.
- 여은지(2013).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의 어문 규정 교육 - 한글 맞춤법을 중심으로 -. 『건지인문학』 9.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201-228.
- 연구동(1997). 한글 맞춤법을 다시 읽는다. 『언어학』21. 한국언어학회. pp.157-184.
- 위 진(2004). /ㄸ/ 두음법칙에 대한 통시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12. 한중인문학회. pp.148-167.
- 위호정(1999).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漢城語文學』18.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pp.37-60.
- 유목상(1964). 띄어쓰기 재검. 『어문논집』 3. 중앙대학교. pp.33-43.
- 유목상(1971). 현행 띄어쓰기 개정 시론. 『문경』 28 29. 중앙대 문과대학.
- 유성희·김정남(2013). ‘X-이’형 부사와 ‘X-히’형 부사의 형태와 표기. 『우리말글』58. 우리말글학회. pp.81-126.
- 유형선(2010). 구성주의 관점으로 본 한글 맞춤법. 『한국학연구』3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5-37.
- 이관규(1995). 학교 문법,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외국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나타난 상처점. 『새국어교육』51-1. 한국국어교육학회. pp.37-57.
- 이관규(2010).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이관규(2010).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 개발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관규(2012). 한글 맞춤법의 성격과 원리. 『한말연구』 30. 한말연구학회. pp.137-158.
- 이관규·신호철(2011). 국어 어문 규범 교재의 성격과 어휘 선정 원리. 『문법교육』14. 한국문법교육학회. pp.39-71.
- 이동석(2011). 현행 사이시옷 규정과 관련된 몇 문제. 『民族文化研究』5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85-227.
- 이만기(2013). ELE 교육에서의 표준 스페인어.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4.2,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pp.223-264.
- 이상억(1983). 현대 국어 정서법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 검토. 『어학연구』 19-2. 서울대학교. pp.123-137.
- 이승왕(2011). 초등학교 국어 규범 교육 내용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왕·이병운(2010). 초등학교 국어과 맞춤법 교육의 체계화. 『한국초등국어교육』4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305-334.
- 이승욱(1991). 北韓 철자법의 體系와 變遷. 『동아연구』 22. pp.103-129.
- 이승후(2003). 한글 字母의 명칭에 대하여 : 자모 명칭에 대한 인식 정확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66. 한국국어교육학회. pp.211-235.
- 이원직(1975). 현행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개정 방향: 맞춤법의 공식화를 제기함. 『논문집』 8. 한국항공대학교. pp.183-189.
- 이익섭(2002). 띄어쓰기의 현황과 전망. 『새국어생활』 12-1. 국립국어연구원. pp.5-16.
- 이진희(2013ㄱ), 독일어의 맞춤법 개정에서 고유명사의 대문자 표기 문제”, 『독일언어문학』 제59집, 독일언어문학연구회, pp.1-19.
- 이진희(2013ㄴ), 독일의 맞춤법 개정 과정과 교훈, 『새국어생활』, 제23권 제1호, pp.146-161.
- 이현복(1979). 한글맞춤법 개정 시안의 문제점. 『한글』 165. 한글학회. pp.73-100.
- 임규홍(1995). 개정 < 한글 맞춤법 >과 < 표준어 규정 >, 그 잘못에 대하여. 『배달말교육』13-1. 배달말교육학회. pp.21-46.

- 임두빈(2008), 브라질의 언어현실과 언어사회적 편견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1호,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pp.261-294.
- 임영철(2011), 일본의 국어정책과 일본어교육, 『국어교육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pp.295-318.
- 임환재(1982), 독어표기법의 원리와 개혁의 문제점, 『박종서 교수 화갑논문집』, pp.355-388.
- 임환재(1982), 독어표기법의 원리와 개혁의 문제점. 박종서 교수 화갑논문집. pp.355-388.
- 정지영(1990), 프랑스의 언어정책: 그 역사적 배경, 『국어생활』 20호, pp.106-118.
- 정희원·위진(2011), 프랑스의 언어정책 기관, 『새국어생활』 제21권 제4호, 국립국어원. pp.185-205.
- 정희창(2011). 한글 맞춤법의 "역사적 표기법"과 교육 내용 구성. 『문법교육』14. 한국문법교육학회. pp.99-122.
- 조규태(2009). 낱말머리 "ㄴ" 표기의 바뀌어옴에 대하여. 『배달말』45.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pp.69-109.
- 최세화(1990). 국어정서법의 종합적 검토. 『정신문화연구』 13. 한국학중앙연구원. pp.180-183.
- 崔溶奇(2003). 한글 띄어쓰기의 변천 연구. 『國文學論集』19.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57-92.
- 최인실(2007). 영어권 동포아동의 효율적 한글 맞춤법 학습을 위한 기초 연구 - 뉴질랜드에서의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8-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59-486.
- 최태영(1990). 맞춤법의 띄어쓰기 문제: 국어 정서법의 종합적 검토. 제5회 학술세미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형용(2008). 사잇소리 현상과 표기. 『한중인문학연구』23. 中韓人文科學硏究會. pp.151-176.
- 최호철(1988), 북한의 맞춤법, 『국어생활』 15, 국어연구소, pp.33-48.
- 최호철(2004), 남북 띄어쓰기 규범의 통일에 대하여, 『한국어학』 제25권, 한국어학회, pp.343~364.
- 최호철(2011). 북한 『조선말규범집』의 2011년 개정과 그 의미. 『어문논집』 65. pp.251-286.
- 하성욱(2011). 고등학생용 어문 규범 지식 측정 도구 개발 연구 -한글 맞춤법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7.
- 한글학회 외(201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 한성우(2011).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 한재영(1991). 한글 맞춤법의 복합어와 파생어 표기에 대하여. 『울산어문논집』 7.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pp.15-40.
- 허재영·이규범(2011). 어문 규범 교재의 실제. 『문법교육』14. 한국문법교육학회. pp.123-151.
- 허칠구(2007).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일고. 『士林語文硏究』17. 사림어문학회. pp.183-195.
- 현대리서치연구소(2005), 어문 규범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 홍순성(1999). 현행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 몇 가지. 『한국학논집』2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97-110.
- 황은미(2013), 독일어 정서법의 역사적 발전과정1-정서법의 시작에서 18세기까지, 『독일문학』, 127, 한국독어독문학회. pp.389-407.
- 황은미(2013). 독일어 정서법의 역사적 발전과정1-정서법의 시작에서 18세기까지. 『독일문학』 127. 한국독어독문학회. pp.389-407.
- Conseil de la langue française(1984), *La langue des animateurs de la radio et de la télévision francophones au Québec*.
- Heller, K.(1996), 독일어에 대한 정보와 의견들” 『IDS 언어보고서 특별판(1996.7)』, 독일어연구소 (Sprachreport, Extra-Ausgabe Juli 1996,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Mannheim, 번역 강승태)

<기타>

<http://el-castellano.com/castidad.html>. (Joaquin Esterfania)

<http://pub.ids-mannheim.de/laufend/sprachreport/sr96-extra.html#A> (독일어 개혁 철자법 기본 원칙)

<http://www.academie-francaise.fr/> (프랑스 학술원)

<http://www.anaitica/biblioteca/rae/ortografia.asp>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pdf/jouyoukanjihyou\\_h22.pdf](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pdf/jouyoukanjihyou_h22.pdf)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pdf/kunreibesshi\\_h221130.pdf](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pdf/kunreibesshi_h221130.pdf)

<http://www.culturalpolicies.net> (언어정책 자료집)

<http://www.culture.gouv.fr/culture/delf>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

<http://www.francophonie.org/> (프랑스 어권 국제기구)

[http://www.hanaro.com.br/db\\_hanaro/view.php?id=chosun\\_sub&no=1469](http://www.hanaro.com.br/db_hanaro/view.php?id=chosun_sub&no=1469)

<http://www.spellingsociety.org/> (Spelling Reform)

<http://www1.ids-mannheim.de/start/> (독일어 연구소(IDS) 누리집)

<https://mirror.enha.kr/wiki/%ED%8F%AC%EB%A5%B4%ED%88%AC%EA%B0%88%EC%96%B4>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 3702-2100, 팩스 (02) 3702-2121, 한국갤럽홈페이지 www.gallup.co.kr, 갤럽패널홈 panel.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KOREA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A1-5

Gallup 2014-164-012

##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를 위한 일반인 의식 조사

--	--	--	--

이 설문은 2014년도 국립국어원 어문정책연구사업의 일환인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인의 언어 사용 실태를 한글 맞춤법 규정에 비추어 진단해 보고, 한글 맞춤법이 현대인의 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대행해서 진행합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모두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설문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국립국어원·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립국어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박무익  
담당연구원 한경석  
실사연구원 전정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556

### 응답자 기초 정보

▶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SQ1) 거주지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세종/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SQ2) 성 별 :**

1. 남성
2. 여성

**SQ3) 연 령 :**

1. 만 18세 이하	2. 만 19~29세	3. 만 30~39세
4. 만 40~49세	5. 만 50~59세	6. 만 60~69세
( _____ 세)		

## 가. 〈한글 맞춤법〉 자체에 대한 인식도

문1)~문7)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평상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문1) 우리나라에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2) 언론, 출판, 공문서 등 모든 공적인 상황에서 〈한글 맞춤법〉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3)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4)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한글을 사용하여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다.  
2. 표준어 규정을 강화한다.  
3. 국어사전을 보강하여 참고하게 한다.

문5) 언어생활에서 〈한글 맞춤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6) 〈한글 맞춤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7-1로)  
2. 없다 (7-2로)

문7-1) 〈한글 맞춤법〉을 배운 적이 있다면, 어디서 주로 배우셨습니까? (1군데만 응답)

- |         |         |                     |
|---------|---------|---------------------|
| 1. 초등학교 | 2. 중학교  | 3. 고등학교             |
| 4. 대학교  | 5. 문화센터 | 6. 기타(적을 것 : _____) |

문7-2) 〈한글 맞춤법〉을 배운 적이 없다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나.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

문8)~문30)은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이해도 설문(①)**은 개별 조항에 대하여 이해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고, **수용도 설문(②)**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개별 조항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8~9)

문8)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9)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10~13)

문10)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깎두기 (O) - 깎뚜기 (X),          법석 (O) - 범씩 (X)  
      몹시 (O) - 몹씨 (X),          짹둑 (O) - 짹둑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11)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예    무늬 (O) - 무니 (X),          띄어쓰기 (O) - 띠어쓰기 (X)  
      희망 (O) - 히망 (X),          하늬바람 (O) - 하니바람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12)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예	양심(良心) (O) - 량심 (X), 용궁(龍宮) (O) - 룡궁 (X),	역사(歷史) (O) - 력사 (X), 유행(流行) (O) - 류행 (X),	예의(禮儀) (O) - 례의 (X) 이발(理髮) (O) - 리발 (X)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위의 규정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13)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울'로 적는다.

예	실패율 (O) - 실패룰 (X), 백분율 (O) - 백분룰 (X),	선열 (O) - 선룰 (X) 전율 (O) - 전룰 (X)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제4장 형태에 관한 것(14~23)

문14)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들어가다 (O) - 드러가다 (X), 떨어지다 (O) - 떠러지다 (X), 홀어지다 (O) - 호터지다 (X)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15)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예	이것은 책이오. (O) - 이것은 책이요. (X), 이리로 오시오. (O) - 이리로 오시요. (X)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16)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귀머거리 (O) - 귀먹어리 (X), 마개 (O) - 막애 (X), 주검 (O) - 죽엄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17)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배불뜯이 (O) - 배불뜯기 (X), 오뜯이 (O) - 오뜯기 (X)  
빼죽이 (O) - 빼죽기 (X), 흘뜯이 (O) - 흘뜯기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18)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이튿날 (O) - 이틀날 (X), 순가락 (O) - 술가락 (X), 선달 (O) - 설달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19)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예 머릿방 (O) - 머리방 (X), 전셋집 (O) - 전세집 (X)  
콧병 (O) - 코병 (X), 등하굣길 (O) - 등학교길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20)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즉 ‘갯수(個數)’, ‘촛점(焦點)’은 틀린 표기가 된다.

예 곳간(庫間) (O) - 고간 (X), 셋방(貰房) (O) - 세방 (X), 숫자(數字) (O) - 수자 (X),  
차간(車間) (O) - 차간 (X), 퇴간(退間) (O) - 퇴간 (X), 횃수(回數) (O) - 회수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21) ‘니’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겠’으로 될 적에 준 대로 적는다.

예

되어 (O) - 돼 (O) - 되 (X),

되었다 (O) - 났다 (O) - 났다 (X)

뵈어 (O) - 뵈 (O) - 뵈 (X),

뵈었다 (O) - 뵈었다 (O) - 뵈었다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22)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그렇지 않은 (O) - 그렇잖은 (O) - 그렇잖은 (X)  
만만하지 않다 (O) - 만만찮다 (O) - 만만찮다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23)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생각하건대 (O) - 생각건대 (O) - 생각컨대 (X)  
넉넉하지 않다 (O) - 넉넉지 않다 (O) - 넉넉치 않다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제5장 띄어쓰기(24~28)

문24)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예

아는 것이 힘이다. (O) - 아는것이 힘이다. (X)

나도 할 수 있다. (O) - 나도 할수 있다.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25)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예	신 두 켄레 (O) - 신 두켄레 (X),      소 한 마리 (O) - 소 한마리 (X) 옷 한 벌 (O) - 옷 한벌 (X),      집 한 채 (O) - 집 한채 (X)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26)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단,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는 띄어 쓴다.

**예** 네가 덤벼 보아라. (O) - 네가 덤벼보아라. (O), 이 책은 읽을 만하다. (O) - 이 책은 읽을만하다. (O)  
덤벼들어 보아라. (O) - 덤벼들어보아라. (X), 이 책은 읽어볼 만하다. (O) - 이 책은 읽어볼만하다.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27)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 김양수 (O) - 김 양수 (X), 채영신 씨 (O) - 채영신씨 (X),  
최치원 선생 (O) - 최치원선생 (X), 충무공 이순신 장군 (O) - 충무공 이순신장군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28)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예** [전문 용어] 경제 동맹 (O) - 경제동맹 (O), 유행성 감기 (O) - 유행성감기 (O)  
[일반어] 경제 단체 (O) - 경제단체 (X), 몸살감기 (O) - 몸살 감기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제6장 그 밖의 것(29~30)

문29)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예** 깨끗이 (O) - 깨끗히 (X), 급히 (O) - 급이 (X), 쓸쓸히 (O) - 쓸쓸이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문30) 어미 '-(으)ㄴ'과 '-(으)ㄴ'은 예사소리로 적는다.

**예** 먼저 연락할걸. (O) - 먼저 연락할걸. (X), 나 먼저 갈게. (O) - 나 먼저 갈게. (X)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이 조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1	2	3	4	5
② 이 조항의 내용대로 실제 한글 표기를 하십니까?	1	2	3	4	5

## 자료 분류용 질문

### DQ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어업/임업
2. 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 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사)
3. 판매직·서비스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일반작업직(토목 관계의 현장 작업, 청소, 수위, 육체 노동 등)
5. 사무직·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6.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7. 전문자유직(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회계사, 종교인, 언론인, 예술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8. 가정주부
9. 학생(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0. 무직
11. 기타(적을 것: \_\_\_\_\_ )

### DQ2) 실례지만,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재학/졸업
3. 고등학교 재학/졸업
4. 대학 재학/졸업
5. 대학원 재학 이상

## 면접 후 기록

응답자 기본 정보	성명		전화번호	( ) - ( ) - ( )
				* (안내)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면접원	성명		ID	
Supervisor			검증원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ID

--	--	--	--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의견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설문은 2014년도 국립국어원 어문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한글 맞춤법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은 귀중한 정책 자료로서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립국어원 ·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연구팀

연구책임자: 이관규

공동연구원: 유현경, 허재영, 주세형,  
신호철, 이동석, 김수영

간사: 신희성 010-6545-0489

hanelpung@hanmail.net

응답자 기초 정보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1. 성 명:

2. 성 별: ☐ ① 남성

☐ ② 여성

3. 직 업: ☐ ① 국어학자

☐ ② 언론인

☐ ③ 출판인

☐ ④ 교사

☐ ⑤ 국어정책전문가

4. 소 속:

5. 연락처: 휴대 전화:

이메일:

## I. 한글 맞춤법의 내용

1-1. 한글 맞춤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총칙으로서 한글 맞춤법의 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한글 맞춤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경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1. 한글 맞춤법 제4항은 한글 자모의 종류와 순서, 이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한글 맞춤법 제4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경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1. 한글 맞춤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다음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2. 한글 맞춤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경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1. 한글 맞춤법 제30항은 사이시옷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2. 한글 맞춤법 제30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경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5-1. 한글 맞춤법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는 띄어쓰기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41항은 조사, 제42항부터 제46항까지는 의존 명사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제47항은 보조 용언, 제48항부터 50항까지는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에 대한 띄어쓰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2.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경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6-1. 한글 맞춤법 제51항은 ‘깨끗이, 열심히’와 같이 부사의 마지막 음절을 ‘이’로 표기할 것인지 ‘히’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2. 한글 맞춤법 제51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경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7. 이 외에 한글 맞춤법에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의 내용뿐만 아니라 용어나 문장, 표현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 Ⅱ. 한글 맞춤법 개정의 필요성

8.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한글 맞춤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필요성’ 정도를 √로 표시하고, 개정의 이유, 개정의 정도, 개정의 수준 및 범위, 개정의 절차 및 방식, 개정의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개정의 정도’는 전면 개정 또는 부분 개정 등의 논의이며, ‘개정의 수준 및 범위’는 조항 수준의 개정인가 예시 어휘 수정 수준의 개정인가 등의 논의이고, ‘개정의 절차 및 방식’은 일반인 참여 여부 또는 구체적인 절차의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이고, ‘개정의 시기’는 한글 맞춤법이 언제 개정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개정의 필요성	① 매우 약함	② 약함	③ 보통	④ 강함	⑤ 매우 강함
개정의 이유 (혹은 개정 반대 이유)					
개정의 정도					
개정의 수준 및 범위					
개정의 절차 및 방식					
개정의 시기	(예: 1~5년, 6~10년, 통일 후, 기타 등등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Ⅲ.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9. 현재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어문 정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 수준이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어문 정책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1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 약함	② 약함	③ 보통	④ 강함	⑤ 매우 강함
의견						
2	어문정책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 약함	② 약함	③ 보통	④ 강함	⑤ 매우 강함
의견						

10. 현재 ‘한글 맞춤법’(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은 고시(告示) 형태로 대내외에 알리

참고 사항 2. <고시>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 공시(公示)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내려진다. 대외적(對外的)이기는 하나 명령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일이 있으며, 일반 처분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의견

#### IV. 한글 맞춤법의 홍보 및 교육

11. 한글 맞춤법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한글 맞춤법을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의 주체나 장소, 방식, 평가 수단 등)

학생 대상	
일반인 대상	

## V. 기타

13. 마지막으로 위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과 별도로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를 위한 2차 전문가 의견 조사

ID

--	--	--	--

안녕하십니까?

먼저 1차 전문가 의견 조사에 응답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때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설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객관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의견을 간략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립국어원 ·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연구진

(책임 연구원: 이관규)

간사 연락처: 010-6545-0489

hanelpung@hanmail.net

### 응답자 기초 정보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1. 성 명:

2. 성 별: ☐ ① 남성

☐ ② 여성

3. 직 업: ☐ ① 국어학자

☐ ② 언론인

☐ ③ 출판인

☐ ④ 교사

☐ ⑤ 국어정책전문가

4. 소 속:

5. 연락처: 휴대 전화:

이메일:

- 1~20번의 주장에 대하여, ①~⑤에 √로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 란에는 필요할 경우에만 적으시면 됩니다.

## 1. 한글 자음자 이름을 규칙적으로 하자는 주장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이 규정에서 ‘ㄱ, ㄷ, ㅅ’의 이름을 ‘기읍, 디읍, 시읏’으로 고쳐 자음자의 이름에 적용되는 원리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ㅣ’와 ‘ㅡ’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음자의 이름을 통일시키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 2. 한글 자모자의 숫자를 40개로 하자는 주장

■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ㄲ(쌍기역)	ㄸ(쌍디귤)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ㅙ(애)	ㅚ(애)	ㅞ(에)	ㅟ(예)	ㅘ(와)	ㅙ(왜)
ㅜ(외)	ㅠ(위)	ㅡ(웨)	ㅣ(위)	ㅡ(의)	

이 규정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를 스물넉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붙임 1]의 16개 자모를 위로 올려서 상위 규정에 40자를 제시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 3. 받침 글자의 종류와 그 순서를 규정에서 명문화하자는 주장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생략>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생략>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ㅋ ㆁ ㄷ ㄲ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ㅠ ㅢ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ㅽ ㅾ ㅿ ㅿ ㅿ

<해설 보기>

붙임 1. 한글 자모 24자만으로 적을 수 없는 소리들을 적기 위하여, 두 개 자모를 어우른 글자인 ‘ㄱ, ㅋ, ㆁ, ㄷ, ㅌ, ㅍ, ㅈ, ㅊ, ㅊ’,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와, 세 개 자모를 어우른 글자인 ‘ㅈ, ㅈ, ㅈ’를 쓰고 있는 것이다.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차례를 정했는데, 글자(특히 겹글자)의 차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편찬자가 임의로 배열하는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받침 글자의 차례가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ㄱ ㅋ ㆁ ㄷ ㄲ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ㅠ ㅢ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ㅽ ㅾ ㅿ ㅿ ㅿ

현행 한글 맞춤법에는 받침 글자의 종류와 순서가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설 보기>에 있는 받침 글자의 종류와 그 순서를 규정의 붙임으로 넣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 4. ‘ㄹ’ 두음 법칙을 폐지하자는 주장

제11항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이것은 ‘ㄹ’을 한자어의 첫머리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씨 표기에서 ‘류(柳), 라(羅), 리(李)’ 표기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또 의존 명사(리), 외자인 사람 이름(신립, 채륜), 준말[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국련(국제연합)] 등의 표기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ㄹ’ 두음 법칙을 고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 5. ‘실패율, 선율’의 ‘열, 율’에 대해 애초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자는 주장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붙임 1]에서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만 ‘열, 율’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모음이나 ‘ㄴ’ 받침 외의 다른 소리 뒤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일관되게 ‘열, 율’로 적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 6. 어근에 ‘-하다’가 붙을 때 ‘-히’를 붙이자는 주장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1. ‘이’로만 나는 것

가볍이 깨끗이 나뭇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이 규정은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음이 ‘이’인지 ‘히’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발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물론 ‘깨끗이’처럼 어근이 ‘스’로 끝나는 경우 등과 같은 일부 예외는 있음.)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 7.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말자는 주장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낫병 머릿방 뱃병 붓독 사자밥 셋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 찻잔 찻종 좇국 콧병 탕줄 텃세 핏기 햇수 횡가루 횡배

이것은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규정입니다. 현행 사이시옷 규정을 준수하면, ‘한자어+고유어’ 구성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절댓값, 최댓값, 최솟값, 만뚝국, 등꽃길’ 등과 같이 한자어 부분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이시옷 없는 표기가 단어 구성 요소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하게 해주며 ‘내과, 소수점’과 같은 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한글 맞춤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댓값,

최대값, 최소값, 만두국, 등교길’과 같이 ‘한자어+고유어’ 구성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8.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여섯 개로 한정하지 말고 늘리자는 주장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이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한자어를 여섯 개로 한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개수(改修), 초점(焦點), 내과(內科)’ 등은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여섯 개에 한정하지 말고 늘리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9.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없애자는 주장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개수(改修), 초점(焦點), 내과(內科)’ 등에서는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처럼 위의 여섯 개 한자어도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10. 숫자와 의존 명사를 항상 붙여 쓰자는 주장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이 규정에 따라 숫자와 의존 명사를 띄어 쓰면 시각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예: 16 동 502 호), 숫자와 의존 명사는 항상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11. 성과 이름을 띄어 쓰자는 주장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이 규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궁억, 독고준, 황보지봉’ 같은 경우처럼 성과 이름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성과 이름을 모두 띄어 쓰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이 두 자(字)인 경우 ‘남궁 억, 독고 준, 황보 지봉’처럼 띄어 쓰면 되고, 성이 한 자(字)인 경우에도 ‘김 양수’처럼 띄어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12. 전문 용어 및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에서 붙여 쓰기를 허용하자는 주장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이 조항은 전문 용어를 단어별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전문 용어는 전체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므로 오히려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13. 의존 명사 띄어쓰기에서 붙이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이것은 의존 명사가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의존 명사는 의존성이 짙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 입장에서 문법적으로 구별해 내서 일일이 띄어서 쓰는 것이 매우 번거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는 융통성을 주어서 ‘띄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와 같이 허용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14. 보조 용언 띄어쓰기를 현실화하자는 주장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이것은 일부 보조 용언을 본용언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게 하다’, ‘-지 않다’, ‘-고 있다’ 등의 구성에서는 보조 용언을 띄어 쓰는 경우도 있고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따라서 모든 보조 용언을 일관되게 띄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15.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제29항 끝소리가 ‘ㄴ’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ㄴ’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 반짚고리(바느질~)   사흔날(사흘~)   삼짚날(삼질~)   설달(설~)
- 순가락(술~)   이튼날(이틀~)   잔주름(잘~)   풀소(풀~)
- 설부르다(설~)   잔다듬다(잘~)   잔다랗다(잘~)

이 규정에 대하여, 역사적 변천 과정과 어긋나기 때문에 본문이든 예시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컨대, ‘순가락’이 ‘숯가락 → 숯가락 → 순가락’의 변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ㄴ’ 소리가 ‘ㄷ’ 소리로 난다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_\_\_\_\_ )

16. 한글 맞춤법 개정 방향을 예외 인정과 복수 인정 쪽으로 하자는 주장

현행 한글 맞춤법은 예외나 복수에 대한 인정의 여지가 협소한 편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대폭 허용하는 쪽으로 한글 맞춤법을 개편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_\_\_\_\_ )

17.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통합하자는 주장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중복되는 설명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그 둘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표준어 규정의 일부는 한글 맞춤법에 통합시키고 개별 어휘가 표준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국어사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_\_\_\_\_ )

18. 한글 맞춤법을 전문가용으로 하자는 주장

현행 한글 맞춤법은 일반인을 위한 것으로 대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그 내용을 쉽게 홍보 및 교육만 하면 충분하다는, 즉 한글 맞춤법 규정은 전문가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_\_\_\_\_ )

19.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폐지하자는 주장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은 필요 없고 국어사전이 국어생활의 지침이 되도록 하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현재는 1957년 이후 상당수의 사전 발행과 더불어 국가에서 편찬한 표준 국어사전도 있으며 그 사전을 이용하기에도 커다란 불편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 규정만 익히면 국어 규범을 바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반 대중들은 표준 국어사전을 이용하여 국어 규범을 익혀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어 규정 자체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교육하지 말 것이며, 그 규정은 역사적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 20.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자는 주장

현행 어문 규범은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한글 맞춤법 고시를 비롯한 어문 규범 고시들은 국어기본법을 보완하는 ‘법률 보충적 고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한글 맞춤법의 법적 지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 Hangeul Orthography Impact Assessment

Hangeul Orthography Impact Assessment(HOIA) i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Language Norms Impact Assessment(LNIA) that was introduced in July 2005. According to the Korean Language Fundamental Law, the following practical contents are assigned for the HOIA to accomplish the basic data security for the improvement of Hangeul Orthography(HO).

- ① Authentic examination methodology for HO individualized provisions
- ② The general public consciousness examination for HO provisions
- ③ The expert consciousness examination for HO provisions
- ④ The guidance on improvement and it's direction for HO management procedure
- ⑤ Abstraction of the lists of HO error orthography
- ⑥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letter orthography for Nor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ere have been two expert's seminars and two consultation meetings, in addition to scholarship forum to achieve the six practical tasks. Moreover, continual debates and discussions were held with researchers' seminars and extent cooperation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NIKL). The followings are the brief summary of the result for the tasks.

Provision ① was elementally used policy Delphi method. Impact assessment undertaking signifies surveys. The basic structure for surveys used Likert 5 point criterion to secure the symmetric of criterion, and it also could attain Z examination statistics by exploiting Z-test ratio examination or Chi-squared test to probe the proportion difference among the inspected groups. Moreover, divergence and analysis (ANOVA) were used for the average disparity test among the groups. Subsequently, post examination was practiced if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difference among the groups results consequential. Gallup Korea was in charge of the general public consciousness survey for the whole regions, and the research team authorized the expert's consciousness survey for scholars, publishers, journalists, teachers, and policy experts.

In provision ②, the survey was done for the whole nation, specifically with the general public consciousness survey for HO provisions contains 7 questions of awareness and 23 questions of understanding and capacity. On the understanding section, the most responded provisions were orderly presented as 'general rules (spacing words, 74.9%), initial law(71.2%), general rules (principles, 66.9%), 'eui(-)' spelling(66.4%), and composing predicate spelling(65.6%).' On the capacity section, the most responded provisions were orderly presented as 'composing predicate spelling(69.2%), 'eui(-)' spelling(69.1%), initial law(69.1%), general rules(spacing words 68.8%), and fortis spelling(64.8%).' Even if it is not always

absolute, the higher comprehension perceived on the provisions; it is more likely to use the rules in the real life.

Provision ③ shows that the expert consciousness survey for HO was practiced twice. The survey questions divide into general and detail fields. In the expert's perspective, corrections for orthography are needed, listed in ordinal, 'initial law(두음 법칙), inter siot(사이시옷), spacing(띄어쓰기), adverb derivation suffix.' Results of expert survey are in line with those of public survey in general ; however, initial law has shown a contradictory result each other. That is, the general public consciousness only allows the public to recognize that 'l, n' simply do not go along with initial, and that they are not fully aware of various complex rules for initial law. It seems that the disparity occurred due to the expert's view on the detailed content, that is, 'yeol, yul(열, 올)', while the public is only familiar with the general rule which 'l, n' cannot be placed in initial. On the other hand, most experts disagreed on corrections for the general rul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orthography. The experts believed that HO is for the public, and problems in the provisions are with revision, other than innovation.

In provision ④, we searched the consciousness of the public and the expert on the guidance on improvement and it's direction for HO management procedure. Although most of the opinions argue that the current legal status of orthography, called 'notice'(고시), must be reasonable and lack of a force, there were several persuasions that the legal status can have a big impact on language policy. Various ideas about broadcasting or campaigning, in addition to books, applications(App) or orthography checking devices, etc were indicated for publicity. Furthermore, different suggestions were proposed to create an appropriate environment as significantly as to develop the orthographic education in elementary and middle/high school.

In provision ⑤, the collected data for 4 years from the NIKL and online ganada(가나다) data were used to extract error items. More errors were overwhelmingly found in inter siot(31.93%), which had taken a place for the 2nd, distinguishing of stem and ending(어간과 어미의 구별, 10.22%). Also, the errors that were found in spacing, when they were individually seen, were 'numeral determiner + unit bound noun'(수 관형사+단위성 의존 명사, 26.32%), and 'noun + bound noun'(체언+의존 명사, 24.09%). There is a probability of revision for orthography provisions which are to be objects of high in status on the list of error items.

For provision ⑥, we looked at spelling patterns in North Korea, Japan, England, USA, Australia, Germany, France, Spain, and Brazil. *Norms of Korean*(조선말규범집, 2010) was newly published in North Korea to show their characteristics of empathizing the practicality despite of remaining their formality. Japan looks at the procedure aspects, considering the traditional wording system, even with their intricate combinations of Chinese characters and kana letters. English speaking countries such as England, USA, and Australia do not apply centralist control of spelling standard nor strictly regulate the orthography. However, some countries like USA have recently pointed to easy language orthography, and Australia aimed to simpler and clearer orthography. There have been changes among the language users recently in Germany and France where they normally have been strictly keeping their traditional orthography. France still has a lot of conservative groups that empathizes formality, but they

are mainly inclining to consider the convenience for users. Because Spain and Brazil have wide regions that utilize the similar languages, they maintain the consistence system. But they have agreed that the changes for regional pronunciations cannot be helped.

If one asks who the orthography is for, the answer must be for the public. If the general public feels the difficulty of the orthography, some parts must be revised instead of innovation. Also, the course must be directed towards the ease for the usage of the language. There is a law when there is a nation, but the nation does not exist for the law. Hangeul Orthography is one of the laws.

**Keywords:** Hangeul Orthography(HO), orthography provision, actual survey, the public consciousness survey, the expert's consciousness survey, awareness, understanding, capacity, management procedure, improvement direction, lists of error orthography, orthography of North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Project Director:** Lee Kwankyu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관규

공동연구원 유현경, 허재영, 신호철  
이동석, 주세형, 김수영

연구보조원 김부연, 유미향, 박보현  
이규범, 이경숙, 정지현, 김미미

보조원 신희성, 이지현

담당연구원 이대성(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4년 12월 18일

발행일: 2014년 12월 20일

인쇄: 합진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